



< 報 叢 >

- △ 金中央情報部長 空軍來訪
- △ 建國機退役
- △ 指揮官 特別政訓教育 實施
- △ 中央 滑空訓練所 成立
- △ 十·二行軍 有功將兵 表彰
- △ 駐日 美空軍사 順天災民에 衣類寄附

☆ 送 年 辭

空軍參謀總長 張 盛 煥 (一)

이달의 말 돌이켜 보는 마음

申 一 澈 (二)

62年의 回顧

- 再建國民運動의 展開와 그 成果 李 順 鍾 (一)
-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展開 李 煥 逸 (二)
- 軍事部門의 總決算 禹 炳 奎 (三)
- 宇宙科學分野의 回顧 李 鍾 秀 (四)

空軍用途單座戰術棧의 運用論

尹 應 烈 (五)

人間의 權利 人間의 尊嚴性

金 箕 斗 (六)

座 談 會

백차꿈을 바라보며

金 斗 庚 (七)

만화·除夜의 鍾이 울릴 때

高 金 斗 庚 枝 彦 (八)

原子力時代와 民主主義(下)

金 斗 庚 枝 彦 (九)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전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전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혁명의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조속히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2

송년사(送年辭)

참모총장(參謀總長) 공군중장(空軍中將) 장성환(張盛煥)



친애(親愛)하는 장병제군(將兵諸君)

찬란한 재건과업수행(再建課業遂行)의 해 1962년(一九六二年)을 보냄에 제(際)하여 본관(本官)은 먼저 그간 국가방위의 최전선(最前線)에서 불철주야(不徹晝夜) 조국(祖國)의 하늘을 지키며 혁명과업완수에 심혈(心血)을 기울여 온 장병제군(將兵諸君)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는 국제적(國際的)으로나 국내적(國內的)으로나 커다란 전진(前進)의 해였다.

국제적(國際的)으로는 동서냉전(東西冷戰)의 각축전(角逐戰)에서 항상 평화(平和)를 희구(希求)하고 있던 자유진영(自由陣營)이 심기일전(心機一轉) 적극적으로 나아가 월남(越南)에서의 공산군의 압축(壓縮), 쿠바에서의 공산기지(共產基地)의 추방(追放) 등을 감행함으로써 세계적화(世界赤化)의 야욕(野慾)에 광분(狂奔)하고 있는 공산도당(共產徒黨)의 굴복(屈服)을 전취(戰取)하여 동서냉전(東西冷戰)의 새로운 기원(紀元)을 마련하였고, 국내적(國內的)으로는 확고(確固)하고도 안정(安定)된 기반(基盤) 위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五個年計劃)을 실천하는 한편 새 헌법을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해 확정(確定)함으로써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의 기초를 닦는 역사적과업(歷史的課業)을 예정(豫定)대로 완수(完遂)하여 국가백년(國家百年) 대계(大計)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공군(空軍)으로서는 연내(年來)의 숙원(宿願)이던 동양굴지(東洋屈指)의 항공창(航空廠)이 준공(竣工)되는 한편 신예기도입(新銳機導入)을 앞두고 광주기지(光州基地)가 기공(起工)되는 등 날로 발전하는 공군(空軍)의 면목(面目)을 더욱 새로이 하였다. 한편 속출(續出)하는 만시간무사고(萬時間無事故) 비행기록수립(飛行記錄樹立)은 각종항공기(各種航空機)의 아이덴 성과와 함께 약진(躍進)하는 우리의 조종기술(操縱技術)과 정비기술(整備技術)의 위용(偉容)을 과시(誇示)하였다.

뿐만아니라 18개(一八個)에 달하는 지도부락(指導部落)을 결연(結緣)하고, 이에 물심양면(物心兩面)의 협조(協助)를 줌으로서 농촌지도(農村指導)에 솔선함은 물론, 한수해대책(旱水害對策)에의 적극지원(積極支援) 등 각종(各種) 재건활동(再建活動)에도 모범적역할(模範的役割)을 다해 왔다.

생각건대 이러한 성과는 물론 정부당국(政府當局)의 현명(賢明)한 시책과 후방국민(後方國民)의 성원(聲援)에 힘입은 바 큰 것이지만, 반면 제반난관(諸般難關)을 극복(克服)하고 소기(所期)의 성과달성(成果達成)에 각고(刻苦)의 노(勞)를 다 해온 전장병문관제군(全將兵文官諸君)의 공로(功勞)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留意)해야 할 것은 연초(年初)의 계획(計劃)과 오늘의 실적이 불일치(不一致)된 점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 번 성의(誠意)껏 검토(檢討)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대에 있어서는 계획(計劃)과 실천이 완전일치(完全一致)되어야 하는 특수성(特殊性)을 고려할 때, 좀더 반성(反省)하고 분발(奮發)해야 할 점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다고 본다.

이에 본관이 1962년(一九六二年)을 보내는 세모(歲暮)에 서서 장병제군(將兵諸君)에게 특히 당부하는 것은, 조용히 지난 한 해의 업적을 돌아보며 이에 대한 냉정(冷情)한 비판(批判)을 가함으로써 신예기도입(新銳機導入) 등 보람찬 과업(課業)들을 가지고 찬란히 밝아오는 재건(再建)의 해 1963년(一九六三年)을 맞을 굳건한 결심을 새로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임무수행중(任務遂行中) 산화순국(散華殉國)한 전우(戰友)들의 영령(英靈)앞에 삼가 전장병(全將兵)과 함께 명복(冥福)을 빌며, 또한 그간 우리 공군 발전에 초석(礎石)의 임무(任務)를 다하고 신예기와 대치(對置)되어 퇴역(退役)한 건국기(建國機)에 대하여 석별(惜別)의 뜻을 표(表)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장병제군(將兵諸君)의 건투(健鬪)를 축원(祝願)해 마지 않는 바이다.

1962년 12월 일

송년송

고되다.
고된대로 한해는 가고
모질게 이룩되는
나의 연륜(年輪).

진실로
산다는 것은 힘에 벅차고 고되다.
하지만 힘에 벅찬 일이므로
지성(至誠)껏 살아온
지난 한해의 보낸 나날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쉽고도 용역(容易)한 일이라면
무슨 보람으로
이를 악물고 지성(至誠)껏 살가부나.
바람이 사나울수록
허리가 휘어질수록
줄기차게 버티는
저 수목(樹木)의
정정한 모습을
그 강인(強韌)한 생명(生命)의 잔(盞) 위에
넘치는 환희(歡喜)를
그 영광을.
괴롭다.

괴로운 데로 한 해는 가고
성의(誠意)를 다한
우리의 지난 나날을
이제
뉘우침 없는 편안한 마음이
높은 종루(鍾樓)의,
줄을 당긴다. 종(鐘)이 울리는.
잘 가라... 1962년(一九六二年).
울려퍼지며 사라지라. 1962년(一九六二年).
고별의 다정한 미소(微笑)를 보내라.
1962년(一九六二年).

박목월(朴木月)

1.

“과거를 묻지 말라” 그리고 “전진(前進)하라”라고 충고(忠告)하는 말이 들린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 때 자꾸만 밝아온 족적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확실히 전진(前進)을 저지하는 소극적(消極的) 장애(障礙)라고 할 수 있다. 청년(靑年)은 희망(希望)에 살고 노인(老人)은 추억(追憶)에 산다는 말은 진부한 금언(金言)이나 청년(靑年)들이 조로(早老)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시로 되짚어 보아야 할 금언(金言)이다. 두 바퀴만을 가진 자전거(自轉車)가 좌우 어느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이치(理致)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 자전거(自轉車)가 제 자리에 서있다면 어느 편으로든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전진 할 때에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물리(物理)는 우리 개인과 사회를 위해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反復)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해가 갈아들더라도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절(四季節)처럼 거기에 질적발전(質的發展)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역사속에는 새로운 미래(未來)를 창조(創造)하는 인간의 역할이 무시되었다는 결론(結論)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들의 주장처럼 역사는 물질적(物質的) 조건에 의해 결정(決定)돼 있다는 일종의 숙명관(宿命觀)을 따른다면 인간이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하는 적극적 측면(側面)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역사를 “반복(反復)”이 아닌 창조(創造)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歷史)가 한낱 과거의 반복(反復)이라는 것은 과거에 새로운 것이 보태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안정(安定)이나 현상유지(現狀維持)라기 보다는 시간상(時間上) 하나의 후퇴(後退)를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침체성(沈滯性)인 것이다. 그리고 침체(沈滯)는 결국에 가서는 사멸(死滅)을 결과하고야 만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생활(個人生活)에 있어서나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있어서 과거에의 후퇴(後退)를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반성(反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만물(萬物)은 유전(流轉)한다” 이 말은 헤라클레이토스 이래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생명(生命)의 말이다. 흐르지 못하고 한곳에 고인 물은 썩고야 만다는 것은 개인이나 역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수시로 뒤로 박차고 부단히 미래(未來)로 나가는 현재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은 엄숙하고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思考)나 행동(行動)이 현재 내지는 현실(現實)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력(無力)하거나 무의미(無意味)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시점(時點)에서 모든 문제를 출발시켜야 하며 거기에 해결의 열쇠도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十七年前)의 과거를 보던 눈으로는 그 때와는 딴 판으로 변화(變化)한 국내외정세(國內外情勢)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으며 18세기(十八世紀) 존 로크가 산 영국에서 나온 낡은 자유주의(自由主義)를 오늘날 신생국가(新生國家)들의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인비는 “모든 역사(歷史)는 현대사(現代史)이다” 라고 말했다. 역사는 그 시대마다 당시대(當時代)의 관점(觀點)을 가지고 다시 쓰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는 같은 것 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과거를 뒤돌아 볼 때마다 그



이달의 말

말이여라 국민이여라

민족사(民族史)의 새 기원에 대해

고대 문리대 강사 (高대文理大 講師) 신일철(申一澈)의 강연(講演)을 엮은 책

관점(觀點)이 달라져야 하며 시간상(時間上) 그 만큼 전진(前進)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콜링우드도 “어떤 역사가(歷史家)가 연구하는 과거는 죽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직도 현재에 살아있는 과거이다”라고 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현실(現實)에서 비롯해야 하며 미래(未來)의 전진(前進)을 위한 스테핑·스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해를 앞으로 바라보며 묵은해를 보내는 이 세말(歲末)에 돌이켜 보는 마음가짐 역시 그러한 것이다. 현재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없고 과거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후진국(後進國), 민주주의, 혁명, 재건(再建), 경제계획(經濟計畫), 부정(不正), 부패(腐敗), 인간혁명(人間革命), 지도자(指導者) 등 지난해에 붐을 일으킨 유행어(流行語)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역시 민정(民政)의 길목에선 현재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17년간(十七年間)의 민주주의실패(民主主義失敗)의 역사(歷史)를 반성(反省)하는 마음가짐 역시 미래(未來)에의 밑받침으로서 현재에 서서 검토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현재는 과거와 미래(未來)의 한 종합(綜合)이며 따라서 과거는 현재속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철학자(哲學者) 화이트 헤드가 쓴 “위티”의 한 예를 들어보자.

영국상원의회(英國上院議會)에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討論)한 후 투표에 들어가게 되었다. 반대되는 두 파(派)는 자기들의 지지자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한 파(派) 서는 자기 의원 한명이 정신병(精神病)으로 인해 결석(缺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결의(決議)하는 날 이 열 빠진 상원의원(上院議員)을 의사당(議事堂)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동료 한 명은 뒤에서 밀고 다른 한명은 그의 코앞에 그가 좋아하는 인삼(人蔘)을 매달고 따라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현실(現實) 역시 과거는 뒤에서 밀고 미래(未來)는 코앞에 매달려 있는 그런 입장(立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E. H. 카의 말처럼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과거로부터 해방(解放)시키는 것도 아니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정복(征服)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말(歲末)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지난해를 로맨틱한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돌이켜보며 값싼 감상(感傷)에 잠기는 것이 일쑤이다. “별써 한 해가 가고” “나도 한 살 더 나이를 먹었다”는 우수(憂愁)에 젖어 보는데 그친다. 그리고 지난해의 사건(事件)들 중 기억에 떠오르는 것을 몇 가지 열거(列擧)해 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회고취미(懷古趣味)나 이야기 거리로 여기고 그 이상 그런 사건(事件)에 대한 주체적(主體的) 반성(反省)이나 비판(批判)을 시도(試圖)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인(韓國人)의 전통은 “과거를 사랑하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공자(孔子)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고 해서 자기의 학문적태도(學問的態度)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조술(祖述)”할 뿐 창작(創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 동양인(東洋人)의 정신(精神)속에는 너무나 강한 복고(復古), 상고관념(尙古觀念)이 뿌리하고 있어서 예리한 비판(批判)의 성장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개는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의 포로(捕虜)가 되어 현재와 미래(未來)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고 이른바 아시아적(的) 정체성(停滯性)을 묵수(默守)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역사(歷史)의 창조(創造)를 위해 과거를 정복(征服)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의 환상(幻想)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과거로부터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를 위해 정복(征服)하는 고역(苦役)이 동반(同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민족사(民族史)의 온갖 악유산(惡遺産)의 목록(目錄)을 조사정리(調查整理)하고 청산(清算)을 위한 대책(對策)을 세움으로서 현재에 과거가 진정으로 다시 살고 미래(未來)를 위한 올바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라는 자기의 좌표(座標)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를 돌이켜 봄과 동시에 미래(未來)에의 조망(眺望)을 겸비(兼備)해야 한다. 우리 민족(民族)은 지금 혁명도상(革命途上)에 처해있고 AA블럭에 속하는 신생국가군(新生國家群)의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물결 속에서 선진제국(先進諸國)이 걸은 길보다는 지름길이 되는 ‘자기의 길’을 모색(摸索)하고 있다. 그 길이 어떤 개인의 자의(恣意)나 외부압력(外部壓力)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民族史)의 과거로부터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고 또한 현재 우리가 미래(未來)를 위한 위험(冒險)을 도하는 방향(方向)에 따라서 결정(決定)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다보는 마음속에는 미래(未來)를 창조하려는 행동(行動)에의 정열(情熱)이 있는 것이며 그 정열(情熱)은 반드시 과거에 대한 반성(反省)에 기초해야 비로소正道(正道)를 탈선(脫線)하지 않는 지름길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3.

1962년(一九六二年)을 보내는 이 해의 저녁노을에 물든 늦가을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오는 새 봄의 푸른 싹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런 희망(希望)과 통찰(洞察)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를 보낼 때마다 다난(多難)한 한 해를 보냈다고들 말한다. 사실 1년(一年) 365일(三百六十五日)에 다난(多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평화시(平和時)에도 역시 난문제(難問題)들은 항상 인간을 괴롭혀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르트르가 '인간은 자유(自由)라는 이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유(自由)를 향유하는 한 그 자유에 대한 책임(責任)의 무거운 짐을 면할 수 없으며 만일 그것을 면하려고 할 때에는 맹종자포자기(盲從自暴自棄)를 의미하게 됨으로 이는 자유(自由)에 대한 모독이요 인간성에의 반역(叛逆)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인간은 항상 난문제(難問題)와 대결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한시라도 떠날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은 이른바 현실도피(現實逃避)로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비겁(卑怯)이요 자기(自己) 모독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現實)과 항상 대결(對決)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요. 그것이 참다운 자유(自由)에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대로(大路)가 아니라 지드의 이른바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은 나 자신의 경건한 반성(反省)과 피나는 자기비판(自己批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真理)와 정의(正義) 그리고 자유(自由)는 남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손으로 획득하고 전취(戰取)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선불리 비판론자(悲觀論者)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民族)은 나쁜 습성(習性)을 허다히 지니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든가 누적된 빈곤(貧困)을 극복할 도리가 없다고 단정(斷定)하는 따위의 생각은 인생과 세계를 피상적(皮相的)으로 보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요 안역(安易)한 냇두리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장래에는 만사가 다 잘될 것이란가 복(福)이 올 운수(運數)라고 하는 숙명관적(宿命觀的)인 낙관주의(樂觀主義) 역시 그러하다.

모험(冒險)의 정신을 가지고 현실(現實)을 개척(開拓)해야 한다.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老人)'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토록 노쇠한 노인(老人)도 사자(獅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꿈, 패북주의적(敗北主義的)인 꿈만을 꾸어 왔다. 이제는 우리도 호랑이의 꿈을 꿀 수 있는 청춘(青春)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늦은 후진국(後進國)'이라는 말보다 '새로 일어나는 나라(The emergine nation)'라는 말을 택하자.

우리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民族)은 이제 과거를 되풀이하기에는 너무도 지치고 말았다. 인간혁명(人間革命) 사회개혁(社會改革)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의욕(意慾)만이 앞선 한낱 유토피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켜 보고 역사(歷史)를 돌이켜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만 내다보며 아래와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비분강개 형(型)을 경계하며 애국자전매특허권(愛國者專賣特許權)을 가진 듯이 착각하는 독선(獨善)도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 삼면기사(三面記事)를 보고 비분강개하여 책상을 치는 것만으로 나라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통찰(科學的洞察)과 역사적(歷史的) 반성(反省)이 같이하지 않으면 자가도취의 희극(喜劇)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명령(命令)을 시달하는 것이 능자(能者)가 아니라 명령(命令)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선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오라고 명령(命令)하기는 쉬우나 그보다는 따르게끔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 해 저무는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역사(歷史)를 깊이 반성(反省)하는 시간을 가지자. 민족사(民族史)를 돌이켜 보는 마음의 터전 위에서 튼튼한 애국애족(愛國愛族)하는 마음이 다시 싹터야 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가장 엄숙한 시간이요 가장 고귀한 시간이다. 그것이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새벽의 기원(祈願)이기도 할 것이다.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전개와 그 성과

〈재건국민운동본부요원교육과〉
이순중(李順鍾)

1. 재건국민운동의 전개

혁명은 항상 소수 '엘리트'가 일으키지만 성취된 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제2혁명(第二革命)으로서 범국민적인 국민운동을 통해서 진행(進行)된다. 혁명은 그 초기의 과도적(過渡的) 긴장상태(緊張狀態)를 지속(持續)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의 다음 단계에 적합한(適合)한 정치적 지도력(指導力)을 형성하여 혁명이 개혁적(改革的) 국민운동을 통한 국민혁명으로 탈피과정(脫皮過程)을 밟지 않으면 사회적 안정(安定)은 물론 혁명의 성공적인 결실(結實)을 얻지 못하게 된다.

5.16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구정권(舊政權)이 무너지자 혁명추진(革命推進)의 역점(力點)이 국민운동에 놓이고 '엘리트'에 의한 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전개시키는 몫을 국민운동이 담당(擔當)하게 되었음은 논리적(論理的) 귀결(歸結)이었다.

사회적 기초없는 혁명은 정변(政變)에 그치게 되므로 국민운동은 혁명을 국민 편으로 옮기는 모체(母體)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5.16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국민운동의 탄생(誕生)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혁명정부(革命政府)는 곧 1961년6월12일 국민운동추진체(國民運動推進體)로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발족(發足)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초창기(初創期)에 있어 국민운동에 대하여 호감(好感)을 가졌던 사람들은 매우 적었고 도리어 지난날 정치적으로 쓰러린 경험(經驗)을 가진 국민들은 국민운동을 의심(疑心)으로 가득 찬 눈으로 냉안시(冷眼視)하고 진정(眞情)으로 이 운동에 뛰어 들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제시대(日帝時代)의 국민총력연맹 때부터 범국민적인 조직에 의해서 한 번도 국민자신(國民自身)이 이익을 본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가지가지로 정치에 악용(惡用)당하고 말았다. 사실 過去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국민자신(國民自身)을 위한 국민조직이 되어 본 일도 없었다. 그 결과 국민운동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구심(疑懼心)과 조심성(操心性)을 가지고 대하는 바 되어 지도자(指導者)들의 심혈(心血)을 기울인 지도(指導)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 국민운동은 지지부진(遲遲不振)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61년 9월말일을 기하여 제1차 기구개혁(機構改革)을 단행하여 국민운동의 주체세력(主體勢力)을 구세대(舊世代)로부터 새 세대(世代)로 옮기게 하였다. 즉 가장 활동력(活動力)이 강하고 또 용감(勇敢)하게 넓은 말을 벗어 버릴 수 있는 남녀청년(男女靑年)들을 혁명과업완수의 중추적(中樞的) 세력(勢力)으로 육성(育成)하기 위하여 자연부락단위(自然部落單位)로 전국에 걸쳐 재건청년회(再建靑年會) 재건부녀회(再建婦女會)를 조직하고 확고(確固)한 승공민주이념(勝共民主理念)과 뜨거운 향토재건(鄉土再建)의 의욕(意慾)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주효(奏効)하여 청년회(靑年會) 부녀회(婦女會) 활동(活動)은 조직이 끝난지 일천(日淺)함에도 불구하고 전국방방곡곡(全國坊坊谷谷)의 산간벽지(山間僻地)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전개되어 혁명과업완수에 대한 굳은 결의(決意)와 향토재건(鄉土再建)에 대한 왕성(旺盛)한 의욕(意慾)을 충일(充溢)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온 국민들은 차츰 국민운동이 전일(前日)의 부패(腐敗)한 정객(政客)들이 정치도구(政治道具)로 쓰기위한 조직체(組織體)와는 성격(性格)이 근본적(根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운동은 확실히 후진사회(後進社會)의 재건(再建)의 중요한 방편(方便)이요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지도세력(指導勢力)을 형성하는데 공헌(貢獻)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의욕(意慾)이 고조(高調)될 때를 같이하여 최고회의의장(最高會議議長)은 62년도 시정방침(施政方針)에서 '혁명과업수행대열(革命課業遂行隊列)에 민족(民族)의 총역량(總力量)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민조직과 국민훈련(國民訓練)을 강화하여 승공민주이념(勝共民主理念)을 확립할 것이고 국민도의(國民道義)와 민족정의(民族正義)를 앙양(昂揚)하여 국민정신(國民精神)을 진작(振作)하기 위한 범국민운동(汎國民運動)을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천명(闡明)함으로써 국민운동에 새로운 전기(轉機)는 마련되었던 것이다. 실로 혁명 제2차년도(革命第二次年度)인 1962년도(一九六二年度)는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하나의 실천적(實踐的) 기점(起點)이었고 또한 구악(舊惡)과 악습(惡習)을 일소(一掃)하고 새로운 질서(秩序)와 국민도의(國民道義)에 입각(立脚)한 복지국가건설(福祉國家建設)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強力)한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해에 들어서자 곧 제2차 기구개편(第二次機構改編)을 단행하여 지금까지 국민운동이 피동적(被動的)으로 정부시책계몽선전(政府施策啓蒙宣傳)에 그치는 우회적(迂迴的) 소극적(消極的) 방법을 지양(止揚)하고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주체세력(主體勢力) 육성(育成)을 위하여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국가재건사업에 참여(參與)할 수 있는 길을 닦아왔다.

2. 1962년도 국민운동성과

가. 청년교육사업

민족운동의 주체세력(主體勢力)은 어디까지나 청년(靑年)이다. 특히 후진국(後進國)에 있어서는 젊은 지식인(知識人)의 참여(參與)없이 운동은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따라서 국민운동에

필요한 것은 국민운동의 ‘엘리트’를 마련하고 이 ‘엘리트’가 얼마나 혁명과업(革命課業)을 추진하는가에 문제의 핵심(核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로 이 운동의 중추세력(中樞勢力)이 될 청년(青年)을 위한 교육사업(教育事業)이다. 교육의 혁명없이 한 국가(國家)나 민족(民族)의 혁명은 그 결실(結實)을 보지 못한다. 사회개조(社會改造)에 있어서도 교육처럼 근본적(根本的)인 구실을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혁명은 인민(人民)에 의해서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력(指導力)을 가진 새로운 사회세력(社會勢力)에 의해서 의지되어 왔다. 후진국(後進國)의 혁명은 주로 사회개혁(社會改革)에 대한 새로운 철학(哲學)을 가진 소수(少數) ‘엘리트’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것이 국민운동이 젊은 ‘엘리트’의 육성(育成)에다 중점을 둔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62년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힘과 정력(精力)을 집중시킨 것은 청년교육사업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급년에 들어와 국민운동 각급지도요원(各級指導要員) 특히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재건부녀회(再建婦女會) 대표들에게 일주일간 내지(乃至) 이주일간의 합숙훈련(合宿訓練)을 실시하여 예상외(豫想外)로 다대(多大)한 성과를 올렸다. 그 뿐만 아니라 각도(各道) 및 시군(市郡)에서 교육적(教育的) 성과의 큼에 비추어 도비(道費) 및 지방비(地方費)로서 보다 많은 청년(青年)들의 교육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금년도(今年度) 교육목표(教育目標)인 9만명의 약 2,30%를 초과(超過)한 십여만명에 대하여 재건국민교육(再建國民教育)을 이수(履修)시킬 수 있었다. 그 외(其外)에도 시군구(市郡區) 전입강사 182명으로 하여금 각읍면동(各邑面洞)을 순내(巡廻)하면서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및 재건부녀회(再建婦女會) 회원교육(會員教育)을 실시케 하였다. 62년도 순회교육대상인원(巡迴教育對象人員)을 약 110만명으로 집약(集約)하나 예산부족(豫算不足)에도 불구하고 8월31일 현재 그 60%에 해당하는 70만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므로 잠재적(潛在的) 국민역량(國民力量)의 배양(培養)에 지대(至大)한 업적을 쌓았다. 따라서 우리는 청년교육사업 전도(前途)에 무엇보다도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향토재건사업(鄉土再建事業)

국민운동은 가장 활동력(活動力)이 강하고 또 용감(勇敢)하게 낡은 탈을 벗어 버릴 수 있는 남녀청년(男女青年)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완수의 전위적(前衛的) 역할을 담당(擔當)케 하고 이들을 혁명주체세력(革命主體勢力)으로 육성(育成)하기 위하여 자연부락단위(自然部落單位)로 전국에 걸쳐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재건부녀회(再建婦女會)를 조직하고 확고(確固)한 승공민주이념과 뜨거운 향토재건(鄉土再建)의 의욕(意欲)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의외로 짧고 빠른 시일에 재건(再建)의 메아리 소리는 전국 하늘에 드높이 울리게 되었다.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및 부녀회(婦女會) 회원(會員)들이 다투어 향토재건(鄉土再建)에 전력(全力)을 기울인 결과 전국에 걸쳐 실로 방대(龐大)한 길이의 농로(農路)가 확장(擴張)되었고 마을마다 부업이 개량되고 흠뻑돌담이 깨끗이 쌓이는 등 나날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구습(舊習)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기풍(氣風)을 진작(振作)시키어 가는 곳마다 건전(健全)한 재건(再建)의 회오리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지적하여 ‘언커크’는 1962년도 유엔 총회연례보고서에서 ‘생산(生産) 생활개혁(生活改革)을 위한 농촌청년남녀 집단(集)의 조직(組織) 계몽(啓蒙)과 자립(自立)을 위한 현실적(現實的)인 방도(方途)’라고 찬양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및 부녀회(婦女會)의 향토재건(鄉土再建)을 위한 활동양상(活動樣相)과 그 눈부신 업적은 외국(外國)사람의 이목(耳目)에까지 새로운 인식과 최대(最大)의 관심(關心)을 주게 되었음은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이 62년도 최대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동포에 발양사업(同胞愛 發揚事業)

어느 시대(時代) 어느 사회를 막론(莫論)하고 행복(幸福)을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는 불행(不幸) 속에서 신음(呻吟)하는 사람이 더 많다. 특히 한국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후진성(後進性)으로 인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속에서 경제생활(經濟生活)은 파행일로(跛行一路)를 달리게 되어 마침내 부인부 빈익빈의 현상이 커졌을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사이에도 불균형적(不均衡的) 구조가 형성되어 여기서부터 갖은 사회적 불안과 병폐가 야기되었다.

이들 제악인(諸惡因)을 불식(拂拭)하고 사회전체(社會全體)의 균형적발전(均衡的發展)과 국민전체의 복리증진(福利增進)을 위한 동포에발양사업(同胞愛發揚事業)이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즉 빈한벽지(貧寒僻地)의 농어촌부락의 자조자립정신(自助自立精神)을 배양(培養)시켜 문화적 퇴역성(退墜性)과 경제적(經濟均) 후진성(後進性)을 극복(克服)하고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성(均衡性)있는 발전을 위한 자매부락결연운동 국내외(國內外)의 성금(誠金)에 의하여 농촌 재건사업을 돕는 사랑의 금고운동(金庫運動) 폐지수집(廢紙蒐集)에 의한 농어촌의 문화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농촌문고설치운동(農村文庫設置運動)을 비롯하여 불의의 천재지변(天災地變)을 당하여 사지(死地)에서 방황(彷徨)하는 이재민(罹災民)들의 구호(救護) 및 복흥(復興)을 위한 전국재해대책위원회(全國災害對策委員會)가 조직되어 민간모금운동(民間募金運動)을 전개하여 정부시책(政府施策)의 장기적(長期的)인 구호사업(救護事業)을 뒷받침하고 있다.

작년(昨年)의 남원(南原) 광주지구(廣州地區) 급년의 순천지구(順天地區)의 수해민(水害民) 구호(救護)와 재건(再建)을 위하여 전국재해대책위원회(全國災害對策委員會)가 얼마나 눈부신 활동(活動)을 하였는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무의탁용사(無依託勇士)와의 결연(結緣) 및 고아원(孤兒院)의 결연운동(結緣運動)을 적극(積極) 추진하여 불우(不遇)한 동포들을 구호(救護)하기 위한 동포에발양사업(同胞愛發揚事業)이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의 그 귀추가 한국의 복지 국가건설에 큰 초석(礎石)이 될 것이 확실하다.

라. 국민교양사업(國民敎養事業)

제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고 정부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政策)을 강력(強力)히 추진한다 해도 이를 능히 소화(消化)시키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적(國民的) 역량(力量)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허사(虛事)로 되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국민운동의 하나로 국민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국민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로 전국의 재건청년회(再建青年會) 부녀회(婦女會)가 주동(主動)이 되어 각각 자기 부락(部落)의 문맹자교육(文盲者教育)을 실시하여 급년에 들어 20세이상의 문맹자(文盲者) 140여만명중 약60만명을 눈뜨게 하였음은 과거에 보지 못하던 거사(巨事)였다.

둘째로 매주(每週) 화요강좌를 전국적으로 개최(開催)하여 많은 성인(成人)들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줌으로써 교양(敎養)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재건통신교재(再建通信敎材)를 매월발간배포(每月發刊配布)하여 재건국민운동일선요원(再建國民運動一線要員)들의 지도자적(指導者的) 자질(資質)의 향상과 일반국민(一般國民)들의 민생활(民生活)에 도움이 되는 기능(技能)의 함양(涵養)을 도모하는 동시에 반공의식(反共意識)의 고취(高擧) 허례허식(虛禮虛式)의 일소(一掃) 및 표준의례어행등(標準儀禮勳行等)의 교육사업(敎養事業)을 함으로써 생활합리화(生活合理化) 및 개선을 촉구(促求)하며 구습(舊習)을 타파(打破)하여 급속도(急速度)로 현대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실(現實)에 적응(適應)할 수 있는 국민들의 소양(素養)과 능력배양(能力培養)에 최대한(最大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국민운동의 전망

‘언커크’ 1962년도 유엔 총회연례보고서에서 ‘군사혁명(軍事革命)의 정신적차원(精神的次元)을 고양(高揚)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도과업(指導課業)이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위임(委任)되었으며 동본부(同本部)는 범국민적으로 인간개조, 독립심(獨立心), 지역개발(地域開發) 그리고 국민포함과 민주주의의 창달을 위한 훈련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指摘)하였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국민운동에 대한 편견(偏見)이나 선입감(先入感)을 버리고 국민운동을 통한 국민혁명의 성공적인 수행만이 한국의 후진성(後進性)을 극복(克服)하고 민족(民族)의 운명을 타개(打開)하는 관건임을 인식하여야 할 때는 왔다고 생각된다.

국민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밑에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국민운동대열(國民運動隊列)에 참여(參與)할때 진정(眞正) 우리 민족(民族)의 생로(生路)가 開拓되어질 것으로 믿으며, 1962년도에는 닦아진 기초 위에서 보다 활발한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이 전개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전개와 그 성과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과장〉 이희일(李熹逸)

1. 계획의 전개 (一. 計畫의 展開)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굳건한 자주경제(自主經濟)의 터전 위에서 비로소 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2차대전후 정치적 독립(政治的獨立)을 쟁취(爭取)한 수다(數多)한 후진국가(後進國家)들은 저마다 장기적(長期的)이요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畫)을 수립하고 국민소득(國民所得)의 증대(增大)와 사회복지(社會福祉)의 향상을 기도(企圖)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도(印度)는 이미 제3차5개년계획(第三次五個年計畫)을 수립실시(樹立實施)함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그 필요성(必要性)을 깨닫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개발계획(長期開發計畫)의 수립을 시도(試圖)한 바 있으나 매양(每樣) 제반여건(諸般條件)의 불비(不備)와 강력한 경제행정(經濟行政)의 결여(缺如)로 말미암아 한 번도 실천단계(實踐段階)에 옮겨보지 못한 채 지상계획(紙上計畫)으로 화(化)하고 말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혁명정부(革命政府)의 과감(果敢)한 시책으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안(成案)하여 급년에 그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多幸)한 일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사상(經濟發展史上) 일대전환점(一大轉換點)을 이루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제1차 5개년계획의 실현만으로 곧 자립경제(自立經濟)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앞으로 거듭될 여러 차례의 5개년계획의 꾸준한 실천을 통하여 가기(可期)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그 기본목표를 우리나라의 급속(急速)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악순환(惡循環)을 시정(是正)하고 공업화(工業化)에의 기초여건(基礎條件)을 조성(造成)함으로써 궁극적(窮極的)으로 도달될 자립경제(自立經濟)의 기반(基盤)을 구축(構築)하는데 두었다.

이제 이러한 기본목표 아래 짜여진 계획내용(計畫內容)을 간단(簡單)히 살펴보면 먼저 농어촌을 개발하여 농가소득(農家所得)의 향상과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불균형(不均衡)을 시정(是正)하고 다음으로는 전력(電力) 석탄등(石炭等) 동력자원의 확보와 운수(運輸) 통신등(通信等)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형성으로 산업근대화(産業近代化)에의 기초여건(基礎條件)을 조성(造成)하며 나아가서는 비료(肥料), 제철(製鐵), 정유(精油), 시멘트 등 제공장(諸工場)을 건설하여 기간산업(基幹產業)을 확충(擴充)토록 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并行)하여 국토건설사업의 강력(強力)한 추진으로 유희자원(遊休資源)의 활용을 꾀하고 수출진흥(輸出振興)으로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하려는데 계획의 중점을 두었다.

이리하여 5개년후에는 국민총생산이 기준년도에 비하여 40.7%가 증대(增大)한 3,269억원 (1961년가격으로 늘릴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7.1%의 성장율을 의미하게 된다. 휴전이후(休戰以後) 우리나라 경제의 연평균성장율이 약 4.7%이었음에 비추어 이는 상당히 의욕적(意欲的)인 성장목표(成長目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2.88%나 되는 고율(高率)임에 비추어 실질성장율(實質成長率)은 그만큼 줄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1인당 소득으로 볼 때에는 기준년도(基準年度)에 9,400원이던 것이 목표연도에는 11,200원으로 되어 약 19%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고용면(雇傭面)에서는 28.3%가 늘어나게 되고 상품수출은 약 4배가 되는 237,500만불 수준으로 올릴 것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목표(計畫目標)를 이룩하는데 소요되는 총투자규모(總投資規模)는 3,200억원에 달하는 바 그 중 48.8%인 1,600억원이 전기, 교통(交通), 통신(通信) 등을 주로 하는 제3차산업에 투자되고 34%인 1,900억원이 광공업으로 구성되는 제2차산업에 투입(投入)되며 나머지 17.2%에 해당(該當)하는 550원이 농림, 수산 등의 제1차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5개년 동안에 2배가 넘는 막대(莫大)한 규모의 자본형성(資本形成)을 국내재원(國內財源)만으로 충당(充當)시킬 수 없음은 자명(自明)한 사실이며 이에 총투자액의 재원별구성(財源別構成)을 보면 내자(內資)가 2,300억원, 외자가 6840만불 해당액(該當額) 890억원으로서 그 비율(比率)은 각각 72.2%와 27.8%가 된다.

이러한 투자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목표연도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1차산업이 34.8% 제2차산업이 26.1 제3차산업 39.1%의 구성비(構成比)를 시현(示顯)하게 되어 제1차와 제3차는 기준년도(基準年度)보다 다소 줄어드는 반면 제2차 산업(產業)은 26.1%가 되어 기준년도

보다 약 8%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의 근대화(近代化)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2차산업의 구성비가 급속(急速)히 증가함은 공업화를 지향하는 본계획의 의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62년도의 성과

이상 5개년계획의 극히 간략한 소묘(素描)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그 시년도(始年度)인 62년도의 계획수행 경과를 어떠한가? '시작(始作)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슨 일이고 출발점(出發點)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장기간(長期間)에 걸쳐 수행될 계획이고 보며 불과1년 미달의 추진상황(推進狀況)을 가지고 성과를 운위(云謂)함은 시기상조(時期尙早)라 하겠으므로 투자 또는 GNP상(上)의 실속(實績)으로 종합적인 평가(評價)를 내리기 보다는 우선 장차(將次)의 계획목표(計畫目標)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준비(基礎準備)를 제대로 마련하였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조달문제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발전의 기본동인은 자본이다. 그러므로 본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소요자본(所要資本)의 조달문제야말로 계획이 성패(成敗)를 판가름하는 관건인 것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期間內)에 막대(莫大)한 자본을 국내재원(國內財源)만으로 조달(調達)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소요자본의 일부를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자(內資)로 충당(充當)할 계획액도 1인당 소득의 저위(低位)와 인구의 압력(壓力)에 비추어 자발적 저축에 기대하기 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강제저축(強制貯蓄)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하여 62년도의 정부예산(政府豫算)은 5개년계획사업에 완수하도록 경비배정에 있어 우선순위(優先順位)를 경제개발비에 두었으며 당초 287억원으로 계상(計上)한 바 있는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를 2차추경에서 309억원으로 증대(增大)시켰다. 이로써 우선(于先) 제1차년도(第一年度)에 착수키로 된 계획사업의 소요재정자금(所要財政資金)은 확보된 것이며 현재까지 그 집행상황(執行狀況)도 매우 양호하여 대체(大體)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의 실효성(實効性)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성과주의와 기입회계제도를 채택키로 하였다.

한편 민간자본의 성공적인 동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및 금리체계의 정비,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육성(育成), 보험(保險) 및 신탁업무(信託業務)의 장려(獎勵), 국민저축조합(國民貯蓄組合)의 구성 등 다각적(多角的)이고도 대대적(大大的)인 동원책(動員策)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5%나 되는 정착성(定着性) 예금금리(預金金利)의 대폭인상, 국민은행의 발족(發足) 등 일련(一連)의 금융조치(金融措置)는 투기기회(投機機會)의 감소추세와 결부(結付)되어 저축성예금(貯蓄性預金)의 저증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9월말현재의 예금잔고는 398억원으로서 전년말에 비하여 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이 76억원, 저축성예금(貯蓄性預金)이 74억원 각각 증가하여 도합(都合) 150억원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흥신활동도 극히 활발하여 전년말(前年末) 비의 대출증가액은 162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볼때 민간부문의 투자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내자(內資) 동원(內資動員)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方案)이 실시단계에 있고 5개년계획사업에 대한 투융자전담은행으로서의 산업개발공사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다시 외자조달면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양호하여 현 상태(狀態)로 간다면 소요외자(所要外資)의 적기 확보는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AID차관(借款)으로는 현재까지 이미 10건에 달하는 차관계약(借款契約)이 협정 또는 승인(承認)됨으로써 도합 47,340천불의 자금이 확보되었으며 AID차관(借款)으로는 1400만불이 확보되어 있고 서독차관(西獨借款)으로는 3,750만불의 가계약중 절반이 재정차관(財政借款)으로 사용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이밖에도 1억2천만불규모의 이佛어업차관(伊佛漁業借款)이 계약되었으며 민간외자로서 21,286천불의 계약체결을 보았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보된 외자총액은 340,536천불에 달하며 이는 계획기간중외자소요총액 68400만불의 절반에 해당(該當)하며 그 중 차관계획액인 42600만불로 보면 이미 그 80%를 돌파한 셈이다.

이와 같은 차관획득교섭(借款獲得交涉)과 병행(併行)하여 대내적으로는 환경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外資導入法)의 개정, 지불보증법 및 자본재도입(資本財導入)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외자도입센터의 설치 및 외자도입(外資導入) 취급기구의 개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외자(內外資)의 확보내지(確保乃至)는 동원을 밑받침으로 하여 계획기간 중의 계획사업총수 142개 사업중 제1차년도에는 총 106개 사업이 책정되어 9월말 현재 98개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바 이들 제사업은 자금집행이나 사업진도면에 있어서 대체(大體)로 순조(順調)로운 진전상태(進展狀態)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산업부문별로 부연(敷延)하면 제1차산업에 있어서는 양곡증산, 축산, 잠업 및 특용작물의 장려(獎勵), 조림(造林), 사방, 흡수사업 등의 전개, 수산자원의 개발 등 19개사업을 계획한 바 있는데 전사업(全事業)이 예정(豫定)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농업자재, 남강댐 및 방수로(放水路), 치수사업(治水事業), 잠업, 전매작물 등은 오히려 목표량을 초과(超過) 달성하고 있다.

특히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당년도예산액 32억원중 8월말까지 이미 그 98%인 31.4억원이 집행(執行)되었는 바 이로써 농촌의 자금경색과 고리채(高利債)의 발호(跋扈)를 미연에 방지(防止)하고 안정농가조성(安定農家造成)에 대대(多大)한 기여(寄與)를 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시책면(施策面)으로는 영농자금 운용계획수립, 고리채정리의 추진기간축진법의 제정, 이동조합의 공동이용시설, 농사구조정책심의회 설치 등을 통하여 계획수행을 지원(支援)토록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수행과 시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이례적인 한발(旱魃)로 인하여 제1차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다소 저감(低減)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차산업에 있어서는 광업부문에 8개사업 제조업부문에 19개사업 포함(都合) 27개사업이 계획되었는 바 그 중 광업부문은 추진상황(推進狀況)이 극히 양호하여 생산지수상(生産指數上)으로 보면 9월까지의 월평균지수가 전년동기에 비하여 17.3%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석탄제업의 생산실적은 금년 4월이래 매월계획량보다 평균 약 8만MT(15.7%)을 초과달성하였다.

한편 제조업부문은 거개(擧皆)가 신설사이므로 금년도에는 우선 기술조사설계도작성 대지선정 정지공사 등 기초준비단계에 머무르게 됨은 그 사업성실상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공장건설과 관련(關聯)하여 특기(特記)할 사실은 연초(年初) 울산지구(蔚山地區)에 설치된 '공업(工業)센터'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공업(現代工業)은 용지(用地) 용수(用水)의 충분(充分)한 공급(供給) 동력운수(動力運輸)의 원료(原料), 시장(市場), 노동력(勞動力)의 확보 등 제반(諸般) 여건(與件)을 갖춘 양호한 입지조건(立地條件)이 중요시(重要視)되며 특히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부산물(副產物)의 상호수요(相互需要)에 의한 무수(無數)한 연관공업(聯關工業)이 파급(波及)적으로 계기(繼起)할 것이 예상(豫想)되므로 종합공업지구선정(綜合工業地區選定)의 의의(意義)는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이로써 울산지구(蔚山地區)에는 종합제철(綜合製鐵), 비료(肥料), 정유(精油), 시멘트 등 제기간공장(諸基幹工場)이 즐비(薈比)하게 세워질 것이다.

제3차산업에는 총48개사업이 책정(策定)되어 있는데 그 중 산업발전(產業發展)의 원동력(原動力)이 되는 전력사업(電力事業)을 보면 8개의 화전(火電) 7개의 수전(水電)이 신설(新設) 또는 복구사업(復舊事業)은 대체(大體)로 순조(順調)로운 공사진척(工事進捗)을 보이고 있다. 연내(年內)에 완공예정(完工豫定)인 디젤발전소(發電所)를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수개년의 건설기간(建設期間)을 요(要)하므로 당년도(當年度)에 직접적(直接的)인 사업효과(事業效果)는 바랄 수 없으나 기존발전소(既存發電所)의 출력증강(出力增強)으로 1월에서 9월까지의 월평균발전량은 219.4천KW로서 전년동기비 11.7%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5개의 철도사업과 6개의 통신사업(通信事業)은 공사진척이 매우 양호하며 철도사업중(鐵道事業中) 동해북부선과 황지지선(黃池支線)은 공사기간(工事期間)을 단축(短縮)하여 톨다 연내(年內)에 개통(開通)을 보게 될 것이다. 통신사업중(通信事業中) 가장 무거운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전화가설사업(電話架設事業)에 있어서는 이미 8월말 현재 19,500회선의 자동식교환시설 4,400회선의 공전식(共電式) 300회선의 자석식(磁石式) 교환시설(交換施設)의 개통(開通)을 보았다.

특히 수력(水力)댐과 정선선(旌善線) 경주선(慶州線)의 양철도(兩鐵道) 및 태백산지구(太白山地區) 산업도로(產業道路)는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16,000명에 달하는 국토건설단(國土建設團)을 투입(投入)함으로써 유희노동력(遊休勞動力)의 산업자본화와 국토의 개발 및 보전(保全)이라는 이중(二重)의 경제효과(經濟效果)를 거두었다.

이상 5개년계획사업(五個年計畫事業)의 적극적인 전개와 이를 유도(誘導) 또는 지원(支援)하는 시책내지(施策乃至)는 제도상의 주요인(諸要因)이 직접 간접으로 주요(奏効)하여 금년도(今年度)의 전반적(全般的)인 생산실적(生産實績)은 급격(急激)히 상승함으로써 57년도이래 저락추세(低落趨勢)에 있던 것을 크게 반전(反轉)시켰다. 즉 연초(年初)부터 9월까지의 산업동향(產業動向)을 보면 2월까지의 재고조정(在庫調整) 과정에 따른 침체(沈滯)와 6·9월통화개혁조치로 인한 6·7월일간의 침체현상(沈滯現象)을 겪으면서도 총체적(總體的)으로는 건설(堅實)한 상승을 지속(持續)하여 9월까지의 평균생산지수(平均生産指數)는 전년동기수준(前年同期水準)에 비하여 16.4% 상회(上廻)하였고 9월에는 129.2에 달하여 전월(前月)에 이어 해방후(解放後) 최고(最高)의 기록(記錄)을 시현(示顯)하였다. 특히 電力에 있어서는 8.1% 증가를 보여 59년의 증가율(增加率) 11.6%에 육박(肉迫)하게 되었으며 제조업은 61년의 증가율(增加率) 4.3%를 훨씬 능가(凌駕)하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자립화(自立化)를 측정(測定)하는 기준(基準)이 되는 수출면(輸出面)에 있어서도 수출보상금제도(輸出補償金制度)의 강화와 해외시장개척(海外市場開拓)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새로운 면모(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즉 9월말 현재 수출실적(輸出實績)은 결제기준(決済基準)으로 36,600만불 인바 이는 연간목표인 61,900만불에 비하면 부진(不振)한 상태(狀態)이기는 하나 절대치(絕對值)로 볼 때에는 최고실적을 올린 전년동기(前年同期)에 비해서 6,700만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출품목에 있어서도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대종(大宗)을 차지하던 광산물(鑛山物) 및 농산물 등의 원료수출(原料輸出)이 점감(漸減)하고 있는 반면 냉동(冷凍) 수산물, 통조림, 생사, 합판, 직유류 가공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미약(微弱)하나마 점진적(漸進的)인 구조변동(構造變動)을 가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要)컨대 1962년도의 경제는 과거수년간(過去數年間)의 우리나라 경제성장(經濟成長)의 둔화과정(鈍化過程)을 반전(反轉)시키는 전환점(轉換點)을 이룰 것으로 전망(展望)되며 5개년계획과 추진을 위한 각종기초작업(各種基礎作業)의 정비와 더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 기대된다.



군사부문의 총결산

< 최고회의문사위전문위원 >
우병규(禹炳奎)

1. 군기의 확립과 전투력의 강화

국토방위의 신성(神聖)한 의무를 짊어진 우리 국군이 위기에 빠진 조국(祖國)을 구출(救出)하기 위하여 혁명을 한지 이제 일년 반이 지난 오늘, 비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제분야(諸分野)에서 구악(舊惡)을 일소(一掃)하고 건강하고 새로운 민주사회(民主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눈부신 노력과 뜨거운 정열(情熱)을 받쳤음은 물론, 근본래(軍本來)의 사명인 국방력의 증강을 위하여서도 지난 일년동안 혁혁(赫赫)한 업적을 거둔 바 있다.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군장교가 국가재건이라는 혁명과업완수를 위하여 군에서 행정부(行政府)를 비롯하여 경제 및 사회의 각분야(各分野)의 기관에 파견근무(派遣勤務)를 하게 될 때 혹자(或者) 특히 미군관계인 사들 가운데 혹시나 군주유(軍周有)의 목적인 전투력의 강화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念慮)를 하였던가 하면 심지어는 직접 군의 전투력의 강화를 초래(招來)할 것이고 우려(憂慮)를 표명(表明)한 바도 있었다고 기억(記憶)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후(革命後) 거의 20개월을 지난 오늘날 군이외(軍以外)의 정치 및 사회 경제적인 각분야(各分野)에서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국방력증강을 위하여 계속적(繼續的)인 노력의 경주(傾注)와 아울러 발전을 보아 왔다고 믿는다. 군이외(軍以外)의 영역(領域)에서 구악(舊惡)의 일소(一掃)와 새로운 질서(秩序)와 확립에 발맞추어 국방정책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비(經費)의 절약(節約)과 합리적(合理的)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기구를 축소개편(縮少改編)하였고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전투부대(戰鬪部隊)의 현대화와 교육훈련의 강화를 실시하였고 병역(兵役) 인사운영(人事運營)의 정책(政策)을 도모하고

군기확립과 군수품부정유출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진력(盡力)한 바 있다.

지난 일년동안 국방력강화를 위한 각군부대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서는 전반적(全般的)인 전투장비중에서 노후화하고 비능률적(非能率的)인 군장비(軍裝備)를 대치하여 국군의 전투력의 정예화(精銳化)를 도모하였으며 현대과학전의 첨단(尖端)인 공군작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군작전부대를 통합지휘(統合指揮)하는 공군전투사령부(空軍戰鬪司令部)가 창설되어 공산군의 무력위협(武力危脅)에 대하여 일시(一時)에 반격(反擊)을 가할 수 있는 현지전투능력의 배양(培養)과 강화에 힘쓰 바 있고 더욱이 북괴의 휴전이후(休戰以後) 휴전협정을 위반(違反)하여 수운(水運)으로 계속 증강한 북괴공군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전후후요격비행대가 창설(創設)되어 한국공군의 위용(偉容)을 빛낸 바 있다.

동해안(東海岸)과 서해안(西海岸)에 혁명이후(革命以後) 준둔하던 북괴의 해군력(海軍力)을 제압(制壓)하기 위하여 지난 12월에 미국으로부터 구축함 4척을 인수(收受)하고 한국의 함대세력(艦隊勢力)을 증강하여 해군의 각종함대훈련을 통한 우리 해군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전에 실시하던 작전훈련과는 달리 '해군작전과 현재 실시중(實施中)인 '진격(進擊)과 같이 수개(數個)의 사단병력(師團兵力)이 참가(參加)한 가운데 핵무기상황하에서 공군지원과 해상지원(海上支援) 및 지상포화(地上砲火)의 화력지원(火力支援), 그리고 신속과감한 병력의 기동작전 등 현대전의 양상을 띠운 대규모적(大規模的)인 기동작전훈련을 실시하였다. 물론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기동훈련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번에는 있었던 해병대(海兵隊)와 해군의 통합작전하의 핵전쟁을 가정한 대규모적(大規模的)이고도 면밀주도(綿密周倒)하게 짜여진 상륙작전시동훈련은 우리 해병대(海兵隊)와 해군의 발전을 획(劃)하고 가장 인상적(印象的)인 기동연습(機動演習)이었다고 생각하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육군기동훈련인 '진격(進擊)'은 우리 육군(陸軍)의 나날이 발전하는 그 위용(偉容)을 가리키는 가장 뜻깊은 기동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군대는 일취월장(日就月長) 그 성장을 이룩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 동안 우리의 군은 혁명과업원수에 발맞추어, 보급군기(補給軍紀)의 확립과 군수품부정유출(軍需品不正流出)을 방지(防止)하는 특별조치(特別措置) 등이 주요(奏効)하여 다대(多大)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일년 동안은 과거 흔히 물의(物議)를 일으켜 왔던 군내(軍內)의 부정축재(不正蓄財)를 일소(一掃)하는 보급군기(補給軍紀)의 확립을 위한 군최고지도층(軍最高指導層)의 강력(強力)한 지도(指導)와 단속(團束)을 실시하여 과거에 근절(根絶)시키지 못하였던 군수품부정유출(軍需品不正流出)을 방지(防止)하는데 획기적(劃期的)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정차량정리(不正車輛整理)만 보더라도 작년 7월(七月)부터 1개월간에 걸쳐 전용보유차량(專用保有車輛)과 군전용형자가용차량(軍專用型自家用車輛) 2천여대를 일제(一濟) 검사(檢査)하여 그 중 1,700여대의 부정차량(不正車輛)을 정리(整理)한 후 군용차(軍用車)를 유용(流用)하는 고질적(痼疾的)인 나쁜 현상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다.

2. 병역과 인사운영의 개선

특히 금년도(今年度)에 들어와서 군의 사기(士氣)와 직접 관계(關係)가 깊은 군인사제도(軍人事制度)를 대폭(大幅)으로 개선하여 군내(軍內)의 인사상(人事上)에 있어서 신진대사(新陳代謝)를 할 수 있는 제도적조치(制度的措置)가 마련되었으니 즉 인사관리연구위원회(人事管理研究委員會)를 통하여 기왕의 군인사관계법령(軍人事關係法令)과 예규(例規) 등을 검토(檢討)하고 신진(新進)들의 의욕적(意慾的)인 진출(進出)을 보장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하여 지난날 한 때 가장 말쑥 많던 군인사(軍人事)의 불합리성(不合理性)을 시정(是正)할 수 있는 터전이 확립된 셈이다. 과거에는 설사 무능하고 군을 위하여 별(別)유위(有爲)한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계급에서 십년이 상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고 박력(迫力)있는 유능(有能)한 장교(將校)들의 진급(進級)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혔다시피 하였으나 금번개정(今般改正)된 군인사법에 의하면 동일계급내(同一階級內)에서 정년제(停年制)가 확립됨으로써 유능(有能)한 신진(新進)의 상위계급(上位階級)에 대한 진급(進級)과 무능한 사람의 자연(自然)스러운 도태(陶汰)를 가능케하는 인사제도(人事制度)가 마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군인사법에서는 자기의 진급(進級)과 군인사법상의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명확(明確)한 기준(基準)을 구체화(具體化)하였기 때문에 군인사(軍人事)를 통한 군인의 근무의욕(勤務意慾)을 증진(增進)할 수 있는 조치(措置)가 강구(講究)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자기에게 주어질 자리만 붙들고 늘어지면 우선 군내에서 쫓겨 나가지 않는다는 과거의 안일주의적(安逸主義的) 사고방식(思考方式)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정반대(正反對)로 자기의 직책(職責)에서 힘껏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료(同僚)들이 진급(進級)을 할 때 낙오(落伍) 된다면 현재의 직책(職責)도 미구에는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심리적자극(心理的刺戟)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매사(每事)에 충실(忠實)하여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越等)한 근무상(勤務上)의 업적을 내야 되겠다는 선의의 경쟁의식(競爭意識)을 조장(助長)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군인사법의 크나큰 장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병역의무의 균등화(均等化)와 병무행정(兵務行政)의 일원화(一元化)를 위하여 구병역법(舊兵役法)을 대폭(大幅) 개정했으며 새 병역법(兵役法)의 공포실시(公布實施)와 아울러 작년(昨年) 6월(六月) 20일(二十日) 법률 제627호로서 실시하고 있던 '병역의무미필자(兵役義務未畢者)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을 폐지(廢止)하였던 것이다. 새 병역법(兵役法)의 특징은 ① 구법(舊法)의 미비점(未備點)을 보충(補充)하고 ② 역종(役種)을 정비하고 ③ 중전의 국방부와 내무부(內務部)의 이원적(二元的) 병무행정관계(兵務行政關係)를 시정(是正)하여 국방부가 주관(主管)하는 동시에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를 병무청(兵務廳)으로 개편, 국가행정기관(國家行政機關)으로서 병무행정(兵務行政)에 관해서는 병무청장(兵務廳長)이 구청장(廳廳長), 시장(市長), 군수(郡守)를 감독케 하는 등 병무행정(兵務行政)의 일원화(一元化)를 기하였으며 ④ 인력자막(人力資擘)의 철저한 파악(把握)과 관리로서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인력활용(人力活用)을 기하고 복무상(服務上)의 공평과 균형(均衡)을 유지(維持)하여 병동원체제(兵動員體制)를 확립하였으며 ⑤ 구법(舊法)에 의한 학적보유(學籍保有) 등 기득권(既得權)을 인정하여 학생(學生)에 대하여서는 학업(學業)을 충실(忠實)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징집연기제도(6년제대학(六年制大學)은 26세(二十六歲)까지 4년제대학은 24세까지, 2년제대학은 22세까지)를 두었고 가사(家事)로 인한 현역기간단축제도를 규정(規定)하였으며 ⑥ 병역의무의 존엄성확립(尊嚴性確立)을 위하여 유기적이고도 공신력 있는 병무행정(兵務行政)을 이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존엄성(尊嚴性)을 자각(自覺)케 했으며 또한 벌칙(罰則)을 강화하였고 ⑦ 신고의무제(申告義務制)의 강화를 통하여 모든 병역의무자(兵役義務者)는 호적상의 이동(移動), 전적(轉籍), 거소이동(居所移動), 직장변경(職場變更), 자격취득(資格取得) 및 상실(喪失), 건강상태(健康狀態)의 변동(變動) 등 이동신고(移動申告)의 의무를 규정(規定)하였고 ⑧ 병역미필자(兵役未畢者)에 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폐지(廢止)를 통하여 정당(正當)한 사유(事由)없이 징병(徵兵) 또는 소집의무(召集義務)를 기피(忌避)한 자는 공직(公職), 기업체의 임명, 관허업체(官許業體)에 취업(就業)할 수 없도록 자격(資格)을 제한하고 범법자(犯法者)를 고용(雇用)한 법인이나 사인은 6월

이하의 징역(徵役) 또는 최고(最高) 100만원(10만원)까지의 벌금형(罰金刑)을 처하게 하였고 ⑨ 병역의무자(兵役義務者)에 대한 권익보장(權益保障)을 위하여 선의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서는 학적보유(學籍保有), 직장보장(職場保障), 고용(雇用)의 우선(優先), 입영중(入營中)의 보수(報酬), 사금급여(謝金給與), 유자녀(遺子女)에 대한 학비감면(學費減免), 현역기간(現役期間)의 경력환산(經歷換算) 등 권익보장(權益保障)을 규제(規制)하였던 것이다.

또한 군관계(軍關係) 피의자(被疑者)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군행형법(軍行刑法)과 군법회의법(軍法會議法)이 개정된 것도 가장 특기(特記)할만한 사실인 것이다.

3. 국민과의 유대강화(三. 國民과의紐帶強化)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방대(龐大)한 수의 문맹자(文盲者)가 남아있는데 건전(健全)한 민주화(民主化)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문맹퇴치(文盲退治)가 시급(時急)한 바이며 이러한 문맹퇴치(文盲退治)를 위하여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의 적극적인 활동(活動)의 전개라는 범국민적인 협력(協力)에 호응(呼應)하기 위하여 군내부(軍內部)에서도 문맹자일소(文盲者一掃)를 위한 '교육'에 한층 주력(注力)함으로써 다대(多大)한 성과를 거둔 것도 군민간(軍民間)의 유대강화(紐帶強化)에 있어 금년도(今年度)의 특기(特記)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혁명의 선봉(先鋒)에 선 국군은 국가(國家)의 양곡수급계획(糧穀需給計畫)에 부응(副應)하기 위하여 주식중(主食中) 백미(白米) 일합(一合)을 압맥(押麥)으로 대체급식(代替給食)하는 내핍생활(耐乏生活)을 전개함으로써 조국재건(祖國再建)의 선봉(先鋒)에 선 우리 국군의 면목(面目)을 여실(如實)히 실증(實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순천지구(順天地區)와 같이 재해(災害)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우리 국군은 대민복구사업(對民復舊事業)에서도 그 앞장을 섰던 것이다. 지난날 이미 신문보도(新聞報道)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순천(順天)을 비롯한 각 수해지구복구에 군에서는 막대(莫大)한 병력(兵力)과 중장비(重裝備)를 동원하여 과양(破壤)된 가옥(家屋) 도로(道路) 그리고 교량(橋梁) 등의 복구사업(復舊事業)에 뜨거운 정열(情熱)과 노력을 받쳐 왔다.

5.16혁명(五一六革命)은 군이 주동(主動)이 되었다는 점에서 군이 재건사업(再建事業)에 있어서도 언제나 여력이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왔으니 그 사례(事例)로서는 군병력(軍兵力)과 장비를 동원하여 수백(數百) '킬로미터'의 도로확장(道路擴張)과 도로포장공사(道路鋪裝工事)를 완료한 바 있다.



우주과학분야의 회고

< 한국일보기자(記者) >
이종수(李鍾秀)

62년에 들어서서 10월30일 현재까지 미소양국(美蘇兩國)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人工衛星), 우주로켓 인공위성(人間衛星)의 총수(總數)는 무려 44개나 된다.

'스푸트니크' 일호가 발사(發射)된 57년이래 62년도만큼 많은 수가 발사(發射)된 해는 없었다. 그밖에 영국(英國)과 캐나다(加)가 미국과 협동(協同)해서 2개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을 발사(發射)한 것까지 합치면 46개나 되니 종래(從來)의 기록(記錄)인 61년도의 33개보다 13개나 더 발사(發射)된 셈이다.

양적으로 보아서 62년도는 참으로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 풍년(豐年)'이라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뿐 아니라 62년도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는 질적(質的)으로도 비약적(飛躍的)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인류가 달을 정복(征服)하기 위하여 설정(設定)한 도정(道程)이 차츰차츰 단축(短縮)된다는 것을 62년도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는 더 한층 다짐해 주었다.

62년도 우주과학분야(宇宙科學分野)의 특징은 무엇무엇해도 인간위성발사부면(人間衛星發射部面)의 진전(進展)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미소양국(美蘇兩國)의 실로 5개의 인공위성(人間衛星)을 발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련의 '랑데부' 비행의 성공과 미국의 '시그마' 7호(七號)의 지구6주비행(地球六周飛行)은 높이 평가(評價)받을 만한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미국에서 '델스타' 위성(衛星)을 성공적으로 발사(發射)한 것도 62년도 우주 과학계(科學界) '히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도 집요(執拗)하게 성공을 노리던 달 '로켓트'인 '레인지'가 세 번이나 거듭 실패(失敗)하여 쓰디쓴 고배(苦杯)를 마셨다는 것도 62년도의 중요한 기록(記錄)이라 하겠다.

다음이 62년도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를 더 좀 상세(詳細)하게 회고하여 보기로 한다.

62년에 들어서서 10월30일 현재까지 발사(發射)된 인공위성수(人工衛星數)는 미국이 25개, 소련이 10개(十個), 우주 '로켓트'수는 미국에서 발사(發射)된 4개뿐이고 인공위성수(人間衛星數)는 미국이 3개 소련이 2개—이렇게 해서 도합(都合) 44개나 된다. 여기다 영국, 캐나다에서 발사(發射)한 2개를 합치면 총 46개(四十六個)가 되는 것이다.

62년도에 발사(發射)된 숫자(數字)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전에 매년 얼마만큼씩 발사(發射)되었는가를 적어본다.

즉 57년도에 2개, 58년도에 6개, 59년도에 14개, 60년도에 20개, 61년도에 33개라는 것이 그 동안 매년(每年) 발사실적(發射實績)인 것이다. 이상의 숫자(數字)로써 62년도가 풍년(豐年)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것은 미소(美蘇)의 우주경쟁(宇宙競爭)이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熾烈)해진다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와 아울러 영국 '캐나다' 등 미소이외(美蘇以外)의 나라들에서도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로 진출(進出)하려는 의욕(意慾)이 움트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62년도는 양적인 풍년(豐年)이지만 질적(質的)으로도 매우 밀도(密度) 높은 진전(進展)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간위성발사(人間衛星發射)에서 보여준 미소양국(美蘇兩國)의 발전은 그저 눈부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미국은 약 4억불의 경비(經費)를 '머큐리' 계획(計劃)에 주입(注入)하고서는 소련보다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고 다짐해 왔으나 61년도에 소련에게 선수(先手)를 빼앗기고 말았다.

2대에 걸쳐 탄도비행(彈道飛行)에 성공을 했으나 소련의 '가가린' 소령, '티토프' 소령이 궤도비행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에 자극(刺戟)된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61년도안에는 인간의 궤도비행을 성취(成就)하겠다고 서둘러왔으나 허사(虛事)였다.

미국은 체면(體面)을 걸고서라도 62년도초에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기불순(日氣不順) 기타의 악조건(惡條件)으로 '글렌' 중령이 타는 '프렌드십' 7호의 발사(發射)를 무려(無慮) 10회나 연기(延期)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2월24일에야 성공적으로 발사(發射)를 보게 됐던 것이다.

궤도(軌道)에 돌입한 후에도 '글렌' 중령은 갖은 악조건(惡條件)과 싸우지 않으면 안됐다. 자동안정장치(自動安定裝置)와 위성내온도조절장치의 고장 때문에 '글렌' 중령은 생명(生命)의 위험(危險)을 무릅써야 했지만 결국 지구3주비행의 위업(偉業)을 성취(成就)시켰다.

그에 이어 미국에서 5월 24일에 '카펜더' 소령이 탄 '오로라' 7호가 발사(發射)됐다. '글렌' 중령의 '프렌드십' 7호발사시에 일어났던 고장부분(故障部分)을 철저히(徹底)하게 개량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우주복(宇宙服)과 연료장치에서 고장이 일어났다. '카펜더' 소령 역시 악조건(惡條件)을 극복하고서는 지구3주를 무사(無事)히 끝냈다.

그러나 해상(海上)의 예정지역(豫定地域)에서 250 '킬로미터나 빛나간 곳에서 회수(回收)되어 자칫하면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지 못할 뻔 했다는 뒷 이야기를 남기게 됐던 것은 그 때까지도 미국의 인간위성발사(人間衛星發射) 및 회수기술(回收技術)이 완벽(完璧)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示唆)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간에 미국은 체면(體面)을 세우게는 됐던 것이다. 그렇게 체면(體面)을 세운 것도 잠시 후에 발사된 소련의 '보스토크' 3호, 4호로 또다시 납작하게 깨진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61년 8월에 '티토프' 소령을 탑승(搭乘)시킨 '보스토크' 2호로 지구(地球)를 일주야(一晝夜)에 걸쳐 25주시킨 소련은 만 1년간에 걸쳐 침묵(沈默)을 지켜왔었다.

그래서 전세계(全世界)는 무슨 공공속을 차리고 있는가하고 궁금히 여겨 왔었다. 더욱이 소련은 61년 10월11일에 걸쳐 도합(都合) 8회나 중태평양(中太平洋) '로게트' 발사실험(發射實驗)을 한 바 있었다.

소련은 태평양(太平洋) '로게트' 실험을 한 뒤에 으레 우주를 무대(舞臺)로 하는 극적(劇的)인 연출(演出)을 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全世界)는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보스토크' 3,4호는 발사(發射)되었던 것인데 역시 우주연출국(宇宙演出國)답게 소련은 극적(劇的) 효과(効果)를 거두는데 성공을 보았다.

8월11일에는 '니콜라예프' 소령이 탑승(搭乘)한 '보스토크' 3호가, 8월12일에는 '포포비치' 중령이 탑승(搭乘)한 '보스토크' 4호가 발사(發射)되었는데 이렇게 2일간 계속적(繼續的)으로 인간위성(人間衛星)을 발사(發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련이 이 방면(方面)에 막대(莫大)한 인원(人員)과 자금을 투입(投入)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그 두 인간위성(人間衛星)의 원지점(遠地點) (3,4호가, 똑같이 234킬로미터) 근지점(近地點)(3호는 180킬로미터, 4호는 178.9 '킬로미터)이 비슷하여 우주공간(宇宙空間)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진 때가 있었다 하여 '랑데뷰' 비행이나 '아베크' 비행이나 하여 떠들썩했었다.

사실상으로 두 인간위성(人間衛星)이 그렇게 가까워지도록 발사(發射)할 수 있는 소련의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到達)해 있다는 것은 부인(否認)할 수 없다.

앞으로 달, 화성(火星) 혹은 기타유성(其他遊星)으로 사람이 탄 우주선(宇宙船)을 보내는 경우, 지구주위(地球周圍) 우주공간(宇宙空間)에다가 우주정류장(宇宙停留場)을 건설하여야만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우주정류장(宇宙停留場)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다시 우주선(宇宙船)을 조립(組立)하려면 인간위성(人間衛星)이 자유자재(自由自在)로 '랑데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련이 비록 본격적(本格的)인 '랑데뷰' 비행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본격적(本格的)인 '랑데뷰' 비행에 상당히 가까이 까지 기술을 발전시킨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 점, 미국은 약 2년 소련에 뒤졌다고 사계(斯界)에서는 관정(判定)을 내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보스토크' 3호(三號)가 달까지를 33왕복(三三往復)할 수 있는 거리인 약 260만 '킬로미터'를 94시(九十四時) 25분간(二十五分間)에 '보스토크' 4호가 26왕복(二六往復)할 수 있는 거리인 약 200만 '킬로미터'를 70시간59분에 비행했다는 것은, 아직 사람을 달까지 보낼 수 있기 까지에겐 말급(未及)이지만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구(地球)에서 달까지 우주선(宇宙船)이 가려면 지구(地球)의 인력(引力)에 항거(抗拒)하면서 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로케트'의 추력이 한번 지구주위궤도(地球周圍軌道)에 진입(進入)시키거기만 하면 되는 인간위성(人間衛星) '로케트'의 추력보다 훨씬 커야만 되는 것이다.

지구(地球)에서 달까지를 우주선(宇宙船)이 일왕복(一往復)하려면 실제로는 516일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실로서도 달까지의 왕복(往復)이 지구주위궤도(地球周圍軌道)를 선회(旋回)하는 것과는 비교(比較)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소련이 '보스토크' 3,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發射)해서 성공적으로 회수(回收)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경탄(驚嘆)할만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秘密)의 베일(態度)의 베일 속에 감추어 추진하는 소련의 태도(態度)는 과학적(科學的)이 아니라고 비난(非難)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소련도 하루속히 미국 모양으로 전세계주시리(全世界注視裡)에 공개적(公開的)으로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해야만 인류공동재산(人類共同財產)인 과학에 공헌(貢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련의 '보스토크' 3,4호(三,四號)에 자극(刺戟)을 받은 미국에서는 10월3일(十月三日)에 '쉬러' 중령이 탄 '시그마' 7호(七號)를 발사(發射)했다. 이때 미국은 추진 '로케트'인 '아틀라스의 능력상(能力上) '웍살' 중량을 늘릴 수 없으므로 해서 지구(地球) 3주(三周) 이상은 극히 위험적(冒險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果敢)하게 6주(六周)시킨 것이었다.

식량(食糧)이라든지 산소(酸素)라든지 물은 28주분(二十八周分)을 그 '시그마' 7호(七號)에 저장(貯藏)하고 있었던 건만 비행중(飛行中) 인간위성(人間衛星)의 자세(姿勢)를 제어(制御)하기 위한 소형(小型) '체트용(用) 추진제(推進劑)인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 '가스가 3주분(三周分)이고 거기다가 전지(電池)의 능력이 4주분(四周分)이었으므로 6주(六周)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冒險)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4주(四周)째부터는 자세제어용(姿勢制御用) '가스를 쓰지 않고 4.5주(四.五周)째는 위성(衛星)에서의 모든 송수신(送受信)을 중지(中止)하는 이른바 '표류비행(漂流飛行)'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도 우주복(宇宙服)에 고장이 생겼으나 저번의 '오로라' 7호(七號)때에 그 수리(修理)에 약 30분소요됐던 것과는 달리 순 (P 22로 계속)

인간의 권리·인간의 존엄성

— 세계 인권선언일에 부쳐 (世界人權宣言日에 부쳐) —



< 서울 법대 교수(法大 教授) >
김기두(金箕斗)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서는 매년 세계 인권일에 기념행사로써 강연 전시회 등을 통하여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소리높이 떠들어 온 구호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학자들의 입과 붓을 통하여 도처에서 인간의 불가양도적인 천부의 권리라니 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니 강조되어 온 구호이다.

따라서 우리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이야기는 참으로 귀가 아플 정도로 자주 들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학문의 세계 이상의 세계에서 논의되는 추상적 개념인 것과 같은 느낌을 면할 수 없다. 최근에는 하도 자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증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쟁이의 잠꼬대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대중의 친밀감까지도 말라없어진 무미건조한 구호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속임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우리의 국민대중을 위한 국민대중의 생명인 이 중대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란 구호가 국민대중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어야 할 것이 국민의 감정과 유리되어 일부 집행자와 지식계급이 독점한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탄할 일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바에야 애당초 이러한 구호가 강조되지 안했었다더라면 오늘날 이것이 진부한 것이 안 되고 신선한 구호로서 국민 앞에 나타났을 것을 —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러한 괴상한 결과가 되었을까?

거기에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떠들어대면 바로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듯이 알아온 자칭 민주주의의 선구자로 자처하던 우리의 선배들의 책임과 또 수 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인간의 권리를 찾아 본 역사가 없는 우리의 캄캄한 국민대중에게 갑자기 인권사상이 고취되어지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가? 결국 인권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찾아본 일이 없는 대중이 어찌 인권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으랴? 우리는 봉건, 식민지의 이어받은 역사를 통하여 북종과 굴욕의 역사 그대로였다.

절대적 권력이나 폭력에 잘 복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반항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죽음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다.

인민 대중은 지배자의 노예로서의 생활만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보아온 것, 이어 받은 것은 이러한 비굴과 예속의 생리였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전통과 생리를 가진 우리 국민대중에게 갑자기 인간의 권리가 있다고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여 보았던들 그것은 먼 서구의 선진국가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같이 국민대중이 가슴깊이 인권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국민전선을 전개하지 않는 한 인권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의 인권은 서구의 계몽사상가들 즉 민주주의 선구자에 의하여 쟁취된 것이고 절대로 평화리에 얻은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인권은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의 용감한 전사들의 피의 기념탑이었던 것이다.

유명한 불란서혁명이 바로 인권을 찾기 위한 피의 항쟁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1789(一七八九)년 7월14일 불란서의 왕도 파리는 아침부터 밝은 날씨였다. 파리의 거리는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 쬐여 번쩍이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아침 일찍부터 우유배달이나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쁜 거리였건만 그 날은 어쩐 일인지 한 사람도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집집마다 싸늘한 적막이 감돌고 아침의 햇빛은 지붕 밑을 파고 내려와 거리를 쬐이기 시작하였다. 이 약 2시간이 못되는 짧은 적막 속에서 파리의 시민들은 다 같이 하나의 빛에 인도되고 하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중대한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결심이었는가 '바스티유로 가자, 바스티유를 쳐부수자' 모든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파리의 동쪽에는 바스티유라는 감옥이 있었다. 이 감옥은 물론 높은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고 요소소에는 대포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요새 감옥이라고도 불리 왔다. 이 감옥에는 국왕의 명령에 반항한 자 국왕의 정치를 비난한 자들이 수없이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의 불란서의 국왕은 대대로 폭정을 거듭하여 인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국왕을 두려워하여 누구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용기 있는 몇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서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유명한 계몽사상가 볼테일(1694 - 1778(一六九四 - 一七八八))도 있었고 바스티유라는 시를 써서 오늘도 읊어지고 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의 대포는 파리의 시민들이 국왕의 욕을 하거나 않는가하고 국민의 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포의 총안에서 파리 시민들이 폭동이나 일으키지 않나하고 언제나 감시의 눈이 번쩍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 파리 시민들도 바스티유 감옥은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그들을 위협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바스티유 감옥은 불란서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부르본왕가의 표본과 같은 것이었다.

실은 2일 전 7월 12일부터 파리 전시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파리의 시민들은 국왕의 정치에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민들은 무기고를 파괴하고 총포상을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하고 5만분의 창을 준비하였다. 시민들은 시내의 경비대를 공격하여 항복시켰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누구의 지도도 받은 바 없이 바스티유를 공격하자 는 기분으로 총만 되어 있었다. 이날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여 이를 포위하였다. 4시간 후에 바스티유 감옥은 낙성하였다. 그리고 성문은 열렸다. 바스티유 감옥의 성문이 이같이 파리 시민의 힘으로 열렸다는 것은 불란서 전체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국왕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불란서인 들은 여기저기서 국왕의 군대를 공격하여 불란서 전토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혁명이 승리로 돌아가고 파리에는 또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파리의 광장에는 축하연이 베풀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군중은 일제히 '잔자크 만세'라고 외쳤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언제나 신을 부르던 것이 불란서인의 습속이었는데 혁명이 승리로 돌아간 이 마당에서 불란서 인이 크게 외쳤던

이름은 신이 아니고 신을 대신하여 잔자크의 이름이었다.

이 불란서 혁명의 심볼이 바로 잔자크루소였고 그 사상이 자유 평등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였다.

즉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자는 것이었다.

이 같이 서구의 인간의 권리는 이 피어린 불란서 혁명의 봉화 불을 계기로 수백년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쟁취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구의 인민들은 인권의 정체를 보았고 또 그것을 쟁취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또 그것을 지키려면 부단한 경계와 저항을 되풀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영미에 있어서는 서구에 앞서서 영국의 명예혁명에 의한 대헌장 미국의 독립전쟁 권리장전 등의 역사 인권의 보장과 획득을 위한 수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거쳐 민중 속에서 우리나라 인권사상이야 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인권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즉 국가권력과 대결에서 고난의 역사가 없는 우리의 인권사상은 썩 허약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의 인권의식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그것의 역사적 성장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인권사상에 깊은 뿌리를 박은 서구의 근대민주 문화가 민족과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역사적 실증을 깊이 비판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도 진정한 인권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이 곧 민주문화의 초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인권은 법으로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대중의 각성된 인권의식의 뒷받침을 얻어야만 참으로 인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법으로만 보장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태도에 따라서 인권이랄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반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다.

인권이랄 그러한 고무줄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즉 불가양도적인 천부의 권리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근대민주제국의 헌법은 이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체계인 것이다. 즉 인권사상이야 말로 민주사상의 근원이다.

우리는 다시 인권선언일을 맞아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당한 진실한 인식을 하여 과거의 그릇된 마비된 인권 의식을 각성시켜야 할 중대한 의의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다.

참으로 전술한 불란서 혁명의 이야기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권은 민중의 피로서 쟁취되고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났으니 우리가 인권을 지키는 태도도 이와 같은 피의 투쟁에 의하여서라도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일반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는 상당한 희생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타인의 권리가 유린되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는 자기의 권리나 타인의 권리나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동일 운명 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권을 모르는 탓이라 하겠다.

국가는 때때로 공공의 복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때때로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위정자의 속입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공의 복지란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일부 다매의 이익을 공공의 복지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애매한 개념에 의하여 가장 기본 되는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자각하여 이러한 식의 인권 침해로부터도 인권을 강력히 수호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높이고
높임받자
서로지닌
사람권리



원자력시대와 민주주의 (하)

아놀드 토인비

(오)(늘)(날)(의) 영국의 선거민은 막대(莫大)한 수에 달하는 세계의 선거민중(選舉民中)에서 가장 성숙한 부류(部類)에 들어간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국에서조차도 그렇게까지 공적(公的)인 문제들이 선거민(選舉民)에 의해서 콘트롤 될 수 없는 지경이라든 세계전체(世界全體)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적 악화상태(惡化狀態)는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은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공적(公的)인 문제의 번잡화(繁雜化)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거민중(選舉民側)의 지적(知的) 판단력(判斷力)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데 불과한 것이다. 공적(公的)인 문제가 비교적 간단한 사회환경에 있어서조차도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치명적(致命的) 약점을 드러내는 면. 즉 선거민의 도덕적 판단력(判斷力)의 불비(不備)라고 하는 면은 어떠한가.

민주정치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理念)의 기초적(基礎的) 조건의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투표자(投票者)가 지적(知的)으로만 현명(賢明)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이다. 즉 어느 쪽이 옳으냐고 하는 판별력(判別力)이 있을 뿐 아니라 가령 자기의 사적(私的)인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좋은 쪽의 길을 희망(希望)하고 그 쪽으로 투표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자(投票者)는 다소 현자(賢者)일뿐 아니라 다소는 성자(聖者)라고 보는 것이다. 즉 투표자(投票者)는 원죄(原罪)를 성자(聖者)와 같이 효과적으로 극복(克服)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회일지라도 그러한 경지에까지 도달한 투표자(投票者)가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원죄(原罪)는 문명에 대해서 아무런 사양도 나타내지 아니한다. 문명인(文明人)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개인(未開人)이라던가 원시인(原始人)이라던가 야만인(野蠻人)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원죄(原罪)는 그러한 자칭(自稱) '문명인(文明人)'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기원전(紀元前) 5세기시대(五世紀時代)의 아테네인(人)은 이지적(理智的)이고 교육있는 문명인(文明人)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리클레스의 정적(政敵)이 그들의 양심(良心)에 대해서 호소(呼訴)한데 대해 페리클레스가 그들의 사리(私利)에 대해서 호소(呼訴)함으로써 정적(政敵)을 물리쳤던 것이다. 우리들 20세기(二十世紀)의 서구인(西歐人)은 아테네인(人)들 보다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자부(自負)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도덕적인 면을 생각하여 본다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정치이념(政治理念)에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근본적(根本的)이고 무엇보다도 뚜렷한 약점이 표면(表面)에 나타난다. 데모 크라시 정치이념(政治理念)은 보통(普通)의 성년자(成年者)라든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별(判別)하는 지능(知能)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덕성(德性)을 갖출 것을 전제(前提)로 한다. 이러한 전제(前提)는 통치(統治)는 사회악(社會惡)이며 인간의 원죄(原罪)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형벌(刑罰)이다라고 하는 재래(在來)의 기독교의 교리(敎理)보다도 정치라는 것에 관한 진실(眞實)과는 훨씬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약점을 밀어 붙일 수 있는, 무엇인가 적당(適當)히 희망(希望)을 걸 수 있는 원군(援軍)이 천사(天使)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인가. 선거민(選舉民)의 질적(質的)인 농도(濃度)가 희박하여진 사실과 행정실무(行政實務)가 번잡화(繁雜化)한 사실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민주정치가 훌륭히 운용됨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의 보급(普及)이라는 것이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호조건(好條件)이 될 수 없을 것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종국적(終局的)으로 말해서 사실을 배운다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인생에 관한 도덕적인 훈련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보다 넓고 보다 깊은 의미의 교육이 데모크라시를 구(救)하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答)은, 세계의 타부분(他部分)보다도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라에서는 교육의 보급(普及)의 덕으로 우리들의 일생중에도 데모크라시가 보다 완전한 것으로 된다는 가능성이 뚜렷하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훌륭한 진보는 제1차대전후에 일반공중(一般公衆)의 감정(感情)이나 세론(世論)에 미치는 신문보도(新聞報道)의 강한 힘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사실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나라들에서 보는 그러한 경향은 그러한 점에 한(限)해서는 우리들에게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물들은 손을 놓고 기빠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첫째로는, 그러한 소수(少數)의 사회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있어서나마도 교육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선거민(選舉民)이 늘어났다는 것과 공무(公務)의 번잡화에 의해서 데모크라시가

받는 손실(損失)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보완(補充)하는가 하는 것. 둘째로는 세계의 태반(太半)에 걸쳐서 진정한 데모크라시라고 할 만한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좋은 결과를 교육이라는 것이 예측(豫測)할 수 있는 장래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다. 결국 인류전체(人類全體)의 현존인구(現存人口)의 약5분의1(約五分之一)밖에 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서양세계(西洋世界)에서조차도 서(西)유럽의 동부(東部)나 남부지역(南部地域) 제국(諸國)에서는 데모크라시를 성공시키는 점에 있어서 빠져서린 패배를 맞본 것이다. 근대서양적(近代西洋的)인 의회주의(議會主義) 데모크라시가 성(盛)하고 있는 듯한 지역은 불과 서북(西北)유럽과 북미(北美),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시대에 있어서의 데모크라시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필자는 지적(知的)이고 도덕적인 점을 모두 인정 하더라도 다음의 두 가지는 달성가능하다고 기대하여도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그 첫째로는 일국(一國)의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것이라 생각되는 세계정부(世界政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라는 것에 대하여, 시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은 어느 한도(限度) 이상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한도(限度)를 넘으면 반드시 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어느 일방의 정권보다도 타방(他方)의 정권을 택하여 정권의 좌(座)에 앉힌다고 하는 수단(手段)을 시민이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볼 것 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데모크라시를 가진 사회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지 않은 사회에 있어서조차도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이다. 가령 중국에 있어서는 정부가 전통적(傳統的)으로 마음대로 정치를 행하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중국에 있어서조차도 국민은 몇 번이나, 정부가 어느 한도(限度)를 넘어서 마음대로 하려 했을 때는 그것을 제지(制止)하고 그들의 실력(實力)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또한 세론(世論)이 신정권(新政權)을 지지(支持)하는 쪽으로 서서 힘의 균형을 종종 뒤집었던 것이 로마 제국(帝國)에 있어서도, 아라비아의 카리브 통치국(統治國)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번 씩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라비아의 카리브 통치국(統治國)에 있어서는 국민일반(國民一般)이 우마이야조(朝)를 폐하고 앗바스조(朝)를 택했으며 로마 제국(帝國)에 있어서는 국민이 아우구스투스 원수정치(元首政治)의 정신(精神)을 배척하고 데오구레티아누스 정권을 택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경우 스스로의 의지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한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적극적인 성질의 목적이 아니고 소극적(消極的)인 성질의 것이었다. 즉 정권을 스스로의 수중(手中)으로 쥔 것이 아니라 소수독재자(少數獨裁者)가 자기들 소수(少數)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독점하고 있는 정치권력(政治權力)을 지나치게 악용(惡用)하고 있다고 대중이 생각하였을 때 그러한 소수자(少數者)의 수중(手中)에서 정권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다. 제3세기(第三世紀)의 로마 제국(帝國)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8세기시대(第八世紀時代) 아라비아의 카리브 통치국(統治國)에 있어서도 일반의 세론(世論)이 지지(支持)한 것은 그때까지의 정체(政體)보다도 훨씬 더 독재적(獨裁的)이고 관료적(官僚的)인 신정체(新政體)였던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정권을 지지(支持)한 것은 그 새로운 정권이 적극적인 성질의 자치정치(自治政治)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특권(特權)의 배제(排除) 다시 말하자면 평등(平等)이라고 하는 소극적(消極的)인 의미에서 데모크라시의 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두 가지의 선례(先例)는 현금(現今)의 세계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특권(特權)의 배제(排除)와 평등(平等)의 확립은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도 대중이 명백(明白)하게 염원(願)하는 목표인 것이며 또한 실현의 방향(方向)을 향해서 우리들의 생애에 커다란 진보를 이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비교적 훌륭히 성숙한 나라의 국내생활(國內生活)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계급적(階級的) 특권(特權)이 우리들의 생애에 혁명적(革命的)으로 경감(輕減)된 사실을 눈으로 보아 왔던 것이다. 세계전체(世界全體)로서의 생활(生活)을 보는 경우에도 기왕의 서구제국주의국가(西歐帝國主義國家)가 아세아, 아프리카에 있어서 과거에 지배하여 온 사람들 위에 군림(君臨)하는 정도도 국내생활(國內生活)에 있어서의 계급적(階級的) 특권(特權)에 못지 아니 할 정도로 혁명적(革命的)으로 경감(輕減)된 사실을 뚜렷이 보아온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현대의 인간의 제관계(諸關係)가 평등(平等)이라고 하는 소극적(消極的)인 의미에 있어서의 데모크라시의 방향(方向)으로 강력(強力)하게 전진(前進)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趨勢)를 상징(象徵)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1914년(一九一四年) 이래 영국의 세제(稅制)가 진보하였다는 것, 그리고 버마, 세이론, 파키스탄, 인도 공화국(共和國)이 1947년(一九四七年)에 국가적(國家的) 독립(獨立)을 달성한 것이다.

인민(人民)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언젠가는 손에 넣는다고 하는 일반적(一般的) 경향(傾向)이 넓은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들이 지금(只今) 들어가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장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치제(自治制)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데모크라시의 진보보다는 사회적 평등(平等)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데모크라시의 진보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기(豫期)하여도 좋을 것이다. 대중이 의식적(意識的)으로 과거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치정치(自治政治)라고 하는 이상에 등을 대는 일이 또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중이 그러한 태도(態度)를 갖춘다면 그것은 '일의 성질 그 자체부터 자치정치(自治政治)의 제도는 언제나 이기적(利己的)인 소수자(少數者)의 수중(手中)에 놓인 것이 쉬우며 본래 대중의 동맹자(同盟者)와 같은 독재적(獨裁的) 관료정권(官僚政權)이 대다수대중(大多數大衆)의 이익을 유효(有效)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그러한 형(形)의 독재제(獨裁制)와 대중과의 동맹(同盟)에 의해 비로소 정치, 경제적(經濟力)이 특권적(特權的)인 소수계급(少數階級)의 수중(手中)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防止)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흉산(胸算)에 의한 것이리라. 관료(官僚)도 역시 일종(一種)의 특권소수계급(特權少數階級)에 지나지 않은은 물론이나, 중산계급(中產階級)의 의회주의(議會主義)와는 달라서 인민대중(人民大衆)의 동정(同情)과 지지(支持)를 받지 못한다면 그 권력(權力)의 지위(地位)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다른 어떤 종류(種類)의 소수지배계급(少數支配階級)보다도 대중의 이익을 지키는데 관심(關心)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급인 것이다.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정체(政體)의 이러한 독재적(獨裁的) 관료적(官僚的) 특질(特質)은 대중의 견지(見地)에서는 어른의 마음으로 자유(自由)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앞서의 소수지배계급(少數支配階級)의 견지(見地)로 볼 것 같으면 전체적(專制的)이고 자유(自由)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方向)으로 사회가 향한다고 하는 추세(趨勢)에 대하여 중류계급(中流階級)은 강력(強力)하게 저항(抵抗)할 것인가. 만약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가 전쟁에 의한 파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安全)하다면 중류계급(中流階級)의 강력(強力)한 저항(抵抗)이 행하여 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에 있어서는 계급의 상위, 민족의

상위, 문명의 상위의 어느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파괴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공포는 대단한 것이다. 우리들의 의회주의제도(議會主義制度)에 있어서는 현상(現狀)의 그대로의 기구로서는 그 위기에 대한 안전(安全)은 조금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러나하면 이러한 현상(現狀)의 그대로의 기구는 원자병기(原子兵器)에 대한 통제(統制)가 단일(單一)의 정부에 의해서 일원화(一元化)되는 세계국가(世界國家)가 아니고 아직도 원자전쟁(原子戰爭)을 상호(相互)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국지적(局地的) 독립주권제국가(獨立主權諸國家)라고 하는 혼돈(混沌)된 상태(狀態)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평등(平等)을 바라는 절대다수(絕對多數) 인류의 희망(希望)과 뒤섞여서 이러한 원자전쟁(原子戰爭)에 대한 만인(萬人)의 공포(恐怖)는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관료적(官僚的) 세계정부(世界政府)의 발흥(勃興)을 조성(助成)하는 심리적(心理的) 추진력(推進力)인 것이다.

(이)러(한) 실은 개인의 인격이 다음의 세계사의 새로운 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暗示)하고 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윈스턴 처칠의 정치경력(政治經歷)은 어떠한 현대의 지침(指針)인지도 모른다. 바르바로 말해서 지난날의 비슷한 위기에 당하여 세계를 구제(救濟)한 사람들이 지녔던 것과 같은 훌륭한 자격(資格)을 갖춘 정치가(政治家)들에게 인류가 귀를 맡기어 주지 않고도 과연 우리들의 세계가 자살(自殺)하지 않고 이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필자는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예로서 필자는 다음의 두 인물을 들고자 한다. 그것은 한(漢)의 건국자(建國者) 유방(劉邦)과 로마의 건국자(建國者) 아우구스투스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네 가지 자격(資格), 즉 통찰력(洞察力)과 절도(節度), 인내(忍耐), 그리고 지구력(持久力)을 들고자 한다. 인류는 일부터 자살(自殺)을 피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우구스투스나 유방(劉邦)에 비등(比等)하는, 누구든 새로운, 건설적(建設的)인 인자(仁慈)가 풍부한 정치가(政治家)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한 자유재량(自由裁量)의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 상상된다.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은 의회주의적인 데모크라시에 있어서는 아마도 정통파(正統派)가 못 된다는 점을 필자 자신도 물론 알고 있다. 다만 지금 필자는 냉정(冷靜)하게 진심(眞心)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똑바른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을 끝내기 전에 필자의 소론(所論)을 상세(詳細)하게 적어서 그 뒷처리를 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列擧)한 정치가(政治家)의 네 가지 자격조건(資格條件)을 하나씩 들어서 다음의 점을 논(論)하고자 한다. 그 첫째 점은 우리들이 현재 직면(直面)하고 있는 명백하게 위험(危險)한 사태(事態)로부터 헤어나기 위해 필요(必要)한 정도와 필요한 속도를 지고서 인민(人民)이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유능(有能)한 인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이 그의 불가결한 자격조건(資格條件)을 육성발전(育成發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둘째 점은 앞서 말한 두 사람의 역사상(歷史上)의 정치가(政治家)는 둘이다 우리들의 시대(時代)에 있어서도 세계의 제문제(諸問題)를 담당(擔當)시킬 필요가 있는 정치가(政治家)의 유형(類型)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첫 번째의 통찰력(洞察力)이라고 하는 자격(資格)에 대해서 말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점을 통찰(洞察)해내는 정치가(政治家)의 수중(手中)에 맡기지 않아서는 우리들의 세계를 파국(破局)으로부터 구(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첫째 점은 인류가 오늘날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예리(銳利)한 무기로서 무장하고 있는 한 유효(有効)하고 신속하게 현재의 국지적(局地的)인 주권국가(主權國家)로부터 그의 주권(主權)을 빼앗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점은 서양선진국가(西洋先進國家)에 있는 산업노동자(產業勞動者) 그 이외의 제국자전부(諸國家全部)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유효(有効)하고 신속(迅速)하게 서양선진국(西洋先進國)의 중류계급(中流階級)과 사회적으로 평등(平等)의 지위(地位)까지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둘째 점은 최고도(最高度)의 정치가(政治家)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승서로 전쟁을 전폐(全廢)하고 사회적 불평등(不平等)이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도록 개선했다면 그 때는 그들 두 가지의 절대불가결(絕對不可缺)한 개혁(改革)이 결과가 원인(原因)이 되어 것으로 인해서 말서스가 말하는 생활수단(生活手段)에 대한 인구의 역력(歷力)이라고 하는 문제가 급속(急速)한 형태(形態)로 그것도 세계적(世界的)인 규모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명령권(命令權)을 갖는 지도력(指導力)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계의 선거민(選舉民)이 이상과 같은 비상(非常)한 큰 세가지 점 중 단 하나라도 인식을 고칠 수 있는 통찰력(洞察力)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필자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러한 통찰력(洞察力)을 갖춘 정치가(政治家)가 지난날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둘째의 필요한 자격조건(資格條件)은 절도(節度)라는 것이다. 통찰력(洞察力)이라고 하는 자격(資格)이라면 히틀러 같은 악학(惡虐)한 독재자(獨裁者)나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같은 무도(無謀)한 폭군(暴君)이나 줄리어스 시저와 같은 성급(性急)한 군주(君主)에게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인 것이다. 그러나 통찰력(洞察力)을 실행(實行)에 옮겨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유방(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인물의 특색(特色)이었던 자격(資格), 즉 절도(節度)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들은 모두 ‘급하면 돌아라’던가 ‘체면을 지켜라’ 등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깊이 뿌리박은 인습(因習)이나 편견(偏見) 등을 타파(打破)하기 위한 속공적(速攻的)인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가(政治家)가 상대(相對)해 나가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의 성질을 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낙타와도 같은, 말과도 같은, 또는 산양(山羊)과도 같은 인간성인 것이며 일정한다(一定限度) 이상으로 강제(強制)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한도(限度)를 넘으면 반항적(反抗的)으로 되어서 명령자(命令者)의 목적을 부셔버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뒤에서 쫓는 것 보다는 이끄는 것이 쉬운 동물인 것이다. 히틀러나 시황제(始皇帝)나 줄리어스 시저가 이룩하였던 것이 결국 무너지고만 주된 이유도 그들이 한결같이 유방(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가 비상(非常)하게 고도로 발휘(發揮)한 장점, 즉 절도(節度)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제)삼(의) 필요자격(必要資格)인 도량(度量)이라는 것은 즐거이 그리고 혼연(欣然)하게 우자(愚者)들을 포용(包容)하는 힘인 것이다. 순교자(殉教者)와 같은 인고(忍苦)로서가 아니라 마치 즐거운 듯이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달인(達人)의 예(藝)로서 그것이 되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도량(度量)이라는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의 두 사람의 근대 미국정치가(美國政治家)가 그러한 능력을 결(缺)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경력(政治經歷)에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이 입증(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전에 국무장관(國務長官)이었던 애치슨씨(氏)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씨(氏)의 두 사람인 것이다. 두 사람 다 중요한 지위(地位)에까지 오른 정치가(政治家)로서 더욱이 위대(偉大)한 통찰력(洞察力)과 지성(知性)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정치상(政治上)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 다 야만인(野蠻人)들과 접촉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못 견디게 고통(苦痛)스러웠던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는 야만인(野蠻人)들이란 상원의원(上院議員)이나 신문기자(新聞記者)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참아 나가는 것이 못 견디게 고통(苦痛)스러웠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苦痛)을 감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깊은 반감(反感)을 사게 되었고 개인적(個人的)으로 치열한 반대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이러한 도량(度量)과 애상(愛想)이라는 점에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라던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실적과 비교한다면 전(全)혀 대조적(對照的)인 것이다. 앞서 말한 유방(劉邦)이나 아우구스투스는 사실상(事實上)의 독재권력자(獨裁權力者)이기는 하였으나 그의 정책(政策)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자(愚者)나 야만인(野蠻人)들의 무단(不斷)의 협력(協力)이 절대(絕對)로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역시 그러한 우자(愚者)나 야만인(野蠻人)들을 구슬린다는 예(藝)를 완전히 즐거운 듯이 해내었던 것이다.

제4(第四)의 필요자격(必要資格)은 지구력(持久力)인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상당히 강했다. 히틀러는 결점(缺點) 투성이의 발작적(發作的)인 기질(氣質)을 가졌었으며 지구력(持久力)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약하여 결과적으로 자기를 멸망시켰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운이었던 것이다. 한(漢)의 유방(劉邦)과 아우구스투스는 모두 이러한 지구력(持久力)의 장점을 고도로 발휘(發揮)한 사람들이며 그 중에서도 유방(劉邦)은 뛰어났던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結論)코자 한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나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에 있어서 세계의 통치자(統治者)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당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쟁의 위기에 뒤에서 막치는 인구문제(人口問題)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政治家)로서의 이상의 네가지 자격(資格)은 불가결인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독자자신(讀者自身)이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았으면 한다. 즉 뉴질랜드나 덴마크의 선거민(選舉民)과 함께 골드 코스트나 나이지리아의 선거민(選舉民)까지를 포함(包含)하는 오늘날의 세계선거민(世界選舉民)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필요한 시기(時期)까지의 이상의 네 가지 훌륭한 조건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진심(眞心)으로 ‘실현된다’는 답(答)을 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가(政治家)들로 하여금 이 위기에 처한 데모크라시를 구원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결점(缺點)이 적은 종류(種類)의 독재정권(獨裁政權)일지라도 역시 폐해(弊害)와 위험(危險)이 따름은 주지의 사실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태(事態)가 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일이란 무엇이던 대가를 지불(支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원자력시대(原子力時代)에 있어서 데모크라시를 구하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물론 지극히 비싼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끝)

(P 15에서)

시에 수리(修理)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그 부분이 개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63년도 중기(中期)에 인간위성(人間衛星)으로 하여금 지구(地球)를 일주야(一晝夜)동안에 선회(旋回)하게 하려는 ‘머큐리’ 계획최종절(計畫最終節)을 보다 더 자신(自信)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얻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 인간위성(人間衛星) 발사성공(發射成功)과 더불어 7월10일(七月十日)에 미국이 발사(發射)한 ‘텔스타’ 위성(衛星)의 성공의 의의(意義)도 높이 평가(評價)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그러한 중계위성(中繼衛星)이 약50개(約五十個)는 더 발사(發射)되어야만 온 세계의 ‘텔레비전’ 및 장거리 무선통화(無線通話)를 ‘커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여하튼 ‘텔스타’ 위성(衛星) 하나만으로도 미국과 구라파를 ‘텔레비전’으로 연결(連結)시켰다는 것은 여간한 업적이 아닌 것이다. ‘텔스타’ 위성(衛星)을 지구(地球) 3만4천3백(二萬四千三百) ‘킬로미터’ 상공에 각기 120도(百二十度) 각도(角度)를 유지하게 발사(發射)하면 그것만으로 전세계(全世界)를 ‘커버’하는 ‘텔레비전’ 중계(中繼)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른지는 예측(豫測)키 곤란하다. 다만 지난 7월(七月)에 발사된 ‘텔스타’ 위성(衛星) 하나의 성공만으로도 오는 64년동경(六四年東京)의 ‘올림픽’을 세계 넓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希望)을 불러넣어 주기에 충분(充分)한 것이었다.

앞으로 2년(二年)동안 미국이 얼마큼 노력하는가에 따라 최소의 중계위성수(中繼衛星數)로 최대지역(最大地域)에 걸쳐 중계(中繼)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닦아져 나올는지 모르겠기에 말이다.

이밖에 62년도 우주과학계(宇宙科學界)의 일로 주목되는 것으로는 소련이 종래 한 두가지 인공위성(人工衛星), 인간위성(人間衛星), 혹은 우주 ‘로켓트’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2개의 인간위성(人間衛星) 이외에도 10개(十個)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을 발사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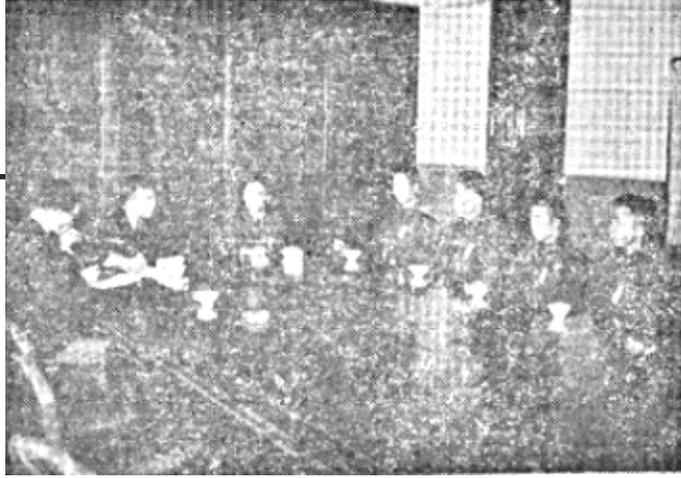
그것이 순전(純全)히 과학적(科學的)인 ‘데이터’ 수집(蒐集)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 비밀(秘密) 속에 잠겨있는지라 과연(果然) 무슨 목적을 지닌 것인지는 그 나라 밖에 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미국은 기상위성(氣象衛星)인 ‘타이로스’를 비롯해서 꾸준히 실용위성(實用衛星)을 발사(發射)해왔고 ‘데이타’가 비밀(秘密)에 붙여지게 된 정찰위성(偵察衛星)인 ‘사모스’ 등 군사위성(軍事衛星)도 꾸준히 발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만 미국이 달과는 별(別)로 인연(因緣)이 얇아서 그런지 ‘레인지’ 34호(三四號)를 모두 실패(失敗)했다는 것이 앞으로 본격적(本格的)인 달 여행(旅行)을 하기 위한 시일을 그만큼 연기(延期)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느낌이 든다.

꺼진불도
다시보자
너도나도
불조심

좌담회(座談會)



백산 꿈을 바라보며...

공사생도(空士生徒)의 생활(生活)을 말 한다

때: 1962년 11월 21일 15시 (一九六二年 十一月 二十一日 十五시)

곳: 공군사관학교 회의실 (空軍士官學校 會議室)

참석자: 김유기 생도(生徒) (4학년)
김두석 생도(生徒) (4학년)
장덕수 생도(生徒) (2학년)
손덕규 생도(生徒) (2학년)

참여(參與): 고영근 중령 (생도전대 제1대대장(第一大隊長))
김찬구 소령 (공사-정훈관 실장)

사회(司會): 민재익 대위(大尉)

공사 10훈(十訓)

1. 용의단정(容儀端正)
2. 청렴결백(清廉潔白)
3. 성심복종(誠心服從)
4. 책임완수(責任完遂)
5. 신의일관(信義一貫)
6. 공평무사(公平無私)
7. 침착과감(沈着果敢)
8. 신상필벌(信賞必罰)
9. 술선수범(率先垂範)
10. 사위겸비(思威兼備)

사회(司會):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관학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대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 군대를 움직여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군의 자랑인 공군사관학교의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고중령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특정한 학교를 지원할 때는 희망과 꿈과 포부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들어보려고 할까요? 먼저 4학년의 김유기 생도부터...

김유기: 입교한지도 이젠 오래되고 보 생생한 느낌은 없습니다만, 조종사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 보겠다는 꿈이 아무래도 지배적인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수: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사람은 누구 할것 없이 하늘을 날아 보겠다는 꿈 안고 입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司會): 하늘에의 꿈을 안고 - 좋은데요. 어디, 대장님의 젊은 시절의 꿈을 한번 들려주세요.

고중령(高中領): 사내다운 일이나가요. 스틸

이 있고 또 비행한다는 그 자체가 의의 있는 일입니다.

사회(司會): 교육계획을 들려주세요. 조종사로서, 말하자면 장래의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기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주기 위한 학과 등을 말씀입니다.

고중령(高中領): 생도들은 학과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기계학이니 전기학이니 역학이니, 게다가 일반 군사 과학 등 사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다 필요해요. 이공과 계통의 지식은 절대 필요하니까요. 모두가 필요한 교과 과정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군인으로서의 정신적 무장을 해야하니 이러한 정신교육 과정이 있지요.

사회(司會): 김두석생도는 이런 교과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지요? 그 스케줄을 들어볼까요.

김두석: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시간적 활동은 다소 다릅니다만, 대체로 여섯시에 기상하면 주변정리를 한 뒤 아침 자습시간이 있습니다. 정상학과는 오후 4시 45분(四十五分)에 끝나면 5시까지 주변정리를 하고 저녁의 자습시간이 있습니다.

사회(司會): 과외활동은?

손덕규: 목(木)요일에 합니다. 통신반, 영어회화반, 일어반 등이 있고 또 마스크, 문예, 음악, 등의 반도 있습니다. 한 달에 1회정도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곤 합니다. 각 종류별로 반을 조직하고 있는데 문예반, 음악반 등 정서적인 면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司會): 꼭 다채로운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손덕규: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학과외의 이러한 상식을 가지는데 크게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司會): 4학년의 김유기 생도는 어느 클럽에 속해있지요?

김유기: 저는 영어회화반입니다. 각 반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미나 소질을 따라서 이밖에 새로이 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윈예반, 축산반도 있는데 미꾸라지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오이씨를 연구하고 화초를 가꾸고...

사회(司會): 김유기 생도가 하고 있는 영어회화반의 활동은 어떻지요?

김유기: 주로 회화공부를 하고 있는데 녹음기 같은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회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양식, 생활태도, 생활감정 등을 알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사회(司會): 과외활동에는 자유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대장님께서 어떤 방침으로 지도 하시는지요.

고중령(高中領): 강제성을 띄우지도 않습니다. 자유로이 그리고 자치적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신실한 축산반이며 윈예반은 동물을 애호하고 식물을 가꾸어야 한다는 정신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토끼를 손질하는 등 특히 딱딱한 분위기를 풀고 정서적인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문학 감상이니 음악 감상은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음악 강사를 초청했을 때 들어가 보았는데 평소의 긴장을 푸는 데는 참 좋더군요.

사회(司會): 가장 자유시간이 많은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일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요. 장덕수 생도는 어떻게 지내니까?

장덕수: 밀린 과목을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잘 안됩니다. 역시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을 시간적으로 쉼 없는 생활 하기 때문에 모처럼의 일요일이 되니 할 일이 역시 많습니다. 세탁을 하는 때도 있구요. 외출을 하게 되면 영화도 보게 되고 만날 사람들도 있구요.

사회(司會): 김유기 생도는.

김유기: 1,2(一,二)학년 때는 일요일이면 무조건 외출 했습니다. 그러나 3,4(三,四)학년이 되면 무조건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출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자 친구를 만나고, 영화, 등산을 즐기기도 합니다.

사회(司會): 사관생도는 여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걸프렌드와의 접촉 같은 것 말입니다(소성(笑聲)).

김두석: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성(笑聲)). 먼 데서 바라보는 눈치예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동경하는 눈치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이대(梨大), 숙대생(淑大生)들로부터 저희들 공사생도와 교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외에도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접촉하기도 하지요.

사회(司會): 대개 그럴 경우 걸들이 어떻게 보지요. 생도 여러분들?

김두석: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에고'하지 않고 그러자니까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고 믿음직한 맛이 있다더군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에티켓이나 처신에 늘 신경을 쓰게 되는데 한 사람의 처신이 전 생도의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를 말해도 무게 있는 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 불쑥 말을 걸어 올 때는 당황하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리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司會): 데이트를 많이들 하나요?

김두석: 가끔 합니다.

사회(司會): 대장님 생도들의 이 방면에 있어서의 생활을 지도 하신편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 하시나요?

고중령(高中領): 물론 관심이 큼니다.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 이대(梨大), 숙대(淑大)의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을 받곤 하는 데요. 저번에 있었던 문학모임에서도 공사생도들이 읽은 시가 가장 멋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대생들이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초청을 했습니다. 여성들과 적당한 사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교를 통해서 에티켓을 몸에 익히고 또 각자의 여성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김소령(金少領) : 사춘기를 벗어난 젊은이로써 여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까 리드를 당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관생도들은 평소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학교 당국에서 생도들에게 요구하는 생활규범도 많은데 이러한 긴장된 생활의 결과로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전 사관생도의 명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나머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전 생도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자연히 매사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 점이 반대학생과 다른 점이었지요.

사회(司會) : 아까 배우자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님의 결혼 동기는 어떻습니까?

고중령(高中領) : 글썄요... 나이가 차서 장가를 갔지요. (소성(笑聲)).

사회(司會) : 아까 정신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가령 명예심을 가지게 한다던가.

고중령(高中領) : 미국 사관학교의 4개 표어가 있지요. 권능을 하지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등. 공군사관학교에는 '공사10훈'이 있고 생도들이 자치적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사10훈'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도들의 명예에 관한 사건이 있으면 명예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4년 동안 '공사10훈'을 지켜 가면 도덕관념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장덕수 생도 손덕규 생도

사회(司會) : 생활을 순화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게 하고... 김실장(室長)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김소령(金少領) : 24시간 훈육관이 생도들의 생활면을 전담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명예심을 길러주고 보다 완전한 군인을 만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장래의 중견간부가 된다는 긍지와 소양을 갖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기 : 명예제도는 그것을 하나의 전통화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위원회는 생도들의 명예에 대한 토의를 하고 저축 여부를 투표로써 판정하여 결정하지만 명예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다면 현대 젊은이가 지켜야하는 높은 수준의 신사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에 기반을 둔 거 리낌 없는 행위, 누가 보아도 떳떳한 행위가 명예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칙 때문이 아니라 명예의 근본 되는 본질에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고 또 제도를 떠나서 스스로 자각 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司會) : 전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선배에서 물려받아 후배에게 물려줄 전통은 무엇이라고 봅니다? 김유기 생도.

김유기 : 글썄요. 이거다 저거다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령, 자동판매기 같은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사든지 자유니까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구요.

사회(司會) : 그건 물론 자동판매기 자체가 아니고 자동판매기 제도가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겠지요.

김유기 : 네. 그 분위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 둘 수 있기 때문에 자동 판매기로서 족한 것이며 그 족하다는 분위기, 그것은 전 생도의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덕수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뭣하지만 고등학교때 교실 안에서 잃어버린 적이 많았어요. 사관학교의 이런 분위기란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회(司會) : 그 전통이 길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끝이겠습니다.

생생한 교훈

나이가 겨우 3십7세로서,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비누, 치약 회사인 티버 브라더스 회사 사장이 된 찰스 라크만씨는 상금과 이익 배당을 제해놓고서도 해마다 10만달러의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돈 많은 미국 사회에서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

‘영웅이 되는 것과 방랑자가 되는 것의 차이는 머리칼 한 오라기의 차이이다.’라고 새삼스럽게 자기의 경험을 반성하며 남에게 말하는 라크만의 과거는 남보기 처럼 평탄하고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학하면서도 언제나 최우수의 성적으로 중학을 졸업하고 장학금을 무료로 받고 들어갈 수 있었던 대학은 주립의 상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얼마 뒤에 그곳을 그만두고 일리노이 대학의 건축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해도 이 대학의 건축기사라는 간판도 당시의 불경기 때문에 한 장의 휴지 값 밖에 못되었을 때 그는 곧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선 것이 비누 판매원이 되었던 것이다.

I. 리퍼블릭(republic) F-105D
Thunderchief의 무장계통(武裝系統)과 항공작전개념(航空作戰概念)

- 완벽화(完壁化)된 무장계통(武裝系統)
- 기체의 특성과 그 운반능력(運搬能力)
- 결합된 항법장치(航法裝置)와 화력제어계통(火力製禦系統)
- 작전면(作戰面)에 대한 고찰

전장(前章)에서 기술(記述)한 바와 같이, 현대의 항공작전개념(航空作戰概念)은 급기야(及其他) 다용도단좌전투기(多用途單座戰鬥機) 방어에서 공격으로, 핵무기의 미소화(微少化)와 그 운반의 가능, 고공, 저공에서의 적에 대한 초음속 자동폭격(自動爆擊), 무장정찰(武裝偵察), 제공작전(制空作戰), 장거리이동(長距離移動) 등의 필요성(必要性)을 낳아서, '미사일' 경쟁(競爭)과 더불어 전투기의 개발이 고조(高潮)되고 있었는데, 오늘날 미공군의 전술기중(戰術機中)에서 이러한 다용도성(多用途性)을 처음으로 충족(充足)시켜준 '리퍼블릭(republic)' F-105D Thunderchief에 대해 언급(言及)함으로써 현대의 항공작전(航空作戰)에서의 양상(樣相)과 다용도전투기(多用途戰鬥機)의 운용면(運用面)을 고찰해 볼까 한다.

이 F-105D가 실전에 적합(適合)하다고 결정(決定)되기 까지는 무려 연5백만시간(延五百萬時間)의 연구기간(研究期間)을 포함하는 약7년간(約七年間)의 시일과 10억여불(十餘億弗)의 개발비(開發費)가 투자되었었다. Tactical Air Command와 Air Material Command에서 Republic Aviation corporation과 공동(共同)으로 이와 같은 고가(高價)의 항공기개발제작(航空機開發製作)에 착수하고 이를 다량생산(多量生産)하기로 결정(決定)한 사실은 아직도 유인항공기의 실전가용성(實戰可用性)을 입증(立證)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초음속전폭기(超音速戰爆機)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유인조종(有人操縱)처럼 정확하고 능률(能率)있게 감당(堪當)할 '미사일'은 상급(尙尙) 없는 것이다.

미공군이 F-105D Thunderchief에게 요구하였던 중요임무(重要任務)를 본다면,

1. 적군사잠재력(敵軍事潜在力)의 파괴

최고900(最高九〇〇)n.m. 지점(地點)까지 대형(大型) 고위력(高威力)의 핵폭탄(核爆彈)을 운반하며, 저공에 있어 Mach 1 이상, 고공에 있어서는 Mach 2 이상의 속도로 폭탄투하(爆彈投下)가 가능 (정확도(正確度)는 저공 Mach 1에서 150-350yds, 고공 Mach 2에서 600-900yds 내의 편차)

2. 지상군지원(地上軍支援)

고성능폭탄(高性能爆彈), 살상폭탄(殺傷爆彈), 비이팜 탄(彈)의 투하(投下)와,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에 대한 기관포와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의 발사(發射), 또한 동체내의 폭탄창(Weapon bay)의 무장외(武裝外)에도 기체밖에 최대한(最大限) 5톤의 무장이 장착 가능.

3. 적레이다 시설(施設)의 파괴

기체에 장비한 특수(特殊)레이다 호밍(Homing) 기구에 의한 적의 레이다 스테이션(Radar station)의 탐지(探知), 파괴(破壞).

4. 무장정찰(武裝偵察)

전술정찰기(戰術偵察機)로써 적의 상공을 강행정찰(強行偵察)하기 위해서, 자위용(自衛用) 무장.

5. 지상적기(地上敵機)에 대한 파괴(破壞)

원래(原來) Mach 2의 속도로 고성능(高性能)의 적기요격임무(敵機邀擊任務)는 F-105D의 기능에 포함 안 된 것이어서 때때로 초계비행(哨戒飛行), 국지요격임무(局地邀擊任務)에만 쓰이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F-105D는 반자동식(半自動式)으로 수행하는 전천후작전임무(全天候作戰任務)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全部) 구비(具備), 여기에서, 전천후작전(全天候作戰)을 F-105D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말로 무장계통(武裝系統) 고안(考案)에 있어서 결정적(決定的)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구라파나 아세아(亞細亞)의 1년중(一年中) 수개월(數個月)은 악천후조건하(惡天候條件下)에서 작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처음부터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F-105D의 웅자(雄姿)



F-105D가 적재할 수 있는 방대한 무장 (폭탄창과 주익(主翼) 밑에 장착적재(裝着積載)할 수 있다)

보다 기동성있는 '무기'로 당분간(當分間)은 계속 잔존(殘存)하고 있을 것이다. (F-105D 같은 전폭기(戰爆機) 1대는 IRBM 1대 비용(費用)과 맞먹는다)

완벽화(完壁化)된 무장계통(武裝系統)

리퍼블릭 전투기(戰鬪機)의 중점은 무엇보다도 무장계통(武裝系統)의 현대화에 있다. F-105D 제작(製作) 과정(課程)을 훑어본다면,

- 1951년(一九五一年) - 처음으로 연구에 착수
- 1955년10월22일(一九五五年十月二十二日) - 원형(原型)(XF F-105A)의 최초비행(最初飛行)
- 1956년5월(一九五六年五月) - F-105B가 시험비행(試驗飛行)
- 1958년5월(一九五八年五月) - F-105B가 한국동란(韓國動亂)에서 그 용명(勇名)을 떨쳤던 미공군 제4전투비행단(第四戰鬪飛行團)의 제335전술전투비행대대(第三三五戰術戰鬪飛行大隊)에 배속(配屬)
- 1959년7월7일(一九五九年七月九日) - F-105D가 처녀비행(處女飛行)

이러한 개발과정(開發課程)을 통해서 리퍼블리사(社)는 미공군에서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事項)을 연구하였는데,

- 가, 초음속 단좌형(單座型)
- 나, 중량12(重量十二)톤 내
- 다, 음속권내(音速圈內) 비행에 있어서 항력의 감소

그러므로 F-105D는 여하(如何)한 기상조건(氣象條件)에서도 그 임무(任務)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有數)한 항공기일 뿐더러 대부분(大部分) 고도의 자동식(自動式) 무장계통(武裝系統)이기 때문에 항법(航法)과 조종보조장치(操縱補助裝置)가 조종사의 부담(負擔)을 덜고, 다만 전투(戰鬪)에만 주력(注力)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착륙접근(着陸接近)까지도 조종사의 조작(操作)이 필요없이 자동화(自動化)가 가능한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군에서 제공권(制空權)이라는 것은 유인항공기 또는 미사일이 어떤 악천후와 상대적국(相對敵國)의 여하(如何)한 저항(抵抗)에도 능히 적의 목표물을 격파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사일의 경우에서 이것이 잘 조작(操作)될 때에는 별문제(別問題)이지만, 그러나 그 명중률(命中率)의 정확성(正確性)은 아직도 의문(疑問)의 여지(餘地)가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항공기가 미사일에 비해서 적의 방위능력(防衛能力)을 고려해 볼 때에 약점(弱點)이 있기는 하나 전자장치(電子裝置)를 이용하여 적의 레이더 유효망원하(有效網圈下)의 저공비행(低空飛行)으로 또는 ECM 작동으로서 적의 레이더 포착(捕捉)을 피할수가 있고, 계속해서 목표에 접근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수(機首)를 자유자재(自由自在)로 변경(變更)함으로써 자기방위(自己防衛)를 하여가며 정확하게 폭탄과 미사일을 발사(發射)하여, 효과적인 공격임무(攻擊任務)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1개의 IRBM 대대(大隊)가 전폭대대(戰爆大隊)보다 운용유지비(運用維持費)가 덜 든다 하지만 항공기는 미사일처럼 한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전이나 국지전(局地戰)에서나 모두 적의 목표물 파괴라는 것이 필요한 이상 유인항공기는 다용적(多用的)이고 정확하면서도

- 라, 표준무장(標準武裝) - M61 20m/m 속사포 6문(六門)
- 마, 자동항법(自動航法) 및 보조장치(補助裝置)
- 바, 무장계통(武裝系統) - 폭탄창에 핵무기적재(核武器積載), 초음속투하(超音速投下)

*동체속에 폭탄창을 둔 이점(利點)

- ① 부가적(附加的)인 외부항력(外部抗力)이 없다.
 - ② Mach2의 초음속접근(超音速接近)이 가능하다.
 - ③ 핵무기와 연결(連結)되어 있는 전기접선(電氣接線)이 악천후나 기류(氣流)에 노출(露出)이 안 된다.
 - ④ 폭탄을 항공기동체(航空機胴體)의 복판에 적재함으로써 발사시(發射時)의 기예(機體), 동요(動搖)나, 투하탄도(投下彈道)의 편차가 적다.
 - ⑤ 핵무기적재(核武器積載)가 외부(外部)로 노출(露出)안 된다.
- 그리고 또한 F-105D의 무장능력(武裝能力)을 개관(概觀)하면, 기수(機首)에, △ 매분6,000발(每分六,〇〇〇發)의 GE T-171 E-3(M-61)20m/m 기관포-6문(六門). 폭탄창에, △ 2,000(二,〇〇〇)파운드의 핵폭탄(核爆彈), 대형폭탄(大型爆彈) △ 4,000(四,〇〇〇)파운드 고성능폭탄(高性能爆彈) △ 1,000(一,〇〇〇)파운드 폭탄 4발 △ 네이팜 탄(彈)(또는 보조 탱크로서 폭탄 조립(組立)이 가능) △ 공대지(空對地) 미사일(White-lence) △ 공대공 미사일 4발(Side-winder) △ 공대공, 공대지겸용(空對地兼用) 로케트탄(彈) 190발(一九〇發) 등 방대하고도, 자동장치(自動裝置)로 공격이 가능한 무장계통(武裝系統)을 갖추고 있다.

기체의 특징과 그 운반능력

F-105D 기체의 안전하중계수는 8.67gram에 파괴하중계수(破壞荷重係數)는 13gram인데 어느형(型)의 전투기보다도 높은 수치(數値)로서, 초고속(超高速), 초저공(超低空) 비행으로써 LABS 공격이 가능하다. 이 안전하중계수는 공격임무(攻擊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압력(壓力)과 기체에 오는 화력(火力)에 대한 취약도 및 항공기수명을 결정(決定)하여 줌으로, 설계상(設計上)의 Key Point가 되는 것이다.



- 주익(主翼)과 미익(尾翼)은
- 초음속, 초저공(超低空)에서의 전폭임무(戰爆任務)
 - 적재물의 최적도(最適度)의 고려
 - 중력중심에서의 급변전(急變轉)을 위한 자동조준(自動照準)
 - 목표물접근을 위한 안정도(安定度)
 - 음속권내비행(音速圈內飛行)에 있어서의 최저항력(最低抗力)

등을 최대(最大)로 고려해서 설계되었었으며 특히 전기장치(電氣裝置)와 연료탱크를 유압계통에다 특수(特殊)하게 적용(適用)시킨 점이다. 여기에서 F-105D의 후부동체(後部胴體)의 '크로버알'이라고 불리우는 4매(四枚)의 '에어 브레이크' 장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에어 브레이크는 제트 엔진의 배기구(排氣口)를 감싸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조종사는 네 가지 위치를 조절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제1위치 - 완전히 폐쇄(閉鎖)되는 형태로서 아프타 바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제2위치 - 약간의 간격이 생기는 형태로서 아프타 바너를 사용할 때, 제3위치 - 좌우의 2매가 열리는 형태로 속도조절이나 착륙시에 사용한다.

제4위치 - 4매의 브레이크가 전부 열린 형태(死態)로서 감속(減速) 또는 급강하(急降下)할때에 사용한다. 다음, 수직미익에는 아프타 바너 냉각공기(冷却空氣)의 흡입구(吸入口)가 있다. F-105D의 심장인 엔진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비행안전(飛行安全)에 크게 기여(寄與)하고 절대적(絕對的) 신뢰성(信賴性)을 가진 Pratt & Whitney J75-19W로서 저압8단, 고압7단의 15단계압축기와 고압용1단(高壓用一段), 저압용2단의 세 개의 '타빈 호일'을 사용하고 있다. 아프타 바너를 사용할 시에는 24,500파운드의 출력(出力)을 내고, 수압장치를 이용한 분사를 병용하면 26,5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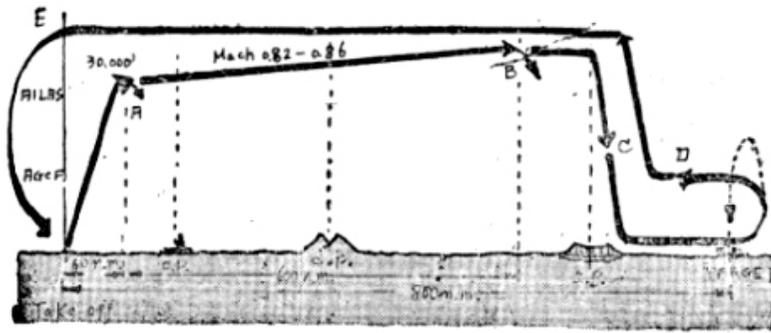
공기흡입구는 F-105D의 외형(外形)을 특징지어주는 요소로서 1분간 백만(百萬) Cubic/feet 이상의 공기(空氣)를 흡입하므로써, 비행중에 있어서, 초음속파동에 의한 난류(亂流)를 방지(防止)하는 'Double shock Wave'를 발생(發生)하게 한다. 강력(強力)한 엔진에 필요한 대량의 공기를 공급하며, 기체의 속도나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필요한 공기량을 확보하고 유속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기관의 특징과 더불어서, 다음엔 F-105D의 그 운반력을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F-105D의 성능은 20ton급(級) 무게의 항공기로서는 놀랄만한 것으로 기체 외(機體外)에다 장착물없이 수평 비행에서는 Mach 1.25, 36,000 피트에선 Mach 2.15의 속도를 내며, 아프타 바너 없이도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가 있다. 아프타 바너와 수압장치를 이용한 분사(噴射)(Water injection)를 사용하면 요격임무(邀擊任務)의 경우에는 이륙직후 2분1초이내에 약 40,000피트 상공에까지 상승할 수가 있게 된다. 이륙, 활주(滑走)를 개시(開始)하여 8,500피트 고도(高度)에 상승하기 까지는 불과 55초밖에 안 걸리며, 상승고도(上昇高度)는 50,000피트 이상인데, 36,000피트의 고도에서 최대속도(最大速度)로 가속(加速)을 하면 70,000피트 고도에까지 기동(機動)할 수 있는 급상승(急上昇)이 가능하다. 또는 탄도(彈道) 근처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그 고도이상으로 발사할 수가 있으며 40,000피트 고도와 초음속에서 F-105D는 5.5G까지 G를 걸면서 수직선회를 할 수가 있다.

Thunderchief의 운반능력(運搬能力)은

첫째, 장거리임무수행(長距離任務遂行)의 전형적인 사실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 즉 47,000파운드의 이륙시(離陸時)의 자중(自重)과 1,200갤런의 연료와, 1,350갤런 상당의 세 개의 보조연료(補助燃料) 탱크, 3,300파운드 무게의 핵무기를 적재하고서



도표(圖表). 1. 고공접근(高空接近)에 의한 핵폭탄 장거리공격임무
48,000파운드의 자중(自重)과 보조탱크 세 개를 달고서 30,000 피트까지 상승한다. 조종사는 (A)점에서 동체 밑 복판의 보조탱크를 떼어 버린 후에, (C.P)까지 비행한다. (B)점에서는 나머지 두 개의 보조탱크를 떼어버리고서는, (IP)점을 확인한 후에, (C)점에서부터 NASSAR 레이더로 '지형회피(地形回避)'를 한다. 이 후 초음속, 저공(底空)으로 목표물에 접근해서 자동폭격(自動爆撃)을 한 다음엔 (D)점까지 도착(到着)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재상승(再上昇)하여 기지로 귀환하게 되는데 (E)점까지 와서부터는 AILAS 장비를 써서 자동조종을 하여 착륙(着陸)한다.

도표(圖表). 2. 저공접근에 의한 핵폭탄 공격임무

조종사는 (A)점에서 '지형회피(地形回避)'에 들어간다. 동체 복판의 보조탱크를 (B)점에서 낙하(落下)시키고, (C)점에서는 두 개를 마저 떨어뜨려 버린다. IP에 와서는 '아프타 바너'를 쓰고, 자동원격장치(自動媛擊裝置)를 작동시키고 목표물에 초음속으로 접근해서 완강하 폭격을 한 다음 'Half loop' 비행으로 귀환한다. (D)점을 넘어서 (E)점에서부터 착륙접근(着陸接近)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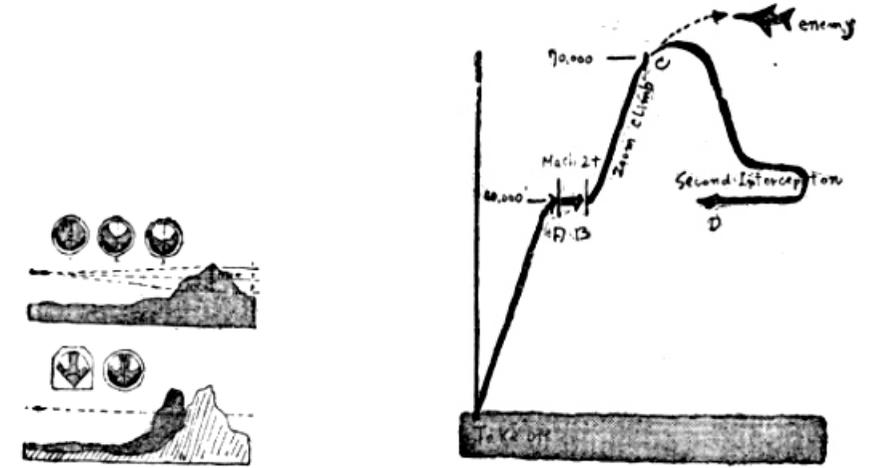
F-105D가 음속이하(音速以下)로 30,000-36,000피트 고도내(高度內)에서 목표물을 찾아서 비행한다면 800-900 마일의 작전행동반경(作戰行動半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임무완수후(任務完遂後)에라도 정상연료예비량의(正常燃料豫備量外)에, 아프타 바너를 쓰면서 저공초음속비행(低空超音速飛行)을 3분간(三分間)이나 할 수 있는 연료가 남아 있게 된다.

둘째, 근거리(近距離) 지상지원임무(地上支援任務)에 있어서 F-105D는 동체와 주익(主翼) 밑에 190개의 70m/m 로켓, 1,000파운드짜리 폭탄 네 개, 450갤런 보조연료(補助燃料) 탱크 및 그 외에 필요한 보조탱크와 11,000 파운드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하는 것이다. 호송(護送) 또는 초계비행시(哨戒飛行時)에는 폭탄창에다 큰 보조 연료탱크 하나와 밖에 이 있는 세 개의 보조연료(補助燃料)탱크를 가지고 F-105D는 항속(航續) 거리 2,000n.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2,900갤런의 연료를 적재하게 된다.

F-105D의 생산(生産)은 고고도(高高度)에서의 공중급유(空中給油)를 위한 연구(研究)에 관심(關心)이 다시 쏠리게 되었는데, 이는 F-105D의 날개 밑에 있는 두 개의 'Buddy'탱크와 'Drogue'로서 연락(連絡)되어 KB-50J 항공기나 혹은 다른 F-105D에 의해서 공중급유(空中給油)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급유방법이후(給油方法以後)에 TAC는 F-105D에게 마치 위성(衛星)과 같은 무한(無限)의 기동성(機動性)을 부여한바 있는 Boeing KC-135 Stratotankers를 장비하기에 이르렀다.

항법장치(航法裝置)와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

F-105D의 다용도성(多用途性)은 무엇보다도 전천후작전능력(全天候作戰能力)과 화력제어계통의



도표(圖表). 4. NASARR 레이더에 의한 지형회피의 도해(圖解)

레이더는 6,000피트 상하의 전방(前方)을 투스코프 상영(上影) 시켜주는 것으로써, 위의 그림은 레이더에 세 가지 영상(影像)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조종사는 레이더만을 보고서 지형장애(地形障礙)를 피할 수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레이더에 나타나는 영상(影像)을 보고서 지형장애물(地形障礙物) 사이를 뚫고 비행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圖表). 3. 요격전투임무의 수행도(遂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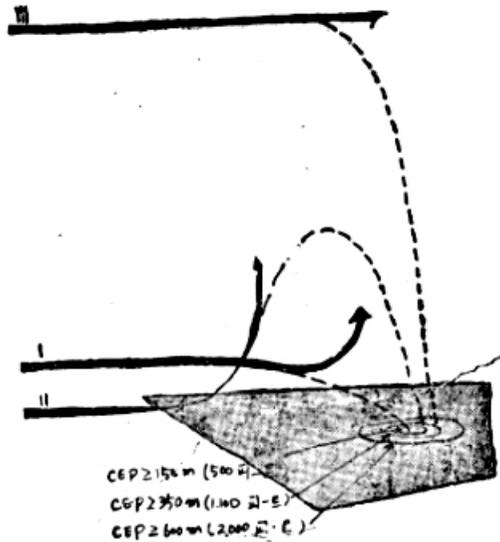
40,000(四〇,〇〇〇)피트까지 아프타 바너를 쓰고서 상승해서 (A)점에 도착(到着)한다. 여기서부터 Mach 2로 가속(加速)한 다음 (B)점에서 급각상승(急角上昇)한다. 여기서부터는 '관성에너지'에 의하여 탄치(彈置)의 정점(頂點)인 (C)점에 (七〇,〇〇〇)피트까지 상승한다. 다시 四〇,〇〇〇피트까지 하강(下降)해서 제2차파격(第二次破擊)을 위해서 (D)점에서 대기(待期)한다.

결합에 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基本的)인 요소중(要素中)의 하나는 AN/APN-131 Doppler 항법장치(航法裝置)인데, 이는 한 개의 Doppler 레이더, 수개(數個)의 비행 Data 포착기(捕捉器), 비행 Data 계산기(計算器), 항법계산기(航法計算器)로서 조합(組立)되어 있어서 항공기의 위치, 대지속도(對地速度), 항적(航蹟), 목표물까지의 거리, 풍향(風向), 풍속(風速) 등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표시(表示)하여 준다. 또한 이 시스템에는 R-14A NASSAR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X-band monopulse' 레이더로서 약 18'424'의 반사경(反射鏡)이 있어서 지형의 Rader mapping을 조종사로 하여금 Doppler 항법장치(航法裝置)에 생기는 계기(計器)의 오차(誤差)를 수정해 주고, 목표물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준다. 그 외에도 항로상(航路上)의 지형회피, 목표물에 대한 경사(傾斜)거리, 공중목표물(空中目標物)의 확인, 추격(追擊) 등을 자동적으로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또한 General Electric FC-5의 자동조종장치 (Three-axis autopilot)를 갖고 있는데, 이는 Doppler 항법장치(航法裝置)에 연결(連續)되어 있어서 항공기가 항상 계획된 '코스'에 있게 해주고, 상승, 착륙(着陸), 접근시(接近時)에 있어서 자동적인 조정역할(調整役割)을 한다. 그래서 공대지무기(空對地武器)는 야간(夜間)과 악천후하(惡天候下)에서도 목표물명중(目標物命中)을 가능케 해주며, General Electric AN/ASG-19 같은 특수(特殊)한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이 등장케 되었다. 이것은 탄도계산기(彈道計算器)와 Doppler 항법장치(航法裝置) 그리고 다른 보조기(補助器)를 사용함으로써 폭격임무에서 야기(惹起)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解決)해 주고 있다. NASSAR와 함께 'Thunder stick'이라고 불리우고 폭격비행(爆擊飛行)의 조작(操作)을 자동적으로 하여 주는 이 장치는 공기밀도(空氣密度)와 풍속(風速) 풍향(風向)의 교차(交叉)와 최종목표물(最終目標物)까지 접근비행(接近飛行)할 동안의 항공기의 안정도(安定度) 및 폭탄발사(爆彈發射)를 조절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연(連)달은 'Half loop' 비행을 통하여 저공 또는 완강하 혹은 고고도(高高度) 수평비행에서의 계기폭격(計器爆擊)을 가능케 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이 지상전투부대(地上戰鬪部隊)의 지원(支援)과 함께 공격될 때에는 이 'Thunder stick' 장비는 화학탄(化學彈)의 투하(投下)와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의 발사(發射)를 조정하기도 한다. 결국 이 'Thunder stick'은 전투임무(戰鬪任務)에 있어서 M-16 기관포와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發射)를 위한 화력제어작용(火力制禦作用)을 하여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작전면(作戰面)에 대한 고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항법장치(航法裝置)와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에 연관(關聯)시켜서, 이번에는 F-105D의 작전면(作戰面)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도표(圖表). 5. F-105D의 폭격방법 도해(圖解)
 I. 완강하하면서 폭격할 때
 II. Halp loop로서 저공으로 폭격할 때
 III. 고공에서 수평비행으로 폭격할 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기(各己) 경우에 따라서 그 명중 정확도의 편차가 생긴다. 고로 가장 편차가 적은 폭격은 40,000~50,000 피트 고도에서의 중고도 하는 것이 이상적이 된다.

가. 고공접근(高空接近)에 의한 핵폭탄(核爆彈) 장거리 공격임무(攻擊任務)

주로 견고(堅固)한 적진지(敵陣地) 등을 공격하는 경우인데, 세 개의 보조탱크를 사용함으로써 3,300(三,三〇〇) 파운드의 무장을 갖고서, 총중량 48,400파운드로 아프타 바너를 사용해서 이륙한다.

30,000피트 고도까지 상승(거리는 60n.m=110km)해서, 자동조종에 들어간다. 600n.m(1,100km)까지의 비행동안에 처음 30,000피트 고도까지는 Mach 0.82, 33,000피트의 고도에서의 맨 나중에는 Mach 0.86이 된다. 여기에서 조종사는 Check point(약 200n.m=370km)에서 NASSAR FCS의 레이더를 보고서 편차를 수정한다. 이리까지엔 20분간이 소요되는데, 목표에서 약 100n.m(180km)앞에 오게 되면, 초음속으로 상승해서 목표물로 향한다. 이후 LABS 법에 의해서 핵공격을 마치면은 자동적으로 이탈되어서 고도 35,200피트까지 올라 간다음 Mach 0.92-0.95 속도로 자동조종으로 귀환한다. 이런 방법으로 F-105D는 약 800n.m(1,480km)의 거리의 목표물까지 공격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저공접근(低空接近)에 의한 핵폭탄공격임무(核爆彈攻擊任務)

적의 레이더 경계망의 포착권을 피해서 저공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FCS 장치의 지형회피 방법으로 그 능력을 발휘한다. F-105D는 이륙직후 곧 자동조종으로 들어가서 6,000피트 이하의 고도로 직진, NASSAR 레이더가 가리키는 전방(前方) 6,000피트 상하의 지형을 보고서 장애물(障礙物)을 자동적으로 피한다. 이때의 속도는 Mach 0.92-0.95가 된다. 최후(最後)의 Check point를 통과(通過)해서는 아프타 바너를 쓰고 초음속으로 목표물에 진입(進入)한다.

폭격은 보통 'Toss bombing' 법을 쓰고서, 반선회(半旋回)해서 이탈한 다음, 고도를 잡고서 귀환한다. 이때의 대지(對地) 공격행동범위(攻擊行動範圍)는 약 400n.m(740km)이 된다.

다. 공대공유도(空對空誘導) 미사일에 의한 격전투임무(擊戰鬪任務)

요격전투에 쓰일 경우에는 동체내와 폭탄창(Weapon bay) 내에 있는 보조 탱크만을 써서 1,200-1,500갤런의 연료, 중량 35,000파운드 이하로서 이륙한다. 이때는 아프타 바너를 쓰면서 상승중에 이미 초음속비행(超音速飛行)으로 옮겨지고, 고도 40,000피트에서 일단 수평비행으로 돌아간 다음 Mach 2까지 가속(加速)하고 그 역력으로 고도 70,000피트까지 점차로 상승해서 목표물을 잡으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發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도 72,000피트 이상에 있는 적기에 대한 요격이 가능하다. F-105D는 공대공 미사일 '싸드 파운드' 4발을 휴대하고, 그 외에 20m/m 속사포가 있으므로 2회 이상의 요격이 가능한데, 두 번째로 요격할 때에는 보통 40,000피트까지 완강하 한 다음에 다시 가속(加速)해서 목표물에 재차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F-105D는 기지를 중심으로 300-400n.m(550-740km)

의 요격행동범위가 되며, 시간(時間)으로 1시간이내이다.

초계비행 시에는 1-3개의 보조 탱크를 달고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채로) 체공시간을 연장(延長)한다. 이 초계임무(哨戒任務)는 지상관제조직의 지휘에 의해서 고도 30,000-40,000피트 사이에서 아음속 비행을 하지만, 공중목표물을 발견(發見)할 시에는 보조 탱크를 떼어버리고서는 가속(加速), 상승하는 방법을 취(取)하는 것이다.

이상 F-105D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이 Centry-series의 총아(聰兒)에게도 결점(缺點)이 논의(論議)되고 있는데, 고가의 제작비에 비례(比例)해서 지원기계(支援器材)와 기지시설(基地施設) 및 정비인원(整備人員)의 문제인 것이다. 즉 다용도적(多用途的)이고 고성능(高性能)이기는 하나 충분(充分)한 능력을 장비하기 위해서는 기지시설(基地施設)을 후방(後方) 깊숙이 영구기지에다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선근접지원을 위한 전술임무(戰術任務)에는 너무나 고가가 아니냐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Fiat G91, Douglas A4D, Northrop N-156 등의 경기종(輕機種)이 이런 목적엔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판명(判明)되는 것이다. 예컨대 적전차(敵戰車) 1대의 파괴에 핵무기공격(核武器攻擊)이 너무나 엄청난다는 사실인 것이다. 다음에는 이착륙문제인데 전술(前送)한 바와 같은 전선직접지원(前線直接支援)을 위한 전술행동(戰術行動)을 위해서는 급조활주로(急造滑走路)를 이용해서 작전을 해야 할텐데, F-105D는 아프타 바너와 Drugschute를 사용하고서도 현재로서는 간역비행장(簡易飛行場)에서의 이착륙(離着陸)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VTOL/STOL 전투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론, 항속능문제(航續性能問題)인데, 미국의 전술공군(戰術空軍)이 구라파(미분토아조레스 도) - 구주대륙(歐洲大陸)나 아세아(亞細亞) - 미분토하와이 - 콰(도) - 필리핀 등지(等地)에 걸친 대양무착륙작전(大洋無着陸作戰)을 감행해야 할 조건으로 보아, 공중급유문제(空中給油問題)가 기술상(技術上)으로 그리 완전치 못하며 특히 약전후나 적의 기습하에선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넷째로는 요격성능의 문제인데, F-105D에 장비되어 있는 NASSAR FCS는 전폭, 항법용(航法用)으로 가장 우수하지만 전천후요격(全天候邀擊)을 위한 적기탐색기능의 범위(範圍)가 30n.m(5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이더 호밍(Rader homing) 형(型)의 공대공 미사일의 유도(誘導)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64,000피트 이상 고도에 상승해서 적기공격(敵機攻擊)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NASSAR FCS에는 적기포착(敵機捕捉)이 안 되므로 만일 올라가서 적기가 없는 경우엔 허탕을 차고 말기 때문인 것이다. 이때에는 불가부지상(不可不地上)의 GCI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커다란 약점(弱點)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05D는 1960년대의 최고(最高)의 걸작기(傑作機)로 등장되어 양산(量産)을 거듭함으로써 미공군에서는 1964-1965년 사이에 약 9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미 구주(歐洲)에서는 점차 교체(交替)되고 있고 극동(極東)에서의 교체(交替)도 1962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미공군의 발주의(發注外)에 Republic 사(社)는 NATO 제국(諸國)에게도 250대를 발주(發注)할 시에 단가불(單價弗) 1,400,000로서 특허부(特許附) 제작(製作)의 용의(用意)를 제의(提議)했었지만 실현은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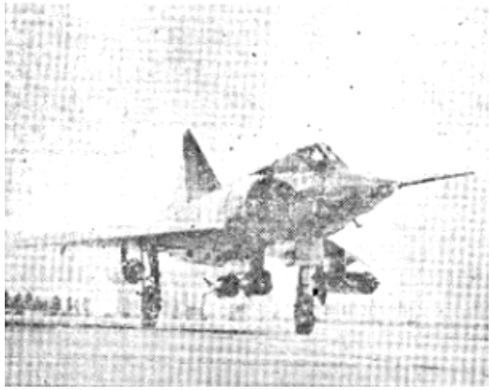
이 Thunderchief의 완전화에는 계속 연구가 가해지고 있는데, 좋은 예로서 Pratt & whitney 엔진의 개량형(改良型)의 채택으로 이륙활주거리(離陸滑走距離)를 가급적 줄이고, 장비적재(裝備積載)를 증대(增大)시키게 될 것을 들 수가 있다. 특히 특수(特殊)레이더와 'Infra-red detector'로서 새로운 정찰장비(偵察裝備)를 설치한 사실인데, 이는 야간(夜間)이나 약전후에 있어서도 F-105로 하여금 정찰과 공격임무(攻擊任務)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중기능(二重機能)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장비는 조종사로 하여금 특수(特殊)스크린이나 레이더 또는 'Infra-red Picture'를 보고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발견(發見)해내고, 계기공격(計器攻擊)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도 하는 것이다. 'Plare'로서 연결(連結)된 카메라는 중고도 또는 저고도(低高度)에서 야간촬영(夜間撮影)을 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모든 장비는 무장을 주익(主翼) 밑의 Pylon에 장착할 때에도 모두 폭탄창에 설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여하간(如何間)에 이 F-105D는 미공군에서 새로 선발된 바 있는 신예기 F-4C(F-110의 개칭(改稱))가 취역(就役)할 때까지나,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F-4C 전투기와 더불어 미공군 SAC의 화력(火力)을 보충(補充)하여 주는 TAC의 주력기의 위치를 고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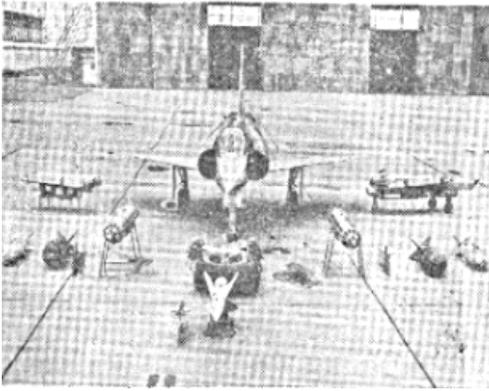
IV. 미라지(Mirage) IIIC의 해부와 구라파의 작전개념(作戰概念)

- 2대전략적(二大戰略的) 전환의 대두(擡頭)
- 기본설계
- 개발과정(開發過程)
- 기술적인 특징
- 작전면(作戰面)에 대한 고찰

구라파의 제여건(諸與件)은 공격능력(攻擊能力)을 절대성(絕對性)으로 하는 다용도전투기가 무엇보다도 시급(時急)하다는 전략개념(戰略概念)의 추이(推移)에 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약술(略述)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제여건(諸與件)—즉 지리적, 공업적인 조건, 국가제정과 기술적인 제약, 기지지원시설과 국지방공 문제 등에서 오는 항공개념은 다용도전투기(多用途戰鬪機)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미국의 F-105D와 같은 고가의 항공기를 채택한다는 것이 구라파 제국(諸國)으로서는 난문제(難問題)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구라파 항공계(航空界)의 각광(脚光)을 받고서 F-105D와 더불어



미라지 III의 모습(주익(主翼)밑에 달려있는 것이 ‘로켓트 라운치’이다.



미라지 III에 적재,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전시광경

현대공군 전술기(戰術機)의 ‘쌍벽(雙壁)이라고 일컬어지는 안가(安價)이며, 간편(簡便)하고, 고성능(高性能)인 Mirage III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概念)의 추세(趨勢)에서 과거 서독당국(西獨當局)에서는 Mirage IIIC 기종(機種)을 최종적(最終的)인 후보기(候補機)로 등장되었으나, 대미국관계(對美國關係)에서 오는 정치외교적압력(政治外交的壓力)으로 부득이(不得已) F-104G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일설(一說)은 그만큼 Mirage III의 우수성(優秀性)을 시사(示唆)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서서(西瑞), 호주공군(濠洲空軍)도 이 Mirage III를 채택했다) 우리에게도 기종선택(機種選擇)의 신축성(伸縮性)이 부여(附與)되어 있다면, 한국의 입지적(立地的), 조건과 국가적(國家的)인 제약건(諸與件)이 구라과의 경우와 흡사한 점에 비추어 필자는 차기(次期)의 전투기로서는 단연(斷然)코 이 Mirage IIIC 기종(機種)의 선택(選擇)을 자신(自信)있게 제의(提議)하고 싶은 것이다. 즉 안가(安價)의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 정비이동(整備移動)의 간편성(簡便性), 고도의 성능 등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실정(實情)에 가장 적합(適合)한 다용도전투기(多用途戰術機)가 아닐까하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근래(近來)의 수년간(數年間), 자유진영(自由陣營)의 F-X 선풍(旋風) Lockheed F-104G와 함께, NATO 동맹국간(同盟國間)에서 인기(人氣)가 고조(高潮)된 바 있었고 서구(西歐) 공군(空軍)의 대표기(代表機)인 Mirage III에 관해서 소고(小考)하여 보고자 한다.

이 Mirage III의 항공기의 원형(原型)이 여하(如何)히 설계되었었으며, 개량되어 왔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곧 구라과의 항공작전개념(航空作戰概念)의 추이양상(推移樣相)을 발견(發見)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현재의 우리의 여건(與件)을 검토(檢討)할 수 있는 호기(好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2대전략적(二大戰略的) 전환의 대두(擡頭)

한국전쟁(韓國戰亂) 당시, 미공군의 항공기를 실전에 사용해 본 결과, 중량이 무겁고, 기구가 복잡하며, 고가이어서 오히려 국지방공(局地防空)을 위주(爲主)로 하는 전술임무(戰術任務)에는 부적합(不適合)함을 발견(發見)하게 되었는데, 이때 구라과 자유진영(自由陣營)의 제국(諸國)은 증대(增大)되는 미국의 군원(軍援)에도 불구하고 매년(每年) 국방비(國防費)가 상승되어, 이로 인한 재정적(財政的), 기술적인 제약때문에 부득이(不得已) 경요격기(輕激擊機)나 소형전투기(중량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안가(安價)의 항공기) 제작(製作) 개념(概念)이 대두(擡頭)되었었다.

이때 프랑스의 공군참모부(空軍參謀部)에서는 이러한 개념(概念)에 입각(立脚)해서, 경요격기제작(輕激擊機製作)에 착수했는데, 특히 공중목표물(空中目標物)의 추격(追擊)이나 교전(交戰)을 위해서는 배가(倍加)의 출력(出力)을 얻기 위하여 소형(小型) 제트엔진에 부가(附加)해서 ‘로켓트’ 보조 엔진을 가질 수 있는 항공기의 설계제작계획(設計製作計畫)을 진행(進行) 시켰었다.

이 소형항공기(小型航空機)의 이점(利點)은 비교적 중량이 가볍고 (비록 출력(出力)은 약(弱)하지만) 고속도(高速度)와 상승능력(上昇能力)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목표물까지의 유도(誘導)를 전적(全的)으로 지상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행동(作戰行動)에 제약을 줌으로 재검토(再檢討)가 제기(提起)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 소형항공기(小型航空機)라는 것은 ‘미사일’을 공중(空中)에 한 번 싣고 올라갔다가, 다시 기지에 돌아오는 일종(一種)의 ‘공중정거장(空中停車場)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항공기의 공격항로(攻擊航路)도 지상에서 정확히 계산(計算)해서 유도(誘導)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기를 격파(擊破)할 때까지 계속적인 지상유도(地上誘導)나 조정이 없이는 식별추격(識別追擊)이 곤란(困難)하고 작전효율(作戰效率)은 매우 저하(低下)되기 때문이었다. 즉 구라과 제국은 1952년에서 1954년까지 경요격기제작, 설계에 착수했는데 프랑스에서는 Sudest 사(社)에서 Durandal,

Dassault 사(社)에서 Mirage I 이 등장되었었다.

1954년에는 NATO 이사회의 제의(提議)에 의하여 서방측의 전략이 수정되었으니, 곧 NATO의 Lisbon 회의전까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자력지원(原子力支援)만 있으면 구주(歐洲)는 재래무기(在來武器)로서도 능히 방위될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Lisbon 회의(會議)에서 서방측 재군비 문제를 토의하고난 경제전문가, 정책 수립가들은 미국의 군원지원이 있더라도 서구제국은 재래식 전략을 수행할만한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해서 NATO 당국(當局)은 기본전략을 수정하여 NATO 동맹국은 재래식(在來式) 방위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핵무기에 의한 대량보복책(大量報復策)으로써 방위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전쟁은 핵무기사용을 전제(前提)로 하는 양상(樣相)으로 돌입하였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위개념(防衛概念)의 진전(進展)으로 인해서 경요격기(輕激擊機)의 제작계획(製作計畫)은 시험용이외(試驗用以外)에는 양산전(量產前)에 철회(撤回)되었으며, TNT 폭격이아니라 핵무기공격(核武器攻擊)을 가정하는 한(限) ‘방위’라는 소극적개념(消極的的概念)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첫번째의 반응(反應)은 경요격기형을 포기하되, 잔존(殘存)하는 시험기(試驗機)의 설계안(設計案)에는 지상 콘트롤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비를 개선하는 경향(傾向)으로 나타났었다. 최초의 Mirage III는 직접 이러한 변전(變轉)에서 설계되었는데 이는 Mirage I 형(型)과 똑같은 주익(主翼)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지상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특수전자장비(特殊電子裝備)와 좀 더 추력이 강한 엔진을 달아서 동체를 크게 한 점뿐이다. Mirage III은 1956년11월 처녀비행(處女飛行)을 한 후, 몇 번의 시험비행(試驗飛行)만으로 충분(充分)히 Mach I의 속도에 도달(到達)하였던 것이다. 전자장치(電子裝置)에 있어서 Mirage III는 공대공 미사일의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과 목표물의 방향조정(方向調整)을 위한 장비의 설치를 위하여 동체안에는 넓은 ‘Space’가 있겠금 설계되었다. Mirage III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는 동안, 프랑스 정부는 양산(量產)이 구체화(具體化)하기 전에 최초의 단계로써 일부 생산(生產)을 발주(發注)하였다.

이 후 1957년8월에 또다시 다른 전략적 혁명이 대두(擡頭)되었으니, 곧 소련 수상(首相) ‘후루시초프’가 3,000-5,000마일의 사정 거리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ICBM의 실험발사성공(實驗發射成功)을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 미(美)소양국(兩國)은 모두가 다 독일(獨逸)의 V2의 변형인 탄도유도탄(彈道誘導彈)을 연구개발시켜 왔었던 것이 사실이나, 소련이 드디어 장거리목표물에 대한 대량과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소유(所有)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결과로 구라과제국은 새로운 무기의 공포 하(下)에 놓이게 되었다.

핵무기사용의 가능성이 등장된 이후에 대공방위(對空防衛)라는 것은 폭격기에 의한 핵폭탄공격(核爆彈攻擊)이 아니라, 음속 20배 이상의 유도탄(誘導彈)에 의한 핵무기공격(核武器攻擊)으로 전환되어서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항공관계전문가(航空關係專門家)와 기술자(技術者)들로 하여금 요격기(邀擊機)를 공격기로 개조케 한 제2의 동인(動因)이 되었던 것이다.

일방 미국에서는 국지방공을 위하여 준요격기로 설계되었던 Lockheed F-104가 급속(急速)하게 공격기로 변형되어 동체의 구조장비(構造裝備) 및 무장에 일대개조(一大改造)가 진행(進行)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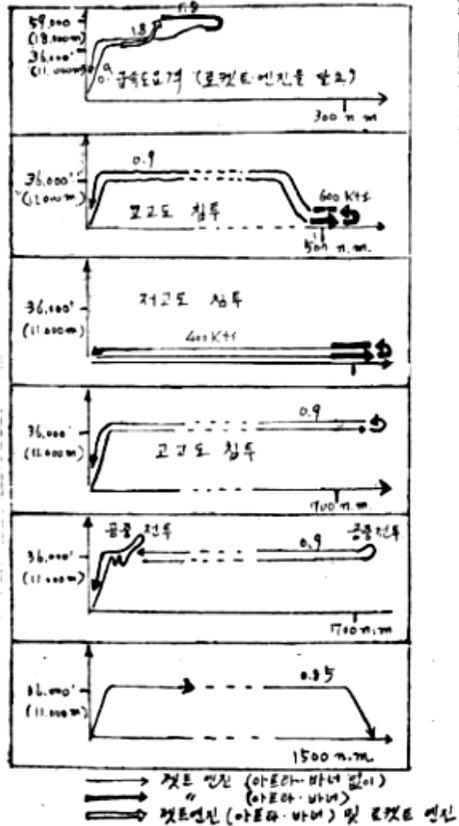
결국 Mirage III도 이러한 발달과정(發達課程)을 밟아서, 방공과 고공에서의 요격임무(邀擊任務)만으로 설계되었던 IIIC형(型)에다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의 공격임무(攻擊任務) 등 다용도작전가능(多用途作戰可能)할 수 있게끔 개조되었다. 특히 Mirage III에게 이 개조작업(改造作業)이 유리(有利)하였던 것은, 이미 Mirage III가 대대급정도(大隊級程度)에서도 개조작업(改造作業)이 가능한 다양성있는 임무수행(任務遂行)을 위한 다용도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공군(空軍)에 곤란한 바가 그만큼 많았다. 이러한 다양성임무(多樣性任務)라는 것은 준요격으로부터 공격과 정찰 및 경폭격(輕爆擊) 등인 것이다. 삼각형의 Delta 형(型) 주익(主翼)은 비교적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고, 형체(形體)의 건전성(健全性)을 유지(維持)케 하며 상당한 양(量)의 연료를 용이(容易)하게 익체에다 저장할 수 있는 이점(利點)을 주었으며, 프랑스의 설계가(設計家)들이 항상제약(恒常制約) 받았던 추진력(推進力) 문제는 Dassault의 기술자(技術者)들에 의해서 많은 해결(解決)을 보았었다. 미국이나 영국의 항공기제작(航空機製作) 사회(社會)처럼 고가의 강력(強力)한 엔진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엔진 추력의 제한을 극복(克服)하고 고성능(高性能)을 보지(保持)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의 ‘항력’을 감소시키는 점에 착안(着眼)하였다. 만일 Mirage III에 미국계 항공기의 엔진을 장비한다면 ‘아프타 바나’없이도 저공에서 초음속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irage III가 본래 다용도목적을 위해서 설계되었던 만큼, 준요격기에서 공격기로 변형하는 데에는 별곤란(別困難)이 없이 그 개조가 가능했었고 이 변형은 항공기 구조의 전면개조(全面改造)가 아니라 일부 장비와 무장의 개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Mirage III 이후에는 Mirage IV라는 원폭기가 보다 성능을 자랑하면서 출현되었다.

기본설계

미사일의 성능과 실용성이 개발됨에 따라서 유인항공기는 이미 병기(兵器)로서는 이 이상 의의(意義)가 없다는 논자(論者)가 증대(增大)되어 가기는 하나, ‘미사일’과 ‘항공기’와의 경쟁(競爭)은 벌써 종지부(終止符)를 찍었고, 국방정책수립가(國防政策樹立家)들은 ‘미사일과 항공기’의 병용안(併用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수년간(數年間)에 미사일이 비록 전략적 견지(見地)에서 항공기를 무용(無用)하게 만들지라도 각국(各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그러한 항공기의 양산계획(量產計畫)은 아직도 전술무기(戰術武器)로서의 항공기의 장래성(將來性)이 계속 견지(堅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사일을 그 개발 또는 제작비에 비해서, 파괴목적을 고려해 볼 때에는 재검토(再檢討)의 여지(餘地)가 있을뿐만 아니라, 유도(誘導), 목표물탐지, 궤도장치(軌道裝置)가 필요하고 계산기(計算器), 안정기(安定器), 자동조종장치 및 고가이면서도 취약성(脆弱性)이 많은 지상레이더 망(網)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이란 ‘미사일과 항공기’를 병용(併用)한-즉 목표물에게까지 능히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융통성(融通性)이 있고 고도의 기동성(機動性)이 있는 유인항공기에다 대량 파괴가 가능한 미사일을 결부(結付)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미사일과 항공기’를 병용(併用)하는 한계(限界)는 매우 세심(細心)한 문제를 제시하여 주는데, 기체에 너무 많은 전자장치를 설치하면 무장계통(武裝系統)에 거주장스럽게 되고, 반대로 미사일 조종과 유도

(도표(圖表)) 6. Mirage III C의 작전 수행도(遂行圖)



- 가. 요격
나. 지상군 지원
다. 장거리 지상목표 공격
라. 사진 정찰임무
마. 제공초계임무
바. 장거리 전개

장비가 많으면, 제작비가 심대(甚大)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다.

제언(再言)하건대, 현대적 항공기에 있어서, 전술무장계통(戰術武裝系統)이 수행해야 할 임무(任務)를 대별(大別)한다면,

- 고공으로 침입(侵入)하는 적 초음속폭격기에 대한 요격
- 지상군(地上軍)에 대한 지원(支援)
- 전투지역상공(戰鬪地域上空)에서의 제공권(制空權) 확보
- 전투지역내(戰鬪地域內)의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에 대한 전술적공격(戰術的攻擊) 및 적통신망(敵通信網)의 파괴
- 단거리정찰

등으로서 이는 기동성확보(機動性確保), 취약성(脆弱性) 및 고가의 지상기지(地上基地) 시설(施設)로부터의 독립문제 또는 작전준비태세(作戰準備態勢)나 최안가(最安價)의 제작비문제(製作費問題)와 관련(關聯)되는 것이며, Mirage III C의 무장계통(武裝系統)을 설계하는 데에도 당면된 난문제(難問題)였던 것이다.

Mirage III의 개발과정(開發課程)

Mirage III의 개발계보(開發系譜)를 살피자면,
○1955년6월25일(一九五五年六月二十五日)Mirage I (M.D. 550)형기(型機)가 최초비행(最初飛行)

-곧 Mirage II가 시험비행(試驗飛行)에 성공-

○1956년11월8일(一九五六年十一月八日)Mirage III-001호기(號機)가 처녀비행(處女飛行)

-이 후 2년간(二年間) 200회(二〇〇回)의 무사고시험비행(無事故試驗飛行)

-10대(一〇臺)의 Mirage IIIA가 제작(製作)됨

○1958년5월12일(一九五八年五月十二日)-10대(一〇臺)의 Mach 2가 시험비행(試驗飛行)

-Mirage IIIA에 도달하였음

-로켓 엔진 시험성공(試驗成功)

○1958년9월(一九五八年九月)-프랑스에서 100대(一〇〇臺)의 Mirage III를 발주(發注)하였다.

○1959년6월18일(一九五九年六月十八日)Mirage IIIA가 100km 주회(周回) 코스를 시속(時速) 1,758km로 세계기록(世界記錄)을 수립했다.

○1960년말(一九六〇年末)-240대(二四〇臺)의 Mirage III의 발주(發注)

-Mirage III C 양산착수(量產着手)

※ Mirage 계(系) 항공기

Mirage IIIB-복좌형(複座型)의 조종연습기겸요격기操縱練習機兼邀擊機(1960년(一九六〇年) 10월(十月) 21일(二十一日) 완성(完成))

Mirage IIIE-장거리침공전투기(長距離侵攻戰鬪機)(동체가 30cm 길며, 하부(下部)에 Doppler radar, SEPR 844 보조로켓 엔진 부(付))

Mirage IIIR-사진정찰기(寫真偵察機)

Mirage III O-해외수출용기(海外輸出用機)(Rolls-Royce엔진 RB-146과 화력제어 계통이 장비되어 있다)

기술적인 특징

기체(Airframe)-재래식(在來式) 화살 형(型)의 'Delta'형(型) 날개(60도 후퇴(六〇度後退))는 속도 변화에서 생기는 급격(急激)한 저항증가(抵抗增加)를 방지(防止)하여 주는 이점(利點)과, 아음속(亞音速)에서 초음속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양력(揚力)과 운동성(運動性)을 확보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주익(主翼) 밑에 부분품(部分品)이나 운반물(運搬物)의 장착이 가능한 점, 좌우양익(左右兩翼)에는 보조익(補助翼)과 승강타(昇降舵)를 겸(兼)한 'Elevon'이 'Trimming flap'으로 고정되어 있다. 'Air brake'는 전항(前桁)(Leading edge), 주항(主桁)(Main spars)사이에 고정되어 있다. 특기(特記)할만한 점은 'enbloc' 각 부분(各部分) 조립식(組立式) 시스템이기 때문에 날개의 파손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 시킬 수가 있다. Mirage III는 보통(普通) 추력으로 분해(分解)해서 나르면 1급도로에서도 능히 운반할 수가 있다. 이 유리점(有利點)은 확실히 항공기제작(航空機製作)의 부가적(附加的)인 경비(經費)를 덜어주는 것이다.

동체에는 CSF Cyrano 또는 Ferranti Airpass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과 폭탄발사계통(爆彈發射系統)을 포함하는 이동식(移動式) Nose를 갖고 있으며, 뒤에는 여압식(與壓式)으로 된 분리(分離)된 조종석(操縱席)이 있다. 그 뒤에는 Bendix doppler 레이더가 있으며, 동체의 다음 부분에는 'Nose wheel' bay와 교환식장비품실이 있고, 측면(側面)에는 원추형(圓錐型)의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가 있다. 동체의 가운데 부분은 연료 탱크와 Main gear의 격납실(格納室)과 보조장치(補助裝置)의 설치를 위한 두 번째의 'Space'가 있다. 동체의 가운데 부분은 엔진과 로켓 엔진이 있고, 미익(尾翼)이 맨 뒤에 달려 있다. 브레이크 장치는 조종사에 의한 'Petol' 식(式) 외에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Hand' 브레이크가 있는데, Drag chute와 유력식(油壓式) 브레이크의 사용으로 착륙할 주거리를 단축(短縮)시켜주고 있다.

삼륜식(三輪式) 항착장치(降着裝置)는 유압식(油壓式)으로 동체에 접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그 저압(低壓) 타이어는 가설활주로(假設滑走路)에서도 이착륙(離着陸)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콘크리트 활주로(滑走路)가 아니라도 된다는 이점(利點)을 지니고 있다.

엔진(Engine)-Mirage III C의 심장은 '아프타 바너'가 달린 SNECMATAR 9C 제트 엔진이다. 공기(空氣)는 Mach의 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2개의 원추형공기흡입구(圓錐型空氣吸入口)에 흡입(吸入)되어서, 호조건(好條件)에서는 대기압력(大氣壓力)보다 5.5배나 강한 역력(壓力)을 줄 수 있는 구단식압축기(九段式壓縮器)를 통해서 환형연소실(環型燃室)에 점화(點火)된다. 일반비행(普通飛行)에서는 8,400회로써 Mach 2의 최고추력(最高推力)보다도 20%나 많은 초속(超速度)을 내게 한다. 최고추력(最高推力)에 필요한 연료량(燃料量)은 2Lb/Lb/h보다 약간 많고, 아프타 바너 없이 비행할 때에는 1Lb/Lb/h보다도 적을 정도이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열거(列擧)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면추력대(正面推力對) 표면(表面)(Frontal area)은 sq.ft.당 1,800파운드 추진력대(推進力對) 중량은 파운드 당 4.79, 해상(海上)에서는 9,370파운드의 추력, 아프타 바너를 사용하면 13,200파운드까지의 추력을 내며, 엔진과 가스 온도는 연료 공급(供給)과 제트 'Pipe cross-section'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엔진 분해(分解)의 간편성(簡便性)은 주목할만한 점으로서, 네 군데에 부착(附着)되어 있는 동체의 후미(後尾翼部分)를 떼고, 역시 네 군데에 달려 있는 엔진 'Pylon'을 제치면 두 줄의 '홈(Rail)'을 따라서 끌어 당길 수가 있게 되어있다.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는 동체의 앞쪽에 있어서 '경계층(境界層)(Boundary layer)'이 공기흡입(空氣吸入)을 방해하지 않게 되어 있다.

연료장치는 균형(均衡)있게 적재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저장(貯藏)탱크와, 주익(主翼)밑에 한 개의 탱크를 갖고 있다. 항공기가 배면비행(背面飛行)할 시에 연료공급(燃料供給)을 위해서는 조종석(操縱席) 뒤에 보충저장(補充貯藏) 탱크가 있다. 그 외에도 로켓 엔진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동체 전후방(前後方)의 장비고(裝備庫) 속에 저장(貯藏) 탱크를 부설(附設)할 수가 있다.

요격목적(邀擊目的)을 위해서는 SEPR-841 액체연료(液體燃料) 로켓 엔진을 주엔진뒤에 장비할 수가 있는데, 연료는 Triethylamin(트리에틸라민)과 Xylidine(사이리딘) 및 산화조산(酸化硝酸)의 혼합물(混合物)이다. 이 두 혼합액체연료(混合液體燃料)의 연소비율(燃燒比率)은 1초간 16.5파운드(3,300파운드 추력)와 1초간 9파운드인데 발동(發動) 조정, 안전장치 등 모두 자동식(自動式)이다. 산소(酸素) 탱크는 97.3갤런, 조산(硝酸)은 1,005파운드를 적재할 수가 있으며, 앞쪽에 있는 펌프와 부속보조장치(附屬補助裝置)를 포함하여 저공비행(低空飛行)에서도 안전(安全)하게 낙하(落下)시킬 수 있는 연소실과 연료시스템이 있다. 이 산소(酸素)탱크는 압축공기를 내보내는 '플래스크(Flask)'와 연결(連結)되어 있다. 이 액체연료(液體燃料) 탱크에는 40갤런의 '트리에틸라민'과 280파운드의 '사이리딘'을 적재하는데 요격임무시(邀擊任務時)에만 사용된다.

조종(操縱)(Flying control)-조종(操縱)은 재래식(在來式) 조종간(操縱桿)과 방향타(方向舵)로서 한다. 조종간(操縱桿)의 작동은 기계적으로 자동조종을 하고, 'Amedee'라고 부르는 특수장치(特殊裝置)가 있어서 불필요(不必要)한 움직임을 막아준다. 전자식(電子式) 피스톤은 '마찰력'을 막아주며, 네 개의 'Elevon'이 자동(自動) 피스톤에 의하여 작동되어서, 각기(各기) 분리(分離)되어 있는 유압회로(油壓回路)(Hydraulic circuit)에 연결(連結)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성(安全性)은 최대(最大)의 작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방향타(方向舵)(Rudder pedal)의 이동(移動)은 전기유압식(電氣油壓式)으로 자동조종계통(自動操縱系統)을 움직이는 전기충동(電氣衝動)으로 작동되어서 동요(動搖)를 감소시켜준다. 'Trimming flap'은 조종간(操縱桿)의 위치에 따라서 전기유압식(電氣油壓式) 자동조종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평안정기(水平安定器)(Stabilizing gyro)의 비행에서도 동요(動搖)를 자동적으로 감소시켜 준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조종장치가 있는데, 즉 전위(轉位)의 제거(除去), 'G' 발생(發生)의 조정, Mach 수치(數值)와 비행고도의 수정, 자동적인 Roll과 'Pitch' 등의 역할을 하여준다. 고로 조종사는 어느 때이고 간(間)에 자동조종장치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유압계통(油壓系統)(HYDRAULIC SYSTEM)-ATAR '타번'에 의하여 연결(連結)된 두 개의 펌프가 자동유압회로(自動油壓回路)의 원천(源泉)이 된다. 뿐만 아니라 회로제1(回路第一)은 조종기능(操縱機能)을 원만케 하는 하나의 전기 펌프의 보조장치(補助裝置)를 가지고 있다.

회로제1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주조종기관(主操縱機關)의 일차적 작동(Normal system)
-랜딩 기어의 정상유압작동
-브레이크와 이어 브레이크(Air brake)

회로제2(回路第二)는 예비회로(豫備回路) 장치
-주조종기관(主操縱機關)의 이차적(二次的) 작동(Alternate system)

-Wing flap의 작동 조작(操作)
-랜딩 기어의 비정상유압작동(非常油壓作動)

전기계통(Electronic system)-모든

주요(主要)한 장치는 한 개의 직류변압기(直流變壓器)로부터 전기공급(電氣供給)을 받는데, 이 직류(直流)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교류(交流) ‘제네레이터가 변압정류기(變壓整流器)를 통해서 전류(電流)를 공급한다. 이 외에 하나의 ‘배터리’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발전장치(地上發電裝置)에다 이 직류(直流) 교류(交流)를 다 연결(連結)시킬 수가 있다.

압축작용(壓縮作用)(Pressurization)-ATAR 엔진의 압축기에서 나오는 배기(排氣)를 두 곳으로 취입(吹入)되는데 냉각후(冷却後)에 도관1의 공기(空氣)는 ‘G-suit’와 조종석 여압작용(與壓作用)을 해주는 ‘에어 컨디션(공기조절(空氣調節)) 시스템에 쓰이며, 도관2의 공기(空氣)는 연료계통(燃料系統), 로켓 엔진의 연료탱크 및 유압장치(油壓裝置)의 축전지(蓄電池)에 쓰인다. 공기조절장치(空氣調節裝置)는 조종석의 온도조절(溫度調節) 및 좌석내(座席內)의 여러 가지 조절을 하여준다.

구조장구(救助裝具)(Safety Equipment)-비상시에는 조종사가 ‘레버(Lever)를 작동하여 사출(射出)시키는 탈출의자(脫出椅子)인 Martin-Baker Mk-4가 있는데, 이는 저공일 때에도 탈출이 가능하며, Cockpit는 탈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탈된다. 산소공급(酸素供給)은 조종사의 여압(與壓) 헬멧과 여압복(與壓服)에 자동적으로 고도에 따라서 조절된다.

전자장비(Electronic equipment)-표준전자장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包含)한다.

한 개의 SARAM UHF 라디오 장치

한 개의 IFP 장치

한 개의 PHI 또는 ANADAC 장비

한 개의 TACAN 장비

한 개의 CSF Cyrano 또는 Ferranti Airpass II 레이다

이외(以外)에 SARAM UHF나 Doppler 레이다, UHF Homing 지시기(指示器), ECM 장비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

무장(Armament)부여된 임무(任務)에 따라서, Mirage IIIc는 여러 가지 종류(種類)의 무장을 휴대할 수 있는데, 기관포탄도유도탄(機關砲導誘導彈), 화학(化學) 및 핵폭탄(核爆彈), 공대공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운반한다. 또한 Ferranti Airpass MK-II의 화력제어계통(火力制禦系統)에 의하여 전천후작전(全天候作戰)이 가능하다. 예컨대 30m/m 기관포(砲) 2문, 36발을 각각 장착할 수 있는 ‘로켓트 라운차’ 2개 1,000파운드’ 폭탄 2개를 무장하고서 300 ‘마일’ 이상에 있는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에 대한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작전면(作戰面)에 대한 고찰

현존하는 공격무기의 신속화는 ‘방어’에서도 ‘공격’과 마찬가지로 작전 태세준비(態勢準備)의 기민성(機敏性)을 요구하고 있다. 전투지구(戰鬪地區)에서의 방어임무(防禦任務)라는 것은 적을 탐지(探知), 확인하는 즉시로 이를 격파하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는 거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이는 전폭임무(戰爆任務)와 지상지원임무(地上支援任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適用)되는 것인데, 이러한 특수문제(特殊問題)들이 공격과 방어라는 두 가지 임무(任務)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Mirage IIIc 같은 다용도전투기(多用途戰鬪機)의 개발이 불가피(不可避)하게 제기(提起)되는 것이다.

특히 작전기지(作戰基地)가 분산(分散)되어 있을 때에는 최소의 경비(經費)와 인원(人員) 및 장비로서 최대(最大)의 작전효율(作戰效率)을 발휘(發揮)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Mirage 사(社)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解決)하였는데, Mirage IIIc가 비상출동지시(非常出動指示)를 받은 후 불과(不過) 28초(二八秒)만에 활주(滑走)하여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를 완성(完成)한 바가 있었다. 임무완료후(任務完了後)에 무장을 재장비(再裝備)하는데에도 1시간말만(一時間未滿)이 소요될 뿐이며, 엔진의 교체(交替)에는 불과(不過) 2시간이면 충분(充分)한 것이다.

지상지원장비(地上支援裝備)는 그 부속품교체(附屬品交替)가 공수(空輸)로서 가능한 표준형품목(標準型品目)으로 조립(組立)되어 있으며, 중요부분품(重要部分品), 또는 부속품교체(附屬品交替)의 능률화(能率化)는 신속한 정비와 수리(修理)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몇 가지 특수(特殊)한 점을 제외(除外)하고는, Mirage IIIc 제작(製作)이란 보통(普通) 항공기제작기술(航空機製作技術)의 필요성(必要性)을 요(要)하지 않는 것이다. (종합제조작업(綜合製造作業)을 요(要)하는 날개의 건조(建造)만이 특수기술(特殊技術)을 필요(必要)로 할 뿐이다) 고로 Mirage IIIc 는 항공기공업(航空機工業)이 그리 발달(發達) 못한 소국가(小國家)에서도 능히 생산(生産)할 수 있는 항공기로 기대되는 바가 자못 큰 것이다. 다음엔 Mirage IIIc 의 전형적인 작전행동면(作戰行動面)을 관찰(觀察)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가. 요격

동체하부(胴體下部)에 공대공 미사일 1발(一發) 주익(主翼) 하면(下面)에 2발을 휴대하고 동체내 연료 580갤런과 600kg의 로켓트 보조 엔진으로서 이륙중중량(離陸總重量) 19,200파운드 로 상승한다. 이때 Mach 0.9의 속도로 상승해서 36,000피트 부근에서 초음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수평비행으로 Mach 1.8까지 가속(加速)한 다음 계속 59,000피트까지 상승한 다음에, Mach 1.82.1 속도에서 적기에다 미사일을 발사(發射)하게 된다. 이때의 항속(航續) 거리는 약 320n.m (590km), 행동반경(行動半徑)은 150n.m (280km) 이하이다.

나. 지상군(地上軍) 지원(支援)

30m/m 기관포 2문, 로켓트 탄(彈) 36발들이 연료탱크와 조립(組立)된 ‘로켓트 라운차’ 2개를 장착하고,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각종폭탄(各種爆彈) 1개를 동체하면(胴體下面)에 단다. 연료총용량은 1,250갤런이고, 고도 36,000피트까지 상승해서 Mach 0.9로 순항(巡航)한 다음 목표지역에 와서는 급강하(急降下)해서 저공을 600넛트의 속도로 공격한 다음에 다시 36,000피트의 고도에까지 상승해서 기지로 귀환한다. 이때의 이륙중량 24,300파운드 항속거리 1,100n.m(2,000km)로 행동반경(行動半徑)은 500n.m(925km)에 달한다.

다. 장거리 지상 목표

PBI 또는 Doppa 항법장치(航法裝置)를 이용해서 적의 레이더 경계망이하(警戒網以下)를 침입(侵入)하는 저공 공격(低空攻擊)의 경우에는 동체하면(胴體下面)에 핵폭탄(核爆彈) 또는 화학폭탄(化學爆彈),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1발을 장비하고서 양주익하면(兩主翼下面)에 보조 탱크 2개를 단다. 이 때의 연료총적재량은 1,425갤런, 이륙중량은 24,300파운드가 된다. 목표지역에까지는 저공으로 400넛트의 속도로 비행한 다음에, 600넛트의 고속(高速)으로 접근공격(接近攻擊) 한다. 이 때의 최대항속거리(最大航續距離)는 700n.m(1,300km), 행동반경(行動半徑)은 300n.m(555 km)이다.

라. 사진정찰임무(寫眞偵察任務)

무장 없이 카메라만을 장비한다. 야간정찰(夜間偵察)의 경우에는 동체하면(胴體下面) Pylon에 섬조명탄(閃照明彈)을 장착한다. 연료 휴대량은 1,425갤런, 이륙시(離陸時)의 중량은 23,200파운드가 된다. 고도 36,000피트까지는 Mach 0.9 속도로 비행하고 목표지역에서는 고

고도(高高度) 또는 저공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서 재차 36,000피트의 고도로 귀환한다. 이때의 항속거리는 1,500n.m(2,770km), 행동반경(行動半徑)은 700n.m(1,300km) 이상이다.

마. 제공초계임무(制空哨戒任務)

30m/m 기관포 2문과 필요에 따라서는 공대공 미사일 1발과 ‘로켓트 라운차’ 1개를 동체하면(胴體下面)에 장착한다. 연료적재량 1,370갤런, 총중량 23,800파운드로 이륙한다. 고도 36,000피트에서 Mach 0.9의 고도로 순항하며 항속거리는 1,500n.m(2,770km), 행동반경은 700n.m(1,300km)에 달한다.

바. 장거리 전개

동체내연료(胴體內燃料) 740갤런 외에 3개의 보조 탱크를 달고서, 연료총적재량은 1,640갤런 이상이 된다. 이륙중중량(離陸總重量)은 24,300파운드 이상 달하고 고도 36,000피트로, 최량경제속도(最良經濟速度)인 Mach 0.85로 항행(航行)한다. 이 때의 항속거리는 1,600-1,800n.m (3,000-3,300km)에 달하게 된다.

이상이 Mirage IIIc의 개관(概觀)인데, 아직도 이 항공기는 요격능력(邀擊能力) 만을 따져본다면 미국의 F-106, F-110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고 있지만, 익면적(翼面積)이 넓은 이점(利點)을 고려해서 적재능력을 증가한다면 보다 나은 전술전투기(戰術戰鬪機)로 개발될 여지(餘地)가 많은 것이다. 특히 Mirage III은 구조가 간단(簡單)하고 간역비행장(簡易飛行場)에서도 이착륙(離着陸)이 가능하므로 공지협동전투작전(空地協同戰鬪作戰)에는 극히 유리(有利)한 것이다.

또한 용역(容易)하게 기체분해(機體分解)가 가능해서 간단(簡單)히 이동(移動)할 수가 있는데 12.5m의 대형(大型) 추레라에도 능히 적재하여(積載) 폭(幅) 2.5m, 높이 3.8m, 길이 13.6m의 추레라 정도, 구라과의 1급도로(一級道路)에서는 이동(移動)이 충분(充分)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VTOL 형(型)으로의 개발이 연구되어 Mirage V의 연구가 기대되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망(有望)한 다용도전투기(多用途戰鬪機)의 ‘챔피온’으로서 그 위치는 부동(不動)할 것이다.

(차호(次號)에 완(完))



냉전과 국제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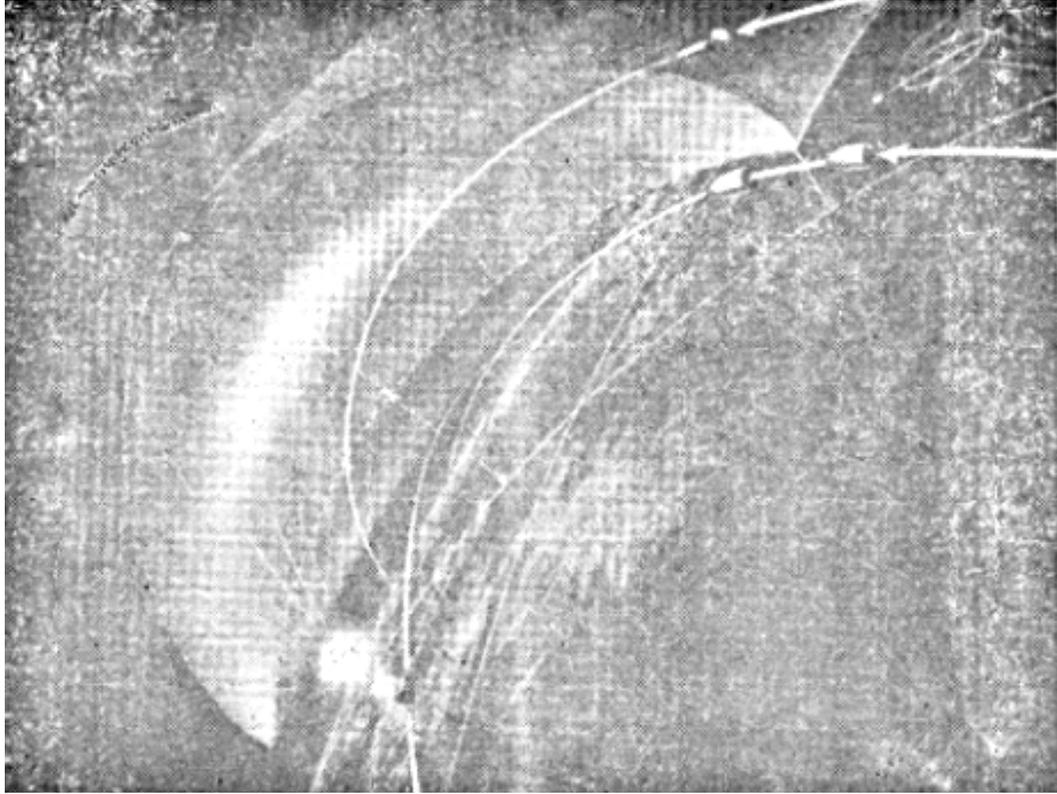
현대에 있어서 가장 슬픈 현상은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17년 동안이나 여전히 계속되는 ‘냉전’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냉전이 생겨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대개는 미소 양국의 감정적 갈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요소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소련이 국제공산주의노선을 관철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이라 해서 그 자체가 세계의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소련이 제정(帝政)이던 민주(民主)이던 공산(共產)이던 그것은 그 나라 국내문제에 끝이는 것이겠지만 단지 소련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제 나라와 같은 정치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 - 즉 세계 적화(赤化)의 야망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의 위협인 것이다. 이것만이 없다면 소련에 대하여 불신감(不信感)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계 자유국가군(自由國家群)이 소련과 공존(共存)해서 안 될 이유도 없다.

그런데 현실의 소련은 자유국가군(自由國家群)으로 하여금 이 점에 있어서 안심해도 좋다는 근거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 소련은 제 1차 대전후 독립국이 된 리트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병합하고 제 2차 대전 말기에는 백림을 향해서 진격하는 도중, 포แลนด์를 공산국으로 만들고 백림이 함락하자 그 여세로 동구제국(東歐諸國)을 모조리 적화(赤化)하였다. 최후에 손질한 것이 체코이며 베네수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웠다.

이와 같은 경과로 보아 소련의 손이 닿는 곳은 모두 공산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련이 침략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 하겠다.

소련은 입을 열 때마다 국제공산주의란 우리가 모르는 노릇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기(前記)한 실례(實例)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거짓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소련이 국제공산주의노선을 포기하였다면 자유(自由)를 요구하는 헝가리 사태가 일어났을 때 탱크를 동원하여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깔고 무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동구(東歐)의 위성국치고 소련의 무력(武力)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공산정권은 하나도 없다. 결국 따지고 보면 소련은 무력(武力)으로 세계 적화(赤化)를 기도(企圖)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자유제국은 소련을 불신(不信)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때문에 냉전은 계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냉전의 원인은 소련의 국제공산주의노선에 있음이 분명(分明)한 것이다.



유인기와 무인기

< 공군소령(空軍少領) >
홍성표(洪聖杓)

지구상(地球上)에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을 정복(征服)하겠다는 꿈과 우주를 동경(憧憬)하는 생각이 깃들여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옛날 고대(古代)의 그림이나 소설(小說) 또는 시(詩)에 보면 막연(莫然)하나마 하늘을 날으는 상상적(想像的)인 '테마'를 내놓고 그렸으며 또 쓰고 읊었던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특이(特異)하였던 것으로는 불란서(佛蘭西)의 '돛드왕'이 '달속의 남자'라는 소설(小說) 속에서 하늘을 날으는 만상(萬想)의 항공기를 그리고 썼는데 그림을 보면 나무 대에 여러 마리의 새를 매어달고 돛의 역할을 하는 형겼을 달은 것을 가지고 인간을 비행시키는 공상화(空想畫)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낱 신기(新奇)하고 우스운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기발(奇拔)한 착상(着想)에서 나온 공상소설(空想小說)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여하(如何)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고 고심(苦心)하면서 연구한 것 만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래도 오늘날과 같은 항공기의 꿈을 현실(現實)에 옮기려고 설계하였던 사람은 서기(西紀) 1452년(一四五二年)에 탄생(誕生)하여 1519년(一五一九年)에 죽은 이태리인(伊太利人)으로써 '르네상스' 시대(時代)의 위대(偉大)한 예술가(藝術家)이며 과학자(科學者)이고 또 기술자(技術者)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할 수 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날으는 데에 대한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이 현존하는 과학적(科學的)인 항공연구(航空研究)의 가장 오랜 문헌(文獻)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모두 4장(四章)으로 되어있는데 제4장(第四章)에는 비행기계(飛行機械)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날개 붙인 비행기(飛行機) 낙하산(落下傘) 그리고 '헬리콥터'의 모형(模型)을 제작(製作)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물론 인간이 탑승(搭乘)하지는 못하였지만 상상해서 제작(製作)한 모형(模型)이 오늘날 항공기술(航空技術)의 연구과제(研究課題)가 되어 논의(論議)의 대상(對象)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획기적(劃期的)인 발전인 것이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에 관해서 연구해 왔으나 동력부족(動力不足)으로 사람이 탑승(搭乘)하지 못한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만이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오늘날 '하늘을 제패(制霸)하는 자 세계를 제패(制霸)한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이와 같은 말은 이미 17세기에 이태리인(伊太利人)이며 승려(僧侶)이었던 '후라체스쿠트 라나'가 설파(說破)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만일 인간이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기계(機械)를 완성(完成)한다면 공격무기로 해서 가공(可恐)할 위력(威力)을 발휘(發揮)하여 인류의 불행(不幸)을 초래(招來)할 것이다"라고 예언(豫言)하였던 것이다. 이 예언(豫言)이 오늘날 우주과학(宇宙科學)이 극도(極度)로 발전하여 달 로켓으로 월세계(月世界)를 정복(征服)한다는 이 마당에서 여전(如前)히 항공기는 몇 MT 급(級)의 수소폭탄(水素爆彈)을 적재하고 전세계(全世界)를 잣대미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항공기의 위력(威力)을 지구상(地球上)에서 세계를 제패(制霸)하기에 시대(時代)에 뒤떨어진 감(感)을 주기는 하나 이 항공기가 인간이 탑승(搭乘)하고 사상최초(史上最初)로 출현하기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기(西紀)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라이트' 형제(兄弟)가 동력(動力)을 붙인 복엽기(複葉機)를 타고 59초간을 250m나 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라이트' 형제(兄弟)와 복엽기(複葉機)가 성공하기까지에는 그간(其間) 많은 사람들의 노력(勞力)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탑승(搭乘)하지 않은 무인기의 무수(無數)한 실패(失敗)와 성공에서 나온 소산(所産)으로서 그렇게 되고 보면 유인기도 무인기의 연속(連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인기다 무인기다 하는 어구자체(語句自体)가 오늘날 우주과학시대(宇宙科學時代)에 와서는 구분(區分)할 수 없는 막연(莫然)한 언사(言辭)로 되었거니와 항공기라는 말 자체(自体)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기준(基準)두느냐에 문제거리가 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간이 탑승(搭乘)하고 하늘을 날으는 기계(機械)라면 무조건(無條件) 비행기(飛行機)다 할 정도이었는데 우주인간위성(宇宙人間衛星)이 출현하면서부터 옛날의 개념(概念)은 일소(一掃)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주인간위성(宇宙人間衛星)은 실제로 비행하는 것을 목격(目擊)하기는 어렵지만 외부(外部)로 로켓의 추진력(推進力)으로 일정(一定)한 궤도(軌道)에 상승하여 날개 없이 타성(惰性)에 의하여 지구(地球)의 인력권내(引力圈內)에서 회전(回轉)하는 등근 공과 같은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비행기(飛行機)라고는 할 수 없다는 부정론(否定論)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론(否定論)은 바로 현실(現實)을 두고 한 말이며 1965년경부터 인간은 월세계를 정복(征服)하기 위하여 지구(地球)로부터는 로켓의 추진체(推進體)로 달 주위(周圍)까지 비행한 후에는 달에 착륙(着陸)할 때에는 그 비행체(飛行體)가 현항공기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또 인간이 항법장치(航法裝置)로 조종(操縱)하면서 착륙(着陸)하였다가 처음에는 일주일(一週日) 경과후(經過後)면 다시 지구(地球)로 귀환할 때에는 비행체가 역시 인간의 조종(操縱)에 의하여 착륙(着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항공기(現航空機)와 차이(差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상이점(相異點)을 발견(發見)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率直)한 이치(理致)일진대 항공기의 개념(概念)을 어디에다 귀착(歸着)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공기와 우주인간위성(宇宙人間衛星)을 구별(區別)하는데 노력하고 또는 개념(概念)을 뚜렷이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나 하는데 초점(焦點)이 있는 것이다.

유인기는 '라이트' 형제(兄弟)가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인류를 위하여 평화적(平和的)으로 많은 공헌(貢獻)을 한 반면에 군사무기(軍事武器)로도 많은 활약(活躍)하여 왔는데 이러한 항공기도 결국은 인간이 탑승(搭乘)할 수 없었던 무인기로부터 개량발전(改良發展)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유인기의 발전은 한 종류(種類)의 유인기를 무한(無限)히 존속(存續)시키면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발전함에 또 다른 항공기가 출현함으로써 폐물화(廢物化)되는 운명을 면(免)치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1957년8월에 소련이 세계최초로 ICBM을 성공시킨 후에는 호언(豪言)하기를 오늘날의 모든 군용항공기(軍用航空機)는 '용광로'에 들어갈 고철(古鐵)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였거니와 그의 호언(豪言)은 어디까지나 호언(豪言)에 지나지 않으며 예언(豫言)은 아니었으나 이것이 예언(豫言)이었다면 비교적 매력적(魅力的)인 발언(發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ICBM이 실전용(實戰用)으로 되고 인간폭격위성(人間爆擊衛星)까지 출현하게 된 현재에 와서 과거의 항공기는 군사무기(軍事武器)로는 폐물화단계(廢物化段階)에 머지않아 돌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변천(變遷)하는 과학발전(科學發展)은 신예항공기(新銳航空機)가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현상(現狀)은 우리나라에서 직접목격(直接目擊)할 수 있고 체험(體驗)할 수 있는 일로써 한국전쟁중(韓國戰爭中) 아공군(我空軍)에 의하여 공산군을 강타(強打)하는데 많은 공적(功蹟)을 수립한 F51 Mustan 기(機)는 Prop 기(機)이었기 때문에 성능상(性能上) Jet 기(機)에 대항(對抗)하지 못함으로 폐쇄(廢鎖)되고 몇 년전까지만해도 신예전투기라 자처(自處)하던 F-86F가 도입되었는데 이 F-86F도 머지않아 이 나라에서 자취를 감출 운명에 처하였으니 얼마나 군사과학(軍事科學)이 발전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폐물화(廢物化)된 항공기는 영원(永遠)히 고물화(古物化)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제2차대전중(第二次大戰中) 폭격기로서 세계각처(世界各處)에서 큰 활약(活躍)을 한 QB-17은 대전종료(大戰終了)와 동시에 유도탄(誘導彈)의 출현으로 한낱 표적기(標的機)로서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QB-17인 것이었다. 앞의 Q자(字)의 표식은 B-17을 표적기(標的機)로 개량하였다는 뜻으로 이러한 유례(類例)는 한국전쟁당시(韓國戰爭當時) 호주(濠州) Jet 전투기가 인식되었고 세계최초로 실전에 Jet 전투기로 출전(出戰)한 F-80 Shooting star 전투기는 그 시 QF-80 으로서 역시 유도탄표기(誘導彈標機)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신예기는 내일(來日)의 무인기로 다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유인기가 무인기로 전화된 예는 표적기(標的機)에서만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原來)부터 무인기로 발전시킨 것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最近) 외지(外誌)에서 보면 무인기로서 각종(各種) 과학장치(科學裝置)를 적재하고 지상의 유도(誘導)를 받으면서 항공기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적의 전후방(前後方)을 정찰비행(偵察飛行)하면서 사진촬영(寫眞攝影) 또는 Radar 전송정보(電送情報)를 제공(提供)하는 일까지 담당(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인정찰기는 역시 전투기나 폭격기를 개량한 QF, QB, 표적기(標的機)와 같이 사격표적기(射擊標的機)로도 사용하는데 이러한 무인기중(無人機中) 가장 성능이 우수(優秀)한 것으로는 작전용(作戰用)으로 미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Q45 Target drone 으로서 최대속도(最大速度)는 음속(音速) 2배이며 상승고도(上昇高度)는 7,000ft 이고 비행시간(飛行時間)은 60분간이나 되는 것이다.

이 외에 무인기로는 오늘날에 와서는 액체(液體)와 고체(固體) 로케트가 상당히 발전하고 또 ICBM과 같이 대륙간(大陸間)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核彈頭) 탄도탄(彈道彈)이 실전용(實戰用)으로 배치(配置)됨에 따라 미해군(美海軍)에서 실전용(實戰用)으로 취역(就役)시키고 있는 Regulus I 는 지상대지상(地上對地上) 유도탄(誘導彈)으로 Turbo-jet Engine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음속(音速) 0.9로 비행하나 공격거리(攻擊距離)가 1,000리(一〇〇〇哩)까지 비행할 수 있었으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일선에서 불려나 폐기(廢棄)됨으로서 Regulus I 호(號)는 무인우편물(無人郵便物) 운반기(運搬機)로 개조된 것이다. 이 Regulus 무인우편기는 지상에서 JATO나 RATO에 의하여 지상으로부터 유도탄(誘導彈)과 같이 발사(發射)되나 비행할 때부터 무전(無電)으로 유도(誘導)되다가 착륙(着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Regulus I 호(號)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한미공군(駐韓美空軍)에 도입하였던 Matador도 Turbo-jet를 장비하였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 한국전쟁(韓國戰線)에 수개월전(數個月前)에 철수(撤收)시켰는데 이 Matador도 핵폭탄대신(核爆彈代身) 화물(貨物)을 적재하고 발사(發射)한 후 목표지(目標地)에 가서는 낙하산(落下傘)에 의해서 착륙(着陸)하게 된 것이다.

Turbo-jet를 장비하였던 유도탄중(誘導彈中)에는 미공군의 사정 5,000리(五〇〇〇哩)의 대륙간유도탄(大陸間誘導彈)이 있는 Snark가 있는데 이 Snark 유도탄(誘導彈)은 그의 사정거리(射程距離)로 보아서 앞으로 핵탄두대신(核彈頭代身)에 화물(貨物)을 이용하여 대륙간(大陸間)을 운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단거리(短距離)라면 Regulus I 는 무선지령(無線指令)으로 Matador는 Radar 지령(指令)으로 유도(誘導)되어 목적지(目的地)까지 비행할 수 있었지만 대륙간을 비행하는 Snark는 천체관성(天體慣性)으로 유도(誘導)되는 것이다. 천체관성방법에는 천측항법조정방법(天測航法調整方法)과 지측항법조정방법(地側航法調整方法)이 있는데 천측항법(天側方法)은 해상(海上)의 배가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보고 항행(航行)하듯이 Snark를 각종(各種) 성좌(星座)의 인력(引力)에 조정하여 오차(誤差)를 수정하면서 관성유도(慣性誘導)로 비행하고 지측항법(地側方法)은 지구(地球)의 인력(引力), 지자기(地磁氣), 기압(氣壓) 등을 이용해서 탄체내(彈體內)의 관성유도(慣性誘導)로 비행하게 된 것이다. 두 가지 방법중(方法中) 어느 것이나 탄체내(彈體內)의 관성유도(慣性誘導)로 비행하게 된 것은 일치(一致)된 점(點)인데 이 관성유도(慣性誘導)는 앞으로 인간이 탑승(搭乘)한 항공기나 우주선(宇宙船)을 무인화(無人化)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조종(操縱)하지 않고 다만 계기판(計器板)만을 감시(監視)하는 것인데 관성유도(慣性誘導)는 속도를 일종(一種)의 가속도(加速度)에 의해서 결정(決定)하는 방법으로 이 가속도(加速度)는 Gyro 기구의 흔들림에 의하여 가속도(加速度)에 의한 흔들림 자(子)의 경향(傾向)을 적산(積算)해서 속도를 계측(計測)하는 것이다.

Gyro 원리(原理)는 너무나 보편화(普遍化)되었기에 논술(論述)하지 않으나 이 관성유도장치(慣性誘導裝置)에 의한 비행이 얼마나 정도가 높으나 하는 것은 1953년 2월8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극비밀리(極秘密裡)에 제2차대전중 초요기폭격기(超要基爆擊機)이었던 B29에 관성유도장치를 적재하고 승원(乘員)은 조종사 CL 코르스 외에 7명(七名)의 과학자(科學者)와 공군기술자(空軍技術者)가 탑승(搭乘)하고 '보스톤' 시(市)를 이륙하여 13시간후에는 2512리 떨어진 곳에 도달하였을 때 벨소리가 요란하게 남으로 전방(前方)을 보니까 목적지(目的地)인 '로스엔젤레스' 국제비행장(國際飛行場)이 앞에 보이는데 이때 13시간(十三時間)은 조종간(操縱桿)을 한 번(番)도 조종(操縱)하지 않고 비행한 것으로서 그때의 관성유도장치(慣性誘導裝置)는 중량이 2,700파운드인데 조그만 방(房)만한 시각품(試作品)이었으나 오늘날은 아주 소형(小型)의 것으로 대륙간탄도탄은 말할 것 없고 중거리탄도탄에도 모두 장치하여 포탄(砲彈)과 같이 탄도(彈道)를 관성장치(慣性裝置)에 정(定)하여 주고 발사(發射)하면 적의 방해(妨害)없이 목적지(目的地)까지 비행하는 것이다. 유도탄(誘導彈)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지령(指令)에 의해서 비행하지만 관성장치(慣性裝置)를 가진 탄도탄(彈道彈)은 자체내(自體內)에 장착한 Gyro의 작용(作用)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이 Gyro의 원리(原理)로 작용(作用)하는 관성장치는 앞으로 초장거리에 위치한 월세계를 비롯하여 여하(如何)한 혹성(惑星)에까지 인간이 탑승(搭乘)하였다 하더라도 조종(操縱)하지 않고 여행(旅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最近) 관성장치(慣性裝置)의 정도(精度)에 따라서 ICBM의 핵탄두(核彈頭) 명중률(命中率)이 우수(優秀)할 뿐만 아니라 우주권여행(宇宙圈旅行)에도 오차(誤差)가 극소(極少)한 부분에서 도달할 수 있음으로 Gyro를 개량 발전하였는데 지금(只今)까지는 Gyro 내에 산소(酸素)가 침입(侵入)하여 오랜 세월(歲月)을 사용하면 내부(內部) 금속(金屬)이 산화(酸化)됨으로써 녹슬게 됨으로 미국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기술자(技術者)는 최근(最近) LOOX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스렘'을 개발했다. 이것이 바로 Gyro-scope의 계기계(諸機械)의 산화(酸化)를 감소시켜 미사일 내부유도(內部誘導)의 신뢰도(信賴度)를 높이는 방법인 것이다.

이 '시스렘'은 '베어링'의 윤활제중(潤滑劑中)에 극미량(極微量)의 산소(酸素)가 대륙간탄도탄(大陸間彈道彈)의 생명(生命)이라고 할 수 있는 Gyro-scope의 정확도(正確度)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발견(發見)된 후 개발된 것인데 1분간(一分間)에 약 12,000(一二,〇〇〇) 회전(回轉)의 비율(比率)로 회전(回轉)하는 Gyro-scope의 차륜(車輪)과 '베어링'은 다만 극미량(極微量)의 윤활제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 윤활제가 산화(酸化)하면 이 Gyro-scope는 효과적인 작용(作用)을 할 수 없고 이 '시스렘' 전체(全體)가 결과적(結果的)으로 정확도(正確度)가 상실(喪失)한다. 이 LOOX 방법은 Gyro 기계(機械)에서 산소(酸素)는 제거(除去)하기 위한 3단계(三段階)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제1단계(第一段階)는 진공(眞空)으로 만들고 다음에는 진공(眞空) 속에 '헤리움'을 충전시키고 끝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산소(酸素)는 특수(特殊) 장치로 연소(燃燒)시키는 것이다.

관성유도(慣性誘導)는 정확하고 정도(精度)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을 입증(立證)하여 주는데 이것으로서 군사무기(軍事武器)의 명중률(命中率)을 높였지만 앞으로는 우주권(宇宙圈)을 여행(旅行)함에 인간이 탑승(搭乘)을 필요로 하나 조종(操縱)하지 않고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음으로 마치 무인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인기는 계속적(繼續的)인 발전으로 유인기가 출현하게 되었고 유인기는 다시 무인기로 전환하는 일방보다 고차적(高次的)인 추력에 의하여 지구중심(地球中心)의 항공계(航空界)가 우주권(宇宙圈) 밖으로 확대(擴大)됨에 인간이 탑승(搭乘)한 우주기(宇宙機)는 관성유도(慣性誘導)에 의하여 조종(操縱)하지 않고 무인기와 같이 장거리를 여행(旅行)하게 되었으니 결국 유인기와 무인기의 개념(概念)은 관성유도장치(慣性誘導裝置)를 설치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過言)이 아닌 것이다.

최초에는 인간이 탑승(搭乘)한 사건(要件)을 가지고 유인기 무인기로 구별(區別)하였으나 기계(機械)가 발전되고 속도가 고속화(高速化)됨에 따라 인간의 조종(操縱)으로서 여행(旅行)할 수 없게 되어 관성(慣性)의 작용(作用)으로 비행하게 되었으니 인간은 유인기 무인기의 개념(概念)의 요건(要件)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성장치(慣性裝置)의 노예가 되어 한낱 운반물(運搬物)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고 보면 인류의 염원(念願)이었던 하늘을 정복하여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멀리 비행하자던 옛날의 망상(夢想)은 현실(現實)으로써 실현되었으나 인간이 제작(製作)한 기계(機械)로 인간이 무인화(無人化)됨으로써 유인기다 무인기다가 아니고 인간이 탑승(搭乘)한 무인기가 된 것이다.

백한 국가재건에의 보람찬 과제(課題)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밝아왔던 '1962년'은 그 찬란한 업적을 청사(靑史)에 새기며 역사(歷史)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하늘의 방패'로서, 또 '혁명과업수행의 선봉'으로서 지난 일년동안 우리가 수행한 일들은 많고도 많았다.

이제 우리의 활주로, 푸른 유니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듬어 1962년을 회상하며 내일을 기약코저 한다.

장성한 장군(張盛煥將軍) 7대 참모총장에 취임

(8월1일)

임기만료로 퇴임 전역하여 주중대사(駐中大使)로 임명된 전 참모총장 김신(金信) 장군의 뒤를 이어 장성한(張盛煥)장군이 제7대공군참모총장(第七代空軍參謀總長)으로 취임하였다.

8월1일 본부광장에서 내외귀빈 및 각급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동 이취임식석상에서 퇴임하는 김장군은 20년간에 걸친 군문에서의 조종사생활을 회고하면서 비록 몸은 정든 군문을 떠날지언정 마음은 언제나 태극표지를 달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젊은 보라매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요지의 이임사으로써 우리 공군의 무한한 발전을 축원하였으며, 신임 장성한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재건과업과 국방의 임무수행으로 과거 그 어느때 보다 우리의 헌신적 충성이 요구되는 때임을 지적하고 첫째 협동단결 둘째 직무에의 애국적 헌신 셋째 기술 및 행정의 과학적 관리운영 등 3대(三大)통솔방침을 하달하면서 지금까지 찬란히 계승되어온 공군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신성한 국방사명과 국가재건과업완수에 일층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모차장에는 공군소장 박원석장군이 임명되고 작전참모부장에는 공군소장 장지량장군, 행정참모부장에는 공군준장 오점석장군이 각각 임명되었다.

동양제일(東洋第一)의 항공창조공(航空廠竣工)

(5월 29(二九)일)

명실공히 동양제일(東洋第一)의 규모와 시설을 과시하는 항공창이 준공되었다.

국고 약 1억8천만원 군용 2백70(七〇)만불 포함 5억3천만원의 막대한 금액과 3년의 건설기간 그리고 국내외의 기술진이 총동원된 동창의 준공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리하여 오던 각종 제트전투기, 수송기, 및 육군 항공기를 국내에서 우리 힘으로 창정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정비 시설을 가진 항공창을 각종 미군용기를 포함한 국내의 각종 항공기를 수리 정비하고 있는 바 이의 준공은 우리 기술진의 커다란 개기임은 물론 공군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광주기지(光州基地) 기공(起工)

(10월30(三〇)일)

신에기 도입을 앞두고 공군력 증강에 커다란 초석을 놓을 광주 공군기지가 10월 30일 하오 2시반 기공되었다. 날로 증강되어가는 북괴 공군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력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이때 현대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군기지를 증설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기지가 준공되면 공군력 발전은 물론 민간항공 발달에도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속출(續出)하는 만시간(萬時間) 무사고비행기록수립(無事故飛行記錄樹立)

이 해는 풍성한 비행안전의 열매를 수확한 해였다. 속출하는 무사고 비행 만시간 돌파 기록은 그동안 끊임 없는 전기연마로 쌓아올린 고도의 조종술과 정비기술을 내외에 과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즉 지난 7월 5일에는 10전투비행단, 7월 25일에는 11전투비행단, 8월 1일에는 제1훈련비행단-이렇듯 각 비행부대는 연이어 무사고 비행 만시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영예의 참모총장 비행안전상을 받은 것이다.

C-46, T-28 아이랜 성공

항공창의 준공과 함께 우리공군 정비진은 금년에 C-46, T-28A형 등 두 항공기의 아이랜에 개가를 올림으로써 그 정비술의 우수성을 내외에 더욱 과시하였다.

항공본창 예하 81(八一)수리창 장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의해 수행된 동 아이랜 성공은 종래 외국에 의존해오던 아이랜을 국내에서 하게 됨으로써

C-46만 하더라도 대당 3,800(三,八〇〇)달러의 외화절약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채일조련가등은在日朝鮮幹部들의일고있었다「것은군사현명(軍事美術)이발달動發하기지전(直前)의남한정세(南韓情勢)는완전히남한이북조선(北朝鮮)의외부(外部)의지배(支配)와침략(侵略)과침공(侵入)에의하여당사(當事)한(韓)파괴(破壞)운동(運動)의결과(結果)로인하여조선(朝鮮)의정권(政權)이북조선(北朝鮮)으로이전(移轉)된것이다」(北朝鮮의정권(政權)이북조선(北朝鮮)으로이전(移轉)된것이다) (원저화(原著者) P. 133)



청진항(淸津港)의 북송자(北送者) 대기실(待合室) (중앙의 1여성은 북송전(北送前) 필자가 경영(經營)하는 광도(廣島)의 공장(工場)에서 일하고 있었다)

북한을 방문(訪問)한 목적

1960년 8월 13일 하오, 우리들 8.15 조선해방15주년경축방조일조합회사절단' 일행 24명을 태운 푸로페라기(機) 2기는 평양상공을 선회한 다음 교외(郊外)의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북괴(北傀)의 해방15주년을 축하(祝賀)하기 위하여 향항(香港)—북경(北京)을 경유하여 전일(前日), 북경(北京) 비행장에까지 북괴(北傀)가 보내준 전용기(專用機)에 의하여 평양(平壤)으로 영접을 받은 것이다. 일행은 즉시 '대문협(對文協)'에서 보내준 소련제로 보이는 투박한 승용차(乘用車)에 분승(分乘), 일로(一路) 평양(平壤)호텔로 직행하였다. 평양(平壤)호텔에서 장도(長途)의 피로를 풀고 이튿날은 15일, 모란봉하(牡丹峰下)의 이른바 김일성광장(金日成廣場)에서 펼쳐지는 북한해방 15주년의 축전(祝典)에 참렬(參列)하여 일본인민(日本人民)을 대표해서 관람대에서 축사를 편다는 일정(日程)이다.

그런데 이 방북단(訪北團)의 면면(面)은 권말(卷末)에 소개한 명단(名單)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단장(團長)에 안부군자녀사(安部君子女史) (전참원의원(前參院議員), 사당(社黨) 일조협회부회장(日朝協會副會長))을 비롯해서 모두가 일조협회(日朝協會)의 중견간부급(中堅幹部級)으로 편성(編成)되어 있으며 그 신분(身分)도 중참의원(衆參議員), 지방의원(地方議員), 노조간부(勞組幹部), 실업가(實業家), 언론인(言論人), 의사(醫師), 사진가(寫眞家) 등 일본의 각계(各界)를 망라 전국적(全國的) 규모의 구성이었다.

또 주의(注意)깊은 독자(讀者)라면 곧 알 수 있는 것으로 단원(團員)의 대다수(大多數)는 일본에서 이른바, 좌익인(左翼人)으로 불리우는 인사(人士)들이다. 원래, 일조협회(日朝協會)란 재일(在日)교포인, 일본인의 종교(宗教), 교육, 문화 예능(藝能) 등의 관계 인사(人士)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었으며 정치 문제에는 관계없이 양국(兩國)의 우호(友好) 관계를 깊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건국기(建國機)(T-6) 퇴역(退役)

(12월 1일)

우리 공군의 요람기에 전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구입되어 지금까지 국토방위에 빛나는 공훈을 세운 건국기가 신예기에 대체되어 퇴역하였다.

1950(一九五〇)년 5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공군에 헌납된 각도의 이름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호의 다섯대와 각 기관 이름인 체신, 교통, 농회(農會), 학생, 애국부인회의 다섯대를 합친 도합 열대의 건국기는 이후 6.25(六二五) 동란 당시의 긴박한 우리나라의 공중세력의 공백 기간을 위기일탈로 보충해 주었고, L-4, L-5에서 F-51 무스탕 전투기를 도입하기까지 초기에는 직접전투에 그리고 전란 중에는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에 또 간접전투 임무 수행 등에 혁혁한 공훈을 세운 것이다.

12월 1일 상오 10시 여의도 기지에서 진행된 동 퇴역식전에서 역대참모총장들은 석별의 애기인 건국기에 회환을 걸어 주었고, 지난날 건국기가 걸었던 초창기의 역사를 더듬으며 마지막 탑승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군력(空軍力)을 과시(誇示). 에어 쇼

(10월 2일)

건군 제 14주년 국군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공중전시가 지난 10월 2일 한강백사장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우리공군의 정예 F-86제트전투기 편대를 위한 각종 항공기 및 우방 미 공군의 지원기 등 200(二〇〇)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한 이날 공중전시에서 우리 공군은 그간 쌓아온 전기를 남김없이 구사하여 공중극에 대지공격 실연 등 각종 묘기를 연출하여 박의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및 인산인해를 이룬 수십만 관람시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았고 약진하는 공군전력을 과시하여 국민의 신뢰감을 한층 더 깊게 하였다.

107기지단창설(一〇七基地團創設)

(4월 24(二四)일)

4월 24일 공군 107(一〇七) 기지단이 창설됨으로써 우리 공군은 또 하나의 단급 부대를 가지게 되었다. K-2 기지에 있는 각 부대의 후방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창설된 107(一〇七) 기지단은 종래 분산되었던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일층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중앙활공훈련소(中央滑空訓練所) 창설(創設)

(11월 16(一六)일)

11월 16일 하늘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의 푸른 꿈을 꾀 줄 중앙활공훈련소가 창설되었다. 활공기훈련이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건전한 항공 '스포츠'로서 항공사상계발에 기대되는 바 크다. 창설에 앞서 1기생 38(三八)명 2기생 34(三四)명이 훈련을 끝마친 바 있는데 2기생 중에는 15명의 여대생도 끼어 이채를 띄었다.

농촌부흥(農村復興)을 위한 지도부락(指導部落) 활동

혁명이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향토계건 과업을 적극추진하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군민간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작년 말 부터 우리 공군 각 단대와 전국 각지의 벽촌사이에 맺어진 자매부락 운동은 금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기를 띠어 그간 18개 부락, 4개 학교, 1개 도서관과 인연을 맺고 몰심양면에 걸친 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다.

일마 후 지도 부락으로 개칭된 이 자매부락에는 그간 장병들의 정성으로 모은 가축(소, 돼지, 토끼 등) 7백여 두를 위시하여 농기구 400(四〇〇)점, 라디오 및 앰프용 스피커 300, 문고 7천권, 학용품 2천점 등이 선물로 전달되었다.

또한 농번기에는 틈을 내어 모심기, 추수 등을 도와주었고, 한여름에는 가물에 목 타는 농민들을 위해 각종 기계를 동원하여 수로(水路) 작업, 물대기 작업 등을 해주는 한편, 부락민 위안공연 등도 힘자라는 데까지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순천홍수 때에는 수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공중수송하여 따뜻한 동포의 빠른 구호의 손길에 주민들을 감읍(感泣)케 한 바 있다.

순전한 문화 단체로 창립 당시의 회장에는 천초만릉사(淺草萬隆寺)의 주지(住持), 내마타마사(來馬琢磨師)가 회장이었고 신전사(神田寺)의 우송난제사(友松丹謫師)며 교포 측(側)에서는 동선사주지(東鮮寺住持) 이용표사(李英表師) 등이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소련, 중공(中共)에서 귀환한 문화인(文化人)이 다수(多數) 입회(入會)하여 어느새 회(會)의 지도권(指導權)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민전시대(民戰時代)'의 재일조선인자제(在日朝鮮人子弟)의 민족교육부활(民族教育復活) 투쟁을 계기로 점차 좌익적(左翼的)이 되어 갔음으로, 역원(役員)의 태반(殆半)이 탈회(脫會), 수년간(數年間)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것이다.

1955년, 전중정춘씨(田中政春氏)가 북괴수뇌(北傀首腦)와 회담(會談)하고 귀국(歸國)한 후, 협회이사장(協會理事長)에 취임하면서 동년11월의 제1회 대회(大會)에서 '일조양국민족(日朝兩國民族)의 이해와 우호(友好)를 깊게 하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를 촉진, 조선(朝鮮)의 평화통일을 지지(支持)하여 상호(相互)의 번영과 세계 평화(平和)에 공헌(貢獻)한다'는 것을 기본 활동방침(活動方針)으로 재발족(再發足)하여 1958년, 제4회(第四回) 대회(大會)에서는 '재일조선인집단귀국(在日朝鮮人集團歸國)을 강력(強力)히 추진하고 안내각(岸內閣)의 조선정책(朝鮮政策)을 개선케 하며 이승만(李承晩)과 대결(對決)하는 방향(方向)으로 운동을 지향(指向)하며 따라서 북조선공화국(北朝鮮共和國)을 적극지지, 일한회담(日韓會談)을 반대한다'는 북괴일변도(北傀一邊倒)의 정책(政策)을 세워 북괴정권(北傀政權)과 기맥(氣脈)을 통하는 단체(團體)로 화(化)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교포(僑胞)의 집단복송(集團北送)을 강력(強力)히 추진하여 그 실행에 공(功)이 크다는 이유로 전중이 사장(田中理事長)은 동년7월(同年七月), 북괴정권(北傀政權)으로부터 제2급국기훈장(第二級國旗勳章)을 수여(授與)받았다. 이런 상황(狀況)의 일조협회(日朝協會)의 방전단(訪烟團)이었으니 그 단원구성(團員構成), 성격(性格)에 관해서는 이상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절단명부에 나, 관, 귀성(貴星)이 끼어 있었다. 일본인만으로서 편성(編成)된 사절단(使節團)에 나의 이름이 들어있다는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독자(讀者)가 있을 것이다. 이 답(答)으로는 권말(卷末)에 나의 이력서(履歷書)를 참조(參照)하면 알 수 있겠지만 나의 본명(本名)은 오귀성(吳貴星)이며 1951년에 일본인 관관(關貫) 일랑(一郎) 동적(同籍)으로 입양(入養)하여 일본인 관(세 끼) 귀성(貴星)이 되었으며 1958년 2월 이후 일조협회(日朝協會) 강산현지부(岡山縣支部) 부지부장(副支部長), 1959년 7월에 조총련중앙재정위원, 일중우호협회(日中友好協會), 일(日)소협력회(協力會) 강산현지부이사(岡山縣支部理事)의 요직(要職)에 있게 되었다.

우리 일행의 사명(使命)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낸 이른바 귀국자(歸國者)의 생활상태(生活狀態)를 조사(調査)하고 장래의 참고자료(參考資料)를 수집(蒐集)하는데 있었다. 나는 북송협력회(北送協力會) 강산간지부간사(岡山縣支部幹事)로서 북송에 적극적 선두에 나섰던 것이며, 나 자신도 기회 보아 빠른 북한 땅에 묻으려 했던 터이다. 때문에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생활실정(生活實情)은 나의 커다란 관심이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어떻게 활약하고 참여하고 있는가는 나의 시찰의 대상인 것이다.

북송자(北送者)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북한을 시찰한 나는 금후북한(今後北韓)으로 가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들에 도움 되는 것을 나는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자료를 귀국자(歸國者) 자신의 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조협회(日朝協會)'가 북한을 방문(訪問)하는 목적이었다.

조총련(朝總連)은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재일동포(在日同胞)에게 선전하고 귀환자(歸還者)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알몸으로 가도 그날부터 의식주(衣食住)에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자는 나라에서 무상(無償)으로 배움의 터를 줄 것이며, 건강한 자에게는 일터가 기다리고 있다고 떠들어 대었다. 내가 북한에서 먼저 와 있는 동포를 만나보려고 한 것은 이 같은 조총련(朝總連)의 선전(宣傳)을 확인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앞으로 속속(續續) 귀환하게 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일을 해주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었으며 한편 먼저 북한에 가 있는 지인(知人)이며 선배를 만나서 서로 환담하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고 격려의 말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역자주

이 수기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필자에 대하여 좀 긴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필자 오귀성씨는 1914년 전남순천시 태생이며, 1951년에 일본인 관씨에게 입양함으로써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관 귀성인 것이다.

그는 1946년 2월 재일본조선인연맹 망산지부경리부장을 시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간을 조총련에 헌신하여 1959년에는 조총련중앙본부재정위원이란 요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두 번이나 중공을 방문한 일이 있으며, 이 수기는 그가 1960년 8월 8·15해방 15주년을 맞아 이른바 일조협회사절단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쓴 생생한 기록이다.

본 수기는 지난 3월에 『낙원의 꿈은 깨어지고』라는 단행본으로 일본어로 일본에서 발간되었다. 본 책자가 발간되자 조총련내부는 물론 일본사회당내에까지 커다란 파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조총련중앙위원이며 재일교포 북한송환협력회간사였던 그가 북한의 진상을 보고 돌아오자 오랫동안 그가 꿈꾸었던 공산주의 낙원의 꿈은 완전히 깨뜨려 졌으며 사사건건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인 허사에 인류적 양심의 분격(憤激)을 참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가 조총련 간부였던 만큼 이 북한건문기는 조금도 감정에 치우침이 없는 정확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나 만큼 북한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본 수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기에 삽화에 걸쳐 중요한 대목만을 추려서 역출(譯出)하기로 한다.

(본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지명, 단체명(이러테면 북한을 북조선인민공화국, 조선사변(6·25전란) 등 북괴계가 사용하는 용어는 원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역문에서는 그런 류의 용어는 표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상용어로 고치기로 했다.) <사진은 필자>



吳 貴 星 氏

나는 왜? 펜을 잡는가

우리 일행은 약 3주간(三週間) 평양(平壤)을 중심으로 황해(黃海), 개성(開城), 원산(元山), 청진(淸津), 금강산(金剛山) 등, 대문협(對文協)이 관 스케줄에 따라 각지(各地)를 순회(巡回)하여 내가 직접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마음에 비친 진실(眞實)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혼란(混亂)하였으며 얼마나 노뇌(懊惱)하고, 자기혐악(自己嫌惡)에 빠지고..... 그리고 드디어는 완전히 별개(別個)의 입장(立場)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가. 그것을 인간의 양심(良心)과 정의(正義)의 이름 아래서 고발(告發)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나는 본서(本書)에 의해서 추호의 분식(粉飾)도 없이 표백(表白)하려 하고 있다—지금 나의 마음은 펜을 잡으면서도 격렬한 자책감(自責感)으로 떨리고 있다.

왜? 그것을 거짓 없이 토로(吐露)하는 것이 지금 펜을 잡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손님이나? 죄수(罪囚)나?

우리들 방한사절단일행(訪韓使節團一行) 24명(二十四名)은 모두가 호텔에서 마음의 안정(安定)을 잡을 수 없이 들떠 있었다. 왜냐하면 8월 15일 해방 기념식이 끝났는데도 우리들에게 자유(自由)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을 평양(平壤)호텔에 정중히 감금되어 일보도 바깥에 나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악의(惡意)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우리 일행은 초대를 받아서 온 손님(身分)이요, 기념식전(記念式典) 뒤처리 등 바빠서 손이 모자라며 사고(事故) 방지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호텔에 모셔두는 것이겠지. 2,3(二,三)일지나면 공작원(工作員)(노동당원(勞動黨員))의 감시도 풀고 자유(自由)로이 시가견학(市街見學)이며 지인방문(知人訪問)도 되겠지. 일행은 모여 앉아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벌써 며칠이 지나도 그러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참다못한 어느 단원(團員)은 시가(市街)구경이나 해볼 일이 아니냐 하고 호텔을 걸어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 쪽의 형편이요, 해석이지 저쪽에서 볼 때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몇 발자국도 못가서 공작원(工作員)에게 끌려 다시 호텔에 들어오고 말았다.

그러자 우리는 우리의 지인(知人)들이 호텔로 우리를 방문해 왔으나 공작원(工作員)에게 쫓겨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원(團員)들은 모두가 지명인사(知名人士)요, 일조우호(日朝友好) 사업에 관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양 시내(平壤市內)에는 지인(知人)이나 우인(友人)이 적지 않았다. 우리들은 제각기 공작원(工作員)에게 명단(名單)을 내놓고 만나고 싶으니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모두가 요령부득한 답(答)들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수차례 걸쳐서 요구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직장(職場)이 바뀌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으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들의 상식(常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우리들의 편지는 우리가 부칠 수 없고 모두 공작원(工作員)에게 주어야 하며 담배 값이 필요해서 북한 돈과 바꾸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냐?”

모두들 불평(不平)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단원(團員)은 노기(怒氣)를 띄어 “북한당국(北韓當局)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이따위 대우를 하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감금하겠다는 거냐? 우리를 초청(招請)한 대우가 이거란 말인가!” 하고 정색(正色)을 해서 떠들기까지 했다. 또 단원(團員) 모 씨(某氏)는

“그렇다면 우리를 대동강변(大同江邊)에까지만 나가게 해주시오.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해야겠소.” 하고 요구했으나

“호텔의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하며 공작원(工作員)은 보기 좋게 거절했다.

우리는 공식(公式)으로 특정(特定)한 곳에 견학(見學)할 때에도 그것이 불과(不過) 50미(五十米)의 거리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탔으며 시가(市街)를 걷게 하지는 않았고 우연히 거리에서 지인(知人)을 만났어도 공작원(工作員)이 옆에 붙어서 말을 건넌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일행이 금강산(金剛山)에 갔을 때에도 일본의 자유(自由)를 주지 않았다. 목욕도 식사도 전원집단(全員集團)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초청(招請)에 의한 '손님'이 아니라 감시를 받는 죄수(罪囚)였다.

귀심여시(歸心如矢)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죄인(罪囚)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단원(團員)은 누구 할 것 없이 이 의문(疑問)을 풀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럴싸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때문에 단원(團員)들의 불만(不滿)은 더해 갔다. “적어도 우리는 해방 기념식전에 초대를 받았고 또 받을만한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감시(監視)하더니 괘씸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단원(團員)이 있기도 했다.

드디어 단원(團員) 모씨(某氏)는 아부단장(阿部團長)에게 대과(待過)를 개선해 달라는 강경(強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아부단장(阿部團長)은 여러 번 당국(當局)에 대해서 선처(善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로(徒勞)였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답(答)이었다.

귀로(歸路)에 올랐을 때 아부단장(阿部團長)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불평불만(不平不滿)과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공작원(工作員) 사이에 끼어 나는 정말 두 번이나 울었어요.”라고 이러한 사정으로 단원중(團員中)에서는 견학일정(見學日程)에 참가(參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일 이대로 가다가는 낙오자(落伍者)가 속출하여 무엇보다도 사절단(使節團) 자체의 체면(體面)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빠졌다. 그래서 단원(團員) 전체회의(全體會議)를 열고 일정(日程)을 줄이고 빨리 죄수(罪囚)와 같은 북한공기(北韓空氣)에서 벗어나 귀국(歸國)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우리의 귀로(歸路)도 역시 북경(北京)—항향(香港) 코스로 되어 있었는데 합의(合意)를 줄여서 평양(平壤)을 떠나 북경(北京)에 도착한 우리들은 마치 해방된 기분으로 북경(北京)의 거리나 산책하려 했는데 이 또한 어찌된 셈일까? 북경(北京)에 있는 북괴대사관(北傀大使館)으로부터 우리 일행에게 우리가 투숙(投宿)하고 있는 신교반점(新僑飯店)(호텔)에서 외출(外出)을 금지(禁止)한다는 통첩(通牒)이 시달(示達)되어 왔으니 말이다. “북경(北京)에 까지 우리를 감금할 작정인가?”하고

단원(團員)들은 드디어 폭발하였다. 일행중(一行中) 공산당원(共產黨員) 3명(三名)을 대표로 선출해서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북경반점(北京飯店)에 있는 황봉구(黃鳳九)(북괴민족통일전선(北傀民族統一戰線) 부의장(副議長), 조총련중앙부부장(朝總連中央副議長)에게 보내어 항의(抗議)하였다. 이 사건(事件)은 황봉구(黃鳳九)의 주선으로 해결을 보았지만 남의 나라에까지 간섭을 하는 북괴당국(北傀當局)에 대해서 아무리 일조협회(日朝協會)의 멤버라 하지만 드디어는 북괴당국(北傀當局)에 욕설(辱說)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내가 북경(北京)에서 본 사실이다. 단원(團員)의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기념엽서(記念葉書)를 보내었는데 수십매(數十枚)의 엽서(葉書)에는 한결같이 이렇게 쓰고 있었다. ‘귀심여시(歸心如矢). 이 단원(團員)은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의 국회의원이며 일본에서는 덕망(德望)이 높은 사회적 인물이었다.

지상최대(地上最大)의 감옥(監獄)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는 나의 선배, 우인(友人)이 많았다. 내가 북한을 방문(訪問)했을 때의 가장 즐거운 스케줄의 하나는 이들 선배, 우인(友人)을 만나서 흥금을 털어놓고 어제, 오늘 내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부(否)자(字)로만 나타났다. 다른 단원(團員)들도 물론 아무도 희망하는 지인(知人)이나 우인(友人)을 만날 수는 없다.

북한은 내가 반세기(半世紀)동안 생명(生命)을 걸고 싸워온 이상의 나라였다. 나의 사명(士命)의 등(燈)불이 었던 것이다. 내가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로서 청년시대(青年時代)부터 우리 민족(民族)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어서 바라던 비원(悲願)의 이상의 땅이었던 것이다. 이 땅에서 나는 나의 전우(戰友)를 만나 보려고 했다. 이것이 왜 나쁘단 말인가? 왜 나는 이러한 전우(戰友)와 만나서는 안 된 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다시 반성(反省)하고 반성(反省)해서 선의로 해석하려고 재삼성의(再三誠意)를 가지고 선배나 우인(友人)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나는 일본성(日本姓)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편의상(便宜上) 부득이 가진 것이고 실은 ‘조선인(朝鮮人)’ 오귀성(吳貴星)이며, 조총련중앙간부(朝總連中央幹部)요, 그 밖에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열성을 받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평양(平壤)호텔에까지 여러번 나를 찾아온 우인(友人)들도 공작원(工作員)에 의해서 쫓겨 갔다. 그 우인(友人)이 안타까운 시선(視線)으로 호텔의 창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갔을 때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무서워질 만큼 혼란(混亂)과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동요(動搖)-파급(波級)처럼 번져가고 커져가는 동요(動搖).....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도리어 만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는 후회감(後悔感)을 얻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면회시간(面會時間)은 공작원(工作員) 입회하(立會下)에 20분간(二十分間), 피차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하는 이외(以外)에는 입회(立會)한 공작원(工作員)의 눈치만 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면회(面會)가 허락된 두 사람이란 한 사람은 강산(岡山)조련학교(朝連學校) 교장(校長)을 했었고 또 한 사람은 강산(岡山)조련지부위원장(朝連支部委員長)을 지낸 사람인데 모두가 극히 최근에 귀국(歸國)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생소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북송자(北送者)들의 생활실태(生活實態)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거기에 공작원(工作員)이 감시를 하다니 마치 수감(收監)된 죄수(罪囚)를 면회(面會)하는 식이다. 그들은 말이 없이 나의 얼굴만 멀끔히 바라보았다. 그 안타까워 하는 시선(視線),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시선(視線)–

여기가 ‘지상의 낙원인가?

헤어질 때 나는 양말 두 켤레를 선물로 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조석도 한 켤 대접 못 했는데–”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공작원(工作員)은 시간이 되자 헤어지라고 명령했다.

해방직후 강산현(岡山縣)에서 ‘조맹(朝盟) 위원장(委員長)을 지낸 지인(知人)이 있었다. 그는 십수년전귀국(十數年前歸國)하여 지금은 육군중좌(陸軍中佐)로서 평양시내(平壤市內)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가 수회(數回)에 걸쳐 호텔에 나를 만나러 왔으나 공작원(工作員)에 의해서 쫓겨 갔다는 것이다. 육군중좌(陸軍中佐)가 일개공작원(一介工作員)에 쫓겨 가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대장(大將)이나 사령관(司令官)이라도 그가 노동당원(勞動黨員)이 아니라면 일개당원(一介黨員)의 명령(命令)에 복종해야만 한다. 대장(大將)이나 사령관(司令官)은 단순(單純)히 군인으로서의 계급이며 실전에서는 일병졸(一兵卒)이 그가 당원(黨員)이라면 비밀작전(秘密作戰)에 참석(參席)하지만 비당원(非黨員)으로서는 상관(上官)이라 하더라도 참석(參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는 모순(矛盾)이 있다. 그것도 이만저만 모순(矛盾)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을 기절(起絶)하는 모순(矛盾)–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니,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나는 그러한 생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생각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입 밖에 내어 크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세 사람의 공산당원단원(共產黨員團員)을 제외하고는 얼굴에 그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었다.

일행의 단원중(團員中)에는 구주대표(九州代表) 모씨(某氏)가 있었다. 그런데 구주(九州)에서 귀국(歸國)한 한 청년(青年)이 이 단원(團員)을 찾아왔다. 그는 70리(七十里)를 걸어서 평양(平壤)으로 그를 만나 보고자 나왔던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부활할 말이 있었을 것이요, 구주(九州)에 남아 있는 친지(親知)에게 전언(傳言)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1주일 동안을 호텔 근처에서 지냈으나 끝내는 만나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던 그가 우리 일행이 지방시찰(地方視察)에 출발(出發)하는 차(車)에 달려들어 “한 마디라도 좋으니 구주(九州) 대표와 만나게 해주시오”라고 외치며 단원(團員)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공작원(工作員)은 안색하나 까딱하지 않고 냉혹하게도 청년(青年)을 후들겨 보내고 말았다. 이 같은 청년(青年)의 애절한 호소가 있게 되자 사절단(使節團) 일행은 크게 동요(動搖)하게 되었다. 뒤에 알았지만 이 청년(青年)은 ‘조선민주청년동맹원(朝鮮民主青年同盟員)으로 활약(活躍)했으며, ‘일조협회(日朝協會)에서 일을 보아 온 사람으로서 양친(兩親)의 반대를 물리치고 용약(勇躍) 신석항(新石港)을 출발(出發)하였다는 것이다.

또 모단원(某團員)은 호텔에서 두 세집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있는 지인(知人)과 매일 아침마다 만나면서도 개인적인 얘기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평양(平壤)엘 왔는가?”하고 대분개(大憤慨)하였다.

눈으로 보는 그대로 ‘지상의 낙원’은 커녕 지상최대(地上最大)의 감옥(監獄)이다.

북송자(北送者)가 남기고 간 재산(財産)의 행방(行方)은?

귀로(歸路) 북경(北京)에 모인 우리는 단원회의(團員會議)를 열고 우리가 북한에서 받은 처우(處遇)를 검토(檢討)하기로 했다.

단원(團員)은 모두가 수준에 도달한 이론가(理論家)이며 공산주의(共產主義), 사회주의체제하(社會主義體制)下에 있어서의 사회생활(社會生活)이 어떠한 형태(形態)라는 것쯤 백지(白紙)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떤 경향(傾向), 어떤 색채(色彩)가 있기 때문에 단원(團員)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檢討)는 냉정하고 신중(慎重)하였다. 이리하여 최종적(最終的)으로 도달한 결론(結論)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으로부터 귀국(歸國)한 자의 불평(不平), 불만(不滿)을 방북단(訪北團)의 눈으로부터 은폐(隱蔽)할 목적이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괴당국(北傀當局)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道理)가 없었다.

이 결론(結論)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원(團員)은 없었다. 원래(元來) 일조우호(日朝友好)를 정치목적(政治目的)으로 하는 사람, 일북무역(日北貿易)을 꿈꾸는 사람,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신봉(信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의의(意義)가 큰 것이다. 그들은 보다 큰 모순(矛盾), 비인도적(非人道的), 비문명적(非文明的) 광경(光景)을 도처(到處)에서 목격하였지만 ‘단(團)의 성질상(性質上), 이 이상의 결론(結論)도 이 이외(以外)의 결론(結論)도 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은 북한에서는 최고급(最高級) 승용차(乘用車)를 타고 가는 곳마다 대환영(大歡迎)을 받았으며 거의 매일밤 미주(美酒)와 산해(山海)의 진미(珍味)로 배운 연회(宴會)로 접대 받았다. 그러나 내가 북한을 방문(訪問)한 것은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 산해(山海)의 진미(珍味)를 맛보려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이상하던 ‘북조선인민공화국(北朝鮮人民共和國)의 진실(眞實)의 모습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던가?

북한은 극대(極度)의 인적(人的) 자원(資源)이 고갈(枯渴)되어 있었다. 특히 청장년(靑壯年) 남자(男子)가 그러했다. 남자(男子)의 고갈은 한국전쟁(韓國戰爭) 때문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생명(生命)을 걸고라도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男子)이며 그 중에서도 청장년(靑壯年) 층(層)이다. 이들은 모두가 전쟁중(戰爭中) 남한으로 탈출해 버린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인적(人的) 자원(資源)의 확보는 노동력(勞動力)의 확보다. 동시에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로 화(化)할 수 있다. 일본에 있는 60만(六〇萬)을 끌어 들이자, 이것이 북괴(北傀)가 꾸민 제일교포(在日僑胞) 북송안(北送案)의 정체(正體)였다.

사람은 누구라도 살기 힘든 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에 음모(陰謀)를 꾸민 것이 조련(朝聯)이다. 그들은 떠들어 대었다. 북한은 자본가(資本家)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가 아니다. 북한은 전전(戰前)의 일본의 제국주의시대(帝國主義時代)와 같은 그러한 사회가 아니다. 북한은 이승만(李承晩)이 무단정치(武斷政治)하는 남한의 그러한 사회가 아니다. 북한사회주의(北韓社會主義) 사회는 사회복지제도(社會福祉制度)가 발달(發達)하여 모두가 평등(平等)하게 살 수 있는 지상의 낙원이다. 반세기(半世紀)동안 조국(祖國)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이제야 조국(祖國)에서 조국(祖國)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일본에서 가난하게 사는 교포(僑胞)들은 이 터무니없는 선전(宣傳)에 넘어갔던 것이다. 전후(戰後), 일본사회(日本社會)에서 인류적(人類的) 차별(差別)로 학대(虐待)받아 온 제일교포(在日僑胞)들에게 이 나팔소리는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귀를 울리게 했던 것이다. 이 나팔소리에 춤추어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대다수(大多數)는 공산주의(共產主義)의 ‘공(共) 자(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리하여 청진항(淸津港)에 도착한 귀국자(歸國者)는 거창한 환영을 받으며 영접 위원(委員)의 주선으로 아파트에 안내(案內)되어 10일간(十日間) 체류(滯留)하면서 하나하나 이른바 성분(成分)의 분석을 받는다. 대부분(大部分)은 탄광노동자(炭礦勞動者)나 농장노동자(農場勞動者)로 배치(配置)되어 노동력(勞動力) 부족에 우마(牛馬)처럼 보충(補充)되었다. 그들은 노련(朝聯)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 알몸으로 마다를 건넜다. 그리하여 영하 20도(零下二十度)의 혹한(酷寒)에 방한복(防寒服) 한 벌 없이 생지옥(生地獄)에서 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기괴(奇怪)하고도 참지 못할 조련(朝聯)의 처사(處事)가 있다. 조국(祖國)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알몸으로 가도 조금도 불편(不便)은 없다가 떠들어 놓고 그들이 남기고 간 금품(金品)을 모조리 기부(寄付)의 미명(美名)아래 조련(朝聯)이 차지한 것이다.

무미건조(無味乾燥)한 간담회(懇談會)

우리들은 원산(元山)에서 귀환자(歸還者)와의 공식간담회(公式懇談會)를 열었다. 내가 여기서 구대어 공식(公式)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한 번도 공작원(工作員)이 입회(立會)하지 않는 자유(自由)로운 간담회(懇談會)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들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아무리 캐고 물어도 나오는 말은 ‘불편(不便)없다’ ‘만족하다’ ‘잘 살고 있다’하는 말 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녹음기(錄音機)를 듣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공작원(工作員)들이 귀를 쫓긋해서 앉아있으나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일본에서 잘 알던 일본부인(日本夫人)이 끼어있었다. 나는 어쩌나 반감던지 소리를 내어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으나 뜻밖에도 그는 냉담한 표정이 아닌가. 그는 공작원(工作員)을 경계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속아서 나는 지금 이처럼 고생을 하고 있다고 원망을 해서이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리하여 나는 그들과 피가 통하는 얘기란 한 마디도 못했다. 이래서는 우리가 일본에 돌아가서 다음 귀국자(歸國者)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전연 알 수가 없다.

단원(團員) 중에서는 이 무미건조(無味乾燥)한 분위기를 무시하고 염치없이 캐고 묻는 자도 있었으나 그것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 공전(空轉)을 거듭할 뿐이었다.

모두가 ‘만족하다’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다. 생소한 땅, 그것도 사회제도(社會制度)가 전연 다른 공산세계(共產世界)에 들어와서 어떻게 만족하단 말인가? 그 중에서 일본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당신은 만족하지만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말해 달라고 대드는 단원(團員)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입술을 조개처럼 다물고 있으니 어쩌던 셀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제일중광도현(在日中廣島縣)에서 위원장(委員長)을 지낸 한 사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한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현재 모(某)제재공장(製材工場)의 지배인(支配人)을 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꼬치꼬치 묻은 결과 ‘뚝을 가져다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끄집어내는데 성공했다.

(차호(次號) 계속)

병과출신(兵科出身)

소령 김병로(金秉老)
(교재창)

시골 길. 늘 오든 고즈넉한 산모퉁이를 둘은 다정스레 붙어서 걸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단 둘이서 이렇듯 호젓한 곳엘 오면 사랑이 물신 무르익어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해 하는 정(鄭)병장이었다.

미원(美媛)도 마찬가지로. 호젓한 곳에서이면 으레 자기의 손을 덥석 쥐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말이 오갈 때마다 꼬옥꼬옥 힘을 주는 정(鄭)병장의 사랑의 표시에 생긱이 뜻 담긴 웃음을 지어 보이곤 하는 미원(美媛)이었다. ‘우린 무슨 일이 있어 두 떨어져선 안돼’

정(鄭)병장은 미원(美媛)의 손을 으서져라 힘껏 쥐어 주면서 감격 어린 음조로 이렇게 말했다.

‘요렇게 꼬옥 붙들고 안 떨어질 걸요 뭐..’

미원(美媛)은 정(鄭)병장의 블루 벨트를 힘껏 쥐어 나꾸채면서 까르륵거리고 웃어 제쳤다. 어디에선가 초가을의 산들바람이 불어 와서 둘을 시원스레 스쳐주었다.

정(鄭)병장은 바람에 머리칼이 훑날리는 미애(美媛)의 얼굴에서 지금껏 발견치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 같아 흐뭇했다.

지정된 코스나 되는 것처럼 둘은 손을 잡은 채 다박술이 자르르 깔린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리고 늘 자리하던 반반한 풀밭 위에 찰싹 붙어 앉았다.

‘아이, 시원해요’

미원(美媛)이 흠어진 머리칼을 매만져 넘기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역시 가을이 좋군요.’ 정(鄭)병장.

‘진수씨두요?... 전 가을이라면 마냥 즐거워 죽겠어요. 호호호’

미원(美媛)은 참으로 즐거워서 못 견뎌하는 것 같았다. 어디선가 뻤뻤 까르르 이름 모를 새소리가 들려왔다.

‘요사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미원(美媛)이 불현듯 화제를 바꿨다.

‘삼개월 뿐이 안 남은 걸요..’

‘뭐가요?’

‘그것 두 몰라요? 미원(美媛)씨가 기다리는 제대 말이오’

‘아 참 그렇군요..... 난 또 권가 했죠. 근데 제대가 가까우면 그렇게 맘대론 가요?’

‘적당히 되는 거죠. 병과 출신야 삼년 동안 적당히 지내면 되는 거구. 이렇게 제대가 가까우면 당사자들이 빈들거리다구 아무도 악파구니 쓸 사람이 없거든요.....’

‘편리하군요. 그렇지만 그래선 못 쓰지 않아요?’

‘못 쓰긴 뭐가 못 써요? 한 삼년 공군에서 썩어 쫓음 그만이지, 무슨 충성이라구 마지막까지 고지식하게 스리.....’

‘그게 나빠요’

미원(美媛)은 약간 격앙된 어조로 정(鄭)병장의 말을 가로챘다. 정(鄭)병장은 약간 당혹했다. 그러나 농담으로 새기고 유들거리려 했다.

‘아이, 무섭군요. 미원(美媛)썬..’

정(鄭)병장은 미원(美媛)의 허리를 안다 싶이 하면서 능청을 부렸다 미원(美媛)은 뿌리치진 않았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이윽고 가라앉은 미원(美媛)의 음성이 그럴사한 말이 되어서 정(鄭)병장의 귓전을 때렸다.

‘전 진수씨에게서 한 가지 불만스러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구 우리의 사랑이 식어든다는 뜻은 아냐요. 아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은 더욱 진수씨에게로 굳어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진수썬 너무나 막연해요.’

‘.....’

정(鄭)병장은 갑자기 적당한 답변을 못 찾고 망설였다. 미원(美媛)은 말을 계속했다. ‘.....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결혼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물론 진수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냐요. 가정이 가난하구 위로 결혼 안 한 두 분 형님이 계시구..... 하지만 전 우리가 먼저

장병 페이지



컷. 김정우
(기교단 교재대대)

“인어”

대위 정순열
(본부사령실)

미칠 듯 뒹굴며 뽀박질 치는 물결
푸디고 싱싱한 피동피동한 어족들
뭉개구름 내려 돌혀 해풍에 걸려
수평선 저 넘어로 얼굴내어 밀 때
모래알 뒤집어 쓰고 바다와
대결하는 투우사
불 뿜는 7월 태양아래
번뇌와 고뇌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정녕 내일에 살려는 바다는
인어의 고장이 되다

결혼해 두 상관없다구 생각해요. 앞으로 형제간에서두 형편 닮는 사람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부모나 동기(同氣)간의 부담을 더는 면에서도 껍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정(鄭)병장의 입은 점점 더 무무라 들게 마련이었다. ‘.....낙심 마세요. 전 시작했어요..... 편물 말아요. 고등학교 졸업반 때 감수소에서 배웠든 편물을 시작 하기루 했어요. 날씨가 차차 추워지니까 틀림없이 될 거야요. 우리 부모들두 진수씨와의 결혼을 그리 반기지 않는 눈치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앞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손으로 풀만 쥐어뜯고 앉아있는 정(鄭)병장의 품에 바짝 안기면서 미원(美媛)은 애원하듯 말했다.

‘진수씨! 막연해선 안돼요. 적당히도 안돼요. 군에서 제대되는 순간까지 열심히 군무에 복무하세요. 그래야 나와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전 고생 같은건 문제가 아냐요. 진수씨의 사랑과 성실한 인생태도만 있음 그만 야요.’

품에 담겨서 정(鄭)병장을 지켜보는 미원(美媛)의 두 눈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정(鄭)병장은 무슨 인력이라도 끌리듯 미원(美媛)의 몸을 으서져라 껴안았다. 그리고 불과 불을 비웠 다. 또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둘을 시원스레 스쳤다. 어디에선가 까르르 산새소리가 들렸다.

<수필>

차(車) 노이로제

중사 서현몽
(정비교육대)

과학문명(科學文明)의 경이적 발달 때문에 세계가 좁아졌다고 남들은 좋아하겠지만 세상(世上)이 좁다 해도 요즘, 서울거리처럼 좁아서야 아닌게 아니라 ‘노이로제’란 말이 유행(流行)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이로제’, 이 이상 기계문명의 노예가 된 인권(人權)을 유린당한 사람을 말하는데 적당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타면은 이 이상 편리한 것은 없되 걸어가는 사람에겐 또 이이상 없을 만치 귀찮은 것이 자동차이다. 서울 거리는 자동차만이라도 다니기 힘들만치 복잡하다. 누가 타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되 최신(最新)을 뽐내고 ‘크락손’ 소리도 가볍게 달리는 62(六二)년 형(型)으로부터 어찌면 아직도 저렇게 달릴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할만 치 낡아 빠진 전세기(前世紀)의 유물(遺物)같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서로 미친 듯 앞을 다투어 다니는 자동차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서울거리만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없다. 미국의 워싱턴 시(市)처럼 애초부터 자동차 왕래를 계산해 놓고 죄다 계획적으로 도시가 아니고 본시 자동차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만들어진 都市이기에 그 인도(人道)라는 것도 비교적 나중에 생긴 큰 거리밖에는 없고 그것이나마 불안전하기 짝이 없다. ‘목숨을 걸고 운전하라’하는 말은 간혹 미국사람들 사회에서 들던 말이지만 요즘의 서울시를 말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걸어라’하는 것이 적당한 듯 싶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한 탓인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지책(防止策)으로 거리에 흰 줄을 그어 ‘건너가는 길’을 명시하기까지 하고 있다. 나는 미국교육(美國教育)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샌프란시스코 시(市)에 며칠 묵은 일이 있었다. 미국의 대도시(大都市)의 교차로(交叉路)엔 대부분(大部分) 자동식(自動式) 신호기(信號機)가 있어 그렇게 많은 차도 그 신호(信號)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달리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시(市)의 거리에서는 몇몇 주요(主要) 교차로(交叉路)를 제외하고는 신호(信號)가 없었고 요즘 서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회계 그어진 건너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널 때마다 오랜 습성으로 좌우로 살펴서 차가 오면 되돌아 기다리려 했는데 내가 뒤로 물러 서기 전에 자동차(自動車)가 먼저 정지하고 운전수가 어서 건너가라고 손짓을 한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처음엔 아마 대개 외국사람이니까 그런거지 하고 생각했다. 하루는 미국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 말이 샌프란시스코에선 ‘뎀 이즈 슈피얼리어(사람이 최고이다)해서 만일자동차가 건너가는 길에 닦아 섰을 때에 그어진 길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서 경유엔 자동차가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故鄕)

상병(上兵) 김종인(金鍾仁)
(공군대학중앙도서관)

서울에서 남방(南方)
450리(四百五十里)

동심(童心)의 낙원
하늘 밑 건지산(山)아래
내 고향(故鄕)이 산다.

채 영문(營門)을 나서기도 전에
고향(故鄕)아래
내 향수(鄉愁)가 젖은 곳

벗짚나래
낮고 긴 성(城)

싱그럽도록 탐진
주렁진 박.

제 까짓게 철이 좀 났노라고
결눈질 흘끔
순(順)이는 모른 척 길을 지난다

어머니의 세저(細苧) 길쌈
주름 골골마다
내 뼈가 꺾어진 곳

서울에서 남방(南方)
450리(四百五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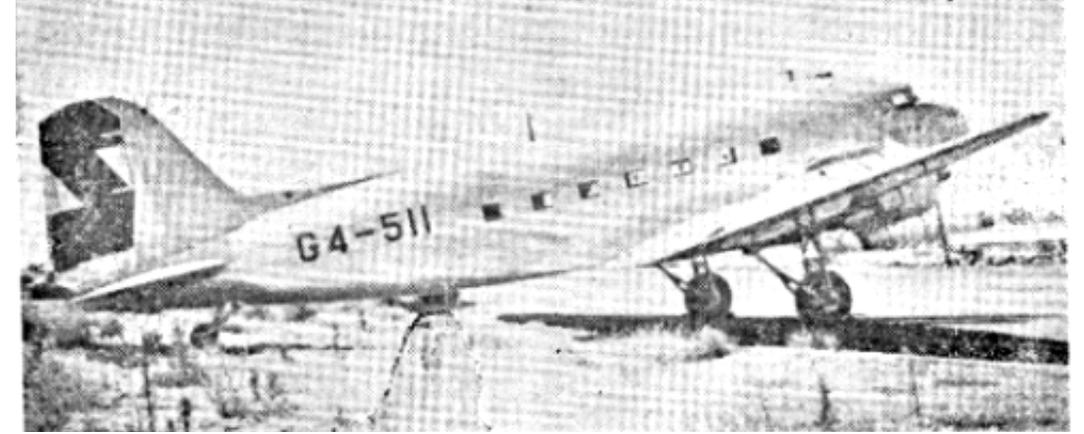
동심(童心)의 낙원
하늘 밑 건지산(山)아래
내 고향(故鄕)이 산다.



그렇게 들어보니 아닌게 아니라 내가 건너가는 길을 들어설 때마다 자동차가 멀리 정지 하고 내가 완전히 지나가도록 기다린다. 하물며 건너가는 길 위에도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태연한 자동차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니와 그런 것을 보고도 잠자코 있는 교통순경(交通巡警)도 보지 못했었다.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도 내겐 아주 신동해 보였다. 그만치 나는 이상한 환경에 사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건너가는 길이라 해서 그저 건너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건너가는 길이라 해도 건너가는 길이 아닌 길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하니 일부러 '헝키'로 회계 그어서 명시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자동차가 변잡해서 일부러 골목 길을 간다. 여기에 미친놈 같은 자동차의 광무(狂舞)는 없으리라는 심사에서이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시협장 으로나 아는지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도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듯 불이 나게 달려드는 '짚차(車)'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들어 왔는지 알 수 없을 만치 좁은 골목길에 '짚차(車)'가 들어서서 길을 막고 있다. 게다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취각(臭覺)을 찌른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야 눈물까지 나올까, 골목길에도 다닐 때가 못하고 그렇다고 택시 탈 신세도 못 된다. 그래서 버스를 탄다. 요즘엔 버스도 발달해서 아주 깨끗이 꾸민 버스도 많아 그 점에선 차라리 낡은 택시에 흔들리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여기에도 내 신경을 자극 하는 것이 있다. 우선 '차내에서는 금연(禁煙)'이라고 쓴 글이 마땅치 않고 다음엔 그 글 바로 아래서 담배를 피는 손님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차장이 쾌썩하고 다음엔 같은 5원을 지불하고도 안하무인격(眼下無人格)으로 담배를 휘둘 듯 물고 있는 신사가 아니고 와서 버스를 탈 때마다 불쾌하다. 작년엔 그래도 제법 지켜졌던 것이 요새 와서 또 차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 같다. 담배 냄새가 향수처럼 좋다면 모르되 먼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하고 변소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나니 불결하기 짝이 없다.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알 수 없는 당사자(當事者)에겐 좋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해주어야 할 일이다. 어느 버스 안에서 어떤 신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신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이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서 창밖으로 내던진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 담배를 하나 그 사람의 가슴 '포켓'에다 끼어주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나도 그런 충동을 느낀다.

차(車) 노이로제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나도 훌륭한 환자의 하나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차(車)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이상하다.

결국 이런 비정상(非正常)을 정상(正常)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思考方式) 때문에 오늘날 이를 불식(拂拭)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위의 사진은 제 2차 세계 대전때 활약한 미 공군의 C-47 수송기

제2차대전(第二次大戦)과 항공기 (완(完))

〈항공발달사(航空發達史)〉
K. 나이트

1942년(一九四二年) 4월 18일 미국의 항공기가 대낮에 동경을 공습하였다는 속보(速報)를 받고 연합군의 사기(士氣)는 충천하였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중요한 공격이었다. 이들 비행기가 어디서 출격하였는지는 한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후에 전모(全貌)가 발표되었다.

완전무결한 계획과 항공모함으로부터의 이함훈련(離艦訓練)을 쌓은 다음 지미 드릿틀(전쟁의 진전과 더불어 공군에 다시 참가하고 있었는데)은 일본연안(沿岸) 650(六五〇)마일 지점까지 근접한 항공모함 호넷트로부터 B25 Mitchell 폭격기 15대를 출발시켰던 것이다. 이 15대는 아무런 반격도 받지 않고 공격목표지인 동경에 다 달아 공장시설, 물자집적소(物資集積所)와 항만(港灣)안의 항공모함 한 척을 폭격하였다. 그 후에 있었던 대규모적 공습에 비하면 실질적 손해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일본인들 사기에 준 충동(衝動)만으로서도 목적을 충분히 달했다고 하겠다.

B25는 공격이 끝난 다음 폭풍우와 짙은 구름, 거기다 어둠의 장막을 뚫고 예정대로 중국본토에 있는 비행장으로 향하였는데 무선유도(無線誘導)를 받을 예정은 완전히 틀어졌다. 이들 비행기 15대는 전부 불시착(不時着)을 감행하여 기체가 파괴되고 혹은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기도 하였는데 개중에는 중국본토를 횡단(橫斷)하거나 방랑(放浪) 끝에 내지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드릿틀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침수(浸水)된 언덕 바지에 착륙한 채 장거리 비행을 지휘한 노독(勞毒)으로 동승(同乘)한 부하까지도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는 캄캄한 밤에 더듬더듬 기어서 토막집을 찾아가 그 속에서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것이다.

그는 아침 햇빛에 눈을 떴을 때 조그맣고 더러운 우리만 속에서 한 마리의 살찐 돼지와 동침(同寢)한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14명의 탑승원(搭乘員)은 모두 무사하였으나 비행기는 전부 없어졌다. 형편없이 꾸겨진 비행복을 입고 중국본토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한 비행사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드릿틀은 워싱턴 귀환 도중 불멸의 공훈으로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이 수여되었다. 후일 지휘관이었던 윌리엄 할레이 제독은 드릿틀 동경공습에 관해서 '모든 군사사상(軍事史上) 가장 용감한 행동의 하나'라고 회상하였다.

당시 미국 해군은 태평양에 항공모함 4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두 척은 대서양에서 급파(急派)된 것이었다. 이러한 얼마 안 되는 항공모함과 함재기(艦載機)는 길바트 열도(列島)와 마살군도(群島)의 일본군 기지 공습을 감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적(數的)으로 열세(劣勢)한 미국해군 함선(艦船)과 비행기는 비할 바 없는 끈기와 용기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맥아더 보급선(補給線)을 전국(戰局)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해 왔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의 결정적인 전투의 하나는 일본 지상부대가 어거지로 뉴기니아 남해안에 있는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결의(決意)한 1942년 5월초 산호해(珊瑚海)에서

벌어졌다. 미국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렉싱턴의 2척은 엄호함정(掩護艦艇)과 더불어 항공모함을 포함한 일본 해군부대와 교전하여 많은 손해를 주는 한편 상륙을 저지(阻止)하도록 하라는 지령(指令)을 받고 있었다. 이 양군(兩軍) 함대는 서로 한 번도 접촉을 갖지 않고 해전(海戰)의 그야말로 새로운 형식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이 해전은 항공기 대 항공기의 전투로 끝나버린 것이다.

1942(一九四二)년 5월 7일 비와 안개를 뚫고 달려들은 미국 함재기들에 의해서 일본 항공모함 상봉호(翔鳳號)는 격침되었는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에서 맨 처음으로 없어진 일본 항공모함이 되었다.

항공기끼리의 전투는 다음날까지 계속되어 일본의 항공모함 2척이 격파되었다. 그러나 렉싱턴호도 직격탄(直擊彈) 5발과 일본군 항공기가 발사한 2발의 어뢰(魚雷)를 맞고 큰 불이 일어나 드디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 해전에서 항공모함들은 전부 피해를 입었으며 양쪽이 다 한 척 씩의 항공모함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포트 모레스비 침공 위협은 제거되고 모레스비의 장래를 지키기 위하여 맥아더장군과 공군사령관 조지 케니 대장에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은 군대를 공수(空輸)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나를 수 있는 비행기는 전부 강제적으로 징발(徵發)되어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는 요충(要衝)을 일본군으로부터 지키는데 충분한 병사를 공수하였다.

산호해(珊瑚海) 해전에서 직격탄을 맞아 입은 손해를 응급 수리한 요크타운호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나호넷트와 더불어 진주만(眞珠灣)에서 합류하여 거기서 미드웨이 섬으로 진격중인 일본 함대를 영격(迎擊)하기로 되었다.

워싱턴에서 수집된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당시 해군 항공부대 사령관 존 타워 제독(提督)으로부터 태평양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게 전해진 경고(警告)대로 일본군은 미국해군 세력을 미드웨이로 부터 제거함으로써 일본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드웨이와 아류산열도(列島)를 동시에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4척의 일본 항공모함과 강력한 엄호항공부대를 대항하려고 하였던 미국 항공 전력은 불과 3척의 항공모함으로 전함(戰艦)의 호위(護衛)도 없는 형편이었으나 니미츠 제독은 아류산 공격에 속지 않았다. 일단 일본군 수중에 들어가는 날이면 하와이의 제압(制壓)도 가능하다는 미드웨이섬의 방위는 실로 중대하여 니미츠 제독은 해군, 해병대 및 육군의 항공기로 미드웨이를 방위할 결의를 굳게 하였다.

일본군은 1942(一九四二)년 6월 3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드 웨이섬 기지의 카타리나 해군 초계지대(哨戒地帶)는 전함, 순양함, 구축함, 그리고 공격부대를 실은 수송선 등 80(八〇)척이나 되는 일본 함선이 미드웨이로 진공(進攻)중임을 포착(捕捉)하였으나 호우(豪雨)가 그 해역(海域) 일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주력부대와 떨어져 있었던 일본 항공모함은 탐지(探知)되지 않은 채 전진하였다.

다음날 아침 미국 기지의 수색기(搜索機)들은 4척의 항공모함에서 일본군 항공기 편대가 폭음을 올리면서 미드웨이로 향하고 있음을 인지(認知)하였다. 섬을 방위하던 전투기들은 과감히 요격하여 열세(劣勢)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보복(報復)을 주겠다고 치열한 결의를 가지고 싸웠다. 그것은 그야말로 격전(激戰)의 격전이었다. 결국 활주로(滑走路)를 제외한 지상의 전시설은 무사하였으나 이 날 아침만으로 일본 비행기의 약 3분의 1이 격추되었다.

그동안 호넷트, 엔터프라이즈 및 요크타운을 출발한 퇴격기대(雷擊機除)는 새까맣게 모여든 일본 함선에 영웅적인 필사의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본군의 대공포화를 직접 받으며 싸운 이들 퇴격기대 덕택으로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을 출발한 미국 급강하폭격기대는 거의 들키지 않은 채 공격을 개시하여 일본 항공모함 3척을 행동 불능 상태로 빠뜨려 그 중 두 척은 대파된 채 드디어 침몰시키고 나머지 한 척도 미국 잠수함의 어뢰로 격침시켰다.

미국 항공모함을 떠난 퇴격기 41(四十一)대가 가운데 귀환한 것은 6대에 불과한 데 일이 빠진 조종사들은 공격의 결과를 확실히 보고도 못할 정도였다.

산호해 해전때와 마찬가지로 교전(交戰)한 피아(徐我) 함선은 서로 어울려 싸울 겨를도 없이 항공기가 큰 손해를 받아 가면서 전투를 하였던 것이다.

이때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항공모함 한 척만을 남기고 나머지 전부와 거기다 숙련 조종사와 비행기를 수많은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도 공격속행(續行)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순양함, 구축함, 엄호항공기들로 된 전열(戰列)은 거의 고스란히 상처도 입지 않고 요크타운에 공격을 가하여 드디어 유기(遺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미국 항공기는 일본군의 마지막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군은 미드 웨이섬을 점령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소수의 미공군 조종사들이 분명히 태평양 해전의 전국(戰局)을 역전(逆轉)시킨 것이었다. 일본군은 4척의 항공모함과 수많은 항공기 그리고 정예(精銳) 조종스사들을 잃었다. 이와 같은 손실은 그 다음의 일본군의 모든 작전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곤란성은 날로 커졌다. 일본은 전시체제로 악착을 떨었지만 그 손실을 메울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사상(史上) 최대 규모의 생산보급을 주로 한 무서운 싸움이 10개월이나 계속되었지만 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고비였다.

산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군사전문가들은 전국(戰局)의 최종적인 예상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으며 그 전황(戰況)이 밝혀짐에 따라 세계 사람들과 그리고 일본군들까지도 이것을 칭찬하였다.

새로운 해공전(海空戰)이라고 하는 무섭고 더구나 종래에는 시도(試圖)

할 수 없었던 문제에 뛰어난 조종사, 수병, 장교들의 기량(技倆)과 영웅적 행위는 참으로 경의(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용기와 용통성은 그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곤난한 문제를 극복하였다.

아류산 열도에 대한 일본군의 견제작전(牽制作戰)은 열도의 중앙부 닷치하바의 미국 해군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그 끝에 있는 무인도(無人島)인 앓쓰도와 기스카도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일본군은 적당한 시기에 미국본토 침공의 발판으로서 이곳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암석(岩石)뿐인 구릉지대에 빈약한 토목기계로 활주로(滑走路)를 건설하려고 한 일본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정예부대가 북진(北進)해서 섬마다 비행장을 건설하여 초계기(哨戒機)나 전투기들이 행동 가능한 기지를 만들어 갔다.

아류산 특유의 농무(濃霧)로 일본군은 비참하게도 유지 불가능한 이 지점의 확보를 잠수함의 초라한 수송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생산은 군의 의아스러우리만큼 세찬 전선확대(戰線擴大)를 쫓지 못하여 아류산 전선은 주요전선에서 너무 떨어져있고 해서 병력이나 기계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이 두 개의 섬을 무혈점령(無血占領)하여 전쟁 종결까지 유지하였는데 캔사스나 플로리다 출신 병사들은 심한 폭풍설(暴風雪)에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아무런 위안시설도 없이 지루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그들을 또한 괴롭힌 것은 습격해오는 소수의 일본기와 효과는 별로 없는 풍선폭탄(風船爆彈)이었다.

지상설비(地上設備)가 갖추어진 비행장을 이용해서 미군 조종사들은 열도(列島)의 최전선 샤무야 섬에 도달하였다. 거기서 B24로 아홉 시간 가량 남하(南下)한 지점에 있는 천도열도(天島列島)의 일본 군사시설의 폭격이 가능하였다.

일본군은 극한(極寒)의 북방에서부터 찌는 듯이 무더운 밀림전(密林戰)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싸웠다. 일본군의 활주로 건설 기구는 남태평양의 산호초(珊瑚礁)나 섬의 산호토(珊瑚土) 화산토(火山土)를 잘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국군의 정지기계(整地機械)가 우수하였던 것이다. 비행장 건설용 부르도저, 정지기(整地機), 압연기(壓延機) 같은 것은 일본 것 보다 대형(大型)이고 훨씬 성능이 높은 것이었다. 생겨 난지 얼마 안 되는 시설부대의 손으로 채굴(採掘) 정지(整地)가 이루어져 세계 도처에 눈부신 속도로 비행장이 정비되어 갔다.

일본군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는 맥아더 보급선을 위협하기 위해서 가달카날 섬에 활주로 공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이 1942(一九四二)년 8월 초순에 발견되었다. 본격적인 공격준비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지만 미국해군은 이 지역으로 이동할 결심을 하고 항공모함 세척과 그 항공기 엄호 아래 해병대가 상륙하였다.

가달카날의 싸움은 동경에 이르는 제일보였는데 그것은 곤란하고도 장기(長期)에 걸친 것이어서 1943(一九四三)년 2월 9일야야 겨우 일본군을 섬에서 구축(驅逐)할 수 있었다. 해안이나 해상이나 공중에서 육해군은 총력을 기울여 싸웠던 것이다.

전투가 한참 진행 중에 장비가 양륙(揚陸)되었던 것인데 일본군이 착공한 활주로에 대하여 해병대의 버드콜세어 전투기가 거의 매시간 공격을 가하였고 또한 습격해 오는 일본 비행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육군도 에스퍼리스 샌트에서 B-17을 일본함대 색적용(索敵用)으로 파견하여 일본함대의 함포사격을 될 수 있는 대로 저지(阻止)하려고 하였다.

미 해군은 병력을 상륙시키자마자 공모(空母)대 공모의 결전, 동쪽 소로몬만(灣) 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속된 끝에 무승부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 항공모함 와스푸는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고 일본함대와 교전하기 전에 침몰되고 이어서 8월 26일 산타 클로스 해전에서 호넷트호도 격침되었다.

가달카날 확보를 위하여 미국해군은 커다란 손해를 받았으나 미국 항공모함과 비행기는 일본 해군이 이 섬에서 포위되어 있는 일본군에게 보급물자(補給物資)를 보낼려는 기도를 저지하고 일본군 수송선에 많은 손해를 주었다.

산호해, 미드웨이, 가달카날 이렇게 3회의 교전에서 일본은 650대와 그 탑승원을 잃었다. 일본해군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것이다.

태평양의 광대한 전전역(全戰域)에서 이와 같이 치열한 항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미국의 일반시민은 삼주간 동안이나 긴장 속에 있었다. 에디 릿켄바카 대위와 6명의 동행자는 그때까지 소식이 끊어져 절망상태였는데 11월 13일 금요일에 태평양의 벽지(僻地) 에리스군도(群島)의 후나후치 부근 해상에서 구조(救助)되었음이 알려졌다.

제1차대전외 미국 최고의 하늘의 용사 아놀드 대장의 초대로 시찰 여행을 출발한 한스 아담슨 대령은 '하늘의 요새(要塞)'에 올라타고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를 향해서 간톤 섬까지의 1,800마일 무착륙 비행을 출발하였다.

이 B-17은 칸톤섬을 지나쳐서 연료가 떨어져 태평양의 무인해역에 불시착하였는데 격랑(激浪) 때문에 비행기는 대파되었다. 탑승원들은 살아남았는데 아담슨은 등에 중상을 입었고 전원(全員)이 비행기가 가라앉기 전에 3척의 고무 구명정(救命艇)에 옮겨 뒀다. 지나가는 배도 거의 없고 해역(海域) 전체에 걸친 대규모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4일간이나 표류하여 낮은 낮대로 뜨거운 태양아래서 밤은 밤대로 뼈 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미해군의 킹 핏사 수상기(水上機)가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죽었다. 구조기(救助機)의 조종사 윌리엄 이디 해군소령은 위독(危篤)한 아담슨을 뒷좌석에 태우고 랫켄바카와, 같은 구명정에 타고 있던 존 바넷크를 날개

위에 태워 현장에 막 도착한 초계어뢰정까지 날라 갔다. 거기서 날개 위의 두 사람은 인도(引渡)되고 아담슨은 미국이 점령한 이태 2주간 밖에 되지 않는 후나치 병원에 공수(空輸)되었다. 릿켄바카 일행과 떨어져 표류(漂流)하고 있던 2척의 구명정 승무원들도 비행기로 구조되었다.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혼분 속에서 생각된 것은 1937년에 아메리아 이야하트와 항공사 후렛드 노만이 세계 일주 비행도중 거의 같은 지점에서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다.

뉴기니아에서 간툰섬을 상거(相距)하는 300마일의 한 점인 하우란드섬에 방향을 돌린 그녀는 연료가 끊어져 행방을 알 수 없게 돈 것이다.

1943년이 되어도 전국은 외면적으로는 불길하였지만 계획의 시대가 지나 미국의 생산은 활기를 띄었으며 맥아더장군도 오스트레일리아를 배후로 한 태세를 취하였고 미해군은 쓰디쓴 교훈을 배워 새로운 공격용 군함이나 새로운 비행기 그리고 새로운 탐승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라과와 북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의 비행기를 비롯하여 군대나 전차(戰車)가 추축군(樞軸軍)과 싸우고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수상은 북아프리카 작전 성공 후 1월 14일에 카사블랑카에서 회담하고 영불해협 횡단에 의한 구라과 반격작전 계획을 완성하였다.

아놀드 대장은 영국에 대하여 구라과 연합공군 사령관 칼 스파츠대장을 통해서 주간 폭격이 실행 가능함을 설득(說得)하여 영국의 항공기 제조공장이 장거리 전투기를 생산하여 폭격기의 작전을 완전히 엄호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북아프리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본토 기지의 중폭격대와 전투기대를 분할(分割)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드릿틀 준장 지휘하에 제12공군이 지중해에 파견되었다. 작전계획은 스에즈에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되었다.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푸렌튼 장군이 지휘하는 제9공군은 영국군이 사막에서 로멜장군이 대치(對峙)하고 있는 것을 원호하며 독일군의 보급선을 파괴하여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

전국(戰國)이 격화되자 공군력 증강의 요청이 아놀드대장 앞으로 쇄도(殺到)해 왔다. 맥아더장군은 구라과 전선 우선주의(優先主義) 때문에 태평양 방면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꼈다. 알래스카에서는 더욱 비행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소련도 요구하여 왔다. 일본본토를 직접 공격하기 위하여 설계된 새로운 장거리 폭격기 B29 ‘초공(超空)의 요새(要塞)’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항공기에 있기 쉬운 기밀실(氣密室)과 자동발사장치(自動發射裝置)에 난점(難點)이 있어 실용이 늦어졌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1943년이되자 연합군에게 있어서 밝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태평양에서는 버스말크섬 해전에서 일본군은 군함 10척과 만재(滿載)한 수송선 12척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 맥아더 원수의 북진작전 계획의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되었다.

미영군(美英軍)은 아프리카에서 시시리 섬에 상륙하여 이태리 반도를 독일 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북상하였다.

전투가 너무나 가열(尙烈)하여 이태리군은 스스로 전열(戰列)을 이탈하고 독일군 만으로 전쟁을 계속하려 증조(徵兆)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힘이 가해짐으로 해서 연합군은 각지에서 우위(優位)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육군과 조종사의 훈련 그리고 전차나 총포(銃砲)의 생산이라는 종래와 같은 임무 이외에 미국은 1943년에는 85,898대의 군용기와 277,000대의 항공기용 발동기를 생산하였던 것이다.

바야흐로 히틀러가 점령하고 있었던 구라과에는 대륙 반공(反攻)을 위해서 많은 병원(兵員)과 자재가 급속히 투입되게 되었다.

전장(戰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테네시 주의 삼림지대의 일각(一角)이 만학탄 계획이라는 최고 비밀시험을 위해서 입산금지(入山禁止)가 되었다. 이 계획은 과학자들이 생각해 낸 것으로서 앞으로 오래 동안 무서운 전쟁의 정점(頂點)이 될 성질의 것이었다.

1944년은 사상 유례(類例)없는 동향을 보여준 1년이었다. 거의 전 세계의 하늘은 미국 군용기로 뒤덮였다. 7대양에 미국 함선이 떠있고 각국 지상군 가운데는 미국의 무 장군이 끼어있었다.

5,000대 이상의 미국제 항공기가 알래스카를 경유(經由)하여 소련으로 떠갔다. 체아방크스에서 모스크바 상공 공중전을 막 끝낸 소련 조종사들은 P39에아라고부라와 B25, C47 따위를 인수하였는데, 이것 등은 우선 노—무 미공군 기지로 떠 보내서 미국 정비사들의 마지막 점검(点檢)을 끝낸 다음 시베리아 황야(荒野)를 날라 소련전선에 운반되어 갔던 것이다. 그밖에 아프리카나 페루사만(灣)의 바스라를 경유해서 소련에 넘겨진 비행기도 있었다.

그해 봄 B17과 B24가 독일본토에 연일 주간 폭격을 개시하여 아놀드, 스파츠, 아이라 이커 등 여러 장군들의 꿈을 실현시켰다. 이 무렵부터 P47 썬더볼트, P38 라이트닝, P15 무스탕 같은 전투기는 ‘긴 다리’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무스탕은 독일공격을 위해서 825(八二五)마일이나 날라 폭격기대를 엄호하였다. 공중공격과 방위는 마지막 대결전이 있기 전부터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래 동안에 걸쳤던 구라과전쟁에 중지부를 찍는 북구라과 상륙이 상당한 근심과 희망을 간직한 채 대망(待望)되고 있었다.

정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대로 6월 6일 강력한 연합군 반격작전의 막은 열렸다. 우군기(友軍機)의 식별을 위하여 철야(徹夜)로 백색 빛깔로 칠해진 폭격기, 전투기, 낙하산부대 수송기가 폭음을 올리면서 요운을 뚫고 영불해협을 살처럼 날라 갔다. 상륙용 주정이나 해안에서 교두보(橋頭堡)를 구축중인 부대를 엄호하며 내륙(內陸) 요충(要衝)에 낙하산 부대를 강하시켰던 것인데 그동안 독일 공군에게 조금도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 시기까지에 전진부대는 최초로 준공을 본 교두보(橋頭堡)에서 출격하였으며 조지 팻튼 장군 지휘하의

전차부대는 라인 강반(江畔)을 향해서 돌입하였고 전투폭격 기대나 중폭격기대도 항상 무전으로 전차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도로에 있는 대전차장애물(對戰車障礙物)을 폭파하여 전차의 진공(進攻)을 도왔다.

초저공(超低空)에서 연합군 항공기는 대전차포(對戰車砲)를 분쇄하고 광장(廣場) 도로, 철도의 요충을 비롯하여 독일군 부대의 고립지대에 기총소사(機銃掃射)를 가하여 연합군의 신속한 전진을 저해(阻害)하는 것은 모 든 것을 파괴해 버렸다.

태평양 전선에서도 맥아더군이 진공(進攻)을 계속하였으며 미해군과 그 항공모함은 수륙(水陸)에서 행해지는 상륙작전의 격렬한 전투를 도왔던 것이다.

싸움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원활(圓滑)해져 손해도 감소된 것은 해군부대와 상륙군이 긴밀하게 협동해서 행동한 것과 과거의 쓰라린 경험의 소산이었다.

케니장군 지휘하의 역전(歷戰)의 제 5공군은 맥아더 군과 더불어 이동하였다. 새로운 섬을 점령하면 언제나 확보라고 말할 수 까지는 없더라도 즉 케니장군 휘하장병들이 뛰어 들어가 삼시간에 전투기나 폭격기가 발착(發着)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과로(過勞)에도 지치지 않고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교두보 방위임무에 당하는 한편 다음 공격 목표의 섬에 대한 색적비행(索敵飛行)을 하였다.

미군의 일본 본토에의 북진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군의 저항(抵抗)은 굳어지고 전군이 총동원되었다.

길바트열도(列島)의 타라와섬과 마셜군도(群島)의 쿠에제린 섬이나 에니웨투크섬은 격전 끝에 미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말았다. 토라크섬의 일본군 기지는 무력화(無力化)되었다.

마리아나군도(群島)의 사이판, 테니안, 구암 섬의 탈취전(奪取戰)에서는 마리아나 섬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남태평양상의 항공기지와 본토를 연결하고 있는 극히 중요한 연락지점 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볼 수 없었으리 만큼 필사적인 반격이 있었다. 이들 세 섬의 점령은 미군에게 있어서도 B29로 일본본토 공격을 위한 폭격기 기지로서 중요하며 실제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미군 해군은 결연히 전면적 반격도 각오한 끝에 순양함, 구축함, 보급선 등 대함대와 여기에다 기밀한 협동작전 중에 있던 대형 항공모함 8척, 소형 항공모함 8척으로 편성된 제58기동 부대를 투입하여 결정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되었다. 12척의 증원호송용(增援護送用) 항공모함 비행기들이 엄호하는 가운데 미군은 사이판 섬에 상륙하였는데, 때마침 일본의 대함대가 마리아나를 향해서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1944년 6월 19일 이른 아침 미군 항공모함의 항공기는 행동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일본해군은 대 항공 함대로 미국 함선이나 상륙부대를 공격하고서 구암 섬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탄약과 연료를 재보급한 다음 다시 미군을 공격하고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모양이다. 제58기동 부대의 레이더망(網)은 미군조종사가 너무 지나친 작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였으나 이 하루의 전투만으로 미군은 태평양 전쟁 중 최대의 승리를 거두어 366대의 일본기를 격추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손해는 40대였다.

‘마리아나 칠면조(七面鳥)잡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 중 미국 잠수함은 일본항공모함 2척을 격침시키고 밤이 되자 제58(五八)기동 부대는 퇴각중(退却中)의 일본함대를 추적하였다. 다음날 오후 늦게 미군용기가 일본 항공모함 한척과 유조선(油槽船) 2척을 격침하기까지 미군은 일본함대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12척의 호송용 소형(小型) 항공모함은 침공작전을 엄호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친 일본의 육상기지(陸上基地) 항공기의 죽음을 무릅쓴 공격을 물리쳤기 때문에 8월 10일까지에 이들 세 개의 섬은 완전히 미군 수중에 들어가고 B-29를 맞아들인 비행장 준비가 신속히 진척되어 갔다.

산호초(珊瑚礁)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항공모함들은 다시 북방의 오가사하타라 군도의 유황도(硫黃島)나 남방에 있는 일본공군 보급기지인 파라오 섬과 필리핀을 공격하여 빈번히 래습하는 일본기 공격을 감퇴시켰다.

귀중한 마리아나를 기지로 하는 ‘초공(超空)의 요새(要塞)’ B29에 의한 최초의 일본본토 공습은 11월 하순에 행해져 주로 항공기 공장을 목표로 하였는데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여러 공업도시를 대낮에 공격하게 되었다.

3,000마일의 왕복비행 능력과 막대한 폭탄 탑재력을 가진 B29 폭격기는 최초 고도 25,000피트로부터 30,000피트 고도에서 폭격을 하였는데 제 20공군사령관 카티스 리메이 장군은 이 폭격공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8,000피트 이하 고도에서 야간폭격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주 폭풍우나 짙은 구름의 방해를 받고 있던 탐승원들은 고도폭격을 훈련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 전투기의 활동은 날로 격감(激減)되어 있어 저공비행 때 잘 못하면 우군기를 사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부총좌(尾部總座) 이외의 기총은 전부 떼어버려라’라고 리메이 장군이 언명하였을 때 조종사들은 얼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 이 명령은 너무나 신기하고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종전까지 일본의 공업력은 급속히 괴멸(壞滅)되어 1945년 3월 9일 이후 ‘초공(超空)의 요새(要塞)’는 저공폭격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 여름이 되자 B29는 일본본토 상공에서 거의 전투기의 반격을 받지 않게 됨으로서 앞으로의 공 격 목표를 예고한 전단(傳單)을 뿌려 이 지역에서 미연(未然)에 비전투원이 물러가도록 권고를 하게 되었다.

미 해병대가 일본본토와 마리아나 중간에 있는 유황도를 점령하여 손해를 입은 B29나 피로한 조종사들의 알맞은 중간피난소가 완성되기까지는 먼 마리아나 기지로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다.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있어서 육해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B29는 기뢰(機雷)를 투하해서 일본에 남아있는 함대를 본토 항만(港灣)에다 봉쇄할 작전을 써서 폭격을 중단하였다.

일본의 전력(戰力)은 이렇게 해서 확실히 괴멸되어 동인도 제도(諸島)에서 오는 식량이나 석유를 수송하고 있던 일본의 함대와 수송선단은 거의 침몰되고 공장시설은 분쇄되었기 때문에 많은 잔존(殘存) 비행기는 연료도 없이 꼼짝도 못한 채 땅 위에 묶여지고 말았다.

일본 항공기의 성능은 처음에 과소평가되어 초기에 교전한 미군 조종사들은 중일전쟁(中日戰爭) 시대의 항공기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데 놀랐다. 무장과 조종사의 보호장치는 초기의 독일공군기와 같이 불충분하였으나 일본기는 고속(高速)에다 기동성이 풍부하였다. 두려워들 하고 있던 영전(靈戰)은 독일군의 뜻케 윌프-190형을 모방한 것이었다.

일본군의 형식명(型式名)과 아무 관계없이 미군은 일본 비행기를 벤티, 케이트, 토니, 지루, 자크, 후랑크 등으로 식별(識別)해서 불렀다.

독일군과 같이 전쟁 초기의 조종사나 탑승원은 완전히 훈련되어 있었으나 미국사람이나 영국 조종사들에 비해서 적극성이 결여(缺如)되어 있었다.

1945년 4월부터 일본군은 소위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의 수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합군의 함대사령관들은 크게 당황하였다. 자포자기(自暴自棄)라는 말 밖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데 명령일하 빈약한 훈련 밖에는 받기 못한 젊은 조종사들이 연습기거나 구식 전투기거나 폭격기거나 폭탄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 거라도 타고서 최초로 발견한 미국함선에 그대로 돌입하도록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형폭격기로부터는 '바보'라고 불리우는 어뢰형(魚雷型) 동체에 미익(尾翼)을 달고 몇 초 동안만 날 수 있는 로켓 추진장치(推進裝置)를 갖춘 특공기가 발사되었다. 이 기분 나쁜 인간폭탄은 독일군의 V-1호와 비슷하였는데 독일 것은 자동조종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일본 것은 사람이 조종하였다는 것이 틀리는 점이다. 미국 비행기들은 이 가미가제 특공대의 출격기지를 철저히 공격하여 드디어 이 사람목숨을 건 효과적인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기지 공격이 행해지기까지 26(二六)척의 미국함선이 격침되었고 164(一六四)척이 큰 손해를 입었다.

1945년 늦은 여름에는 테니안 섬을 기지로 하는 B-29의 한 부대는 정밀한 폭격연습을 몰래 진행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16시간 동안의 고투(苦鬪)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B-29 탑승원들로부터 농담이들 이라는 욕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8월 6일 그들은 이 이상한 활동 배후에 있었던 어떤 목적을 밝혀서 충동(衝動)을 주었던 것이다. 미공군의 폴 티벳트 대령은 공업도시인 히로시마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렇게 하여 10일 일본은 종전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전 백림(伯林베를린)은 함락되고 히틀러는 비행기로 도망치는 대신에 자살해 버렸다. 그리고 구라과의 전란(戰亂)은 종결되었던 것이다.

독일 항공기는 얼마 안 되는 차(差)로 승리를 놓친 것이다. 독일 항공기술의 눈부셨던 진보상(進歩相)을 생각하면 결국 패전의 원인은 전쟁기술의 빈곤과 정책입안자들의 머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제국은 전국이 독일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무렵 미군비행장의 폭격을 속행(續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히틀러는 '미국 비행기를 폭격한다 하더라도 끝낼 때처럼 후속부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헛수고일 것이다'라고 진실에 가까운 언명을 하였던 것이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끝으로 제2차 대전은 종결되었다.

오래 동안 분명한 승부도 없이 끝난 이 전쟁에서 항공기는 다른 어떠한 병기보다도 이체를 띄워 항복조 인식이 전함 미조리호에서 있었을 때 미국 항공기는 그 상공을 대편대로 비행하였던 것이다.



<세계경이순례(世界驚異巡禮)> 10
낭만(浪漫)의 도시

까르까손느

리차드 하리바튼

나는 늙어 벌써 여든살이다. 희망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소원을 이루려고 나는 일생을 덧없이 일하였다. 이 티없는 기름 앞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은 아직 한번도 분일 없는 까르까손느를 보는 것이다. 비록 이틀만이라도 좋다. 가을 태양이 아름답게 빛나는 동안에 갈 수 있다면 아아 만약 한번만이라도 까르까손느를 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으리! 늙어 허리가 꼬부라진 농부가 어느 날 리모 근처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어서라 벗이여 우리 같이 순례의 여행을 떠나세'라고. 다음날 아침 우리들은 그의 집을 나섰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를 용서하십시오) 반쯤 말했을 때 노인은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끝내 까르까손느를 보지 못하고 죽어간 것이다. —구스타브 나도우 시(詩)에서—

이 불란서의 늙은 농부와 같이 까르까손느를 가 보려고 꿈꾼 사람은 많이 있었다. 나도 또한 그러한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저 노인보다는 행복하였다. 나는 이 로맨스의 도시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바란다면 그곳에 데리고 가서 저 늙은 농부가 왜 죽기 전에 지상의 다른 어느곳 보다는 이 까르까손느를 보고 싶어 하였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 농부도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매력에 넘치는 중세(中世)의 이야기, 가령 갑옷과 투구를 걸친 기사(騎士), 비탄(悲嘆)에 잠긴 처녀, 잔인(殘忍)한 왕이나 식인귀(食人鬼) 용(龍)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언덕 위의 성(城) 이야기도 들었다.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은 가교(架橋)를 건너 검(劍)으로 길을 트고 지키는 자는 성벽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끓는 기름이나 빗발치듯하는 화살을 퍼부으면서 이를 맞아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필경에는 자신도 높은 성벽에 둘러 쌓인 이곳을 수비하는 일원(一員)인 것은 착각(錯覺)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시절이지 나이를 먹어 늙은 오늘날에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성루(城樓)는 몇 개의 예외(例外)를 제외고는 모두 없어져서 어느 것은 무너지고 또는 폐허(廢墟)가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 하나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 돌 하나하나가 옛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서있는 것이다. 그것이 까르까손느다.

만약 그 곳에 갈수가 있다면 역사책 속에 나오는 것 같이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 강력무쌍(強力無雙)한 사라센 군을 물리치고 또한 가장 용감하였던 왕이나 대장(隊長)에 도전(挑戰)한 가교(架橋)라던가, 탑(塔) 성벽(城壁)같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병사들의 함성이나 총검(銃劍)소리가 울려 퍼졌던 성벽 위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광적인 과거의 모든 것이 까르까손느에는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처음 기사(騎士)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이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 도시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질 것이다.

그러나 시(詩)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그러한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아무래도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불행은 찾아올 수 없다. 우리들은 지부랄탈에서 스페인을 횡단(橫斷)하 여 피레네 산맥을 넘어 거의 까르까손느를 볼 수 있을만한 지점까지 이르렀다.

이 마을은 불란서의 남서부(南西部)에 있어 크리스트 탄생 전부터 이 지방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때때로 적이 유린을 받았지만 몇 번이고 재건수축(再建修築)되어 고대 로마 제국의 성채(盛衰)를 손수 보고 겪어왔다. 그리고 그 후 8세기 동안 구라과의 이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호전적(好戰的)인 서(西) 고트 족(族)들 - 서기 507년까지 남불(南佛)에, 그리고 711년까지 스페인에 왕국을 건설하였다 - 은 300년 동안 이 도시를 그들의 수도(首都)로 삼았으며 사라센 족들은 50(五〇)년간 이곳을 점거(占據)한 바도 있었고 중세기(中世紀)에는 오랫동안 무서운 포위(包圍)가 계속되어 여기를 활보하려고 불란서 국왕에 대하여 수 없는 도전(挑戰)이 있었던 것도 유명한 사실이다.

이 거점(據點)을 확보한 사람은 누구 던지 이 성벽과 군사력을 더 한층

장 총통(蔣總統)의 '보원이덕(報怨以德)'



일본은 대만의 국민정부(國民政府)와 정식(正式)으로 국교(國交)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장계석(蔣介石) 총통(總統)에 대한 은의(恩義)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장 총통은 종전당시(終戰當時) '보원이덕(報怨以德)(원수를 德으로 갚으라)'하라는 성명(聲明)을 발표(發表)하여 일본인의 송환(送還)을 인도적(人道的)으로 취급하였다. 그 때문에 수백만(數百萬)의 일본인이 무사히 모국(母國)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장 총통의 은의(恩義)를 잊어버리고 현재 곤란(困難)한

입장(立場)에 있는 국민 정부에의 동정(同情)을 버리고 중공(中共)과의 관계를 깊이 한다면 일본은 은의(恩義)를 모르는 야만 민족(民族)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일본이 만일 중공(中共)과 무역(貿易)을 한다면 대만의 국민정부와의 충분(充分)한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2년 제17차 UN총회(總會)에서 중공(中共)의 국련가입안(國聯加入案)은 또다시 매장(埋葬)되었다. 당연(當然)한 일이다.

중공(中共)이 진정(眞情)으로 평화적(平和的)인 인국(隣國)으로 안심(安心)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국련(國聯)에 가입(加入)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티베트를 강취(強取)하고 인(印) 중공국경(中共國境)에 부당(不當)한 군사행동(軍事行動)을 감행하는 사실 등은 중공(中共)이 아직 평화국(平和國)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중공(中共)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누구보다도 중국을 잘 안다고 자부(自負)하지만 중국과 중공(中共)은 그 성질이 판이(判異)함을 알아야 한다. 중공(中共)은 공산주의(共產主義) 국가(國家)로서 '보원이덕(報怨以德)'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일지(日紙)에서)

강화하기에 노력하였고 까르까손느를 손에 넣은 귀족(貴族)은 적을 막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1285년 이 곳이 불란서 국왕 수중에 있었을 때 성에는 2중의 성벽이 둘러쳐지고 성벽에는 54(五四)개의 성탑(城塔)이 배치되어 거기에 근접하는 자를 모두 제지(制止)할 수가 있었다.

실사 적군이 성벽을 깨뜨리고 들어오더라도 성안의 전부를 탈취(奪取)하기란 대단히 곤란하였다. 까르까손느는 전투적이어서 전함(戰艦)과 똑같은 방위력을 가지고 있어 1356년 흑태자(黑太子)-역자주(譯者註), 영국 황태자 에드워드 <에드워드 3세의 아들>를 말함.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들 불렀다-가 공략(攻略)에 실패한 이래 그 후에도 몇 번인가 탈취가 시도(試圖)되었으나 까르까손느 성은 움푹도 하지 않아 이 성을 공략하려는 것은 흡사히 암산(岩山)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들 하였다.

그러나 몇 세기가 지나는 가운데 이 마을의 방위력은 점점 약해지고 중요성은 희박(稀薄)해 갔다. 대포가 발명되면서 부터는 넓고 큰 성벽이나 성탑(城塔)은 옛날과 같은 위력(威力)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덕을 내려와 들을 건너 뿔뿔이 헤어짐으로서 그 옛날에는 전구라파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에 둘러 쌓여 있던 도시의 하나를 거의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성은 굉장히 교묘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몇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선 오드강 상류 한쪽 끝에 세워진 까르까손느성의 원경(遠景)을 바라다 본다. 우리들과 언덕과의 사이에는 700(七〇〇)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그것은 흡사히 700(七〇〇)년전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십자군(十字軍) 원정(遠征)시대 그대로의 광경이 보이는 마법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만약 우리들이 다른 상념(想念)없이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공략군(攻略軍)이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갑옷을 번쩍이며 폭풍우 같은 위세(威勢)로 언덕을 달려 올라가는 모습과 또한 성안에서는 이것을 맞이하여 창이나 활로 응전(應戰)하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략군은 한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언덕을 올라가 보기로 한다. 성벽 밖에 있는 포대에 걸려있는 다리를 건너 유중하게 무장된 문을 들어서서 거대하게 두 겹으로 된 성벽을 지나 별세계로 들어간다. 옛날 집들이 좁고도 꾸불꾸불한 가로(街路)에 줄 대서 기울어진 채 서있다. 눈에 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을 지키고 있었던 무사(武士)나 석궁(石弓)을 쏘던 병사들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성벽에서 저마다의 부서를 맡고 있던 갑옷 입은 무사(武士)나 이 황량(荒涼)한 성에 생명을 의탁(依託)하고 있던 귀부인들이나 기수(旗手) 시종(侍從)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성벽에서 다시 성탑 안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달아 있다. 이 탑에는 공략군에 대하여 돌이나 화살을 퍼붓던 구멍들이 있다. 우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50(五〇)개의 탑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여기서 나머지 49(四九)개의 탑을 바라다 볼 수 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탑에서 강을 건너 근접(近接)해 오는 많은 적군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까르까손느 백작(伯爵)은 모름지기 여기서 불란서 국왕의 군대를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공략군이 첫째 성벽에 달려붙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화살이나 기름 같은 연소물(燃燒物)을 뒤집어쓰고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공략군은 일단 후퇴하였다가 다시 더 많은 사다리와 군세(軍勢)를 정비하고 더 한층 굳은 결의로 전진하여 이번에는 첫째 성벽에 달려붙어 그것을 넘어서 쇄도(殺到)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또다시 견고한 둘째 성벽 쪽으로 있는 좁은 길에 덩벼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 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후퇴하여 성벽과 성벽 사이로 덮치는 적을 가차 없이 처치한다. 국왕의 군대는 둘째 성문에 쇄도(殺到)하려고 기도(企圖)하나 여기서 퍼부어지는 화살의 위력은 10(一〇)배나 되어 병사들은 차례 차례로 맞아 넘어져 시체만 늘뿐 문에 손을 대는 자 조차 없다.

여기에 힘을 얻은 까르까손느 사람들은 안에서 성문을 열고 성벽과 성벽 사이의 좁은 길로 물려든 국왕군을 닥치는 대로 해치워 버린다. 벌써 승패는 결정되었다. 국왕군은 형편없이 분쇄되어 살아남은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친다.

이와 같이 까르까손느의 싸움은 초연(哨煙) 속에서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에 둘러 쌓인 채 지금 다시 한번 그 군사적 위력을 과시(誇示)한다.

이상 말한 것은 모두가 지난날에서 얻은 막연한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까르까손느가 군대 공격을 받지 않게 된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성에는 사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십자군, 사라센족, 서고트족, 푸랑크족(역자주(譯者註)-겔만민족의 하나로 중고(中古) 라인강 부근에 살고 있었다) 불란서 사람들의 망령(亡靈)이 지금껏 이곳에 머물러 있어 캄캄한 밤에는 언제나 텅텅 빈 성벽길을 행진하면서 서로 말없는 가운데 성벽 탈취전을 벌리고 있다고 토착인(土着人)들은 믿고 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우물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묻혀있는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까르까손느 사람들은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들은 이 로맨스의 도시에 작별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하늘 높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성탑을 흘금 돌아다 본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시(詩) 속에 있던 늙은 농부의 소원을 회상해본다. 오직 하나의 그의 소원! 더구나 이루지 못한 그 소원을.

우리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다 친절하였던 운명의 신(神)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은 기사도(騎士道) 시대부터의 경이(驚異)의 도시 까르까손느를 이 눈으로 본 것이다. <역자주(譯者註)-까르까손느 성(城)은 고대(古代) 로마 사람들이 처음으로 축역(築城)되었고 13세기(一三世紀)에 이르러 크게 수축(修築)하였으며 19세기 후반기(一九世紀後半期)에 다시 복구(復舊)되어 각시대(各時代)의 기술을 보존(保存)하고 있다. 축성자(築城者)인 뷔오이에루 듀크의 이름이 유명하다.

(사진은 까르까손느 성(城)의 외벽(外壁))

<만화>

제야(除夜)의 종(鍾)이 울릴 때

고두현



새해의 용(龍)꿈 '헤헤헤... 별이 어깨에 막 떨어지네.'



'긴급출동(緊急出動)이 아니라 신년(新年)을 알리는 종(鐘)소리일세..'



'이게 무슨 계급장(階級章)입니까'
'이 해가 가면 내가 입대(入隊)한 지 10년(年)이라는 표지(標識)야.'



'자아! 세배(歲拜)돈 받아라'

1962 제야(除夜)의 종(鍾)이 울릴 때

김경언(金庚彦)

◆화폐개혁(貨幣改革)◆
이제 나의 망명(亡命)은
완전히 끝났다 (이승만(李承晩))



◆“디트로이트 - 타이거스”팀 내한(來韓)◆
보람있는 이 해의 마지막을 장식(裝飾)해
주었다 (호랑이 해)



◆큐-바 과열(過熱)◆
외로운 내 배 “하바나”를 떠날 때 (후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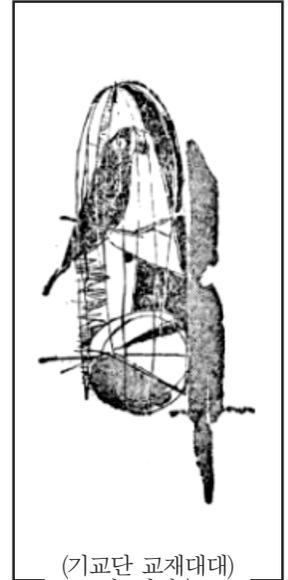


◆인(印) 중공(中共) 교전(交戰)◆
와 한국군(韓國軍)이다...
도망가자 (6·25 참패(慘敗))



‘원’ 선생견문기(先生見聞記) (완(完))

계문수(桂文樹)



(기교단 교체대대) 컷. 김정우

제4화 명지휘관론(名指揮官論)

나는 좋은 얘기건 못한 얘기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에서도 이름을 말 할 수는 없다. 나는 어느 공군 문관 포켓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날 밤, 그 문관은 야근을 마치고 공군대령의 짚차에 편승하여 서울 역에서 내려 그 곳에서 합승으로 갈아타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 하는 한도 막의 지휘관은 짚차 안에서 그 공군대령이 한 말이다.

‘훌륭한 지도자, 명 지휘관이란 내 생각 같아서 자기 나 홀륭한 지도자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나는 명부 대장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는 이미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고 대령은 뒤에 앉아있는 문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곧 말을 계속했다.

‘나는 명 지휘관이다. 나는 훌륭한 부대장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의 생각은 결국, 나는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앞서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는 이미 부하들과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부하들과 유리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국민과 유리되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음과 마찬가지로 명 지휘관이라면 결코 부하로부터 유리된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대, 그것이 곧 자기이며 전 부하 장병이 곧 자기일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이 가려운 데가 자기가 가려운 데이며, 국민의 답답한 것이 곧 자기의 답답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령은 또 문관을 돌아보았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겠지요.’ 하고 문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병이 흑한 속에 보초를 서 있다. 지휘관은 나는 부대장이니 더운 방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대가 강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韓)모 장군이 가는 부대는 부하 전 장병이 그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생명을 바치겠다 고들 해요. 그분은 내가 지휘관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안 가진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분과 같은 지휘관이 100명만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명 지휘관이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무적의 강군이란 그를 말하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짚차는 어느덧 서울역에 이르렀다.

나는 이 대령의 말을 좀 더 듣고 싶으나 문관이 내리는 바람에 더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 대령은 이런 말을 했었다.

‘그러한 지휘관은 대개가 가난하게 살아요.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다면 돈벌이하는 상인이 되어야지요.’ 나는 지금도 이 대령의 말이 머리속에 남아 있으며 그야말로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5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야기

역에서 합승으로 갈아탄 문관은 신설동 어느 골목에 들어가자 약방에 들러서 감기약을 샀다. 그래서 나는 약방 아주머니 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나는 이 약방에서 10분도 머물지 못했다. 서른 두세살 되어 보이는 남자가 5백원 짜리를 가져와서 기침약을 사는 바람에 나는 거스름 돈에 끼어 그 남자의 포켓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남자의 집은 약방에서 가까웠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거스름돈으로 받은 나와 나의 동료들 책상 위에 놓고는 약을 마시고 그대로 이불 속에 들어 눕더니 책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는 신문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3면 톱 기사를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 기사는 이러한 내용이었다.

S 초등학교 5학년 어느 아동이 집이 가난해서 점심은 물론 아침도 굶은 채 학교에 나온지가 벌써 사흘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 전 5학년 같은 학급의 아동들은 스스로 의논해서



성의껏 쌀을 모았는데 그것이 두 말이나 되었다는 것이며 학급 대표가 쌀을 결식아의 집에 전해준 뒤에야 담임선생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감격한 담임선생은 자기도 쌀 한말을 팔아서 학급대표에게 주고 그 사실을 교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알렸던바 모두들 감격하여 방금 선생끼리 쌀을 모으고 있는 중이며 아동들은 아동들대로 각 반장이 주동이 되어 학우들의 부모들을 방문하여 사실을 면하고 구호미를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어린이들의 그러한 착한 마음씨에 감격한 부모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기사를 다 읽고 난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펴 들었다. 이때 그의 부인이 미닫이를 열고 들여다보며,

‘여보,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천연스레 계세요? 어서 아침을 드세요.’ 하고 재촉을 했다.

‘아, 오늘 아침은 참 기분 좋은 아침이야, 아름다운 아침야, 여

보, 이 기사를 어서 읽어보우.’ 하며 남자는 신문을 쑥 내밀었다.

‘그게 뭘데요. 어서 아침 드세요.’

‘안 먹겠어, 안 먹어두 배가 불러,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무슨 기사예요?’ 하고 부인은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착한 어린이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야.’

‘난, 뭐라구 이제 알았어요? 벌써 열흘 전의 일이에요. 우리집 꼬마두 쌀을 가져갔어요.’

‘응, 그래 좋아-좋아.’

‘어서 드세요, 국이 식어요.’

‘아니, 안 먹구 그냥 가겠어. 나는 어쩌나 기쁜지 정말 밥 먹고픈 생각이 없어, 안 먹어두 배가 불러.’ 하고 남자는 재빨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머나, 정말 안 드시겠어요?’

‘여보, 꼬마를 사랑해줘.’

남자는 옷을 입고 모자를 썼다. 나는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지만 옷을 다 입고 보니 그는 늙름하고도 믿음직한 공군대위였다.

공군대위는 정말 아침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부인은 침, 눈이 등그렸다. 그러나 그 다음 부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방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상현아, 학교 갈 시간 됐어. 어서 일어나,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 진지를 네가 먹어요.’

제6화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이야기

어느 상점의 금고 속에서 오랜만에 5백원짜리 형(兄)을 만났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보다 건강이 매우 좋습니다.’ 형의 얼굴은 아직 주름살 하나 잡히지 않은 빨라빨라한 피부였다.

‘자네 제법 늙었는걸. 나는 세상에 나온 지 자네보다 일천(日淺)하니까. 그러나 요는 정신이 건강해야지. 우리는 인간들과는 생리가 달라서 꼭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아니고 몸은 비록 노쇠해도 정신은 시종 여전한 것이 우리의 특징이 아닌가.’

‘웁은 말씀입니다. 어디 형님, 그간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지요.’ 하고 말했더니,

‘글쎄, 하나 들려줄 얘기가 있지.’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의 일인데 어떤 젊은 사람의 주머니에 끼어서 명동 바에 들렀었네. 이 친구 뒷을 하는 작자인지 포켓마다 100원짜리가 가득하게 들어있더군. 두 사람이 바에서 두어 시간 잘 들어키는데 여자 세 사람이 붙어서 아양을 떨고 야단이겠지. 아마 이 젊은 친구, 그 바가 단골인지 ‘달아뒷.’ 하고는 그냥 나가더군. 그러자 민자라는 젊고 예쁘장한 여자가,

‘미스터 김, 돈 100원만 쥐요.’ 하고 손을 쑥 내밀었다.

‘100원? 뭇하려구요?’

‘꼭 쓸 데가 있어서요. 100원만 쥐요.’ 하고 민자는 아양을 부린다. 미스터 김은 포켓에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쑥 내밀다가 갑자기 도로 넣고는 다른 포켓에서 나를 꺼내주며,

‘이걸 써. 5백원 짜리야.’ 하고는 두말 않고 걸어 나갔다.

미스터 김이라는 사내가 나가고 난 뒤 홀은 조용해 졌다.

‘애 민자, 내일 그치가 오거든 한 5,000 달래라. 호텔에 한번 거주면 되잖니.’ 나이 든 여자가 농을 했다.

‘아냐, 언니. 참 언니, 저녁 안 먹었죠?’

‘합승값 밖엔 없는걸 뭘.’

‘나는 합승값 두 없었어. 가요 언니 우등이래두 먹어. 그러구 할 얘기도 있어요.’

민자와 여자는 바 뒷문으로 빠져 바로 옆에 있는 대중식당으로 들어갔다. 두 여자는 10원짜리 우동을 먹으면서 민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언니, 나, 내일부터 그만 두겠어. 정말 결심했어.’

‘민자 형편을 나도 아는데 그만두면 어떡하니?’

‘언니, 들어봐요. 내일부터 도로공사 하는데 자갈치러 가겠어요. 하루에 백이십원 쥐요. 제가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두 나가요. 나두 말만하면 언제라도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남자들에게 놀림감이 되면서도 저녁두 굶어야하니 이거 뭐예요. 난 정말 결심했어요.’ 나이든 여자는 약간 놀랐다.

‘애 정말 그러겠니?’

‘정말이잖구. 벌써부터 생각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나가겠어요.’ 민자는 힘을 주어 말했다.

‘애, 그럼 거기 한사람 더 낄 수는 없니?’

‘누가 가려구?’

‘나두 가겠어.’

‘언니, 참 잘 생각했어요. 나하구 같이 나갈치러 가요.’ 바로 이때였다. 옆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 신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실례합니다.’ 하고 말을 걸어왔다. 이 신사는 아까부터 식사를 하면서 두 여자의 얘기를 들으며 자꾸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날씬한 여자들이 10원짜리 우동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갈치킨 풀팔이 노동을 하겠다니? 매우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난데없는 남자의 개입에 당황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고받은 말이 이 남자가 다 듣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였음이 분명한 것 같았다.

‘실례되는 말을 묻겠소. 두 분은 어디 이 근처의 바에 있나요?’ 하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여자들은 고개를 가우뚱 거리며 열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애 그러세요?’

‘아니,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자니 사정도 딱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용기가 가상스러워서 두 분이 정말 도로공사의 날풀팔이에 나갈 생각이라면 그보다는 여자에게 알맞은 일이 있어 그것을 소개해 올릴까 하는 생각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민자라는 여자가 물었다.

‘글쎄요. 보니 두 분은 모두 예쁘고 날씬한 분들인데 정말 자갈치는 일에 나가겠는지.....’ 신사는 여자들의 날씬한 몸집을 훑어보며 아무래도 거짓말만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네요. 정말이에요. 그게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여급노릇 정말 그만뒷야겠어요. 무슨 일이든 할 테예요.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민자는 애원하듯 말했다.

‘꼭 그러한 결심이 있다면.’ 하며 신사는 명함을 한 장 내주면서,

‘내일 아침 열시, 가만있자 내일은 종일 회사에 있을 테니까 언제라도 무방하니 한번 찾아오시오. 그런데 일이란 다름이 아니고 제약회사니까 약을 포장하는 일인데 침은 수입이 적지만 차츰 훈련이 되면 그만큼 수입도 늘어나죠. 맘에 있으면 내일 찾아오면 내가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요.’

명함을 들여다보며, 신사의 얘기를 듣고 있던 민자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꼭 부탁드리겠어요. 이 언니하구 내일 꼭 찾아뵙겠어요.’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의 뜻이 기상해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지요.’

사장은 한마디 남기고 식당을 나갔다. 여자들은 공손히 전송을 하고는

시(詩)

설악단장(雪嶽斷章)

양명문(楊明文)

장엄한 골격에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산봉우리들은
신기서린 하늘을 향해
위엄을 떨치고 솟 았을 뿐.

인간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이 거창한
사상의 건축들.
신화속의 괴물들.

이 집요한 묵념속에
숨가빠 울려오는
내부로의 절규.

깊은 돌 계곡을
쉴새 없는 번조로
춤추며 굴러 내리는
주옥같은 가을물, 물소리

호젓이
발을 잠그고
불이 붙는 듯
타오른 단풍을
바라보노라면
얼이 빠진다.

앗차, 나의 인생은
어느 끝에 저당을 잡혔는가.
환원하는 시간이어.
순화하는 나여.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두 여자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나님ی 돌보아 준 것이라고 주머니 받거나 했다.

나는 이 두 여자의 후문은 모르네. 여자들이 우동 값으로 나를 식당에 주고 갔으니까. 그러나 나는 믿고 있네. 그들이 바에서 발을 일고 새로운 생활의 길을 걷게 되었으리라고,
'또 하나 자네에게 들려주고픈 얘기가 있네.' 하고 형님은 얘기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이때 보석반지를 두 개나 낀 길숙한 여자의 손이 금고속에 들어와서 형님을 집어내 가는 바람에 나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이 형과 이별하고 말았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못들은 그 얘기를 꼭 들어야겠다.

제7화 목편화(木片化)한 책

나는 형사상의 '주거침입'이라는 조항에는 특권적 존재다. 누구의 방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떠한 방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신랑 신부의 첫날 밤 방에도.....

'미스 김, 오늘 결혼식에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많이 왔더군.'

'미스 김이 뭐예요. 이제 미스 김이 아니잖아요.'

'아 참 그렇지. 이제부터 부인이지.'

'오늘 그분 누구예요? 축하한답시고 가족계획 얘기를 떠들어 사람들을 마구 웃긴 분?'

'우리 소장님이야. 근데 참, 아까 동창생들이 책을 한권 보내 왔는데 펴 보니까 바로 그거야.'

'그러라뇨?'

'그러 몰라? 가족 계획하는데 그거 말야.'

이것은 어느 신랑신부 첫날밤의 한 컷트이지만 동창생들이 보내왔다는 그 책속에는 그것의 길이 있겠지.

누구의 방에 들어가도 한 두권의 책은 있다. 베이컨이 Reading makes a full man 이라 했으니 방안에 한 두권의 책자는 있을 법하다. 또 몬테크 부인은 No entertain ment is so cheap as reading, Nor any pleasuree so lasting 해서 책보다 더 험하게 치는 가치가 없고 책보다 더 오래가는 즐거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책을 가지면서 읽지 않는다면 무엇일까? Books are no better than woods without beeing read always. 한가닥 목편(木片)과 다름이 없겠지.

나는 많은 사람들의 방에서 목편이 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보았다. 어떤 사람의 방에는 고급책장에 최근에 신문광고란에 소개되는 신간서적들이 거의 빠짐없이 꽂혀있었으나 그 모두가 한 페이지 들쳐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나란히 꽂혀 있기도 했다. 보기가 좋고 실내 장치로서는 그만이었다. 이 사람은 아마 책을 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내 장식용으로 구입함이 분명하다. 이것은 보배를 썩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책과 그 책을 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언제나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책을 아주 안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완(完))

미·소(美·蘇) 군축안(軍縮案)의 대립점(對立点)

◇ 미국안(美國案) 1962년(年) 4월(月) 19일(日), 18개국(個國) 군축위(軍縮委)에 제출(提出)된 '자유세계(自由世界)에 있어서의 전면완전군축조약 초안개요(全面完全軍縮條約草案概要)에 그 후의 보정(補正)·수정점(修正点)을 가미(加味)한 것.

제1단계(3개년).....★ 모든 비핵병기(非核兵器) 및 핵병기(核兵器) 운반수단(運搬手段)을 포함한 대부분(大部分)의 병기(兵器) 30% 삭감(削減)(매년(每年) 10%씩), 생산(生産)도 협정(協定)된 율(率)로 제한. ★ 신형병기(新型兵器) 생산금지(生産禁止). 군용(軍用)핵분열물질(核分裂物質) 생산정지(生産停止). 일정(一定)협정량(協定量)을 비군사용(非軍事用)으로 한다.(예 : U235 50,000키로). ★ 비핵보유국(非核保有國)에 핵무기관리권(核武器管理權) 이양(移讓), 핵병기(核兵器) 생산원조(生産援助) 금지(禁止). ★ 미·소병력(美蘇兵力) 210만(萬)으로 삭감(削減). 타(他) 제국(諸國)은 100만(萬)으로. 또는 인구의 1%로(단(但) 현재를 넘지 않는다). ★ UN평화감시부대(平和監視部隊) 설치. UN범위(範圍)의 내외(內外) 지역에 평화유지기구(平和維持機構) 설치. 국제사법재(國際司法裁)에 강제재정권(強制裁定權) 부여(附與)(거부권(拒否權) 불인정(不認定)). UN평화군(平和軍) 창설준비(創設準備)

제2단계(3개년).....★ 모든 병기(兵器)의 잔여(殘餘) 50% 삭감(削減). 모든 병기생산(兵器生産) 정지(停止). ★ 군용핵분열물질(軍用核分裂物質)의 저장제한(貯藏制限). ★ 미·소(美蘇)의 병력(兵力) 150만(萬)으로 삭감(削減). 분쟁해결(紛爭解決). 전투저지(戰鬪沮止)에 실력(實力) 있는 UN평화군(平和軍) 창설(創設), 강화. ★ 국제행위규칙(國際行爲規則) 협정(協定).

제3단계(가급적 단기간).....전폐(全廢)(UN평화군(平和軍)만이 남는다) ★ 핵병기(核兵器) 전폐(全廢), 생산공장(生産工場) 해체(解體). ★ 병력(兵力)을 국내질서(國內秩序)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最少限)으로 한다. ★ 어떠한 나라라도 도전(挑戰)할 수 없는 강력(強力)한 UN평화군(平和軍)으로 완성(完成)한다.

조약발효(條約發效)와 동시에 설치. 군축과정(軍縮過程) 검증(檢證)(각(各) 단계에 따라서 사찰(査察), 잔존군비(殘存軍備), 비밀보충(秘密補充)에 대한 사찰(査察)을 포함한다.)

◇ 소련안(蘇聯案) 1962년(年) 9월(月) 28일(日) UN총회(總會)에 제출(提出)된 '엄격(嚴格)한 국제관리(國際管理) 하(下)에 세계의 군비(軍備)를 전폐(全廢)하는 조약(條約)의 수정안(修正案)'

제1단계(15개월).....협정(協定)된 제한외(制限外)의 핵병기(核兵器) 운반수단(運搬手段) 전폐(全廢). 통상병기(通常兵器)는 제1단계(第一段階)의 군축조치(軍縮諸措置)에 따라 생산축소(生産縮小). ★ 비핵보유국(非核保有國)에 대한 관리권(管理權) 위양(委讓). 정보제공(情報提供)을 보류(保留)하고 비보유국(非保有國)은 타국(他國)의 핵병기(核兵器)의 자국영내(自國領內) 지입(持入)을 거부(拒否). ★ 미·소(美蘇) 병력(兵力)을 170만(萬)으로 삭감(削減). ★ 해외군사기지(海外軍事基地) 전폐(全廢). 외국주둔군(外國駐屯軍) 철퇴(撤退). ★ 안보리(安保理)의 책임(責任)으로 헌장(憲章) 43조(條), 각국(各國)은 안보리(安保理)의 요구에 따라 병력(兵力), 원조(援助), 영공통행권(領空通行權)을 포함하는 편의(便宜) 공여(供與).

제2단계(15개월)..... 핵병기(核兵器) 운반수단(運搬手段) 전폐(全廢). 통상병기(通常兵器) 생산(生産) 계속 축소. ★ 핵병기(核兵器)와 더불어 모든 대량파괴병기(大量破壞兵器) 전폐(全廢). 생산(生産) 정지(停止). IDO는 원자(原子)에너지 생산이용(生産利用) 기업(企業)을 관리(管理). ★ 미·소(美蘇) 병력(兵力) 100만(萬)으로 삭감(削減). ★ 국내기지(國內基地)는 핵병기(核兵器) 운반수단(運搬手段) 폐기(廢棄)에 수반되는 이들 방법을 위한 기지 폐기(廢棄) 이외(以外)에는 간섭(干涉)할 수 없다. ★ 안보리(安保理)의 책임수행(責任遂行) 계속 실시.

제3단계(1개년).....민경용(民警用) 이외(以外)의 군사생산(軍事生産) 완전 정지(停止). ★ 병력(兵力)에 있어서 군대·군사기관(軍事機關), 병역(兵役), 군사훈련(軍事訓練) 폐지(廢止). IDO 관리(管理) 하(下)의 민경(民警)만이 남는다. ★ 안보리(安保理)의 책임(責任)은 단계완료(段階完了) 후, 안보리(安保理) 요구에 의하여 각국(各國) 민경부대(民警部隊)를 제공(提供). 안보리(安保理) 관리(管理) 하(下) 부대(部隊)의 사령부(司令部)는 거부권(拒否權)을 가지는 토로이카제(制)로 한다.

군축기구(軍縮機構)는 제1단계(第一段階) 전 6개월(六個月) 동안에 설치, 각(各) 단계의 군축조치(軍縮措置) 실행관리(實行管理)(잔존군비사찰(殘存軍備査察)을 포함한다.) 제3단계(第三段階) 완료 후에도 무제한(無制限) 관리(管理)한다. 총회(全(全)조인국(調印國)) 결정(決定) 23. 이사회(理事會)(상임(常任)-안보리상임(安保理常任) 5개국(五個國), 비상임(非常任)-임기(任期) 3년(三年) 결정(決定) 23. 기관요원(機關要員)은 동·서·중립(東·西·中立) 삼국(三國)크립을 대표하도록 선임(選任).

【주(註)】 ① 다음 단계에의 이행(移行)은 미·소(美蘇) 양안(兩案)을 모두 그 단계의 전조치수행(全措置遂行)과 이행준비완료(移行準備完了)에 대한 IDO의 확인·결정(決定) 후에 행하는 것이나 미안(美案)에서는 그것을 결정(決定)할 때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에 반대가 있을 경우는 해당단계(該當段階)의 기간(期間)의 3개월(個月) 이내(以內)의 연장(延長)을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

② 2개의 안전보장(安全保障) 조치(措置)로서는 미안(美案)에서는 우발전쟁(偶發戰爭) 및 기습(奇襲) 방지조치(防止措置)를 군축협정(軍縮協定) 성립(成立) 이전(以前)이라 할지라도 곧 취(取)할 것. 우주 평화이용(平和利用)을 위하여 제1단계(第一段階)에서 대량 파괴병기(破壞兵器) 발사금지협정(發射禁止協定), 로켓 생산(生産)·저장(貯藏)·실험제한(實驗制限)을 제안. 소련안(案)에서는 핵병기(核兵器) 운반수단(運搬手段) 폐지완료(廢止完了)까지 그 이동(移動)을 제한하고 그 준수(遵守)를 IDO가 관리(管理)할 것. 또 제1단계(第一段階)에서 평화목적(平和目的)의 우주 로켓 발사장(發射場)에 IDO의 관리단(管理團)을 설치할 것. 또 군축조약(軍縮條約) 체결(締結)까지에 핵실험 정지협정(核實驗停止協定)이 성립(成立)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단계(第一段階)에서 모든 핵실험(核實驗) 정지(停止)를 규정(規定)할 것.

고향

김규동
(시인)



고향을 떠나 온지 20(二〇)년이나 되어 오는데 고향이야기를 쓰자니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다.

그리운 고향에 대하여 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눈이 내려서 쌓인 고향의 산하(山河)가 눈앞에 흰히 비친다.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겨울이었다. ‘함북’이라 하면 우리 반도의 북쪽 끝이요, 거센 급류를 이루어 ‘백두산’ 줄기에서부터 동해로 흘러내리는 ‘두만강’도 철판같이 얼어버리는 엄한이 계속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는 서울로 왔다. 서울에 낙엽이 지고 첫얼음이 얼고 눈이라도 내리는 계절이 오면 어느새 나는 고향 생각을 하고 무슨 수심이라도 있는 사

람같이 말이 없어진다.

생각을 하는 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인간의 성격의 일면이다. 그 생각이란 언제면 고향을 가보나 또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것이다.

‘맥아더’ 장군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자기는 통한(統韓)이 되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도 생기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 이 국토가 하나로 되어 우리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산천인 고향에 한번 가 볼 날이 과연 언제나 올지 정말 앞답해진다.

서울에도 눈은 많이 오지만 우리 고향에는 함박눈이 겨우내 내린다. 그런 눈 속에서 소년시절을 보낸 나에게서 북국의 설경(雪景)이 언제나 정신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

눈이 내리는 북쪽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 고향, 이야기나 써 보자.

회갑을 지낸 홀어머니를 남겨 두고 내가 서울로 떠나는 아침에 우리 집에서는 모두 눈물이 글썽거렸다.

‘몸이 약한데 찬데서 자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공부하느라 무리는 말아라. 집 걱정일랑 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삼년 안에 삼팔선이 열리면 또 만나게는 되겠지 만은 몸을 조심해야 한다..’

‘경계선이 미소양국의 합의로 해결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어머니 돌아가시지 말고 살아 계십시오. 남쪽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관찮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을 마세요!’

이런 모자(母子)간의 대화가 대문 밖을 나서서 하얗게 쌓인 눈길 위에서 오고 가고 하였다.

‘네가 가는 길 물론 찬성은 찬성이다. 현대 그저 이제부터는 집이 텅 비는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가야 할 몸이고, 어서 떠나거라. 늦어지면 더 추워진다. 그리고 어디 가거나 그 애의 일을 깨끗이 잊어라!’

어머니는 글썽거리는 눈물을 돌아서서 닦으셨다.

그 애 일이란 나의 여자 친구 P의 이야기다. P는 만주에서 연극단체에 다니면서 배우 노릇을 하던 처녀로 8.15(八.一五)해방후 38(三八)선이 맥히는 통에 한 때 우리 고향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P는 마음씨 좋고 어여쁜 여성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한방을 내어서 그녀를 얼마동안 지내게 한 일이 있었다. 문학을 좋아하였던 나는 여자의 몸으로 연기자 노릇을 하는 그녀를 매우 중하게 여기었다. 외롭게 타향에 떨어진 연극하는 무명소녀!

그녀의 다정다감한 마음씨에 나는 깊이 이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을에서 ‘춘향전’ 소인극을 하고나서부터 더욱 그러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P에게 갖다 주었다.

P는 또한 훌륭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썩 잘 노래를 불렀다. 나보다 한 두살 손아래인 P는 그러나 몸가짐이 언제나 어른 같았다.

어머니는 다 큰 처녀 총각이 같은 처마 밑에서 주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눈으로 보시었다. 친절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 너는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고 또 그녀는 돌아다니던 여자가 아니냐! 그럴 나이란 장가갈 나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항상 나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할수록 P에게 많은 동정이 갔다. P도 얼마까지 알아서 나를 대할 때 귀한 집 자식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다.

우리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란 것은 그러나 단순하였다. 취미가 비슷한 두 남녀의 사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그녀는 너무나 어른 같았다. 너무나 좋은 체격을 가졌으며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P는 내게는 너무나 어른 같았다.

P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것보다도 자기로 말미암아 내가 한 달 이상이나 ‘교도소’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도 함께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주연으로 연극을 한 날밤에 김일성 타도의 빠라가 장내에서 발견되어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었던 것이다.

연극을 한 그 자체도 P를 하루라도 더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하려는 나의 욕심에서였다.

삼팔선을 넘어 보겠다는 P를 나는 이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하면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더 가지려 했던 것이다.

‘그 애 일은 깨끗이 잊어라!’ 물론 나는 그녀를 사모했던 것은 아니다. 외로운 처지에서 서로 가까이 친구가 되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38선을 넘어 서울로 나온 P를 잊으라는 부탁이다. P는 떠날 때도 우리 집 어머니 때문에 출발을 당겨서 하였던 것이다.

아들의 주변을 경계하고 행여 다칠세라 주야 마음을 쓰시는 60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나오는 거의 눈물로서 이별하고 우리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P가 떠난 지 오래되었어도 P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눈이 쌓여서 한 길씩은 되는데 나는 50리 길을 도보로 Y읍에 닿아 그곳에서 ‘철원’행 기차의 손님이 되었다. 여행중명서 하나 없는 나는 형사나 기관원의 눈을 피하여 꼬박 사흘을 숨어서 ‘철원’까지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다.

서울!

서울만 가면 마음을 펴고 살 수 있다. 자유가 그곳에는 독수리 날개처럼 너울 거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동구 앞에 서서 돌아설 줄 모르는 어머니를 뒤에 남기고 먼 신작로 눈길을 더듬던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삼년 안에 통일이 된다.’던 나의 어머니의 약속은 어찌되었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사정없이 지나갔지만 아직껏 고향에 돌아갈 날은 멀기만 하다.

그리고 그때의 P는 지금 어찌되었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P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오면 P도 행여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P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알 길이 없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올 때면 고향과 어머니와 눈(雪)과 P를 아울러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P는 내 젊은 날의 추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P의 모습이 때로 그리워진다.

오뎅한 코와 검은 머리
독한 술도 한잔쯤 문제 없던
만주 벌판에 자란 여자.

소녀같이 낄낄 웃던 만주 아가씨.
러시아 소설같이 깊고
탐스럽던 그 얼굴
행복에 넘친 붉은 입술.

삼류극단에 다니며
‘트럼펫’ 호느끼는 천막 안에서
불개 타오른 젊은 가슴.

건방진 교도소 간수 놈을 한마디에
재껴 버리고
사나이의 면회를 청하여
유쾌하게 웃어 보이던 그녀.

시인을 좋아하던 검은 눈동자.
담배도 피고
누구한테나 잘 웃던 그녀.

언제나 자유스런 몸이 좋았던
젊지만 어른같이 성숙한
그녀의 이름은 만주서 온 연극하는
처녀였다.

40(四〇), 50(五〇)대 남성들 야유쯤
힘 안들이고 물리치며

젊은 날의 어느 겨울 이야기

이종환
〈작가(作家)〉



나는 그 때, 지금은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인 총독부도서관(總督府圖書館)에 다니면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한 겨울인데도 도서관(圖書館)은 언제나 초만원(超滿員)이었다. 의사(醫師) 검정(檢定) 시험(試驗) 보는 사람, 변호사(辯護士) 시험(試驗) 보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나도 어두컴컴할 때 부터 서둘러 달려 와서 줄에 끼어 문(門) 열기를 기다리곤 했다. 이 추위에 어찌면 이렇게 열심(熱心)들일까 싶었지만 나의 경우(境遇)를 미루어 본다면 춥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달려오게 되는 것이었다. 도서관(圖書館)에는 언제나 스태프가 후끈후끈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무렵 박목월씨(朴木月氏)의 계씨(季氏)인 영호군(泳鎬君)과 같이 적선동(積善洞)에 방을 빌려 자취(自炊)를 하고 있었다. 영호군(泳鎬君)은 나보다 한 두살 아래였다. 백씨(伯氏)의 영향(影響)을 받아 역시 시(詩)를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성격(性格)과 비슷한 가냘픈 시(詩)를 쓰고 있었다. 그 후 줄곧 가슴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요양생활(療養生活)을 하다가 결혼(結婚)도 못한 채 아깝게도 6,7년(六七年) 전에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고 말았다. 나의 고향(故鄕) 친구로서는 같은 문학(文學) 소년(少年)으로 가장 친한 새였다. 나는 만주(滿洲) 방랑(放浪)의 유물(遺物)인 낙타외투 털 담요 등속을 전당포에 잡혀 자취비(自炊費)에 보태고 있었다. 결국은 하나도 못 찾고 다 흘러보내고 말았지만은 근1년(近一年)씩 토박 토박 이자(利子)를 물어 오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잡혀 먹을 것이 없어진 다음에는 가졌던 책을 한권 한권 바꿔다가 쌀 한 되씩 팔아먹곤 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던히 고생을 했다.

한번은 반찬이 푹 떨어지고 말았다. 할 수 없이 간장을 5전(五錢)어치 사다가 밥에 쳐 먹었다. 그것도 떨어지고 말았다. 나는 수단을 부렸다. 같은 집에 세 들어 있는 '의옹이 엄마'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저 아주머니, 양추 조금 좀 주시겠어요? 치약이 그만 떨어져서..'

우리는 이 소금을 애겨 애겨 두기를 밥에 쳐 먹었다. 다행히 쌀은 남아 있어서 밥을 짓기는 했지만은 아주 맨 밥을 먹을 도리 밖에 없었다. 책상 위에 풍뿔 얼어붙어 있는 잉크라도 녹여서 쳐 먹고 싶을 지경이었다. 뭐라도 좋으니 무슨 빛깔을 좀 묻혀 먹고 싶은 것이었다. 맨 밥이란 정말이지 못 먹을 것이었다.

밤에 불을 때 분지는 옛날 일 같았다. 불을 때지 않은 온돌방에 자고나면 요 밀이 아주 물이 푹푹 떨어질 듯 축축이 젖어 있곤 하는 것을 발견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늦게 돌아와 방문을 여니가 훈기가 훅 끼쳤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영호군(泳鎬君)과 나는 이 신기한 일에 눈이 등그레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옹이 어머니'가 구공탄을 잠깐 우리 방 아궁이에 넣어 주었더라는 것이었다. 이때처럼 인정(人情)의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방세가 여러 달 밀렸다.

날은 이렇게 추운데 자꾸만 방세를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참으로 앞이 캄캄했다. 어디서 돈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不可能)한 일인데 독촉(督促)은 성화같았다. 독촉하는 안주인은 그야 당연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성화인 것 같았다.

그럴 무렵, 어느 날 아침이다.

그 날은 늦잠을 자고 있었다. 여인(女人)네들이 깔깔대며 웃어 제끼는 소리가 요란스러워 잠을 깼다. 깔깔대며 지껄여 대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내가 쓴 '화영'이라는 짧은 동화(童話)가 동아일보(東亞日報)에 발표(發表)된 모양이었다. 만주(滿洲) 있을 때 직장(職場)으로 가졌던 만선일보(滿鮮日報) 경성지사장(京城支社長)의 소개(紹介)로 원고(原稿)가 가 있었던 것이다. '화영'이란 주인공 여섯 살짜리 딸 아이의 이름이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이구 이 선생님 보시는 데선 부부 씬도 못하겠어요. 호호호호'

우리한테 안주인이 웃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동안 방세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 짧은 동화가 이렇게 큰 구실을 해 주리라고는 참 뜻밖이었다.

그러나 그것 한도(限度)가 있었다.

얼마쯤 시일이 지나자 다시 방세 독촉이 시작되었다.

영 죽을 지경에 빠졌다.

생각다 생각다 못해 한번은 가슴이 덜렁하는 용기(勇氣)를 냈다.

집 주인 마나님의 여동생이 있었다. 동굴 넘직한 얼굴이 매끈매끈하게 생긴 처녀(處女)였다.

어찌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마지못해 고개를 약간 숙이는 등 마는 등 하는 정도의 처지였다. 물론 말 한 번 건네 본 일도 없었다. 그때만 해도 내우가 심한 편이었다. 인사할 필요도 이유도 서로 없었다. 누구 인사를 시켜줄 사람도 물론 없었다.

방송국(放送局)에 다닌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말만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누가 일러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 언니나 형부, 혹은 '의옹이 엄마'랑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 그저 그렇게 짐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창씨(創氏)한 이들이 무엇이라는 것도 그저 그렇게 알 뿐이었다.

이 아가씨에게 돈을 꾸어 보자는 용기(勇氣)를 낸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수작이라면 참 어처구니없는 수작이다. 시청(市廳) 옆에 공중(公衆) 전화(電話)가 있었다. 전화통(電話通)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가슴이 먼저 제법 모험(冒險)을 느끼게 고동(鼓動)을 일으켰다.

'거기 Y상 계십니까?'

아주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일은 이미 저지르고 말았다.

'여보세요, 저 Y인데요.' 또룩또룩한 바로 Y양의 음성이 컷전을 울린다. 가슴이 한층 놀래 뛰었다.

'저, 댁에 방 빌려 있는 R입니다.'

'네?'

'저, 댁에 방 빌려 있는 R입니다.'

'.....네.....'

그제사 짐작을 한 모양이기는 하지만은 당황할 듯한 숨소리가 된다. 하기는 인사조차 없는 사람이 똥똥지 같이 갑자기 전화를 걸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꽤 최송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 댁의 방세 때문에 그런데, 혹 여유가 있으시면 한 삼십 원쯤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나는 대답하게 단숨에 지껄여버리고 말았다. 어찌자고 이런 소리를 꺼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 거릴 일이다.

'네.....'

여자는 좀 난처한 표정을 짓는 듯 했다. 나는 시치미를 딱 때고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저... 삼십원 다 될는지 몰라도, 하여간 어떻게 해 보겠어요.'

나는 승리감 같은 것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였으면 좋을는지요.'

'어디, 아실만한 데를 말씀해 보세요.'

'저, 총로, 경성다방 아세요?'

'네, 압니다.'

'이층으로 오시지요.'

'그러겠어요. 다섯시 반 쯤요.'

전화통을 나오면서 호뭇이 피어오르는 미소(微笑)를 참을 수 없어했다.

그 때 돈 삼십원이면 우리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렇게 다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아무튼 힘껏 주선해 보겠다는 약속(約束)을 받은 것이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혼연(欣然)케 해주었다. 일언지하(一言之下)에 힘써 보겠다고 약속(約束)해 준 것은 벌써 그만큼 이 쪽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호감(好感)을 갖고 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한 사실이다. 무엇으로써 자신(自信)을 갖고 전화(電話)를 걸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 만용(蠻勇)에 고소(苦笑) 지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겨울 해는 짧았다. 그런데도 다섯시 반이 어찌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려지는지 몰랐다. 돈을 꾸어 주인 마나님의 그 양갈진 방세독촉 소리를 모면하는 것도 실로 다행(多幸)한 일이지만은 이런 때에 예쁘장한 처녀와 단둘이 다방(茶房)에서 만난다는 것이 나를 온종일 초조로운 즐거움으로 휩싸주는 것이었다.

정각전(定刻前)에 물론 나는 2층에 가서 대기(待期)하고 있었다. 계단(階段)이 한가운데로 뚫려 있었다. 계단(階段)에서 올라오는 얼굴을 바로 바라 볼 수 있는 자리를 잡고 앉았음은 물론이다.

이 무렵의 내 행색을 말하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언제 이발(理髮)에 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머리는 길 때로 길어 귀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그래도 그 무렵의 문청(文靑)이나 혹은 미술청년(美術靑年)들이 흔히 하고 다니는 몰골이라고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해들 수 있지만은 한복(韓服) 바지가랑이가 닳아 숨이 비죽비죽 내밀고 있었다. 두루마기 동정은 기무잡잡하게 때가 올라 있었다.
 이윽고 처녀는 나타났다.
 내가 먼저 발견하고 약간 긴장(緊張)한 얼굴로 알은 체를 했다.
 Y상은 이것밖에 되지 못 했다면서 20원(二十圓)을 내 놓았다. 나는 확 상기(上氣)하면서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부터 Y와는 몇 차례 더 만났다. 한번은 나오더니,
 ‘언니가 제가 선생님 만나 뵙는 걸 눈치 챘어요. 혼났어요.’
 ‘그래요? 그러시면 만나지 않도록 하지요.’
 이것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

동굴 속의 얼굴

이경남(李敬南)
 <신태양사편집장(新太陽社編輯長)>



그곳은 동굴이다.
 겨울이 아니라도 그렇다. 내가 걸어 온 젊은 날의 도정(道程)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어떤 얼굴들을 문득 회상(回想)해 보노라면 영나 같이 떠오르는 그 동굴 속의 그 얼굴들.
 그러나 겨울밤, 더욱이 함박눈이 펄펄 내리거나 눈보라가 하늘을 썹썹 울리는 밤이면 더욱 사무치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그 동굴 속의 그 얼굴들이다. ‘킬리만자로’의 영봉(靈峰) 위에는 신비(神秘)스러운 거수(巨獸)의 굵은 뼈가 있어서 검은 대륙(大陸)을 찾는 여행자(旅行者)들의 호기심(好奇心)을 끈다고 하거니와 내가 잊지 못하는 그 동굴은 호사가(好事家)들의 모험(冒険)이나 관광(觀光)의 대상(對象)은 아니다.
 그 동굴의 이름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이름이 없는 동굴이었다.
 벌써 10년(十年)이 되어 간다. 겨울을 앞둔 우리들은 공작기지(工作基地)를 정리(整理)하고 이른바 동계작전(冬季作戰)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구월산(九月山) 일대(一帶)에 깔려있던 수많은 遊擊隊員과 공작원(工作員)들은 한여름 가을 동안의 대공작전성과(對共作戰成果)에 자위(自慰)하면서 서해지구(西海地區) 후방도서기지(後方島嶼基地)로 살수(撤收)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온 겨울 동안 구월산(九月山) 기지를 공백지대(空白地帶)로 남겨둘 수는 없었다. 누군가를 그곳에 남겨 두어야 한다. 상부(上部)의 작전지시(作戰指示)도 그렇거니와 새해의 춘기작전(春期作戰)을 위해서도 그 구월산기지(九月山基地)에 탄실한 교두보(橋頭堡)를 남겨두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들이 구월산(九月山) 땅굴 속에 무전기(無電機)를 설치하고 남아있어야만 우리들 반공유격대(反共遊擊隊)는 안심(安心)하고 겨울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월동공작대(越冬工作隊)가 편성(編成)되었다. 40(四十)을 바라보는 노대원(老隊員)에서부터 열 일곱, 여덟 정도의 소년원(少年員)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7명(七名)이었다.
 나는 그들의 조직 훈련교육(訓練教育) 잠입호송(潛入護送)까지의 책임(責任)을 맡았었다.
 적지 않은 지원자(志願者)들 가운데서 선발(選拔)된 그들은 별로 투정이나 요구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임무(任務)가 워낙 막중한지라 되도록이면 그들의 사기(士氣)를 돋구어주고 출진이전(出陣以前)의 며칠간의 휴식(休息)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리저리 배려(配慮)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마음을 쓰면 쓸수록 둔감(鈍感)한 사람처럼 태연(泰然)한 표정(表情)으로 출진(出陣) 잠입(潛入)의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다.
 후방기지(後方基地)를 떠나 적지해안(敵地海岸)으로 잠입(潛入)하는 밤은 바람이 거세었다. 이렇게 풍랑(風浪)이 심한 날씨면 본시 선박운행(船舶運轉)은 그만두는 게 상례(常例)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나운 날씨를 도리어 천행(天幸)으로 여기고 닦을 감았다. 해안선(海岸線)의 적의 경비(警備)가 그만큼 소홀할 터이므로 격랑(激浪)에 휘말리는 작은 목선(木船)위에서도 그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내 옆에 앉은 제일 나이 어린 소년병(少年兵)의 손을 꼭 쥐었다. 그도 내 손을 두 손으로 사룩이 잡는다. 따뜻한 체온(體溫)이 흘러다. 얼마쯤 지났을까. 해안선(海岸線)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 소년병(少年兵)이 입을 열었다.
 지금 몇 시죠.
 나는 내 손목에서 시계(時計)를 풀어 그 소년병(少年兵)의 손목에 채워 주었다. 소년병(少年兵)은 빙긋이 웃었다. 어둠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무척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을 해안(海岸)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 나는 어쩌면 그들을 다시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豫感)에 마음이 어두워짐을 누를 길 없었다. 겨울의 교두보(橋頭堡)를 위하여 적지(敵地) 깊숙이 찾아든 그들- 나는 그들이야말로 위대(偉大)한 전쟁의 서사시(敘事詩)에 나올 영웅(英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헤어져 역(逆)의 코스를 달리는 스스로의 처지(處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사흘 뒤에 무전(無電)이 들어왔다.
 7명(七名)의 대원(隊員)이 무사히 구월산(九月山) 어느 골짜기에 안착(安着)하여 동굴에 아지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무전(無電)을 받기까지 사흘 동안 나는 밤마다 꿈에 그들을 보았다. 그 꿈은 길몽(吉夢)만은 아니었다. 뒤숭숭한 꿈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꿈 이야기를 동료(同僚)들에게 말하지 않았었다. 방정맞은 해몽(解夢)이라도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그런데 무전(無電)이 온 것이었다. 모두 무사(無事)하다는-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그들의 전문(電文)은 규칙적(規則的)으로 우리 본부(本部)에 입전(入電)되었다. 바다를 격한 적지산악(敵地山嶽)에서 추위와 적군(敵軍)의 토벌(討伐)의 위협(威脅)을 무릅쓰고 매일매일(每日每日) 보내오는 전문(電文).
 그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전(無電)으로는 서로의 안부(安否)를 전(傳)하긴 해도 피부(皮膚)로 느껴지지 못하는 절대(絶對)한 격리감(隔離感)에서 오는 그 고독(孤獨).
 위로(慰勞)의 전문(電文)을 보내면 그들은 한결 같이 투지(鬪志)와 자신(自信)에 넘치는 소리로 화답(和答)해 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봄이 되었다. 봄은 바다보다도 산(山)에 먼저 오는가 싶었다. 그들의 보고문(報告文)이 차츰 활기(活氣)를 띄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들의 작전부대(作戰部隊)는 5월(五月)에 입산(入山)할 계획(計劃)이었다. 그들이 마련해 놓은 교두보(橋頭堡)는 5월(五月)과 더불어 이 작전부대(作戰部隊)와 교체(交替)될 예정(豫定)이었다.
 그러나 이 어찌된 일인지..... 5월(五月)이 채 오기도 전인 4월중순경(四月中旬頃), 아무런 예고(豫告)도 없이 무전(無電)이 두절(杜絶)되어 버렸다. 아침, 저녁, 밤, 새벽 할 것 없이 나는 그들의 콜 싸인을 불렀다. 그러나 사흘이 가고 닳새가 가고 열흘이 가고 또 보름이 지나도 화답(和答)하는 소리는 없었다. 무슨 불상사(不詳事)가 난 것에 틀림없었다. 우리들은 5월하순(五月下旬)을 기다릴 것도 없이 구원탐색대(救援探索隊)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사무(事務)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1953년(一九五三年) 봄, 휴전성립(休戰成立)을 앞두고 우리들은 일절(一切)의 적진공작중지명령(敵陣工作中止命令)을 상부(上部)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금지령(禁止令)이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우리들은 작명(作命)에 따라서 그 도서기지(島嶼基地)마저 포기(拋棄)하고 휴전(休戰)이라는 역사적조류(歷史的潮流)에 떠밀리어 남(南)으로 이동(移動)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 추운 구월산(九月山)의 겨울을 이름 모를 동굴 속에서 꼬박 지새워야했던 7명(七名)의 무명용사(無名勇士)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여러 가지로 추측(推測)해 본다. 그러나 나의 부질없는 추측(推測)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나는 이렇게 멀쩡이 살아서 회상(回想)이라는 사치스런 감상(感傷)에 젖기나 할 뿐이고 그들 이름 없는 영웅(英雄)들은 오늘도 원한의 적지(敵地)에서 고혼(孤魂)이 되어 방황(彷徨)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겨울밤이 아니라도 그렇다. 그러나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이면 더욱 사무치게 생각되는 일- 그것은 동굴이다. 그들 일곱명이 무전기(無電機)를 붙들고 자유(自由)의 겨울을 지킨 그 동굴.



소련(聯)의 미술심사원(美術審査員)

‘이리야그라스노프’는 소련(聯)의 화가(畫家)이다. 그의 서구(西歐)에 있어서의 서평(書評)은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태리나 프랑스를 방문(訪問)한 소련(聯) 문화가(文化人)들은 서구인(西歐人)들이 ‘이리야그라스노프’를 좋게 평(評)하는데 놀라고 있다. 그 이유는 소련(聯)에서는 그를 괴상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보아 대수롭잖게 평(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련(聯) 화단(畫壇)의 노장(老長)들로부터 ‘이단아(異端兒)’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리야그라스노프’는 2년전(二年前)에 ‘레닌’의 초상화를 전람회(展覽會)에 출품(出品)하였다. 그러자 심사원(審査員)들은
 ‘이것이 레닌이야! 전연 닮지 않았는데’ 하고 ‘철거(撤去)’라는 결론(結論)을 내렸다.
 그라스노프가 초상화(肖像畫)를 꺼내고 전람회장(展覽會場)을 나오자 심사원(審査員)의 한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누구하고 맞서자는 거야. 레닌의 초상화(肖像畫)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공(專門職工)이 그리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 레닌의 초상화(肖像畫)가 무엇을 어느 정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심사위원은 그라스노프의 레닌상(像)을 보고 사진을 그대로 본 따서 그리는 초상화가(肖像畫家)- 그림직공(職工)을 연상(聯想)한 것이다.



향수(鄉愁)

박연희(朴淵禧)

뽀얀 안개가 언덕길로 흘렀다.
 현이 막 언덕길을 추어 올라섰을 때였다. 아내가 거리 다래끼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덕산 영감이 오셨어요.’
 아내는 셀죽한 표정으로 현을 바라보았다.
 ‘음...’
 ‘어쩌면 그렇게 남루해 졌을까?’
 ‘짜지니까 그럴 수 있지.’
 ‘내일아침 첫 차로 강원돌 가신대요.’
 ‘그래?’
 ‘별써 낮에 오셔서 당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군요.’
 아내는 싱거운 웃음을 띠었다.
 제가 살기에도 바쁘데 노잣돈이라도 얻으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 못 마땅히 생각 하 는 눈치였다.
 ‘길을 떠나신다니 오셨겠지.’
 현은 돌아서려 하였다.
 ‘여보?’
 현을 불러 놓고도, 아내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노잣돈 얻으시려고 오신가 봐요.’
 ‘경솔한 소리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해.... 소주 한병 사가지고 와요.’
 현은 불유쾌함을 느끼며, 돌아섰다.
 ‘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큰놈이 마루방으로 뛰어 나오며, 덕산 영감이 온 것을 알리는 것 이었다.
 ‘음, 할아버지가 오셨군.’
 현이 구두끈을 끌며, 웃음을 띠어말할 때, 건너 방 영창문이 비스듬히 열렸다.
 ‘현군 지금 오나.’
 하고, 덕산 영감은 주름살진 검은 얼굴에다, 거의 비굴한 웃음을 띠 었다.
 ‘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일이 좀 바빠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덕산 영감이 내미는 손을 잡고 나서, 현은 마주 앉았다.
 ‘허허허!! 고생이야 나 혼자 하는 건가 아닌 게 아니라고 고생은 좀 한폭세. 너줄한 사업관계로.’
 하고 덕산 영감은 천천히 권연을 검은 물주리에다 꽃아, 불을 붙여 물었다.
 현은, 그제서야 덕산 영감의 매무새를 살펴보았다. 아내의 말대로 위에 입고

있는 양복부터가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 사 입은 것인지, 하얀 와이셔츠에 언제나 매고 있던, 검은 넥 타이만은 단정해보였다. 얼굴과 손은 태양에 걸어 한결 초라한 행색이 드러나 보였다. 덕산 안에서든 과수원 을 으뜸으로 하며, 서늘이 푸르던 자취는 참아 볼 길이 없었다.

‘사업이라고 할 것까진.. 일테면, 노동이었지! 신통치 않아 이번에 처분했네.’

하고, 덕산 영감은 너죽이 현을 바라보았다.

‘네..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현도 웃음을 띠며 물었다.

‘허허허... 현군은 깜짝 놀랄 걸세. 옷나무 알지?’

‘네.’

‘전라도에 가서 옷나무 삼천줄 심었네. 아주 황무지예다 – 그것이 3년지나니 – 그렇지. 내가 현군을 만나고 떠난지 꼭 4년전이지. 그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무성했어. 도무지 마음속에 구름이 떠 있으니 한 자리에 오래 백여 있을 수가 없더이.’

하고 덕산 영감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어 웃었다.

‘그건 참 선생님다운신 사업이었습니다.’

‘세상이 넓은 듯 하면서 좁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밑천이 들고 사람의 힘으로만 할 일은 그런 정도일 꺼야.’

‘그렇습지요.’

현이 대답을 하여도 덕산영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음인지, 오래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현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현은 다음 순간에야 알았다. 조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는 덕산 영감의 검은 식한 얼굴에는, 우수가 피어 흐르고 있는 것이었다. 현은 빙글이 눈앞으로 스쳐보였다. 현이 덕산영감을 알게 된 것은 중학 2학년 때부터였었다. 덕산 영감은 과수원이 덕산에 있었을 뿐, 늘 함흥 집에서 살고 있었 다. 현의 집은 함흥에서도 오십리 떨어진 두메산골이었다. 덕산 영감의 집에 하숙을 정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덕산 영감의 막내동이 석과 한클래스여서, 석과 함께 중학교5년을 마칠때까지, 덕산영감이 손 그늘 아 래에서 자랐다함이 더 정확한 말이었어야 옳았다.

이러한 경위를 가진 덕산영감을 현이 다시 만난 것은 20년이 흐른 “일사후퇴”때, 부산에서였다.

덕산 영감은 성미가 괄괄한 사람이었다. 식자도 뻔뻔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보리수(菩提樹) 아래서

김지향(金芝鄉)

2

3

점화(點火)하는 무구(無垢)한 보 리(菩提)나무
 빛을 뿜는 양극(兩極)의 틈서리 에서
 해가 뜨고
 낙하(落下)하는 오늘의 소계(小憩)

해가 지고
 심연(深淵)이 내리는 일순(一瞬)을
 내리는 영원(永遠)으로 연결(連 接)하는
 아광주(余光珠)의 익은 정즉(精粹)

흑막(黑幕)이 갈라 설 무렵의 땅과 하늘에 서려 있던 물기에서 비늘에서 태초(太初)의 빛깔을 반사(反射) 하는 꽃 환생(幻生)하는 생명(生命)을 있게 하라.

무한대(無限大)의 높이로 치솟는 가지의 겨드랑이에서 성결(聖潔)한 수액(樹液)을 받던 동구(洞口) 밖에서나 국경(國境) 밖에서도 하나로 이어지는 가슴에 충만(充滿)한 푸름을 솟게 하라.

고행(苦行)의 날을 다 보내어도 아직은 무고(無辜)한 범수(犯手) 파를 흘리리라 젊음의 기치(旗幟) 아래서 귀의(歸依)하여 아픔을 견디는 씨를 뿌리고 맺히는 씨의 열매.

이후에 우리들 하나로 묶여서 살아있는 뿌리 밑에 열반(涅槃)을 심으리라 불똥을 튀기는 극의 경련 속에서 맺히는 열(熱)의 열매.

“블라디보스톡”에서 객사를 하였을 때, 스무살이 갓 되어 시체를 안고 돌아 온것도 덕산 영감이라 하였다. 그것뿐이라면, 집안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밀정에게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덕산 영감은 아버지의 원수를 따라 2년만에 복수를 하고 돌아왔다고 쉬쉬 했었다는 이야기도 현은 어렴풋이 들었다.

현이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덕산영감은 과수원을 경영하여 1년에도 수백 석을 추수하였다. 겨울이면 또 해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은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였다.

‘가만히 앉아서 배만 고프다는 놈들이야 사람이야!’

입버릇처럼, 덕산 영감이 혀를 차며 되풀이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난날을 가진 덕산 영감이 현의 집에 오래 묵어있을 리는 없었다.

‘현군, 나 전라도 쪽으로 가보겠네!’

어느 날 현에게 말하며, 노잣돈 얼마를 마련해달라 하였다.

‘갑자기 전라도에 가시면, 뭘 하시렵니까?’

하고 현은 만류해 보았다.

‘아니네. 부자지간에도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음, 의가 상하는 세상에- 말 될 말인가? 내 수족이 아직 멀쩡하니 염려 말게!’

하고, 덕산 영감은 약간의 노잣돈을 얻어 가지고, 훌쩍 떠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 후 4년을 두고, 덕산 영감은 편지 한 장 없다가 이번에 또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현군, 우리 술 한잔 할까?’

오래 말없이 앉아있던 덕산 영감은 호주머니를 들추었다.

‘선생님 드십시오’

현은 뽀이안 소주를 따워 놓고 권했다.

‘허허허.. 부산이래 처음이군 그래.’

하고 덕산 영감은 컵에다 부어놓은 소주를 반이나 쪽 들여 마셨다.

‘선생님 안주가 변변치 못해서요.’

‘음- 현군이 근근 싸라리맨으로 살아갈 터인데.... 이렇게 성찬을 차렸으니-’

하고, 덕산 영감은 사양을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들었다.

술이 여러 잔 오가고는 하였다. 술이 약한 현은 벌써 어떡어떡 술이 올랐다.

덕산 영감도 태양에 걸은 청동색 얼굴이 검붉게 물들어갔다.

‘현군?’

덕산 영감은 눈을 빛내어 불쑥 현을 불렀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 강원도 길을 떠났네!’

‘네-’

현은 엉거주춤 대답하였다.

‘옳나무 밭이 이제 5년만 있으면 일년 동안에도 약차한 수입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내 가슴속엔 구름만 아니라 깃대머가 쌓여있어.... 칠다구니 없 는것들이... 다 그놈들한테 죽었을 줄 아네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런 것인가! 일년이 삼백육십오일이라면 육십오일도 제대로 못 잤네그러. 이 노릇을 어찌하나? 이런 못할 일이 있나?’

덕산 영감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옭푼 꺼진 눈자위가 전등불에 어둡거렸다.

‘이제 사업이 뭔가, 내게 돈 벌 욕심이 있겠나? 남의 미운 밥 먹지 않으려니 수족을 놀릴 뿐이지- 일구원심이... 자식놈들 얼굴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죽은들 한이 없겠네. 그래서 한발이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리자는 그 생각으로 떠나가려네.’

희끗한 수염이 떨리도록 입술을 이룩거리며 덕산 영감은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다.

현도 이복에 남겨놓은 어머니의 생각이 치밀어 눈시울이 뜨거웠다.

‘선생님 심정은... 수난 인걸 어떡합니까?’

하고 현은 나직이 말하며 덕산영감에게 잔을 돌렸다.

‘허긴 그렇네. 나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고.. 늙으니 사람의 마음이 자연 조급해지고... 서글퍼지네 그러 하하하!’

덕산 영감같은 웃음으로 말끝을 흐려 버렸다.

덕산 영감은 연신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혀 아래 소리를 중얼거리다가 그 자리에 쓸어져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시계가 세시도 못 되었는데도 덕산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현은 모른척하고 자리에 누운 채 덕산영감이 하는 모습을 몰래 보았다. 룩사크를 뒤지어 백원짜리 몽치 하나를 내놓고 다시 비껴어 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배에다 불을 붙여 물었다. 멍하니 오래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이거 얼마 안 되네. 어린것들 웃가지나 사 입히게.’

이른 조반이 끝나 현이 룩사크를 들고 마루방에 나섰을 때, 덕산 영감은 아내를 쳐다보며 돈 몽치를 전축 위에다 놓았다.

현이 그럴수가 없다고 아무리 사양해도 덕산 영감은 듣지 않았다.

‘반게. 안 그러면 자네마저 나를 못난 걸로 취급하는 줄 알겠네.’

하고, 덕산 영감은 빠른 걸음으로 대문 밖으로 나섰다.

언덕길을 현의 부부와 덕산 영감은 말없이 걸어 내려갔다.

‘인제 들어가게. 내 가서 있는 고장이나 알려주겠네.’

덕산 영감은 현이 메고 있는 룩사크를 뺏다시피하여 돌려 메었다.

그리고 어서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며 덕산 영감은 안개가 뽀얗게 흐르는 언덕길을 스적스적 걸어갔다.

—끝—



제목(題目)뿐인 꿈뜨

유기영(柳起英)
삼화 우경희(禹慶熙)

1.

극도의 실망은 자살을 가져오기가 쉬운 모양이다. 나는 정민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의 자살의 원인이 극도에 달한 절망에 있었던 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절망이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민족적이고 사회적이었던 점도.....

내가 정민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는 않다. 1957년, 내가 문화부장으로 근무하던 C신문 신춘현상논문에 그가 당선되었을 때다. 그 때 당선된 정민의 논문은 ‘휴머니즘과 반항정신’이라는 다분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좀 더 정의감과 진리에 눈을 떠야겠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이 논문은 평론계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한 때는 관원(官憲) 주변에서 문체에 오르기까지 했다.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평론가가 되려는 생각보다 작가가 되고자 하며 방금 중편정도의 창작을 쓰고 있는 중인데 탈고가 되면 어디 발표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당시 그는 때때로 신문사로 나를 찾아와서 다방에서 장시간 정치나 문학이나 다방면에 걸친 얘기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탈고 되었다는 그 소설을 가져왔다. ‘정치 늙은이’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서두부터가 한 젊은 대학생의 입을 통해서 현실을 까고 들어가는 판이었다. 나는 이 중편소설을 지금은 폐간되고 없지만 당시는 그래도 세상이 알아주는 종합잡지에 소개해 주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이 나와는 통하는 동향인이었기 때문에 무명작가의 작품이었지만 무난히 발표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 ‘정치 늙은이’가 발표되자 문단에 대단한 물의를 일으켰다. 그 줄거리를 여기에 장황하게 소개할 겨를은 없지만 정계의 한 늙은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부패한 한국 정치를 역사적·과학적으로 분석,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계의 모 거물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작가를 때리는가 하면 ‘정치 늙은이’를 지지하는 젊은 작가들이 다른 신문을 통해서 반박응수하고 어느 대학 신문이 좌담회를 열어 시비를 논하기도 하는 바람에 이 소설을 실린 잡지사에서는 ‘정치 늙은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물론 ‘휴머니즘과 반항정신’도 아니고 ‘정치 늙은이’도 아니다. 그 후의 정민이가 걷게 된 길에 대해서이다.

그것은 4·19가 일어났던 그 이듬해, 그러니까 5·16혁명이 일어났던 1961년 5월 3일 아침이었다.

어느 신문사나 근처에 다방이 있다싶이 C신문사에도 바로 옆집이 다방이다. 우리들 신문기자는 출근을 하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는 그길로 다방으로 모이는 것이 상례다. 문화면을 맡고 있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부원들과 내일의 문화면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다. 문화면만은 대개가 기사를 전달 준비해서 판을 짜놓는 것이 보통이다.

헌데 이 다방에 난데없는 정민이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분명히 난데없는 정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약 1년 전, 그러니까 4·19 이전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격전장(激戰場)에서 간신히 살아온 병사처럼 기진맥진해 보였다. 머리는 23개월이나 이발소를 구경 못한 것 같고 신발은 낡아서 뒤꿈치가 45도 이상으로 문어져 나갔고 걸치고 있는 양복 소매에는 실밥이 너울거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누런색이다. 단지 두 눈동자만이 이 피로에 지친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해주는 듯 어울리지 않게 반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나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으나 그의 지난간 1년 동안의 얘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려는 흥미가 없는 듯 뜨엠프엠프 몇 마디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어느 출판사에서 교정을 봐주며 간신히 호구해 오다가 4·19 때는 종로서 습격에 참가하여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왼편 입가에 두어 바늘 꾸어맨 흉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 후 난데없이 경찰에서 그가 발표한 ‘휴머니즘과 반항정신’, ‘정치 늪은이’ 등으로 비공식 심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3, 4개월이나 끝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출판사도 그만 두게 되고 이 집 저 집 아는 친구, 친척을 찾아다니며 얻어먹고 때로는 아는 사람 집의 마루에서 며칠 밤 신세를 지기도 했다는 것이며 지금은 세탁소를 하는 어느 안면 있는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한 끼 두 끼 굶기는 보통이라는 것이다.

그는 펍 거북한 듯이 나를 갑자기 찾아온 동기는—— 하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제 는 도저히 서울에서 견디어 낼 수가 없다. 시골에 나이가 많은 고종(姑從)이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 고종을 찾아가서 한 1년동안 신세를 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꼭 남기고 싶은 작품을 써야겠다. 그런데 차비가 없다. 5천환이면 된다.

정민이는 이 차비 5천환을 얻으려 왔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에 5천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유능한 정민이가 이렇게 썩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까울기도 했다. 그래서 신문사 회계원에게 5천환을 기부해서 주었더니 그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오늘도 아침을 먹지 않은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단골집 식당으로 데려가서 식사와 약주 한 잔씩을 나누었다.

그는 한 잔을 들이키고 입가의 흉터를 만지면서 약간 흥분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4·19 1주년을 맞아 나는 정말 놀랐지요. 전 서울이 아니, 전국이 삼엄한 경계태세로 들어가더군요. 하기가 그나마도 형식적이던 방공태세도 아주 허무터져 버리고 북괴공산 오염이 이 땅에서 제집처럼 날뛰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럴 범두 하지만 실은 오염이나 간첩 등 공산주의자를 경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구 전체 국민을 경계했으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그들은 어째서 국민을 것처럼 경계해야만 했던가? 알겠죠?” 하고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물론 고개를 끄떡했다. 그와 같은 경계는 다름 아닌 정권을 물려 받은 그들이 4·19정신을 완전히 짓밟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헤어질 때 내려가면 때때로 편지를 하겠노라고 하면서 정이 갖든 굳은 악수를 하였다.

2.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그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5월 14일, 1년을 작성하고 시골에 내려갔다는 정민이가 다시 내 앞에 홀연히 나타났다. 그 때 나는 육감적으로 그가 시골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을 구실 삼아 나에게 돈을 얻으려 왔던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종을 찾아 갔더니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신세 질 형편이 못되었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결식아들이 속출하고 학교는 사립인지라 봉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선생들의 생활상태는 돈이 있으면 도루 보태어 주고픈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랬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의 모당 정치란 영망이어서 정치라기보다는 한 달을 굶은 늑대들이 우연히 말을 한 마리 잡아놓고 으르렁대는 그러한 꼴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민이가 시골을 다녀왔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다. 나는 어떤 전입감에서 그가 그러한 말을 꾸며서 아는 사람을 찾아 돈이나 얻으려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때 정민이 아니라도 나를 찾아와서 찻값을 달라니 담배 값을 달라니 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이번에는 무슨 구실을 붙여서 또 돈 말을 끄낼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마음 먹으면서—— 그렇자니까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몹시 냉냉했음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나는 내가 말을 걸지 않고 모른 체 내 일이나 하고 있으면 싱거워서도 그는 일어서겠지 하고 공연히 바쁜 체 빼랍을 열었다가 단했다가 기자를 불려서 바쁘지도 않은 일을 시키곤 했다. 하지만 정민은 쭈체 일어설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제 내 일이 끝났다는 양 데스크를 정리하고 담배를 빼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만일 돈말을 끄내면 깨끗이 거절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창 바쁠 때 내가 왔나보죠.”

하고 정민이 말을 걸어왔다. 나는 오히려 그가 무안할 만치 투명스런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담배만 빼굽빼굽 피우고 있었다.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하며 그는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테이블 위에 내놓았다.

“내 마지막 원고를 하나 실려달라구. 시골에 가 있는 동안에 쓴 것인데 몇 장 안되는 쫘뜨입니다.”

그래도 나는 잠잠고 있었다. 필경, 이것을 구실로 돈을 꾸어달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정민이는 일어서면서

“될 수 있으면 금명 간에 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례합니다.”하고는 자리를 떴다.

그가 나가고 난 뒤, 나는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짐작한 두 가지 생각에서 그 어느 한 가지가 틀렸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 그는 이 원고를 구실로 돈을 얻으려 왔다가 내가 너무 냉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말았느냐 하는 짐작과, 또 하나는 전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사실 원고를 실리기 위해서 왔는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위인을 생각해 볼 때 전자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을 섰다.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일이다. 나는 하루 빨리 이 원고를 게재해서 곤난한 그에게 원고료를 받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3.

이튿날, 즉 5월 15일—— 나는 이날의 문화면의 예정을 변경시켜 가정란을 중지하고 문예란을 짜기로 했다. 정민이 두고 간 쫘뜨를 실려서 원고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 줄 생각에서였다.

나는 출근을 하자 곧 그가 두고 간 두루마리 원고를 폈다. 원고를 검토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는 문단에 알려진 작가였으니까. 그보다는 빨리 화가에게 넘겨 삽화를 그려야하기 때문이다.

약 20매 가량 되는 ‘할말 없다.’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제목만 보고 급사에게 주어서 아래층에 있는 화가에게 삽화를 그려오라고 하고는 다른 일에 착수했다.

내 테이블과 사회부장 테이블은 한 사람이 지나다닐만한 사이를 두고 나란히 놓여있었다. 때문에 사회부장과는 거의 나란히 앉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때 사회부장은 취재나간 경찰출입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또 자살야? 카메라맨은 먼저 들여보내줘.” 하고 사회부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혼자말로 중얼대었다. “유행병에 걸렸나, 죽기는 왜들 자꾸 죽어.”

이제 신문에서는 자살쥬 1단짜리로 타이틀도 붙이지 않고 5, 6건의 자살기사를 한데 묶어서 짤막하게 구석에 끼워버리고 만다.

“요즘처럼 자살이 많아서야 어디 우리나라에 사람이 남겠나?”

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때 화가인 H씨가 빙글빙글 웃으며 조금 전에 내가 내려보낸 원고몽지를 내 앞에 쑥 내밀면서

“이거 뭣입니까?”

하고는 의미 있는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왜 그래요?”

“그걸 한 번 읽어보시죠?”

하고 화가는 또 넌죽이 웃었다.

나는 원고를 들여다 보았다. 문방구점에서 파는 원고지에 ‘쫘뜨’, ‘할말 없다’, ‘박정민’이라고 깨끗이 쓰여 있지 않는가.

“첫 장을 넘겨보세요.”

하고 화가가 웃었다.

나는 첫 장을 넘겼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그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끝 장인 20매를 다 넘겼다. 한 자도 쓰여 있지 않는 깨끗한 원고지 그대로이다. 그러면서도 원고지에는 장장 아라비아 숫자로 NO가 기입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 끝에는 ‘끝’이라는 자가 큼직하게 쓰여있지 않는가.

나는 별칭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자식이 나를 골려 줄려구 꾸민 짓이구나 하는데 대한 분격보다도 그를 위해 계획을 변경까지 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격이 더 컸다.

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정란 톱기사를 공장에 내려 보내고는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다방에 가는 길이다. 핫김에 차나 한 잔 마시자는 것이다. 그런데 계단을 막 내려섰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경찰출입기자를 만났다. 그는 바쁘게 택사에서 뛰어 내렸는지 수첩을 쥐고 있었다.

“세상엔 별놈의 자식 두 있어요”

그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래?”

“자식이 자살을 하면 잠잠구 죽을 일이지 괴상한 유서를 써 놔거든요.”

“뭘라구?”

“‘할말 없다’구.”

“뭘?”

나는 깜짝 놀랐다.

“‘할말 없다’구?”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름을 알았어?”

기자는 수첩을 펴고는 외었다.

“본적은 경북 xx군 xx면, 주소는 부정, 이름은 박정민, 연령은 30세 가량……”

기자는 수첩을 그대로 든 채 뛰어 올라갔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동안이나 멍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방으로 나갔던 것이다.

‘잃어버린 혁명! 4·19를 도로 찾는 진짜 혁명이 있어야겠군.’

(끝)

부록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숭고(崇高)한 독립정신(獨立精神)을 계승하고 사·일구의 거와 오일육혁명(五一六革命)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正義), 인도(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서 민족(民族)의 단결(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게 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制定)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196○년 ○월 ○일	

제1장(第一章) 총강(總綱)

제1조(第一條)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第二條)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要件)은 법률로 정(定)한다.

제3조(第三條)

대한민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제4조(第四條)

대한민국은 국제평화(國際平和)의 유지(維持)에 노력하고 침략적(侵略的) 전쟁을 부인(否認)한다.

제5조(第五條)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締結)-공포(公布)된 조약(條約)과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承認)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効力)을 가진다.

② 외국인(外國人)에 대하여는 국제법(國際法)과 조약(條約)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지위(地位)를 보장한다.

제6조(第六條)

① 공무원(公務員)은 국민전체(國民全體)에 대한 봉사자(奉仕者)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身分)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第七條)

① 정당(政黨)의 설립(設立)은 자유(自由)이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 정당(政黨)은 그 조직과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參與)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政黨)은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政黨)의 목적이나 활동(活動)이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提訴)할 수 있고 정당(政黨)은 대법원의 판결(判決)에 의하여 해산(解散)된다.

제2장(第二章) 국민의 권리(權利)와 의무

제8조(第八條)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國家)는 국민의 기본적인(基本的) 인권(人權)을 최대한(最大限)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9조(第九條)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平等)하다. 누구든지 성별(性別), 종교(宗教) 또는 사회적 신분(身分)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

대한민국헌법전문(大韓民國憲法全文)

② 모든 국민을 소급입법(溯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 또는 재산권(財産權)의 박탈(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第十二條)

모든 국민은 주거(住居), 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3조(第十三條)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4조(第十四條)
모든 국민은 주거(住居)의 침입(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수색(搜索)이나 압수(押收)에는 법관(法官)의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第十五條)

모든 국민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제16조(第十六條)

① 모든 국민은 종교(宗教)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 국교(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教)와 정치는 분리(分離)된다.

모든 국민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8조(第十八條)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言論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 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言論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 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公衆道德)과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위 하여는 영화(映畵)나 연예(演藝)에 대한 검열(檢閱)을 할 수 있다.

제10조(第十條)

① 모든 국민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구금(拘禁), 수색(搜索), 압수(押收), 심문(審問) 또는 처벌(處罰)을 받지 아니하며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強制勞役)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不利)한 진술(陳述)을 강요(強要)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第十一條)

① 모든 국민은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체포(逮捕), 구금(拘禁), 수색(搜索), 압수(押收)에는 검찰관(檢察官)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發付)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삼년이상(三年以上)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犯)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逮捕), 구금(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國家)가 변호인(辯護人)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逮捕), 구금(拘禁)을 받은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사인으로부터 신체(身體)의 자유(自由)를 불법(不法)한 침해(侵害)를 받은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救濟)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⑥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 폭행(暴行), 협박(脅迫), 구속(拘束)의 부당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만(欺瞞),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唯一)한 증거(證據)한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제11조(第十一條)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제11조(第十一條)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제11조(第十一條)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제11조(第十一條)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을 소급입법(溯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 또는 재산권(財産權)의 박탈(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第十二條)

모든 국민은 주거(住居), 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3조(第十三條)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4조(第十四條)

모든 국민은 주거(住居)의 침입(侵入)을 받지 아니한다.

주거(住居)에 대한 수색(搜索)이나 압수(押收)에는 법관(法官)의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第十五條)

모든 국민은 통신(通信)의 비밀(秘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제16조(第十六條)

① 모든 국민은 종교(宗教)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 국교(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宗教)와 정치는 분리(分離)된다.

제17조(第十七條)

모든 국민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제18조(第十八條)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言論出版)의 자유(自由)와 집회(集會) 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言論出版)에 대한 허가(許可)나 검열(檢閱)과 집회(集會) 결사(結社)에 대한 허가(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公衆道德)과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위 하여는 영화(映畵)나 연예(演藝)에 대한 검열(檢閱)을 할 수 있다.
③ 신문(新聞)이나 통신(通信)의 발행시설기준(發行施設基準)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옥외집회(屋外集會)에 대하여는 그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에 관한 규제(規制)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 언론출판(言論出版)은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 또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이나 사회윤리(社會倫理)를 침해(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第十九條)

① 모든 국민은 학문(學問)과 예술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 저작자(著作者), 발명가(發明家)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0조(第二十條)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限界)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財産權)의 행사(行使)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제21조(第二十一條)

모든 국민은 이십세(二十歲)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선거권(選舉權)을 가진다.

제21조(第二十一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제23조(第二十三條)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 국가(國家)는 청원(請願)에 대하여 심사(審査)할 의무를 진다.

제24조(第二十四條)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軍屬)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領域) 안에서는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초병(哨兵), 초소(哨所) 유해음식물(有害飲食物) 공급(供給) 포로(捕虜)에 관한 죄중(罪名)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非常戒嚴)이 선포(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軍法會議)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限) 지체 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제25조(第二十五條)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제26조(第二十六條)

공무원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은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제27조(第二十七條)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初等教育)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義務教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自主性)과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教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28조(第二十八條)

① 모든 국민은 노동(勞動)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과 증진(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勤勞)의 의무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民主主義原則)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女子)와 소년(少年)의 근로(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9조(第二十九條)

① 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있다.

제30조(第三十條)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 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의 증진(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生活)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31조(第三十一條)

모든 국민은 혼인(婚姻)의 순결(純潔)과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제32조(第三十二條)

① 국민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에 열거(列擧)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限)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侵害)할 수 없다.

제33조(第三十三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를 진다.

제34조(第三十四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를 진다.

제3장(第三章) 통치기구(統治機構)

제1절(第一節) 국회

제35조(第三十五條)

입법권(立法權)은 국회에 속한다.

제36조(第三十六條)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普通)-평등(平等)-직접·비밀선거(秘密選舉)에 의하여 선출(選出)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一五〇人 以上) 200인 이하(二〇〇人 以下)의 범위(範圍)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 후보(候補)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第三十一條)

국회의원의 임기(任期)는 4년(四年)으로 한다.

제38조(第三十八條)

국회의원은 임기(任期) 중 정적(政職)을 이탈(離脫)하거나 변경(變更)한 때 또는 소

속당당이 해산(解散)된 때에는 그 자격(資格)이 상실(喪失)된다. 다만 합당(合黨) 또는 제명(除名)으로 소속(所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例外)로 한다.

제39조(第三十九條)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0조(第四十條)

국회의원은 그 지위(地位)를 남용(濫用)하여 국가(國家) 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處分)에 의하여 재산상(財産上)의 권리(權利)나 이익 또는 직위(職位)를 취득(取得)하거나 타인(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제41조(第四十一條)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會期)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會期) 전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된 때에는 현행범인(現行犯人)이 아닌 한(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會期) 중 석방(釋放)된다.

제42조(第四十二條)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職務上) 행한 발언(發言)과 표결(表決)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제43조(第四十三條)

① 국회의 정기회(定期會)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每年) 일회(一回) 집회(集會)된다.

② 긴급(緊急)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위원(在籍委員) 사분(四分)의 일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國會議長)은 국회의 임시회(臨時會)의 집회(集會)를 공고(公告)한다.

③ 정기회(定期會)의 회기(會期)는 120일(百二十日)을, 임시회(臨時會)의 회기(會期)는 30일(三十日)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第四十四條)

국회는 의장(議長) 1인(一人)과 부의장(副議長) 2인(二人)을 선거한다.

제45조(第四十一條)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限) 그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인 때에는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제46조(第四十六條)

국회의 회의(會議)는 공개(公開)한다. 다만 출석의원(出席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第四十七條)

국회에 제출(提出)된 법률안(法律案), 기타의 의안(議案)은 회기(會期)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任期)가 만료(滿了)된 때에는 예외(例外)로 한다.

제48조(第四十八條)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法律案)을 제출(提出)할 수 있다.

제49조(第四十九條)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法律案)은 정부에 이송(移送)되어 15일(十五日) 이내(以內)에 대통령이 공포(公布)한다.

② 법률안(法律案)에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전항(前項)의 기간(期間) 안에 이의서(異議書)를 붙여 국회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閉會)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法律案)을 수정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再議)에 붙이고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과 출석의원(出席議員) 삼분(三分)의 이 이상의 찬성(贊成)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로서 확정(確定)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第一項)의 기간(期間) 안에 공포(公布)나 재의(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法律案)은 법률로서 확정(確定)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第四項)과 제5항(第五項)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확정(確定)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전항(前項)에 의한 확정(確定) 법률이 정부에 이송(移送)된 후 5일(五日) 이내(以內)에 대통령이 공포(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이를 공포(公布)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規定)이 없는 한(限) 공포(公布)한 날로부터 20일(二十日)을 경과함으로써 효력(効力)을 발생한다.

제50조(第五十條)

① 국회는 국가(國家)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審議)·확정(確定)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會計年度)마다 예산안(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120일(一二十日) 전까지 국회에 제출(提出)하고 국회는 회계연도(會計年度) 개시(開始) 30일(三十日)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전항(前項)의 기간(期間) 안에 예산안(豫算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豫算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各號)의 경비(經費)를 세입(歲入)의 범위(範圍) 안에서 전시도(前時度) 예산에 준(準)하여 지출(支出)할 수 있다.

④ 일, 공무원의 보수(報酬)와 사무처리(事務處理)에 필요한 기본경비(基本經費)

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施設)의 유지(維持)와 법률상(法律上) 지출(支出)의 의무가 있는 경비(經費)

삼, 이미 예산상(豫算上) 승인(承認)된 계속비(繼續費)

제51조(第五十一條)

① 한 회계연도(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繼續費)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豫測)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예비비(支出豫備費)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豫備費)의 지출(支出)은 차기(次期) 국회의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52조(第五十二條)

예산 성립(成立) 후에 생긴 사유(事由)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追加更正 豫算案)을 편성(編成)하여 국회에 제출(提出)할 수 있다.

제53조(第五十三條)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提出)한 지출예산(支出豫算) 각항(各項)의 금액(金額)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54조(第五十四條)

국제(國債)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을 체결(締結)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5조(第五十五條)

조세(租稅)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第五十六條)

① 국회는 상호원조(相互援助) 또는 안전보장(安全保障)에 관한 조약(條約), 국제조직(國際組織)에 관한 조약(條約), 통상조약(通商條約), 어업조약(漁業條約),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國家)나 국민에게 재정적(財政的) 부담(負擔)을 지우는 조약(條約), 외국군대(外國軍隊)의 지위(地位)에 관한 조약(條約) 또는 입법사항(立法事項)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締結), 비준(批准)에 대한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宣戰布告), 국군의 외국(外國)에의 파견(派遣) 또는 외국군대(外國軍隊)의 대한민국 영역(領域)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同意權)을 가진다.

제57조(第五十七條)

국회는 국정을 감사(監査)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書類)의 제출(提出), 증인(證人)의 출석(出席)과 증언(證言)이나 의견(意見)의 진술(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裁判)과 진행(進行) 중인 범죄수사(犯罪搜查), 소추(訴追)에 간섭할 수 없다.

제58조(第五十八條)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政府委員)은 국회나 그 위원회(委員會)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意見)을 진술(陳述)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委員會) 또는 국회의원 30인(三十人)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出席), 답변(答辯)하여야 한다.

제59조(第五十九條)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解任)을 대통령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② 전항(前項)의 건의(建議)는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第一項)과 제2항(第二項)에 의한 건의(建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事由)가

없는 한(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第六十條)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內部規律)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依員)의 자격(資格)을 심사(審査)하며 의원을 징계(懲戒)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除名)하려면 재적의원(在籍議員) 삼분(三分)의 이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제1항(第二項)과 제3항(第三項)의 처분(處分)에 대하여는 법원(法院)에 제소(提訴)할 수 없다.

제61조(第六十一條)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 법관(法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委員), 감사위원(監査委員),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職務執行)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違背)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彈劾)의 소추(訴追)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前項)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彈劾訴追)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權限行使)가 정지된다.

제62조(第六十二條)

① 탄핵사건(彈劾事件)을 심판(審判)하기 위하여 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를 둔다.

② 탄핵심판위원회(彈劾審判委員會)는 대법원장(大法院長)을 위원장(委員長)으로 하고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 3인(三人)과 국회의원 5인(五人)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심판(審判)할 경우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이 위원장(委員長)이 된다.

③ 탄핵결정(彈劾決定)에는 구성원(構成員) 6인(六人) 이상의 찬성(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결정(彈劾決定)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民事上)이나 형사상(刑事上)의 책임(責任)이 면제(免除)되지는 아니한다.

⑤ 탄핵심판(彈劾審判)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第二節) 정부

제1관(第一款) 대통령

제63조(第六十三條)

① 행정권(行政權)은 대통령을 수반(首班)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② 대통령은 외국(外國)에 대하여 국가(國家)를 대표한다.

제64조(第六十四條)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普通平等), 직접, 비밀선거(秘密選舉)에 의하여 선출(選出)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잔임기간(殘任期間)이 2년(二年)에 미만(未滿)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②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被選舉權)이 있고 선거일(選舉日) 현재 계속하여 5년(五年) 이상 국내(國內)에 거주(居住)하고 40세(四十歲)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公務)로 외국(外國)에 파견(派遣)된 기간(期間)은 국내거주기간(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

③ 대통령 후보(候補)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所屬政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大統領選舉)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第六十五條)

① 국민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多數票)를 얻은 자를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② 대통령 후보자(候補者)가 1인(一人)일 때에는 그 득표수(得票數)가 선거권자(選舉權者) 총수(總數)의 3분(三分)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當選)될 수 없다.

제66조(第六十六條)

①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在籍議員) 3분(三分)의 2 이상의 출석(出席)과 출석의원(出席議員) 3분(三分)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② 전항(前項)의 득표자(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차(二次)투표를 하고 2차(二次)투표에도 전항(前項)의 득표자(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1인(一人)

이면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와 차점자(次點者)에 대하여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가, 2인(二人) 이상이면 최고득표자(最高得票者)에 대하여 결선투표(決選投票)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多數得票者)를 대통령 당선자(當選者)로 한다. 제67조(第六十七條)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任期滿了) 70일(七十日) 내지(乃至) 40일(四十日) 전에 후임자(後任者)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에는 즉시 후임자(後任者)를 선거한다. 대통령 당선자(當選者)가 사망(死亡)하거나 판결(判決), 기타의 사유(事由)로 그 자격(資格)을 상실(喪失)한 때에는 또한 같다.

제68조(第六十八條)

① 대통령은 취임(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宣誓)를 한다.“나는 국헌(國憲)을 준수(遵守)하고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며 국민의 자유(自由)와 복리(福利)의 증진(增進)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합니다.”

② 전항(前項)의 선서(宣誓)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法官)이 참석한다.

제69조(第六十九條)

① 대통령의 임기(任期)는 4년(四年)으로 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의 후임자(後任者)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 중 재임(在任)한다.

③ 대통령은 1차(一次)에 한(限)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제70조(第七十條)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順位)로 그 권한을 대행(代行)한다.

제71조(第七十一條)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批准)하고 외교사절을 신임(信任)·접수 또는 파견(派遣)하며 선전포고(宣戰布告)와 강화(講和)를 한다.

제72조(第七十二條)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統帥)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編成)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第七十三條)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천재지변(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財政經濟) 상(上)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公共)의 안녕(安寧), 질서(秩序)를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限)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發)할 수 있다.

②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限)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効力)을 가지는 명령(命令)을 발(發)할 수 있다.

③ 제1항(第一項)과 제2항(第二項)의 명령(命令) 또는 처분(處分)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前項)의 승인(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命令) 또는 처분(處分)은 그 때부터 효력(効力)을 상실(喪失)한다. 다만 그 명령(命令)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廢止)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면히 효력(効力)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第三項)과 제4항(第四項)의 사유(事由)를 지체 없이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제74조(第七十四條)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具體的)으로 범위(範圍)를 정하여 위임(委任)받은 사항(事項)과 법률을 집행(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事項)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75조(第七十五條)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戰時事變) 또는 이에 준(準)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宣布)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계엄의 해제(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제76조(第七十六條)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7조(第七十七條)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一般赦免)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第七十八條)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79조(第七十九條)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發言)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0조(第八十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文書)에는 국무총리와 관계(關係)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1조(第八十一條)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업(營業)에 종사할 수 없다.

제82조(第八十二條)

대통령은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범(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在職) 중 형사상(刑事上)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제이관(第二款) 국무회의(國務會議)

제83조(第八十三條)

① 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政策)을 심의(審議)한다.
 ② 국무회의(國務會議)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0인(十人) 이상 20인(二十人)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4조(第八十四條)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인은 현역(現役)을 면(免)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解任)을 대통령에게 건의(建議)할 수 있다.

제85조(第八十五條)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의장(議長)이 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輔佐)하고 국무회의(國務會議)의 부의장(副議長)이 된다.

제86조(第八十六條)

다음 사항(事項)은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일, 국정의 기본적 계획(基本的 計劃)과 정부의 일반정책(一般政策)

이, 선전(宣戰), 강화(講和),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對外政策)

삼, 조약안(條約案), 법률안(法律案)과 대통령령안(大統領令안)

사, 예산안(豫算案), 결산, 국유재산처분(國有財產處分)의 기본계획(基本計劃), 국가(國家)의 부담(負擔)이 될 계약, 기타 재정(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오, 계엄과 해업(解嚴)

육,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

칠, 국회의 임시회(臨時會) 집회(集會)의 요구

팔, 영전(榮典) 수여(授與)

구, 사면(赦免), 감형(減刑)과 복권(復權)

십, 행정각부(行政各部) 간(間)의 권한의 확정(劃定)

십일, 정부 안의 위임(委任) 또는 배정(配定)에 관한 기본계획(基本計劃)

십이, 국정처리상황(國政處理狀況)의 분석

십삼,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중요한 정책(政策)의 수립과 조정

십사, 정당해산(政黨解散)의 제소(提訴)

십오, 정부에 제출(提出) 또는 회부(廻付)된 정부의 정책(政策)에 관계되는 청원(請願)의 심사(審査)

십육, 검찰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大使), 각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공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십칠, 기타 대통령, 국무위원이 제출(提出)한 사항(事項)

제87조(第八十七條)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는 대통령이 주재(主宰)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삼관(第三款) 행정각부(行政各部)

제88조(第八十八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長)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提請)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9조(第八十九條)

국무총리는 행정(行政)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行政各部)를 통할(統轄)한다.

제90조(第九十條)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所管事務)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委任)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91조(第九十一條)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사관(第四款) 감사원(監査院)

제92조(第九十二條)

국가(國家)의 세입(歲入), 세출(歲出)의 결산, 국가(國家) 및 법률에 정한 단체(團體)의 회계검사(會計檢事)와 행정기관(行政機關) 및 공무원의 직무(職務)에 관한 감찰(監察)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所屬) 하(下)에 감사원(監査院)을 둔다.

제93조(第九十三條)

① 감사원(監査院)은 원장(院長)을 포함한 5인(五人) 이상 11인(十一人) 이하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任期)는 4년으로 하되 일차(一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될 수 있다.

③ 원장(院長)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後任者)의 임기(任期)는 전임자(前任者)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任期)는 4년(四年)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제94조(第九十四條)

감사원(監査院)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每年) 검사(檢査)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第九十五條)

감사원(監査院)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監査委員)의 자격(資格), 감사대상(監査對象) 공무원의 범위(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삼절(第三節) 법원(法院)

제96조(第九十六條)

① 사법권(司法權)은 법관(法官)으로 구성된 법원(法院)에 속한다.

② 법원(法院)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各級法院)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法官)의 자격(資格)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第九十七條)

① 대법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法官)의 수는 16인(十六人) 이하로 한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各級法院)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第九十八條)

법관(法官)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良心)에 따라 독립(獨立)하여 심판(審判)한다.

제99조(第九十九條)

① 대법원장(大法院長)인 법관(法官)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提請)이 있으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인 법관(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提請)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提請)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대법원판사(大法院判事)가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원판사회의(大法院判事會議)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임명한다.

④ 법관추천회의는 법관(法官) 4인, 변호사(辯護士) 2인(二人), 대통령이 지명(指名)하는 법률학교수(法律學教授) 1인(一人),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과 검찰총장(檢察總長)으로 구성한다.

⑤ 법관추천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第百條)

① 대법원장(大法院長)인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6년(六年)으로 하며, 연임(連任)될 수 없다.

② 법관(法官)의 임기(任期)는 10년(十年)으로 하며 법률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될 수 있다.

③ 법관(法官)의 정년(享年)은 65세로 한다.

제101조(第百一條)

① 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형벌(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 감봉(減俸) 또는 불리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法官)이 중대(重大)한 심신상(心身上)의 장애(障害)로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定)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第百二條)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違反)되는 여부(與否)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審査)할 권한을 가진다.

② 명령(命令), 규칙(規則), 처분(處分)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違反)되는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第百三條)

정당해산(政黨解散)을 명하는 판결(判決)은 대법원 법관(法官) 정수(定數)의 5분(五分)의 3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제104조(第百四條)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低觸)되지 아니하는 범위(範圍) 안에서 소송(訴訟)에 관한 절차(節次), 법원(法院)의 내부규율(內部規律)과 사무처리(事務處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제105조(第百五條)

재판(裁判)의 심리(審理)와 판결(判決)은 공개(公開)한다. 다만 심리(審理)는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선량(善良)한 풍속(風俗)을 해(害)할 염려(念慮)가 있을 때에는 법원(法院)의 결정(決定)으로 공개(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第百六條)

① 군사재판(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特別法院)으로서 군법회의(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軍法會議)의 상고심(上告審)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계엄(非常戒嚴) 하(下)의 군사재판(軍事裁判)은 군인, 군속(軍屬)의 범죄(犯罪)나 군사(軍事)에 관한 간첩죄(間諜罪)의 경우와 조병(哨兵), 조소(哨所), 유해음식물공급(有害飲食物供給), 포로(捕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定)한 경우에 한(限)하여 단심(單審)으로 할 수 있다.

제사절(第四節) 선거관리(選舉管理)

제107조(第百七條)

① 선거관리(選舉管理)의 공정(公正)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二人), 국회에서 선출(選出)하는 2인(二人)과 대법원판사회의(大法院判事會議)에서 선출(選出)하는 5인(五人) 위원(委員)으로 구성한다. 위원장(委員長)은 위원(委員)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5년(五年)으로 하며, 연임(連

任)될 수 있다.

④ 위원(委員)은 정당(政黨)에 가입(加入)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委員)은 탄핵(彈劾) 또는 형벌(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範圍) 안에서 선거의 관리(管理)에 관한 규칙(規則)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⑦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舉管理委員會)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第百八條)

① 선거운동은 각급(各級) 선거관리위원회(選舉管理委員會)의 관리(管理) 하(下)에 법률에 정한 범위(範圍) 안에서 하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經費)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政黨) 또는 후보자(候補者)에게 부담(負擔)시킬 수 없다.

제오절(第五節) 지방자치(地方自治)

제109조(第百九條)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住民)의 복리(福利)에 관한 사무(事務)를 처리(處理)하고 재산(財産)을 관리(管理)하며 법령의 범위(範圍) 안에서 자치(自治)에 관한 규정(規定)을 제정(制定)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種類)는 법률로 정한다.

제110조(第百十條)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議會)를 둔다.

② 지방회의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議員選舉)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사장(第四章) 경제

제111조(第百十一條)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基本)으로 한다.

② 국가(國家)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生活)의 기본적(基本的)의 수요(需要)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正義)의 실현과 균형이 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範圍)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規制)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第百十二條)

광물(鑛物),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地下資源), 수산자원(水産資源), 수력(水力)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一定)한 기간(期間) 그 채취(採取)·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特許)할 수 있다.

제113조(第百十三條)

농지(農地)의 소작제도(小作制度)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第百十四條)

국가(國家)는 농지(農地)와 산지(山地)의 효율적(效率的)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課)할 수 있다.

제115조(第百十五條)

국가(國家)는 농민(農民), 어민(漁民)과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의 자조(自助)를 기반(基盤)으로 하는 협동조합(協同組合)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을 보장한다.

제116조(第百十六條)

국가(國家)는 대외무역(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規制)·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第百十七條)

국방상(國防上), 또는 국민경제상(國民經濟上) 긴질(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을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로 이전(移轉)하거나 그 경영(經營)을 통제(統制) 또는 관리(管理)할 수 없다.

제118조(第百十八條)

①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된되는 중요한 정책(政策)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의(審議會議)를 둔다.

② 경제·과학 심의회의(審議會議)는 대통령이 주재(主宰)한다.

③ 경제·과학 심의회의(審議會議)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은 법률로 정한다.

제오장(第五章) 헌법개정(憲法改正)

제119조(第百十九條)

① 헌법개정(憲法改正)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在籍議員) 삼분(三分)의 일 이상 또는

‘미사일’ 1-20호까지 중에서 <정신혁명>, <생활실천(生活實踐)>, <민주주의의 성장>, <반공(反共)>에 관한 중요한 제목(題目)을 주려 독자(讀者)의 참고(參考)에 공(供)하려 한다.(미사일 기간분(既刊分) 타분야(他分野)의 중요내용(重要內容) 분석은 ‘편집후기(編輯後記)’에 소개(紹介)되어 있음)

국회의원, 선거권자(選舉權者) 50만인(五十萬人) 이상의 찬성(贊成)으로써 한다.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三十日) 이내(以內)의 기간(期間)에 이를 공포(公告)하여야 한다.
 제120조(第百二十條)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포(公告)된 날로부터 60일(六十日) 이내(以內)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在籍議員) 삼분(三分)의 이 이상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第百二十一條)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六十日) 이내(以內)에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選舉權者) 과반수(過半數)의 투표와 투표자(投票者)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이 전항(前項)의 찬성(贊成)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안은 확정(確定)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公布)하여야 한다.
 부칙(附則)
 제1조(第一條)
 ① 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集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制定)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準備)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제2조(第二條)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集會)는 이 헌법의 공포일(公布日)로부터 1년(一年) 이내(以內)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臨機)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集會日)로부터 개시(開始)되고 1967년(一九六七年) 6월(六月) 30일(三十日)에 종료(終了)된다.
 제3조(第三條)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條約)은 이

헌법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는 한(限) 그 효력(效力)을 지속(持續)한다.
 제4조(第四條)
 ① 특수범죄(特殊犯罪) 처벌(處罰)에 관한 특별법(特別法), 부정선거관계자 처벌법, 정치활동 정화법 및 부정축재 처벌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效力)을 지속(持續)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 정화법 및 부정축재 처벌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改廢)할 수 없다.
 제5조(第五條)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裁判), 예산 또는 처분(處分)은 그 효력(效力)을 지속(持續)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提訴)할 수 없다.
 제6조(第六條)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任員)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變更)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後任者)가 선임(選任)될 때까지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제7조(第七條)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職務)를 행하고 있는 기관이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職務)를 행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 시행 후 1년(一年) 이내(以內)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회의의 구성시기(構成時期)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第八條)
 국토수복(國土收復) 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第九條)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 국무원령과 각령(閣令)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끝-

민주주의의 새 전통 확립

국민투표(國民投票) 결과에 박(朴)의장(議長) UPI에 특별기고(特別寄稿) 전문(全文)

한나라에서 진정한 제민주이념(諸民主理念)은 대외적(對外的)으로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정치적 부패 및 사회악(社會惡)의 방지(防止)와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건설을 위한 최선의 수단(手段)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고귀(高貴)한 이념은 독재(獨裁), 부패(腐敗) 및 정치적 무능의 강압(強壓)을 받아 이 땅에 싹트려 할 때 유린(蹂躪), 희생(犧牲)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지난 15년 간(十五年間)의 한국(韓國) 민주정치(民主政治)사(史)였다.
 이토록 불건전(不健全)한 정치적 풍조(風潮) 가운데서도 한국민(韓國民)들은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기반(基盤) 위에 민주주의를 재건(再建)할 것을 열망(熱望)해 왔으며 바로 군사혁명(軍事革命)은 그와 같은 국민의 열망(熱望)에 자극(刺激)을 받아 이 목적의 실현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이 기본적(基本的)인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보장받는 곳에서만 성장하며 또 이와 같은 과업(課業)을 수행하는 것이 혁명정부(革命政府)가 스스로 과(課)한 가장 중대(重大)한 정치과제(政治課題)란 것은 나의 확고(確固)한 신념(信念)이다.
 그러므로 12월 17일(十七日) 한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의 의의(意義)는 혁명정부(革命政府)가 제의(提議)한 개헌안(改憲案)이 국민의 압도적(壓倒的) 지지(支持)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투표가 가장 민주적(民主的)이며 자유(自由)로운 분위기(雰圍氣) 가운데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며 한국 국민들은 당연히 이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로써 민주주의의 새 전통을 확립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국민으로서의 진정한 자부심(自負心)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와 같은 전통과 자부심이 오랫동안 우리들 후손(後孫) 사이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삼공화국(第三共和國)의 기틀이 될 새 헌법의 확정(確定)은 혁명정부(革命政府)의 공약(公約)에 따른 민정이양(民政移讓)의 과업(課業)이 원활히 진행 중(進行中)임을 입증(立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통과 헌법질서 하(憲法秩序下)에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꾸준한 발전을 이룩할 것임을 확신할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혁명>에 관한 것

도덕중정운동(道德重整運動) 창간호(創刊號) 김기석(金基錫)

내일(來日)을 위하여 창간호(創刊號) 유봉영(劉鳳榮)

‘무(無)’와 ‘유(有)’의 교차로(交叉路)에서 창간호(創刊號) 김형석(金亨錫)

나를 찾는 길 창간호(創刊號) 임동선(林東善)

5·16혁명(五·一六革命)과 우리의 각오(覺悟) 2호 김형석(金亨錫)

김성식(金成植)

준법정신(遵法精神)과 사회연대의식(社會連帶意識) 3호 홍승면(洪承勉)

5·16혁명(五·一六革命)과 민주국력배양(民主國力培養)의 길 3호 전해중(全海宗)

정신혁명의 건설적(建設的) 과제(課題) 3호 김형석(金亨錫)

8·15감격(八·一五感激)과 민족(民族)의 단결(團結) 최현배

4호 김중문(金宗文)

끝에서 시작한다 4호 이정자(李貞子)

견디는 마음 4호 이은상(李殷相)

애국(愛國)이란 것 5호 이은상(李殷相)

협조정신(協助精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5호 윤영춘(尹永春)

신앙(信仰)과 생활(生活) 5호 임동선(林東善)

바른 생각은 곧 힘이다 6호 성인기(成仁基)

군인의 교양(教養)과 인품(人品) 6호 홍중인(洪鍾仁)

먼저 알아야 할 것 6호 조풍연(趙豐衍)

군인과 신앙(信仰) 6호 임동선(林東善)

혁명의 주체성(主體性)을 확립하자 8호 홍승면(洪承勉)

자기충실(自己充實)의 종착점(終着點) 8호 신일철(申一澈)

군인과 행동(行動) 8호 김중문(金宗文)

생산적사고(生產的思考)와 창의적(創意的) 행동(行動) 8호 유철중

행동(行動)이란 무엇인가? 8호 장병림(張秉琳)

민족성 개조(民族性改造)와 국가재건 9호 김성식(金成植)

공중도의(公衆道義)와 개인의 자각(自覺) 9호 권순영(權純永)

9호 조풍연(趙豐衍)

9호정비석(鄭飛石)

김투론(論) 9호 성백선

공짜론(論) 9호 이녕희(李寧熙)

강패론(論) 9호 최요안(崔要安)

백론(論) 9호 정세웅(鄭世雄)

일기(日記) 9호 김팔봉(金八峰)

국가재건에의 길 10호 홍중인(洪鍾仁)

혁명 제삼단계(第三段階)와 군인의 자세(姿勢) 10호

개인주의(個人主義)와 공동체정신(共同體精神) 10호

한국사회구조(韓國社會構造)의 특질(特質)과 민주주의 10호 이만갑(李萬甲)

한국혁명(韓國革命)과 역사(歷史)의 전기(轉機) 10호 김기석(金基錫)

3·1정신(三一精神)과 민족(民族)의 진로(進路) 11호 유진오(俞鎭午)

민족중흥(民族中興)을 위한 대개혁(大改革) 12호 김자환(金子煥)

정체(停滯)에서 다시 건설로 12호 서용찬(徐用燦)

한국의 의지를 의양(宜揚) 12호 조용중(趙庸中)

사회의 정의(正義)를 구현(具現) 12호 오소백(吳蘇白)

본래의 자세(姿勢)를 찾아 12호 신우식(申禹植)

과학적(科學的) 사고(思考)와 인습(因習) 13호 송기철(宋基澈)

군인가족(軍人家族)과 특권의식(特權意識) 14호 한학수(韓鶴朱)

14호 박원석(朴元錫)

군인과 신뢰감(信賴感) 14호 이희승(李熙昇)

인화(人和)라는 것 16호 김윤경(金允經)

단결(團結)이라는 것 16호 18호

건국이념(建國理念)과 국가재건 18호 김동하(金東河)

18호 김계숙(金桂淑)

인격과 명예(名譽) 18호 이은상(李殷相)

명예심(名譽心)은 가치적(價值的)인 욕구(慾求)다 18호 김정옥(金貞玉)

한국인(韓國人)의 수치심 18호 한학수(韓鶴朱)

군인과功名심(功名心) 18호 성인기(成仁基)

명예(名譽)와 평판(評判) 18호

<생활실천(生活實踐)>에 관한 것

군인에의 의견(意見) 2호 김중문(金宗文)

나의 직업(職業)과 생활(生活) 3호 지명인사(知名人士)

생활양식(生活樣式)의 전환을 말한다 3호 좌담회(座談會)

3호 좌담회(座談會)

재건가계부(再建家計簿) 3호 김성태(金聖泰)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4호 홍승면(洪承勉)

이렇게 하자 4호 지명인사(知名人士)

손발이 맞아야 한다 5호 이희승(李熙昇)

일과(日課) 후의 생활(生活)을 말한다 5호 좌담회(座談會)

5호 좌담회(座談會)

재건좌우명(再建座右銘) 7장(七章) 6호 주운호(朱允鎬)

6호 앙케이트

나는 이렇게 실천했다 6호 앙케이트

민주주의사회(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자기관리(自我管理) 7호 이종우(李鍾雨)

7호 이종우(李鍾雨)

생활(生活)의 개혁(改革)과 창조(創造) 7호 한태수(韓太壽)

7호 한태수(韓太壽)

군인이 지녀야 할 일곱 가지 생활형(生活型) 7호 김중문(金宗文)

서어비스정신(精神)과 사회생활(社會生活) 9호	박술음(朴術音)
공군(空軍)과 그이와 생활(生活)과 10호	좌담회(座談會)
분업(分業)과 책임관념(責任觀念) 11호	최태호(崔台鎬)
통계(統計)와 우리 생활(生活) 11호	육지수(陸芝修)
연구하는 태도(態度)부터 11호	강신표(姜信杓)
시간관념(時間觀念) 11호	정비석(鄭飛石)
파벌의식(派閥意識) 11호	진혜린
허례허식(虛禮虛飾) 11호	오애영
관존민비(官尊民卑) 11호	윤석중(尹石重)
탁상공론(卓上空論) 11호	조풍연(趙豊衍)
우유부단(優柔不斷) 11호	민철용(閔哲雄)
내핍생활(耐乏生活)과 국가재건 11호	유덕천(柳德天)
나태한 생활(生活)과 정신적 불안(精神的 不安) 11호	유석진(兪碩鎭)
건-지-근(健-知-勤)의 생활(生活)과 그 사회적의의(社會的意義) 11호	변영태(卞榮泰)
자연(自然)과 정서생활(情緒生活) 11호	손경석(孫慶錫)
업무관리(業務管理)의 능률화(能率化)를 위하여 13호	이상조(李相助)
사무조직(事務組織)과 인간관계(人間關係) 13호	박연호(朴璉鎬)
특성조직(特性組織)을 통한 업무능률(業務能率) 13호	이해원(李海元)
권한과 책임(責任) 13호	권정식(權楨植)
군인과 가정(家庭) 13호	강득순(姜得順)
한국가정(韓國家庭)의 특수성(特殊性)과 개혁(改革)의 방향(方向) 13호	강만춘(姜萬春)
군인가족(軍人家族)에게 들이는 하나의 13호	실례(實例)
군인가정(軍人家庭)을 말한다 13호	좌담회(座談會)
보람과 자랑과 조심과 13호	강영숙
남편의 계급과 아내의 위치 13호	권영애(權英愛)
군인가족(軍人家族)에게 드리는 글 15호	복혜숙(卜惠淑)
군인과 말씨 15호	최현배
타성(惰性)과 실천 17호	박술음(朴術音)
우유부단(優柔不斷)의 성격(性格) 17호	김덕보(金德寶)
판단(判斷)의 오류(誤謬)와 실천 17호	김석환(金石桓)
이론과 계획의 결함(缺陷) 17호	노헌호(盧憲鎬)
무계획(無計畫)에서 오는 것 17호	배민홍(裵敏洪)
좋은 분위기 명량한 생활 17호	좌담회(座談會)
의지박약(意志薄弱)에서 오는 것 17호	유덕천(柳德天)
군인과 멋 17호	조풍연(趙豊衍)
군인과 꿈 17호	추국희(秋菊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것 4호	번역
자유(自由)를 지키는 사람들 4호	번역
미국이여 우리를 도우라 10호	J.휘그레스
민주주의원리(民主主義原理) 세미나 10-18호	김낙봉
그들은 이렇게 문(門)을 열었다 12호	번역
씨저이래(以來)의 번영(繁榮) 13호	번역

풍요(豐饒)한 사회 13호	로스도우
주인노릇 해야지 16호	차기벽(車基璧)
책임(責任)과 제도와 생활(生活) 16호	권순영(權純永)
누구나 통할 수 있다 16호	김재준(金在俊)
바쁘면 돌아가라 16호	김옥길(金玉吉)
먼저 깨우쳐야겠다 16호	이상은(李相殷)
과학하는 마음 16호	최태호(崔台鎬)
한국민주주의(韓國民主主義)가 디디고 16호	서야 할 것
미국민주주의(美國民主主義)의 바탕 16호	신일철(申一澈)
프랑스 민주주의의 바탕 16호	임영신(任永信)
민주주의의 역정(歷程) 17호	김경안(金卿岸)
<반공(反共)>에 관한 것 17호	김기석(金基錫)
반공구국(反共救國)의 길 2호	한계덕(韓載德)
최근(最近)의 공산권(共產圈) 동향(動向) 3호	김창순(金昌順)
소련의 암 딸라장수 3호	번역
붉은 지역의 종점(終點) 8호	번역
소련의 시(詩)와 시인(詩人) 10호	번역
중공치하(中共治下)의 지식인(知識人) 10호	정죽원(鄭竹園)
공산주의세미나 11-18호	이동현(李東賢)
스타린 격하운동(格下運動) 11호	번역
소련의 간첩망(間諜網) 11-13호	존-에드가-후버
공산주의 전략의 이론적 배경(理論的背景) 12호	김창순(金昌順)
적의 허위의전(虛爲宣傳)을 분쇄(粉碎)하는 길 12호	한계덕(韓載德)
북한의 년센스 12호	번역
동독(東獨)의 농민(農民) 12호	번역
'후'의 디렘마 13호	C.P.갓 벨
오월동주(吳越同舟)하는 후모(毛) 13호	번역
철(鐵)의 장막(帳幕) 뒤의 삼각갈등(三角葛藤) 13호	김종렬(金鍾烈)
국제연합(國際聯合)과 소련의 흥계(凶計) 13호	번역
구라과의 만리장성(萬里長城) 11-14호	번역
공산사회(共產社會)의 장래 11-14호	번역
반공태세(反共態勢)의 전진적 자세(前進的姿勢) 14호	박관수(朴寬洙)
북괴(北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 14호	이철주(李喆周)
625와 나 14호	김팔봉(金八峰)
피난길 14호	최태응(崔泰應)
누가 휴전협정을 위반(違反)하고 있다 15호	김중수(金鍾洙)
7.27휴전(七·二七休戰)과 공산전략(共產戰略)의 전환 15호	유완식(兪完植)
소련의 죄악(罪惡)과 그들의 생활주변(生活周邊) 15호	김청범(金靑凡)
중공(中共)의 내중(內腫) 16호	번역
허위(虛偽)의 예술 16호	번역
소련진단(蘇聯診斷) 17호	번역
소련의 거부권(拒否權) 100회가 의미하는 것 18호	김창순(金昌順)
중공군(中共軍)의 파쟁(派爭)과 모순(矛盾) 18호	번역
소련 농업(農業)의 실태(實態) 18호	번역
맑스이론의 파탄(破綻) 18호	갈부레이스

후기(後記)

『미사일』기간내용(既刊內容)을 분석하고 1961년 4월에 『미사일』창간호(創刊號)를 낸 이래 이번 송년호(送年號)로서 제 20호가 나왔다. 그간 호(號)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더해 왔다고 감히 자부(自負)해 본다. 그러나 물론 아직도 발간목적(發刊目的)에 완전 합치(合致)되는 내용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편집 당사자(當事者)들은 이 점에 더욱 명심할 것이며 본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다.



이제 62년 송년호(送年號)를 내면서 창간(創刊) 이래 1년 9개월 간에 걸친 본지(本誌)의 기간분(既刊分) 내용을 총평가(總評價)해 보는 독자(讀者)의 비판(批判)을 받는 동시에 참고(參考)도 될 것이 라는 관점(觀點)에서 다음에 그 자료를 소개(紹介)한다. 일, 본지는 1961년 4월에 창간하여 1962년 12월 송년호로서 통권 20호가 되었다. 그간 발행(發行)한 총지면(總紙面)은 1,676Page이며 약 550여건의 기사(記事)를 취급하였다. 이, 본지(本誌)의 성격(性格)은 교양지(敎養誌)이며 편집(編輯)은 공군정훈교육(空軍政訓敎育)을 뒷받침함을 원칙(原則)으로 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호(每號)마다 당해(當該) 월간(月間) 정훈교육(政訓敎育) 착안점(着眼點)에 주안(主眼)을 두어 직접적(直接的)인 교육사항(敎育事項)을 간접적(間接的)으로 보강(補強)하는 역할을 한다는 노선(路線)을 밟아 왔다. 예를 들면 매호(每號)마다 시도(試圖)된 특집(特輯)은 정훈교육(政訓敎育) 월간(月間) 착안점(着眼點)에 근거(根據)를 두었고 다음에 소개(紹介)하는 각종목(各種目)마다 그것 이 음(陰)으로 양(陽)으로 풍겨지게끔 꾸며왔다.

삼, 본지(本誌) 편집(編輯)은 크게 나누어 다음 다섯 가지 내용이 기본(基本)으로 되어 있다. A. 정신혁명에 관한 것 B. 생활실천(生活實踐)에 관한 것 C. 민주주의 육성(育成)에 관한 것 D. 반공(反共)에 관한 것 E. 일반교양(一般敎養)에 속(屬)하는 것 이것을 더욱 세분(細分)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① 정신혁명, ② 생활실천(生活實踐), ③ 민주주의, ④ 반공(反共), ⑤ 수기(手記), 보고(報告), 루포, ⑥ 군사(軍事) 과학, 전기(傳記), ⑦ 기행문(紀行文), ⑧ 독서(讀書), ⑨ 좌담회(座談會), ⑩ 일반교양(一般敎養), ⑪ 해설(解說), ⑫ 취미(趣味), 오락(娛樂), ⑬ 군내 현상논문(軍內懸賞論文), ⑭ 장병(將兵)페이지, ⑮ 소설(小說), ⑯ 시(詩), ⑰ 수필, ⑱ 만화(漫畫), ⑲ 화보(畫報), ⑳ 부록(附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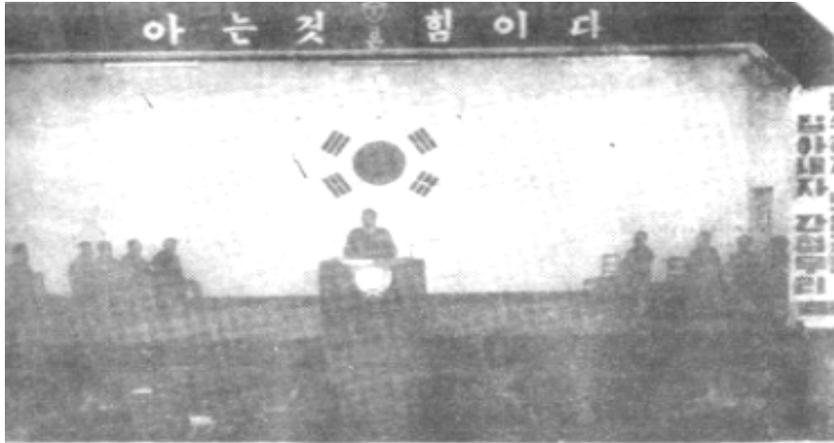
사, 이상 20개(二十個) 분류(分類) 중의 중요한 종목(種目)의 내용기준(內容基準)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신혁명 - 정신혁명을 이룩하는 이론 방법, 실증(實證)
- ② 생활실천(生活實踐) - 생활혁명(生活革命)은 관념적(觀念的)인 사고(思考)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強力)한 실천에서만 기할 수 있다는 관점(觀點)에서 이에 관한 이론 방법, 실증(實證), ③ 예,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올바른 육성을 위한 이론 방법, 실증(實證)과 예
- ④ 반공(反共) - 반공(反共)의 이론, 공산사회(共產社會)의 실태(實態)를 소개(紹介)
- ⑤ 수기(手記), 보고(報告), 루포 - 반공(反共), 전투실기(戰鬪實記), 국가재건사업의 보고(報告)와 그 탐방기(探訪記)
- ⑥ 군사(軍事) 과학, 전기(傳記) - 군사이론(軍事理論) 일반, 전략, 전술(戰術), 항공(航空), 무인전기(武人傳記) 등을 수록(收錄)하여 군인정신(軍人精神)을 함양
- ⑦ 기행문(紀行文) - 주로 선진국(先進國)에서의 견문(見聞)을 통한 그들의 물심양면(物心兩面)에 걸친 생활양상(生活樣相)을 소개(紹介).
- ⑧ 좌담회(座談會) - 영내외(營內外)에 걸쳐 군인들의 생활혁명(生活革命)·정신혁명문제(精神革命問題)를 주제(主題)삼았음.
- ⑨ 소설(小說), 시(詩), 수필 등 문예작품(文藝作品)에 있어서도 정신혁명, 생활실천(生活實踐)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각호(各號)마다는 가급적 당해 월간(月間) 정훈교육(政訓敎育) 착안점(着眼點)을 내용으로 하였음.

오, 창간호(創刊號)에서 20호까지의 총내용(總內容)(기사(記事) 분석을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 취급건수(取扱件數), ◀ = 배정지면 수(配定紙面數))

정신혁명	< 56,	◀ 136	9%
생활실천(生活實踐)	< 49,	◀ 114	7%
민주주의	< 17,	◀ 68	4%
수기(手記), 보고(報告), 루포	< 29,	◀ 84	8%
군사(軍事) 과학, 전기(傳記)	< 27,	◀ 115	7%
기행문(紀行文)	< 7,	◀ 24	2%
독서(讀書)	< 19,	◀ 31	2%
좌담회(座談會)	< 8,	◀ 33	2%
일반교양(一般敎養)	< 64,	◀ 186	11%
해설(解說)	< 19,	◀ 33	2%
취미(趣味), 오락(娛樂)	< 18,	◀ 88	5%
현상논문(懸賞論文)	< 7,	◀ 27	2%
장병(將兵)페이지	< 36,	◀ 26	2%
소설(小說)	< 24,	◀ 76	4%
시(詩)	< 31,	◀ 39	3%
수필	< 51,	◀ 62	4%
부록(附錄)	< 3,	◀ 11	0.5%

이상의 배분율은 지면배정(紙面配定)이며 정확한 수자(數字)는 아니다. 그것은 내용의 이중성(二重性)이 심(甚)하며 분류(分類) 자체(自体)도 정확할 수는 없다. 내용은 다르나 동질적(同質的)인 것이 많으며 이를 테면 좌담회(座談會), 기행문(紀行文), 전기(傳記) 등 그 밖에 전술(전술) 기사(記事)에 걸쳐서 정신혁명, 생활실천, 반공민주주의의 육성(育成)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기타가 약 50건 있으며 이것이 약 38Page를 차지하고 있다. 연말(年末)이 되면 누구나 감상적(感傷的)이 되는가보다. 진눈개비를 맞으며 송년호(送年號) 마지막 교정(校正)을 보러 가던 날 편집실에선 『미사일』기간분(既刊分) 내용분석(內容分析) 결과보고서(結果報告書)를 지마나 깊은 감회에 잠겨, 지면(紙面) 하나하나에 갖는 자기대로의 사연들을 회고하면서 연말(年末)을 좀 더 실감(實感)했다. 특집으로 62년(年) 회고와 겨울밤이면 생각나는 일들들을 꾸며다. 모두 지나간 어제에서 밝아오는 내일을 맞기 위한 최후의 '자기점검(自己點檢)'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달의 말 '돌이켜 보는 마음도 귀중한 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휘관(指揮官) 특별정훈교육(特別政訓教育) 실시

각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확고한 승공 민주재건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고자 군내 각급 지휘관 특별 정훈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은 육군 정훈학교에서의 입교식 광경>



중앙활공훈련소(中央滑空訓練所) 창설

학생 특수체육활동 계획에 의거한 활공훈련을 담당키 위해 중앙 활공훈련소가 창설되어 하늘을 동경하는 젊은 꿈들을 마음껏 퍼주게 되었다.
<사진은 동 창설식 광경>



10월2일행사(十月二日行事) 유공(有功)장병 표창(表彰)

10월2일(十月二日) 행사 유공장병과 문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표창장 참모총장 표창장 및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사진은 표창자 일등과 장참모총장, 박참모차장의 기념촬영>

일미공군(駐日美空軍)서 순천재민(順天災民)에 의(衣)??

지난여름 불의의 홍수로 큰 충격을 받고 그 복구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순천지구 수재민에게 주일 미공군과 그 가족들이 약 2천 파운드의 의류를 구호품으로 보내 왔다.
<사진은 동 구호품>



미사일

제 20 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